

논어(論語)

대법(大法)은 창세주(創世主)의 지혜이다. 그는 천지개벽[開天闢地]·우주조화[造化宇宙]의 근본으로, 내포가 지극히 홍대하고 미세하며, 부동(不同)한 천체 층차(層次) 중에 부동한 펼쳐보임[展現]이 있다. 천체의 가장 미세적인 데에서 가장 미세적인 입자의 출현까지, 층층의 입자는 무량무계(無量無計)하며,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또 인류가 알고 있는 표층의 원자·분자·성체(星體)·성계(星系)에서 더욱 큰 것에 이르기까지, 부동한 크기의 입자가 부동한 크기의 생명과 우주 천체에 두루 퍼져 있는 부동한 크기의 세계를 조성(組成)했다. 부동한 층차의 입자 본체(本體) 상의 생명으로서 말하자면, 이 한 층 입자보다 큰 입자가 바로 그들 하늘 중의 별[星球]인바, 층층이 이러하다. 우주 각층의 생명으로서 말하자면 무궁무진하다. 대법은 또 시간·공간·수많은 종류의 생명 및 만사만물(萬事萬物)을 만들었으며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고 빠뜨리는 것이 없다. 이는 대법(大法) 眞(眞)·善(善)·忍(忍) 특성의 부동한 층차에서의 구체적인 체현(體現)이다.

인류의 우주·생명에 대한 탐색 방식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다만 저층 우주 중의 인류가 존재하는 공간 일부를 통찰[洞見]하고 있을 뿐이다. 사전(史前) 인류에게 출현한 여러 차례 문명 중에서 모두 다른 별[星球]을 탐색한 적이 있지만, 아무리 높이 아무리 멀리 날았다 하더라도 인류가 존재하는 공간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류가 우주의 진실한 펼쳐보임[展現]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인류가 우주·시공·인체의 수수께끼[迷]를 요해(了解)하려면 오직 정법(正法) 중에서 수련하여 정각(正覺)을 얻고 생명의 층차를 제고해야만 한다. 수련 중에서 또한 도덕 품성을 제고할 수 있고, 진정한 선과 악·좋고 나쁨을 분별해내며 인류의 층차를 벗어나고 동시에, 비로소 진실한 우주 및 부동한 층차, 부동한 공간의 생명을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

인류의 탐색은 기술 경쟁을 위한 것이고 구실은 생존 조건을 개변한다는 것인데, 많게는 신을 배척하고 인류의 도덕적 자아 단속을 방종하는 것에 기초를 두었다. 이런 이유로 과거 인류에게 출현했던 문명이 여러 차례 휘멸되었다. 탐색도 물질세계 내에 국한될 수 있을 뿐이고, 방식상에서는 한 가지 사물이 인식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연구한다. 그러나 인류 공간 중에서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존재

하며, 또 확실하게 인류의 현실 중으로 반영되어 올 수 있는 현상은, 정신(精神)·신앙(信仰)·신언(神言)·신적(神跡)을 포함하여, 신을 배척하는 작용하에 지금껏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만약 인류가 도덕을 기초로 사람의 품행과 관념을 제고할 수 있으면, 인류사회의 문명은 비로소 장구(長久)할 수 있고 신적(神跡)도 인류사회에 다시 출현할 것이다. 과거 인류사회 중에도 반신반인(半神半人) 문화가 여러 차례 출현해 인류로 하여금 생명과 우주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제고하게 했다. 인류가 세간에서의 대법의 표현에 대해 마땅히 있어야 할 경건과 존중을 체현할 수 있으면, 사람과 민족 혹은 국가에 행복 또는 영예를 가져다줄 것이다. 천체·우주·생명·만사만물은 우주 대법이 개창(開創)한 것인바, 생명이 그에 어긋나면 곧 진정한 파괴(敗壞)이고, 세인이 그에 부합할 수 있으면 진정한 좋은 사람이며 동시에 선보(善報)와 수복[福壽]이 따를 것이다. 수련인으로서 그에 동화하면 당신은 바로 득도자(得道者)——신(神)이다.

리홍쯔(李洪志)

2015년 5월 24일

차 례

제 1 강

진정하게 고층차(高層次)로 사람을 이끌다	1
부동(不同)한 층차(層次)에는 부동한 층차의 법이 있다	9
眞(眞)·善(善)·忍(忍)은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	15
기공(氣功)은 사전문화(史前文化)다	20
기공(氣功)은 곧 수련(修鍊)이다	26
왜 연공(煉功)해도 공(功)이 자라지 않는가	30
法輪大法(파룬파파)의 특징	45

제 2 강

천목(天目)에 관한 문제	57
요시공능(遙視功能)	77
숙명통공능(宿命通功能)	80
오행(五行) 중에 있지 않고, 삼계(三界) 밖으로 벗어나다	88
구하고자 하는 문제	96

제 3 강

나는 수련생을 모두 제자로 여긴다	111
불가공(佛家功)과 불교(佛教)	113

수련(修煉)은 전일(專一)해야 한다	120
공능(功能)과 공력(功力)	126
반수(返修)와 차공(借功)	127
부체(附體)	138
우주어(宇宙語)	149
스승은 수련생에게 어떤 것들을 주었는가	153
에너지장(能量場)	165
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생은 어떻게 공(功)을 전하는가	167

제 4 강

실(失)과 득(得)	173
업력(業力)의 전화(轉化)	176
心性(쥬쥬) 제고	193
관정(灌頂)	203
현관설위(玄關設位)	209

제 5 강

法輪(파룬) 도형	221
기문공법(奇門功法)	225
사법연마(練邪法)	228
남녀쌍수(男女雙修)	233
성명쌍수(性命雙修)	236
법신(法身)	239
개광(開光)	241
축유과(祝由科)	253

제 6 강

주화입마(走火入魔)	255
연공초마(煉功招魔)	271

자심생마(自心生魔)	283
主意識(주이스)가 강해야 한다	292
마음이 반드시 똑발라야 한다	294
무술기공(武術氣功)	306
과시심리(顯示心理)	313

제 7 강

살생 문제(殺生問題)	321
육식 문제	329
질투심	340
병 치료 문제	349
병원 치료와 기공 치료	358

제 8 강

벽곡(辟穀)	367
기(氣)를 흠치다	371
기(氣)를 채집하다	376
누가 연공(煉功)하면 바로 그가 공(功)을 얻는다	381
주천(周天)	393
환희심(歡喜心)	409
수구(修口)	413

제 9 강

기공(氣功)과 체육(體育)	417
의념(意念)	422
청정심(淸淨心)	433
근기(根基)	441
깨달음(悟)	445
대근기지인(大根器之人)	456

제 1 강

진정하게 고층차(高層次)로 사람을 이끌다

나는 법(法)을 전하고 공(功)을 전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수련생에 대해 책임짐에 따라 거둔 효과가 좋았으며,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도 비교적 좋았다. 몇 년 전에 많은 기공사들이 공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한 것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한 층차에 속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공법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고층차(高層次)의 것을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고 할 뿐이다. 전국의 기공 형세를 나도 다 알고 있다. 국내외에서, 진정하게 고층차로 공을 전하는 것은 현재 나 한 사람만이 하고 있다. 왜 고층차로 공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에 연관되는데, 연관되는 역사 연원(淵源)이 아주 깊고, 연관되는 면도 아주 넓으며, 관련되는 문제도 아주 첨예(尖銳)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시 일반인이 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많은 공파(功派)의 것을 건드리는 것에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많은 연공인(練功人), 그가 오늘은 이 공(功)을 배우고 내일은 저 공을 배워 자신의 신체를 난잡하게 만드는데, 그는 필연적으로 수련해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한 갈래 큰길에서 위로 수련하고 있지만, 그는 모두 갈림길이라 그가 이것을 수련하면 저것이 교란하고, 저것을 수련하면 이것이 교란하는데, 모두 그를 교란하고 있어 그는 이미 수련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모두 정리해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제거해 버림으로써 당신이 앞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보증하지만, 반드시 진정으로 대법(大法)을 배우러 온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각종 집착심을 품고 와서, 공능(功能)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며, 이론이나 좀 들으려 하고, 또는 무슨 좋지 않은 목적을 품고 온다면 이것은 모두 안 된다. 내가 말했듯이 이 일은 오직 나 한 사람만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기회가 많지 않고 나 역시 늘 이렇게 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생각에, 내가 공을 전하고 설법하는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장래에 당신은 알게 될 텐데, 당신은 이 시간이 매우 보람찼다고 여길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연분(緣份)을 중시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연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고층차로 공을 전함은 무슨 문제인가? 그것은 곧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제도함

이라, 당신은 진정으로 수련하는 것이지, 단지 병을 제거하고 몸이나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수련은 수련생의 心性(심성)에 대한 요구도 높게 마련이다.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법(大法)을 배우러 온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진정한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고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며, 당신은 집착심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각종 구하려는 목적을 품고 와서 공(功)을 배우고 대법(大法)을 배우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겠다: 사람의 전반 수련과정은 바로 끊임없이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속인사회 중에서 서로 다투고 빼앗고, 서로 속이고 속이면서 개인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이런 마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우리 오늘날 공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더욱 내려놓아야 한다.

나 여기에서는 병 치료를 말하지 않으며, 우리는 병을 치료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진정하게 수련하려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병 있는 몸을 가지고서는 당신은 수련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의 신체를 정화(淨化)해 주려고 한다. 신체 정화는 오직 진정하게 공을 배우러 온 사람, 진정하게 법을 배우러 온 사람에게만 국한한다. 우리는 이 점을 강조한다: 당신이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당신이 그 병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을 어찌할 방도가 없다. 무엇 때문인가? 이 우주 중에는, 불가(佛家)의 말에 의하면, 속인 중의

일은 모두 인연(因緣) 관계가 있어서 속인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존재한다는,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예전에 나쁜 일을 하여 생긴 업력(業力) 때문에 병이나 마난(魔難)이 조성된다. 고통을 겪음은 바로 업력의 빚을 갚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고칠 수 없는데, 고친다면 빚을 지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고; 또 함부로 제멋대로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나쁜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남의 병을 치료해 주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을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내가 보기에는 모두 병을 진정하게 치료하지 못했는데, 모두 병을 미루어 놓았거나 전화(轉化)했을 뿐, 그것을 없애버리지는 못했다. 진정하게 이 난(難)을 제거하려면 업력을 없애버려야 한다. 만약 진정하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업력을 철저히 없애버리는, 여기에 진정 도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층차는 역시 낮지 않다. 그는 이미 한 가지 이치를 보았는데, 속인 중의 이치는 함부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련과정 중에서, 수련자가 자비심에서 일부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 병을 치료하며,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이것은 허용하지만,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해 줄 수는 없다. 만약 정말로 속인의 병을 뿌리째 없애버릴 수 있다면, 수련하지 않는 한 속인이 아무 병도 없이 여기서 나간다 해도, 문만 나서면 여전히 속인이므로 개인 이익에서 여전히 속인과 마찬가지로

지로 쟁탈할 것인데, 어떻게 그의 업력을 함부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해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수련하는 사람이 가장 진귀하기 때문이다. 그가 수련하려 하기에 내보내는 이 일념(一念)이 가장 진귀한 것이다. 불교 중에서는 불성(佛性)을 말하는데, 불성이 나오기만 하면 각자(覺者)들은 그를 도와줄 수 있다. 무슨 뜻인가? 내가 말하겠는데, 나는 고층차에서 공을 전하기 때문에 고층차 중의 이치와 관련되며, 관련되는 문제가 매우 크다. 이 우주 중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보면, 속인사회 중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진정한 생명의 생성(產生)은 우주공간 중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 우주 중에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많고 많은 각종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상호운동하에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최초 생명은 우주 중에서 온 것이다. 우주공간은 본래 선량한 것이고, 眞(眞)·善(善)·忍(忍),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태어나서는 우주와 동성(同性)이었다. 그러나 생명체가 많이 생겨나자 일종의 군체(群體)적 사회관계가 발생했다.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아마 사심(私心)이 증가됨으로써 그들의 층차가 서서히 낮아져 이 한 층차 중에 있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들은 곧 아래로 떨어져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한 층차 중에서 또 그다지 좋지 못하게 변해 그들은 또 있지 못하게 되었고, 계속 아래로 떨어져 최후에는 인류 이 한 층차 중까지

떨어져 내려왔다.

온 인류사회는 모두 한 층차 중에 있다. 이 일보에 떨어진 것을 공능의 각도에서 보거나 혹은 대각자(大覺者)의 각도에서 보면, 본래 이런 생명체들은 마땅히 없어져야 했다. 그러나 대각자들은 자비심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 차례 기회를 주려고 이런 특수한 환경, 특수한 공간을 구성했다. 이 공간의 생명체는 우주 중의 모든 공간의 생명체들과는 다 다르다. 이 공간의 생명체는 다른 공간의 생명체를 보지 못하고, 우주의 진상(眞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미혹 중에 빠진 것과 같다. 만약 병을 낫게 하고 난(難)을 제거하며 소업(消業)하려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련하고, 반본귀진(返本歸眞)해야 하는데, 이것을 각종 수련 중에서는 모두 이렇게 본다. 사람이 반본귀진하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된 진정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수련하려고 생각하면 불성(佛性)이 나왔다고 본다. 이 일념(一念)이 가장 진귀하다. 왜냐하면 그가 반본귀진하려 하고, 속인 이 층차 중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아마 불교 중에 이런 한 마디 말이 있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불성이 나오면十方세계(十方世界)를 진동한다. 누가 보든지 모두 그를 도와주려 하며, 조건 없이 그를 도와준다. 불가는 사람을 제도함에 조건을 논하지 않고, 대가도 없으며, 조건 없이 그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련생들에게 아주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속인으로서는

다만 속인이 되려는 사람, 그가 병을 낫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내 병이 나오면 나는 수련하겠다. 수련에는 어떤 조건도 없는바, 수련하려고 생각하면 수련하라. 그러나 병이 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몸에 있는 정보가 여전히 아주 난잡하며, 어떤 사람은 전혀 공을 연마(練)한 적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공을 몇십년 연마했어도 여전히 기(氣)에서 배회하고 있는데, 역시 수련해 올라가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의 신체를 정화(淨化)해 주어 그로 하여금 고층차로 수련할 수 있게 한다. 가장 낮은 층차에서 수련할 때에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당신의 신체를 완전하게 정화해 주어 사상 속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 신체 주위에 있는 업력장(業力場)과 신체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전부 다 청리(清理)해 내보내는 것이다. 청리하지 않으면, 이런 혼탁한 신체, 거무칙칙한 신체와 더러운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고층차 수련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여기에서는 기를 연마(練)하지 않기에 저층차(低層次)의 이런 것들은 당신이 연마할 필요가 없으며, 당신을 밀어주어 당신의 신체가 병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 동시에 우리는 또 저층차에서 기초를 닦아야 할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진 한 세트로 당신에게 넣어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주 높은 층차에서 연공(煉功)하게 된다.

수련의 설에 따르면, 기(氣)를 포함하면, 세 층차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수련[기 연마(練氣) 제외]에는 모두 두 큰 층차가 있다: 하나는 世間法(쓰젠파) 수련이고, 다른 하나는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이다. 이 世間法(쓰젠파)·出世間法(추쓰젠파)는 절에서 말하는 출세간(出世間)·입세간(入世間)과는 다른데,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인체수련의 두 큰 층차의 변화다. 왜냐하면 世間法(쓰젠파) 수련과정 중에서 사람의 신체는 모두 끊임없이 정화(淨化)되고 끊임없이 정화되어, 世間法(쓰젠파)의 최고 형식에 이르렀을 때 신체는 이미 완전히 고에너지물질(高能量物質)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 그것은 기본적으로 불체(佛體)수련이고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신체로서, 모든 공능이 새롭게 다시 나온다.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이 두 큰 층차다.

우리는 연분(緣份)을 중시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으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해줄 수 있다. 우리는 현재 2천여 명이지만, 몇천 명, 심지어 더욱 많은 사람, 만여 명이라도 나는 모두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저층차에서 당신은 더 연마(練)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신체를 정화한 다음에 당신을 밀어주는데, 나는 당신에게 한 세트 완성(完整)한 수련체계를 넣어주어 당신이 시작하자마자 직접 고층차에서 수련하게 한다. 그러나 다만 진정으로 수련하러 온 수련생에 한해서만 해주며, 당신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당신을 곧 수련자라고 할 수는 없다. 사상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에 그치지 않으며, 나중에 당신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주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병 치료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수련생의 신체를 정체(整體)적으로 조정(調整)해 주는 것을 중시하며, 당신이 연공(煉功)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이 병이 있는 신체를 가지고서는 당신은 공이 아예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를 찾아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나 역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내가 나온 가장 주요한 목적은 바로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으로서, 진정하게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부동(不同)한 층차(層次)에는 부동한 층차의 법이 있다

과거에 많은 기공사가 기공에는 무슨 초급·중급·고급적인 것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모두 기(氣)이고 모두 기를 연마(練)하는 그 한 층차 중의 것인데, 또한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었다. 진정한 고층차의 것은 우리 수많은 기공 수련자의 머릿속에는 하나도 없으며, 전혀 모른다. 앞으로 우리가 논술하려는 것들은 모두 고층차 중의 법이다. 또한 나는 수련을 위해 명칭을 바로잡아 주려 한다. 나는 강의 중에 수련계의 일부 불량한 현상을 말하려 한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보는가를 나는 모두 말하려 하며; 또 고층차 중에서 공을 전하고 법을 말하려면 관련되는 면, 관련되는 문제가 모

두 비교적 클 뿐 아니라 심지어 아주 참예하므로 이런 일들, 그것 역시 나는 말하려 하며; 일부 다른 공간에서 오는 우리 속인사회에 대한 교란, 특히 수련계에 대한 교란, 그것 역시 나는 말하려 하고, 동시에 우리 수련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은 공을 연마(煉)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을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하며, 이래야만 비로소 이렇게 할 수 있다. 물론 단번에 당신의 사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당신은 천천히 당신의 사상을 바꾸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주의하여 듣기 바란다. 내가 공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공을 전하는 것과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공을 전하면서 그는 단지 그의 공리(功理)만 간단히 말하고, 그 다음에 정보나 좀 받아들이게 하며, 한 세트 수법(手法)을 가르쳐 주고는 끝낸다.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공을 전하는 데에 익숙해졌다.

진정으로 공(功)을 전하려면 법(法)을 말해야 하고, 도(道)를 말해야 한다. 10회 강의 중에서 내가 고층차의 이치를 모두 명백히 논술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수련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수련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전한 것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한 층차의 것이다. 당신이 고층차로 수련하려 해도 당신을 지도할 고층차 중의 법이 없으면 당신은 역시 수련할 수 없다. 마치 당신이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은데, 당신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대학을 다닌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초등학생이다. 어떤 사람은 배운 공이 많다고 여기는데, 이런 공, 저런 공, 수료증만 해도 그렇게 한 더미나 된다. 그러나 그의 공은 여전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는 이런 것이 바로 기공의 참뜻이며 전부라고 여기는데, 아니다. 그것은 다만 기공의 겉모양이고 최저층차의 것일 뿐이다. 기공은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수련(修煉)으로서 박대정심(博大精深)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동(不同)한 층차에는 또 부동한 법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를 연마(練)하는 것과는 다른데,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영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배웠고, 당신이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배웠으며, 당신이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배웠고, 당신이 중국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배웠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초등학생이다. 기공의 저층학과를 당신이 더 많이 배우고 더 가득 부어넣을수록 당신에게는 오히려 더욱 해로운데, 당신의 몸은 이미 난잡해졌다.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수련은 공을 전하고 법을 말해야 한다. 일부 사원 중의 화상(和尚), 특히 선종(禪宗)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설법한다는 말만 들어도 그는 듣기 싫어한다. 무엇 때문인가? 선종은 인식한다: 이 법은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법은 일단 말하기만 하면 곧 법이 아니므로 말할 법이 없으며, 다만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종은 오늘에 이르러 아무런 법도 말

하지 못한다. 선종의 달마가 이것을 전한 것은 석가모니의 한
 마디 말에 근거했다. 석가모니는 범무정법(法無定法)이라고
 했다. 그는 석가모니의 이 말에 근거해 선종 법문(禪宗法門)
 을 창립했다. 우리는, 이 법문은 곧 쇠뿔 끝을 파고드는 것이
 라고 한다. 어찌하여 쇠뿔 끝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하는가?
 달마가 시작해서 안으로 파고들 때는 그래도 꽤 넓다고 느꼈
 고, 이조(二祖)가 파고들 때는 그리 넓지 못했으며, 삼조(三
 祖)는 그저 그런 정도였고, 사조(四祖)는 이미 매우 좁아져
 버렸으며, 오조(五祖)는 기본상 별로 파고들 곳이 없었고, 육
 조(六祖) 혜능(慧能)에 이르러서는 정점에 도달하여 더는 파
 고들 수가 없었다. 오늘날 당신이 만약 선종에 가서 법을 배
 운다면 당신은 묻지 말라. 당신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에게
 묻기만 하면 뒤돌아 몽둥이로 당신의 머리를 치는데, ‘방할
 (棒喝)’이라고 한다. 그 뜻은, 당신은 묻지 말고 스스로 깨달
 으라는 것이다. 당신은 말할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와서 배우려는 것인데, 무엇을 깨달으란 말인가? 당
 신이 날 몽둥이로 치다니?! 이것은 바로 이미 쇠뿔 끝까지
 파고들어서 더는 무슨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달마, 그마
 저도 육조(六祖)까지만 전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안 된다고
 했다. 몇백 년이나 지났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선종의 이
 치를 한사코 부동켜안고 놓지 않는다. 석가모니가 말한 ‘범무
 정법(法無定法)’의 진정한 함의(涵義)는 무엇인가? 석가모니
 가 있는 층차는 여래(如來)인데, 그 후의 많은 승려를 포함해

모두가 석가모니의 층차, 그의 사상경지 중의 심태(心態), 그가 말한 법의 진정한 함의와 그가 한 말의 진정한 함의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여 아주 혼란스럽게 해석했으며, 법무정법이란 바로 당신이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기만 하면 곧 법이 아니라고 여겼다. 사실 이런 뜻이 아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에서 개공개오(開功開悟)한 후, 단번에 여래 이 층차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는 49년간 내내 법을 전하는 중에도 자신을 끊임없이 제고(提高)했다. 그가 매 층차를 제고할 때마다 돌이켜보면 방금 자신이 말한 법이 모두 맞지 않았다. 다시 제고한 후에 그는 말한 법이 또 맞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가 또 제고한 다음에, 그는 방금 말한 법이 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49년간 내내, 그는 모두 이렇게 끊임없이 승화했으며, 매 층차를 제고한 뒤마다, 그가 이전에 말한 법이 모두 인식상에서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 매 층차의 법은 모두 법의 매 층차 중의 체현(體現)이며, 매 층차에는 모두 법이 있지만, 모두 우주 중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님을 발견했다. 한 층 높은 층차의 법은 한 층 낮은 층차의 법에 비해 우주의 특성에 더 접근했기 때문에 그는 법무정법(法無定法)이라고 했다.

최후에 석가모니는 또 말했다: 나는 일생 동안 아무런 법도 말하지 않았다. 선종은 또 말할 법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 석가모니는 만년(晩年)에 이미 여래 층차에 도달했는데

그는 왜 아무런 법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가? 그는 사실 어떤 문제를 말한 것인가? 그는 말했다: 나는 여래 이 층차에 도달했지만, 나 역시 우주의 최종적인 이치, 최종적인 법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후세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을 절대적인 진리, 변치 않는 진리로 여기지 말도록 했는데, 그렇게 여기게 하면 후세 사람들을 여래 또는 여래 이하 층차 중에 국한하여, 더 높은 층차로 돌파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은 말하기만 하면 곧 법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이해했다. 사실 석가모니는 이것을 말했다: 부동(不同)한 층차에는 부동한 층차의 법이 있으며, 매 층차의 법은 모두 우주 중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지만, 이 한 층차 중의 법은 이 한 층차 중에서는 지도 작용이 있다. 그는 사실 이런 이치를 말했다.

과거에 많은 사람, 특히 선종은 줄곧 이런 일종의 편견과 극단적으로 그릇된 인식을 유지해 왔다. 당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연마(煉)를 지도하고, 어떻게 연마하며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불교 중에는 많은 불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읽어보았을 것이다. 하늘에 올라 천국에 이른 후 위의 『금강경(金剛經)』과 아래의 『금강경』은 매 글자가 모두 다르며 의미도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다. 이 『금강경』과 속인세상의 그 『금강경』은 어찌하여 다른가? 또 어떤 사람은 말했다: 극락세계의 경서(經書)와 아래의 것은 모습이 그야말로 달라 전혀 같은 것이 아니었으며, 글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함의·의미도 전부 다 다르게 변화가 일어났다. 사실 동일한 법이라도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모두 부동한 변화와 현현형식(顯現形式)이 있으며, 수련자에게는 부동한 층차에서 부동한 지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교 중에는 『서방극락세계유람기』라는 소책자가 한 권 있는데, 한 승려가 가부좌하고서 연공(煉功)할 때 元神(웬선)이 극락세계에 가서 경관을 보고 하루 동안 돌아다니다 인간세상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6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다. 그가 보았는가, 보지 못했는가? 보았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진상이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그의 층차가 미치지 못해, 다만 그의 이 층차 중에서 그가 마땅히 보아야 할 불법(佛法)의 체현만을 그에게 현현(顯現)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세계는 바로 법이 구성해 낸 체현이기 때문에 그는 진상을 볼 수 없다. 나는 이 법무정법(法無定法)이란 바로 이런 함의라고 말한다.

眞(쩐)·善(싼)·忍(런)은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불교 중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불법(佛法)인가를 줄곧 탐구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불교 중에서 말하는 법이 곧 불법의 전부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아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법은 다만 2천5백 년 전의 층차가 극히 낮은 그런 속인들, 즉 원시

사회를 갓 벗어나 사상적으로 비교적 단일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 법이었다. 그가 말한 말법시기(末法時期)가 바로 오늘날인데, 지금 사람들은 이미 그 법으로는 수련할 수 없게 되었다. 말법시기에는 절의 화상(和尚)마저도 자신을 제도하기 매우 어려운데, 하물며 남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석가모니가 당시에 전한 법은 그런 정황에 맞추어 전한 것일 뿐, 그도 자신이 있는 층차에서 알고 있는 불법의 전부를 다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영원히 변치 않게 유지하려는 것도 불가능하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으며, 인류의 사상도 갈수록 복잡하게 변해 사람들에게 더는 이렇게 수련해 나가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 불교 중의 법은 전체 불법을 개괄할 수 없으며, 그것은 다만 불법 중의 작디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또 많은 불가대법(佛家大法)이 민간에서 유전(流傳)하고 있으며, 역대로 단독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동(不同)한 층차에 부동한 법이 있고, 부동한 공간에 부동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불법이 각개 공간, 각개 층차 중에서 부동(不同)하게 체현된 것이다. 석가모니도 부처수련에는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불교 중에는 단지 선종(禪宗)·정토(淨土)·천태(天台)·화엄(華嚴)·밀종(密宗) 등 10여 개 법문이 있을 뿐, 불법 전부를 개괄하지 못한다. 석가모니 본인도 그의 법 전부를 전하지 않았고, 단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그것의 일부를 전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법인가? 이 우주 중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眞(眞)·善(善)·忍(忍), 그가 바로 불법의 최고 체현이며, 그가 바로 가장 근본적인 불법이다. 불법은 부동한 층차 중에서 부동한 체현 형식이 있으며, 부동한 층차 중에서 부동한 지도 작용이 있는데, 층차가 낮을수록 표현이 더욱 번잡하다. 공기미립자·돌·나무·흙·강철·인체, 모든 물질 속에는 모두 眞(眞)·善(善)·忍(忍), 이런 특성이 존재하며; 고대에는 오행(五行)이 우주 중의 만사만물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역시 모두 眞(眞)·善(善)·忍(忍), 이런 특성이 존재한다. 수련하는 사람이 어느 층차까지 수련되면 다만 그 층차 중의 불법의 구체적인 체현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련한 과위(果位)·층차(層次)다. 펼쳐 놓고 말하면 법은 매우 크다. 극히 높은 곳에 이르러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왜냐하면 법은 마치 피라미드 모양과도 같기 때문이다. 극히 높은 층차에 이르면 세 글자로 개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眞(眞)·善(善)·忍(忍)이며, 각개 층차에서 현현(顯現)하면 극히 복잡하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도가(道家)에서는 인체를 소우주(小宇宙)로 본다. 사람에게는 물질신체가 있지만, 이 물질신체만 가지고는 완전(完整)한 사람을 구성할 수 없으며, 또 반드시 사람의 성격(脾氣)·천성(秉性)·특성(特性)·元神(원선)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자아개성을 가진 사람을 구성할 수 있다. 우리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은하계와 기타 성계(星系)가 있고 또 생명과 물이 있는데, 이 우주 중의 만사만물, 이것은 물질로 존재하는

한 방면이고; 동시에 그것은 또 眞(眞)·善(善)·忍(忍) 특성이 존재한다. 어떤 물질의 미립자 중이든지 모두 이런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극히 작은 미립자 중에도 모두 이런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眞(眞)·善(善)·忍(忍), 이런 특성은 우주 중에서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이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바로 그로써 가늠한다. 우리가 과거에 말한 德(덕)도 마찬가지다. 물론 오늘날 인류사회의 도덕수준은 이미 변화가 일어나 도덕표준이 모두 비뚤어졌다. 지금 어떤 사람이 뇌봉(雷鋒)을 따라 배운다면 아마 그를 정신병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륙십 년대에는 누가 그를 정신병자라고 했겠는가? 인류의 도덕수준이 크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세상 기풍이 나날이 나빠져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개인의 고만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서로 다투고 빼앗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당신이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어도 그는 믿지 않는데, 그는 자신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은 또 이미 미끄러져 내려온 도덕 수준으로 자신을 가늠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가늠하는 표준마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인류의 도덕표준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이 우주의 특성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이다. 그

렇다면 수련하는 사람으로서는 곧 우주의 이 특성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하며, 속인의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반본귀진(返本歸眞)하려 하고 당신이 수련해 올라오려 한다면, 당신은 이 표준에 따라서 해야 한다. 사람으로서 우주의 眞(眞)·善(善)·忍(忍), 이 특성에 순응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좋은 사람이고, 이 특성에 어긋나게 행하는 사람은 진정 나쁜 사람이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을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꼭 정말로 나쁜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이 당신을 좋다고 해서 당신이 꼭 정말로 좋은 것도 아니다. 수련자로서, 이 특성에 동화하면 당신은 곧 도(道)를 얻은 사람인데, 바로 이렇게 간단한 이치다.

도가(道家)는 眞(眞)·善(善)·忍(忍)을 수련함에 진(眞)을 중점적으로 수련한다. 그러므로 도가에서는 수진양성(修真養性)을 말하는데, 참말을 하고, 참된 일을 하고, 참된 사람이 됨으로써 반본귀진하여 최후에 진인(眞人)으로 수련 성취한다. 그러나 인(忍)도 있고 선(善)도 있는데, 중점을 진(眞)에 두고 수련한다. 불가(佛家)는 眞(眞)·善(善)·忍(忍)에서 선(善)에 중점을 두고 수련한다. 선을 수련하기 때문에 대자비심(大慈悲心)을 수련해 낼 수 있는데, 자비심이 나오기만 하면 중생이 모두 고생스러움을 보게 되므로 곧 소원을 품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려 한다. 그러나 진(眞)도 있고 인(忍)도 있는데, 선(善)에 중점을 두고 수련한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 이 한 법문은 우주의 최고 표준-眞(眞)·善(善)·忍

(런)을 동시에 수련하므로, 우리가 연마(煉)하는 공(功)은 대단히 크다.

기공(氣功)은 사전문화(史前文化)다

기공이란 무엇인가? 많은 기공사가 모두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많은 기공사가 그 한 층차 중에서 말하지만, 나는 더욱 높은 층차에서 기공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그들의 인식과는 뚜렷이 다르다.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기공은 우리나라에서 2천 년 역사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3천 년 역사가 있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5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 우리 중화민족의 문명역사와 비슷하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출토된 문물로 보면 7천 년의 역사가 있어 우리 중화민족의 문명역사를 훨씬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인식하든 모두 인류의 문명역사를 그다지 많이 넘어서지 못했다. 다윈의 진화론(進化論)에 따르면 인류가 수생식물에서 수생동물에 이르고, 그 후 육지로 기어 올라오고, 또 나무로 기어 올라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원인(猿人)이 되고, 최후로 문화가 있고 사상이 있는 현대인류로 진화하기까지 추산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진정한 문명의 출현은 역시 만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더 이전으로 추리해 보면 결승기사(結繩記事)마저도 없다. 그것은 바로 나뭇잎을 두르고 날고기를 먹었으며, 더 이전에는 아마 불조차

도 사용할 줄 모르는, 완전히 그런 야만인 그런 원시인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리어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한다. 세계 여러 곳에 많고 많은 문명 고적이 남아 있는데, 모두 우리 인류의 문명역사를 훨씬 넘어섰다. 이런 고적들은 공예 각도에서 보면 모두 매우 높은 공예 수준을 가졌고, 예술 수준으로 보면 무척 뛰어나 현대인은 그야말로 모두 고대인의 예술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주 높은 감상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십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심지어 억 년 전에 남겨 놓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것은 오늘날의 역사와 농담하는 것이 아닌가? 무슨 농담이랄 것도 없는데, 인류 역시 자신을 끊임없이 완벽(完善)하게 하고 있고,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바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으로서, 처음 인식이 꼭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사전문화(史前文化)’라는, 또는 ‘사전문명(史前文明)’이라고도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인데, 우리 그 사전문명을 이야기해 보자. 지구에는 아시아 주·유럽 주·남아메리카·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주·아프리카 주와 남극주가 있는데, 지질학자는 그것들을 통칭하여 ‘대륙판’이라고 한다. 대륙판이 오늘날의 형태로 형성되기까지는 이미 몇천만 년의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육지가 바다 밑에서 올라왔고, 또 많은 육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오늘날의 이

상태로 안정되기까지는 이미 몇천만 년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많은 대양(大洋) 밑에서 오히려 높고 큰 고대 건축물들을 발견했다. 이런 건축물들은 조각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현재 인류의 문화유산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 전에 건조(建造)했을 것이다. 그러면 몇천만 년 전에 누가 이런 문명을 창조했는가? 그때 우리 인류는 아직 원숭이조차도 아니었을 텐데, 어찌 이처럼 고도로 지혜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었겠는가? 세계적으로, 고고학자들이 한 가지 생물을 발견했는데 ‘삼엽충(三葉蟲)’이라고 하며, 그것은 6억 년에서 2억 6천만 년 전의 산물(產物)로서, 2억 6천만 년 전 그 이후에는 이런 생물이 없어졌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삼엽충’ 화석 하나를 발견했는데, 윗면에는 사람의 발자국 하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을 신고 디딘 것이 윗면에 아주 또렷이 찍혀 있었다. 이것은 역사학자와 농담하는 것이 아닌가? 다윈의 진화론을 따른다면, 2억 6천만 년 전에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페루 국립대학 박물관에 돌덩이 하나가 있는데, 돌에는 한 사람의 상(像)이 새겨져 있다. 조사해 보니, 이 사람의 상은 3만 년 전에 새긴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상은 오히려 옷을 입고, 모자를 썼으며, 신을 신고, 손에는 또 망원경을 들고 천체(天體)를 관찰하고 있다. 3만 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베를 짜고 옷을 입을 수 있는가?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그가 또 망원경을 들고 천체를 관찰하고 있으니, 일정한 천문지식까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줄곧 유럽사람 갈릴레이가 발명한 망원경은 현재까지 3백여 년 역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도대체 3만 년 전에 누가 이 망원경을 발명했는가? 아직도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많고도 많다. 예전대 프랑스·남아공·알프스 산의 많은 암석 동굴에는 석판 벽화들이 있는데, 새긴 것이 진짜 같아 마치 살아 있는 듯하다. 새겨진 사람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일종의 광물질 안료로 칠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현대인의 옷차림이었는데, 양복과 비슷한 옷에 팽팽한 바지를 입었다. 어떤 사람은 담뱃대 비슷한 것을 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지팡이를 들고 모자를 썼다. 몇십만 년 전의 원숭이가 어찌 이렇게 예술 수준이 높을 수 있단 말인가?

좀 더 먼 것을 말해 보자.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에는 우라늄 광석이 있는데, 이 나라는 비교적 낙후하여 스스로는 우라늄을 제련할 수 없어 그것을 선진국에 수출했다. 1972년, 프랑스의 한 공장에서 이 우라늄 광석을 수입했다. 화학분석을 거쳐 이 우라늄 광석이 모두 이미 제련되어 이용되었던 것임을 발견했다. 너무도 이상해서 과학기술자를 파견하여 조사했고,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도 현지조사를 했다. 최후에 이 우라늄 광산은 대형 핵반응로임이 실증되었으며, 배치 또한 아주 합리적이어서 우리 지금 사람들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세운 것인가? 20억 년 전이고, 그것은 50만 년을 운전(運轉)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

로서 다윈의 진화론으로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은 매우 많다.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발견한 것만으로도 우리 오늘날의 교과서를 바꾸기에 충분하다. 인류 고유(固有)의 오랜 관념이 한 세트의 사업·사유방법으로 형성된 후에는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진리가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배척한다. 전통 관념의 영향으로 현재 이런 것들을 계통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념은 언제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말하기만 하면, 비록 그것이 보급되는 않았지만 이미 발견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미신이라며 받아들이지 못한다.

국외의 많은 대담한 과학자가, 이미 그것은 일종의 사전문화로서, 우리 인류의 이번 차례 문명 이전의 문명이며, 바로 우리 이번 문명 이전에 또 문명시기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출토된 문물로 보면 모두 한 문명시기 산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여러 차례 문명에 휘멸성 타격을 받은 후, 단지 소수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원시생활을 했고, 또 점차적으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고 퍼져 새로운 문명으로 진입했다고 여겼다. 그런 후에 또 휘멸로 나아갔고, 또다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여 퍼져 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부동(不同)한 하나하나의 주기적인 변화를 거쳐 왔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운동에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전체 우주의 변화 역시 법칙이 있다.

우리 지구의 운동은 이 드넓은 우주 중에서, 은하계의 운행 중에서 순풍에 돛 단 듯이 순조로울 수는 없는데, 어느 별과 충돌하거나, 또는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대단히 큰 재난이 조성되었을 수 있다. 우리 공능의 각도에서 보면 바로 그렇게安排한 것이다. 한번은 내가 자세히 밝혀보았는데, 인류는 81차례 완전한 궤멸상태에 처했고, 다만 소수 사람만 살아남아서 원래의 사전문명을 조금 남겼으며, 다음 시기로 들어가서 원시생활을 했음을 발견했다. 인류가 많이 번성하여 퍼지면서, 최후에 또 문명이 출현했다. 81차례 이런 주기적인 변화를 거쳤는데, 나는 이를 아직 끝까지 밝히지 않은 것이다. 중국 사람은 천시(天時)·지리(地利)·인화(人和)를 중시한다. 부동(不同)한 천상변화(天象變化), 부동한 천시(天時)는 속인사회에 부동한 사회 상태를 가져다줄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물질운동에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우주의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앞에서 사전문화를 말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로 이런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기공도 오늘의 우리 인류가 발명해 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상당히 오랜 연대를 거쳐 남겨 온 것으로서, 역시 일종의 사전문화다. 우리는 경서 중에서 역시 일부 논술을 찾을 수 있다. 석가모니 당시에, 그는 몇억 겁(劫) 전에 수련 성취하여 득도했다고 한 적이 있다. 1겁은 몇 년인가? 1겁은 수억 년이다. 이렇게 방대한 숫자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하다. 만약 정말이라면, 이는 인류의 역사, 지구의 전반적인 변화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석

가모니는 또, 자신 이전에도 원시육불(原始六佛)이 있었고, 자신에게도 사부(師父)가 있었다는 등등, 모두 몇억 겁 전에 수련하여 득도했다고 한 적이 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모두 정말이라면, 그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해오는 그런 진정한 정통공법(正統功法)·진전공법(眞傳功法)에는 곧 이런 수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물론 있지만 많지는 않다. 현재 가짜기공(假氣功), 거짓기공(僞氣功), 부체(附體)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멋대로 일부 것들을 짜 맞춰 사람을 속이는데, 진정한 기공보다 몇 배나 많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 진정한 기공은 변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으며, 찾기도 그리 쉽지 않다.

사실 기공만이 오랜 연대를 거쳐 남겨온 것이 아니라 태극(太極)·하도(河圖)·낙서(洛書)·주역(周易)·팔괘(八卦) 등등이 모두 사전(史前)에서부터 남겨 내려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속인의 각도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인식해서는 어떻게 해도 명백하게 연구해 내지 못한다. 속인의 이런 층차, 이런 각도, 이런 사상경지 중에서는 진정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기공(氣功)은 곧 수련(修煉)이다

기왕 기공이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데 쓰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이것은 불

가수련대법(佛家修煉大法)이므로 당연히 부처수련을 하는 것이고, 그 도가(道家)는 당연히 도를 닦아 득도(得道)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불(佛)’이란 미신이 아니다. 이 ‘불’은 범어(梵語)로서 고대 인도어다. 당시 우리 중국에 전해 들어올 때는 두 글자로서 ‘불타(佛陀)’라 했고, 또 그것을 ‘부도(浮圖)’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전해오고 전해가면서, 우리 중국 사람은 한 글자를 생략하여 그것을 ‘불(佛)’이라고 했다. 중국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인가? 바로 각자(覺者)이며, 수련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다. 여기에 어디 미신 색채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수련하면 특이기능(特異功能)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공능이 여섯 가지 있는데, 또 이런 것에 그치지 않으며, 진정한 공능은 만여 종이 나 된다고 나는 말한다. 사람이 거기에 앉아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손발을 움직여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우주 각 공간의 진정한 이치를 보고, 우주의 진상을 볼 수 있으며; 속인이 보지 못하는 일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수련하여 도를 얻은 사람이 아닌가? 대각자(大覺者)가 아닌가? 속인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수련하여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각자(覺者)라고 부름이 틀리는가? 고대 인도어로 번역하면 곧 불(佛)이다. 사실 바로 이러하며, 기공은 바로 이런 데 쓴다.

기공을 말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한다: 병이 없고서야

누가 기공을 연마(練)하겠는가? 뜻인즉, 기공은 곧 병을 제거하는 것이란 말인데, 그것은 아주 얇고도 얇은 인식이다. 이 점 역시 여러분을 탓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공사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말했을 뿐, 누구도 고층차의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공법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한 층차의 것을 전하는 것으로서, 기공을 보급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고층차로 수련하려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으나, 수련에서 법을 얻지 못한 결과 매우 큰 곤란이 조성되었으며, 또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물론 진정하게 고층차에서 공을 전하자면 아주 높은 문제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사람에 대해 책임짐에 따라 공을 전하는 효과가 전반적으로 좋았다. 어떤 것들은 확실히 아주 높아서 말하면 미신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되도록 현대과학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일부 것들을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곧 미신이라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의 표준은 바로 과학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이거나 또는 그 자신이 아직 접촉하지 못한 것이거나 존재할 수 없다고 그가 인식하는 것이면 그는 모두 미신이고 모두 유심(唯心)이라고 여기는데, 그는 바로 이런 관념이다. 이런 관념이 옳은가? 과학이 인식하지 못한 것이나 아직 이 일보에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이라 해서 미신이고 유

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닌가? 유심을 믿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념에 따른다면 과학이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겠는가? 인류사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발명한 것들은 모두 이전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인데, 모두 미신으로 본다면 당연히 발전하지도 말아야 한다. 기공 역시 무슨 유심적인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기공을 인식하지 못해 늘 기공을 유심으로 여긴다. 현재 계측기로 기공사의 몸에서 초저주파·초음파·전자파·적외선·자외선·감마선·중성자·원자와 미량 금속원소 등의 성분을 측정해 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 역시 물질이다. 어떤 것이든 모두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다른 시공(時空)도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어찌 미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공이 기왕 부처수련에 쓰는 것이라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많은, 높고 깊은 문제에 관련되는데, 우리는 모두 말하려고 한다.

기공이 기왕 이런 데 쓰는 것이라면, 우리는 왜 그것을 기공이라고 하는가? 사실 그것을 기공이라고 하지 않는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수련(修煉)’이라고 하는데, 바로 수련이다. 물론, 그것은 다른 구체적인 이름도 있지만, 정체(整體)적으로는 수련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기공이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공이 사회에 보급된 지는 이미 20여 년 역사가 있다. ‘문화대혁명’ 중기에 시작하여 후기에 이르러서는 고조(高潮)에 진입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때는 극좌적인

사조(思潮)가 상당히 심했다. 기공 그것을 사전문화에서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번 차례 인류문명의 발전과정 중에서 그것이 봉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흔히 봉건적 색채가 아주 짙은 이름을 갖고 있다. 종교와 관계있는 것은 흔히 종교적 색채가 매우 짙은 이름을 갖고 있다. 예컨대 무슨 ‘수도대법(修道大法)’·‘금강선(金剛禪)’·‘나한법(羅漢法)’·‘수불대법(修佛大法)’·‘구전금단술(九轉金丹術)’ 모두 이런 것이다. 만약 ‘문화대혁명’ 때 이렇게 불렀다면 당신은 비판당하지 않았겠는가? 설령 기공을 보급하려는 기공사의 소원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많은 군중을 위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사람들의 신체소질을 높이려는, 이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안 되므로,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부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공사가 기공을 보급하기 위해 『단경(丹經)』·『도장(道藏)』 중에서 단장취의(斷章取義)하여 두 글자를 뽑아 기공(氣功)이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또 기공이라는 용어 속에 파고들어가 연구하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연구할 것이 없으며, 과거에는 그것을 수련이라고 불렀다. 기공이란 다만 현대인의 사상의식에 부합(符合)하기 위해 지어낸 새 용어일 뿐이다.

왜 연공(煉功)해도 공(功)이 자라지 않는가

왜 연공(煉功)해도 공(功)이 자라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연공(練功)함에 진수를 전해 받지 못했는데, 어느 스승이 나에게 절기(絶招)를 좀 가르쳐주고 고급 수법을 좀 알려 준다면 나의 이 공이 자랄 것이다. 지금 사람들 100분의 95가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매우 가소롭다. 왜 가소로운가? 기공은 속인 중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것이 완전히 초상(超常)적인 것이라면 고층차의 이치로 그것을 가늠해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공이 올라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말해주겠다: ‘수(修)·련(煉)’ 두 글자에서 사람들이 그 연(煉)만을 중시하고 그 수(修)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밖에서 구하려 하지만, 어떻게 해도 구하지 못한다. 당신이 속인의 신체, 속인의 손, 속인의 사상으로 당신이 고에너지물질을 공으로 연화(演化)하려고 하는가? 자랄 수 있겠는가?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웃음거리다. 이것이 바로 밖에서 구하고 밖에서 찾으려는 것인데, 영원히 찾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 속인 중의 무슨 기능처럼 당신이 돈을 좀 쓰고 기술을 좀 배운다고 해서 배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런 일이 아니며, 그것은 속인 이 층차를 벗어난 것이므로 당신에게 초상(超常)적인 이치로 요구하게 마련이다. 어떻게 요구하는가? 당신은 안으로 수련해야 하며 밖에서 찾으려 해서 안 된다. 수많은 사람이 모두 밖에서 구하는데, 오늘은 이것을 구하고 내일은 저것을 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집착심을 품고 공능을 추구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다 있다. 어떤

사람은 또 기공사가 되려 하고 병을 치료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 진정한 수련은 당신의 이 마음을 수련해야 하는데, 心性(썬썬)을 닦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중에서 개인의 칠정육욕(七情六慾), 각종 욕망을 좀 담담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싸우면서 당신은 공을 자라게 하려 하지만,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당신 이것은 속인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당신의 공이 어찌 자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心性(썬썬) 수련을 중히 여겨야만 비로소 당신의 공이 자랄 수 있으며, 층차가 비로소 제고될 수 있다.

心性(썬썬)이란 무엇인가? 心性(썬썬)은 德(더)[德(더)는 일종 물질이다]를 포괄하고; 참음(忍)을 포괄하며; 깨달음(悟)을 포괄하고; 버림(捨)을 포괄하는데, 속인 중의 각종 욕망과 각종 집착심을 버리는 것이며; 또한 고생을 겪을 수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방면의 것을 포괄한다. 사람의 心性(썬썬)이 여러 방면에서 모두 제고되어야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제고되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는 공력(功力)이 제고되는 관전적인 원인 중 하나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당신이 말하는 心性(썬썬) 문제, 이것은 의식형태 중의 것이고 사람의 사상경지 방면의 일로서, 그것과 우리가 연마(煉)하는 공은 같은 것이 아니다. 어찌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상계에는 예부터 물질이 일차적인가, 아니면 정신이 일차적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했으며, 늘

이 문제로 의문하고 논쟁해 왔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는데, 물질과 정신은 일성(一性)이다. 인체과학 연구 중에서, 현재 과학자들은 사람의 대뇌가 내보내는 사유는 곧 물질이라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물질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사람의 정신 중의 것이 아닌가? 그것은 곧 일성(一性)이 아닌가? 마치 내가 말한 우주와도 같이 그것의 물질존재가 있고 동시에 그것의 특성존재가 있다. 우주 중의 眞(眞)·善(善)·忍(忍) 특성, 그의 존재를 속인은 감각하지 못하는데, 속인들은 모두 이 한 층차 면(層次面)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속인의 이 층차를 벗어났을 때 곧 체험하고 관찰해 낼 수 있다. 어떻게 체험하고 관찰해 낼 수 있는가? 우주 중의 어떤 물질이든, 전체 우주 중에 꼭 차있는 모든 물질을 포함하여 모두 영체(靈體)고, 모두 사상이 있으며, 모두 우주의 법이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서 존재하는 형태다. 그가 당신을 승화하지 못하게 하면 당신이 제고하려 해도 제고해 올라오지 못하는데, 그가 곧 당신을 올라오지 못하게 한다. 왜 당신을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가? 왜냐하면 당신의 心性(心性)이 제고되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 한 층차에는 모두 부동한 표준이 있다. 층차를 제고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좋지 못한 사상을 버리고 당신의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어 그 한 층차가 요구하는 표준에 동화(同化)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올라올 수 있다.

당신의 心性(心性)이 제고되어 올라오면 당신의 신체에 곧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당신의 心性(썸썸)이 제고되어 올라오면 당신의 신체상 물질에 보증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어떤 변화인가? 당신이 추구하고 집착했던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당신은 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병 하나에 더러운 것을 가득 채워 넣고 그것의 마개를 꼭 틀어막아 물에 던지면 그것은 역시 물밑까지 가라앉는다. 당신이 그 속의 더러운 것을 쏟아버리되 많이 쏟아버리면 버릴수록 그것은 더욱 높이 떠오를 것이며, 완전히 쏟아버리면 그것은 곧 완전히 떠오른다. 우리는 수련과정 중에서 바로 사람 몸에 존재하는 각종 좋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만 비로소 당신이 승화해 올라오게 할 수 있는데, 이 우주의 특성이 바로 이런 작용을 한다. 당신이 당신의 心性(썸썸)을 수련하지 않아 당신의 도덕수준이 제고되어 올라오지 않고 나쁜 사상, 나쁜 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승화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당신이 어찌 그것을 일성(一性)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우리 우스갯소리 한마디 하자. 만약 어떤 사람이 속인 중의 칠정육욕(七情六慾)이 다 있는데 그에게 위로 올라가서 부처가 되게 한다면,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그 대보살(大菩薩)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는 사념(邪念)이 생길지도 모른다. 질투심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와 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반드시 속인 중의 각종 좋지 않은 사상을 전부 제거해야만 비로소 당신은 제고해

올라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心性(썌썌) 수련을 중시해야 하는데, 우주의 眞(쩐)·善(싼)·忍(런) 특성에 따라 수련하여 속인 중의 욕망, 좋지 못한 마음, 나쁜 일을 하려는 생각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사상경지가 조금이라도 제고되어 올라왔다면 자신의 나쁜 것들도 이미 조금 버린 것이다. 동시에 당신이 또 고생을 좀 겪고 고통을 좀 겪어 자신의 업력을 좀 없애버리면 당신은 조금 승화해 올라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특성이 당신을 제약하는 힘이 그다지 크지 않게 된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功)은 사부에게 달렸다. 사부는 당신에게 공을 자라게 하는 공을 주는데, 이 공이 곧 작용을 일으켜 당신의 체외에서 당신의 德(더)란 이런 물질을 공으로 연화(演化)할 수 있다. 당신이 끊임없이 제고하고 끊임없이 위로 수련하면 당신의 공기둥(功柱) 역시 끊임없이 위로 돌파한다. 한 수련인(修煉人)으로서, 속인의 환경 중에서 자신을 수련하고 자신을 연마(魔煉)하여 집착심과 각종 욕망을 점차적으로 버려야 한다. 흔히 우리 인류가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도, 고층차에서 보면 흔히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속인 중에서 개인이익을 많이 얻을수록, 잘살수록 좋다고 여기는데, 대각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더욱 좋지 않다. 어디가 좋지 않은가? 그가 얻는 것이 많을수록 그는 다른 사람을 더욱 해치고, 얻지 말아야 할 것을 얻는데, 그는 명리(名利)를 중히 여김으로써 그는 德(더)를 잃어버릴 것이다. 당신은 공이

자라게 하려 하지만, 당신이 心性(썬썬) 수련을 중시하지 않으면 당신의 공은 전혀 자라 오르지 못한다.

우리 수련계에서는, 사람의 元神(웬션)은 불멸(不滅)한다고 한다. 과거에 사람의 元神(웬션)을 말하면 사람들은 아마 미신이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리학은 우리 인체에 분자·양성자·전자가 있음을 연구했고, 아래로 쿼크·중성미자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해 냈다. 그 일보에 이르면 현미경으로도 보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본원(本源), 물질의 본원과는 거리가 아직 멀고도 멀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자핵의 분열은 상당한 에너지 충격과 상당히 큰 열량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것으로 하여금 핵융합이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비로소 핵이 분열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죽을 때 인체 중의 원자핵이 어찌 함부로 죽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다만 우리 이 층 공간, 이 층의 가장 큰 분자성분이 탈락될 뿐이고, 다른 공간에 있는 그 신체는 결코 훼손되지 않음을 발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현미경 아래에서 보는 인체는 어떤 모양인가? 사람의 온 신체는 운동하고 있다. 당신이 거기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도 온 신체는 운동하는데, 분자세포가 운동하고 있으며, 온 신체는 마치 모래로 구성된 것처럼 성글다. 현미경 아래에서 보는 인체는 바로 이러한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체와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사람의 이 한 쌍의 눈이 당신에게 일종의 가상(假相)을 조성해 주어 당신으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천목(天目)이 열리면 물체를 확대하여 볼 수 있다. 본래 그것은 사람의 본능인데 현재는 특이공능이라고 하며, 당신이 특이공능을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반본귀진(返本歸眞)해야 하고 되돌아 수련해야 한다.

우리 이 德(더)를 말해 보자. 그것들 사이의 구체적인 연대(連帶)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여 말해 보자. 우리 사람은 많고 많은 공간 중에 모두 신체가 존재한다. 우리가 현재 사람의 신체 성분을 보면 가장 큰 것이 세포로서, 이것이 우리 사람의 육체다. 만약 당신이 세포와 분자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진입한다면, 당신은 곧 이미 다른 공간에 진입했음을 체험할 것이다. 그 신체가 존재하는 형식은 어떤 것인가? 물론 당신은 현존하는 이 공간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당신의 신체는 그런 공간이 요구하는 존재형식에 동화해야 한다. 다른 공간의 신체는 본래부터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신은 그 역시 비할 바 없이 광활한 공간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일종의 간단한 형식을 가리키는 것이며,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지점에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많은 공간에 모두 특정한 신체가 있으며, 특정한 공간 속에서 인체 주위에는 그런 장(場)이 존재한다. 무슨 장인가? 이 장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德(더)이다. 德(더)는 일종의 백색물질로서,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온 것처럼 사람의 정신적인 것이거나 사람의 의식 형태 중의 것이 아니며, 그것

은 완전히 일종의 물질적인 존재다. 그래서 과거에 노인들이, 德(더)를 쌓으라느니 德(더)를 잃는다느니 한 그 말은 너무나도 맞는다. 이 德(더)는 인체 주위에 있으며, 그것은 장을 형성한다. 과거에 도가에서는 사부가 도제(徒弟)를 찾지 도제가 사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무슨 뜻인가? 그는 이 도제가 신체에 가지고 있는 德(더)의 성분이 큰가, 크지 않은가를 보는데, 크면 그는 수련하기 쉽고; 크지 않으면 그는 수련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는 공이 높게 자라기가 매우 어렵다.

동시에 또 일종의 흑색물질이 존재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업력(業力)이라 하고, 불교 중에서는 그것을 악업(惡業)이라 한다. 백색물질과 흑색물질, 두 가지 물질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물질 사이는 어떠한 관계인가? 德(더)란 이런 종류의 물질은 우리가 고생을 겪고, 타격을 감당하며, 좋은 일을 하여 얻는 것이고; 그 흑색물질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좋지 않은 일을 하며, 남을 괴롭히는 데서 이런 흑색물질을 얻는다. 현재는 오직 이익을 꾀하는 것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다 하고, 돈을 위해서는 그 어떤 나쁜 짓도 다 한다: 살인하여 생명을 해치고, 돈으로 목숨을 사며, 동성애, 마약 등등, 어떤 일이든 다 있다.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할 때면 德(더)를 잃을 것이다. 어떻게 잃는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그는 이익을 보았고 분풀이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 우주 중에는, 잃지 않은 자는 얻지 못하고 얻으려면 곧 잃어야 한다는 이치가 있다. 당신이 잃지 않으면 당신

으로 하여금 강제로 잃게 한다. 누가 이런 작용을 하는가? 바로 우주의 이 특성이 이런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얻으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는가? 그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그는 德(더)를 상대방에게 던져줄 것이며; 상대방은 억울함을 당한 쪽이고, 잃은 쪽이며, 고통을 당한 쪽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해 준다. 그가 이쪽에서 그를 욕하면 그가 욕함에 따라 곧 자신의 공간장(空間場) 범위 내에서 한 덩이 德(더)가 날아가 남의 몸에 떨어진다. 그가 심하게 욕할수록 남에게 주는 德(더)는 더욱 많아진다. 남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마찬가지다. 그가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찰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德(더)가 넘어간다. 속인은 이 층의 이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여겨 견뎌내지 못한다: 네가 날 때렸으니 나도 널 때리겠다. ‘퍽’ 그에게 한 주먹 맞받아쳐서 이 德(더)를 밀어 되돌려 보냄으로써, 두 사람 모두 잃지도 않고 얻지도 못했다. 그는 생각할 것이다: 네가 날 한 대 치면 나는 널 두 대 치지 않고서는 이 분이 풀리지 않는다. 그는 한 대 더 쳐서 자신의 몸에서 또 한 덩이 德(더)를 날려 보내 상대방에게 준다.

왜 이 德(더)를 이렇게 중히 보는가? 이 德(더)는 어떤 관계로 전화(轉化)하는가? 종교 중에서는 말한다: 이 德(더)가 있으면, 금생에 얻지 못하면 내세에 얻는다. 그는 무엇을 얻는가? 그의 德(더)가 크면 아마 높은 벼슬을 할 것이고, 큰돈을

별 것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있을 것인데, 바로 이 德(더)로 교환해 온 것이다. 또 종교 중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 德(더)가 없으면 형신전멸(形神全滅)한다고 한다. 그의 元神(웬선)이 없어져, 그는 일생을 마친 뒤 전부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수련계에서는 德(더)를 직접 공으로 연화(演化)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德(더)를 어떻게 공으로 연화하는가를 말해 보자. 수련계에는 이런 한 마디 말이 있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정설로(安鼎設爐), 채약연단(採藥煉丹), 의념활동을 말하는데, 그는 아주 중요하다고 여긴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조금도 중요하지 않으며, 당신이 생각을 많이 하면 곧 집착심이다. 당신이 지나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바로 집착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으므로 당신은 이런 소원만 있으면 된다. 진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부가 해주는 것이지 당신은 전혀 해낼 수 없다. 당신은 속인의 신체인데, 이런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그런 고급생명체를 연화(演化)해 낼 수 있단 말인가? 전혀 안 되며 말만 해도 모두 웃음거리다. 인체가 다른 공간에서 연화되는 과정은 상당히 현묘(玄妙)하고 상당히 복잡해서, 당신은 이런 일들을 전혀 해낼 수 없다.

사부는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가? 당신에게 공을 자라게 하는 공을 줄 것이다. 德(더)는 사람의 체외에 있고, 사람의 진

정한 공은 곧 德(더)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층차 높이, 공력의 크기는 전부 그 德(더)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德(더)를 공으로 연화하여 나선식으로 위로 자라게 한다. 진정으로 사람의 층차 고저를 결정하는 공은 체 외에서 자라며, 최후에는 나선식으로 정수리까지 자란 다음 한 가닥 공기둥을 형성한다. 이 사람의 공이 얼마나 높은가는 그의 공기둥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곧 그의 층차로서 불교 중에서 말하는 과위(果位)이다. 어떤 사람은 가부좌할 때 元神(웬선)이 신체를 떠날 수 있어 단번에 얼마만한 높이로 올라가는데, 더 높게는 올라가려 해도 올라가지 못하며, 감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공기둥에 앉아 올라가는 것이므로 그는 곧 그만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의 공기둥이 그만한 높이이기 때문에 더 높게는 그는 역시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것이 불교 중에서 말하는 과위 문제다.

心性(썬썬)이 얼마나 높은가를 가늠하는 데는 또 척도가 있다. 척도와 공기둥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은 도리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의 心性(썬썬)이 수련되어 올라오면, 예컨대 속인 중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욕을 한 마디 해도 당신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아주 태연하며, 당신을 주먹으로 한 대 쳐도 역시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한번 웃고 지나간다면 이 사람의 心性(썬썬)은 이미 아주 높다. 그러면 당신이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당

신이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공을 얻지 않는가? 당신의 心性(썬쌩)이 제고되어 올라오면 당신의 공은 곧 자라 올라온다. 心性(썬쌩)이 얼마만큼 높으면 공도 그만큼 높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공원에서 연공(練功)하든 집에서 연공하든 연마(練)에 무척 정성을 들이고 아주 경건하며 연마(練)함도 괜찮았다. 그러나 문만 나서면 그가 아니다. 제멋대로 하며 속인 중에서 명예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데, 그의 공이 자랄 수 있겠는가? 전혀 자랄 수 없으며, 그의 병이 나을 수 없는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 왜 어떤 사람은 장기간 연공(練功)해도 병이 낫지 않는가? 기공은 수련으로서, 초상(超常)적인 것이며 속인 중의 체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心性(썬쌩)을 중히 여겨야만 병이 낫거나 공이 자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설로(安鼎設爐)·채약연단(採藥煉丹)의 이 단(丹)이 바로 공이라고 여기는데, 아니다. 이 단(丹), 그것은 일부 에너지만을 저장하는 것이지, 그것은 에너지의 전부가 아니다. 단(丹)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또 별도로 일부 명(命)을 닦는 것이 있어 신체에는 역시 공능이 나와야 하며, 또 많고 많은 술류(術類)의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잠가 놓아 당신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많은 공능, 만여 종의 공능이 있는데, 하나를 형성하면 그 하나를 잠가 둔다. 왜 나오지 않는가? 목적은 당신이 속인사회에서 그것을 운용하여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속인사회를 함부로 교란할 수 없게 하며, 또 속인사회 중에서
 당신이 능력을 함부로 나타낼 수 없게 하는 데 있다. 왜냐하
 면 이것은 속인사회의 상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깨달음 중에서 수련하는데, 당신이 그에게 다 나타낸
 다면 사람들이 보고 정말이므로 모두 와서 수련할 것이며, 십
 악불사(十惡不赦)한 사람도 모두 와서 수련할 것인즉, 그러
 면 안 된다.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과시할 수 없게 하며; 당
 신이 또 나쁜 일을 하기 쉬운 것은 당신이 그것의 인연관계를
 보지 못하고 당신이 그것의 본질을 보지 못하여 당신은 좋은
 일을 한다고 여기지만, 한 것은 나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나쁜 일을
 하기만 하면 충차가 떨어져 수련이 헛되기에 많은 공능을 잠
 가 둔다. 어떻게 하는가? 개공개오(開功開悟)하는 그날에,
 이 단(丹)은 곧 한 발의 폭탄이다. 그것이 모든 공능, 신체의
 모든 자물쇠와 백규(百竅)를 전부 폭발해 ‘팍’하고 진동하면
 전부가 진동하여 열리는데, 바로 이것을 하는 데 쓴다. 화상
 (和尚)이 죽은 뒤에 화장하면 사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
 은 그것을 뼈나 이[牙]라고 한다. 속인은 왜 없는가? 바로 그
 단(丹)이 폭발하여 그것의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온 것인데,
 그 자체는 다른 공간의 물질을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어쨌
 든 그것 역시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역시 별 쓸모
 가 없다. 현재의 사람은 그것을 아주 진귀한 물건으로 보는데,
 그것은 에너지가 있고 광택이 있으며 매우 단단한, 바로 이런

것이다.

공이 자라지 않는 데는 원인이 또 하나 있는데, 곧 고층차 중의 법을 모르고서는 수련하여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많은 공법을 연마(練)했다. 내가 알려주는데,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해도 쓸모가 없고, 역시 다만 초등학생일 뿐이며, 수련 중에서는 초등학생으로서, 모두 저층차 중의 이치다. 당신이 이런 저층차 중의 이치로써 고층차로 수련하려 한다면 지도 작용이 없다. 대학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읽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초등학생이고,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못된다.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는 부동한 층차 중의 법이 있다. 법은 부동한 층차 중에서 부동한 지도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저층차 중의 이치를 가지고는 당신이 고층차로 수련하는 것을 지도할 수 없다. 우리가 이후에 명백히 논술하려는 것들은 모두 고층차 중에서 수련하는 이치다. 나는 부동한 층차 중의 것들을 결합하여 강의하기에 당신이 금후 수련하는 중에 줄곧 지도 작용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책 몇 권이 있고 또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가 있다. 당신이 한 번 보고 들은 다음,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보고 다시 들으면 보증코 당신에게 또 지도 작용이 있음을 당신은 그 속에서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제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당신에게 지도 작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법이다. 이상이 연공(煉功)해도 공이 자라지 않는 두 가지

원인이다: 고층차 중의 법을 모르고서는 수련할 수 없으며, 안으로 수련하지 않아 心性(썬썬)이 수련되지 않으면 공이 자라지 않는다. 바로 이 두 가지 원인이다.

法輪大法(파룬파파)의 특징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는 불가의 8만 4천 법문(法門) 중에 한 법문으로서, 우리 이번 차례 인류문명의 역사시기에는 여태껏 공개적으로 전한 적이 없다. 그러나 사전(史前) 한 시기에는 광범위하게 사람을 제도한 적이 있다. 내가 말겁(末劫) 최후시기에 다시 한 차례 그를 널리 전한다. 그러므로 그는 극히 진귀하다. 나는 德(더)가 직접 공으로 전화(轉化)되는 이런 한 가지 형식을 말했다. 공은 사실 연마(煉)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닦아(修)서 나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공이 자라기를 추구하면서, 다만 어떻게 연마(練)하는가를 중시할 뿐 어떻게 닦는가는 중시하지 않는데, 사실 공은 완전히 心性(썬썬)을 닦아서 수련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여기에서도 사람에게 연공(煉功)을 가르치는가? 먼저 말하겠는데, 화상(和尚)은 왜 연공(煉功)하지 않는가? 그는 주로 가부좌하고, 경(經)을 읽으며, 心性(썬썬)을 닦으면 그는 곧 공이 자라는데, 그는 곧 그의 층차 높이로 공이 자란다. 석가모니는 本體(번티)를 포함한 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형체적인 동작이 필요하지 않았다. 도가에

서는 중생 제도를 말하지 않으며, 그가 상대하는 사람은 각종 심태, 각종 층차, 어떤 사람이든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심(私心)이 많은 어떤 사람, 사심이 적은 어떤 사람인 것이 아니다. 그는 도제(徒弟)를 선택함에 도제 셋을 찾아도 그중 한 사람에게만 진수를 전하는데, 이 도제는 반드시 德(더)가 높고 좋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중점적으로 그의 수법(手法)상의 것을 전하여 명(命)을 닦게 한다. 신통술류(神通術類) 같은 것을 연마(煉)하는, 이것은 일부 동작이 있어야 한다.

法輪大法(파룬파파) 역시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이기에, 연마(煉)할 동작이 있어야 한다. 동작은, 한 방면으로는 공능을 가지(加持)하는 데 쓰는데, 무엇을 가지라고 하는가? 당신의 강대한 공력(功力)으로 당신의 공능(功能)을 강화하여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한 방면으로는 당신의 신체 속에서 또 많은 생명체를 연화(演化)해 내는 것이다. 고층차의 수련에 이르면, 도가에서는 원영출세(元嬰出世)를 말하고, 불가에서는 금강불괴지체(金剛不壞之體)를 말하며, 또 많고 많은 술류의 것을 연화해 낸다. 이런 것들은 모두 수법(手法)을 통해 연련(演煉)해야 하는데, 동작은 이런 것들을 연마(煉)하는 것이다. 완정(完整)한 한 세트 성명쌍수 공법이라면 닦기(修)도 해야 하고 연마(煉)도 해야 한다. 나는, 이 공이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당신의 층차 고저를 결정하는 공은 전혀 연마(煉)해 내는 것

이 아니고 닦아(修) 내는 것이다. 당신이 수련하는 과정 중에, 속인 중에서 당신의 心性(썬썬)을 제고하고 우주의 특성에 동화함으로써, 우주의 특성이 당신을 제약하지 않게 되어 당신은 곧 승화해 올라올 수 있다. 이 德(더)는 곧 공으로 연화되기 시작하며, 당신의 心性(썬썬) 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것이 곧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관계다.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은 진정한 성명쌍수 공법에 속한다. 우리가 연마(煉)하는 공은 신체의 매 세포 중에 저장되는데, 줄곧 극미시(極微觀) 상태하에 존재하는 물질본원(物質本源)의 미립자 성분 중에까지 모두 그 고에너지물질의 공을 저장한다. 당신의 공력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그것의 밀도도 더욱 높아지며, 그것의 위력도 더욱더 커진다. 이런 고에너지 물질은 영성(靈性)을 갖고 있어 사람 신체의 매 세포 중에, 생명의 본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저장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면 당신의 신체세포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고, 분자 배열순서 역시 같고, 모든 원자핵의 형태와도 같은 것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본질은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서, 이미 원래 육체세포로 구성된 이런 신체가 아니므로, 당신은 오행(五行) 중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물론 당신의 수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신은 아직도 속인 중에서 수련하므로 외관상으로 보면 속인과 같은데, 유일한 구별은 바로 당신이 동년배에 비해 아주 젊어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질병을 포함해 당신 신체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병 치료를 하지 않고 신체를 청리(淸理)하며, 용어 역시 병 치료라 하지 않고 신체청리(淸理身體)라고 하는데,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을 위해서 신체를 청리해 준다. 어떤 사람들은 병 치료만 하려고 온 것이다. 위중한 환자, 그를 우리가 학습반에 들이지 않는 것은, 그가 병을 치료하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가 병이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병에 걸려 매우 괴로운데 그가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는 수련하지 못한다. 우리는 중병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는데, 여기는 수련이라 그가 생각하는 일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에 그는 다른 기공사를 찾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수련생에게 병이 있으나, 당신은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이 일을 해주려고 한다.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생은 한동안 수련하고 나면 외관상 변화가 아주 크다. 피부는 부드럽게, 희고도 불그레하게 변하며,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도 주름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주 많이 줄어드는 일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나는 여기서 허황하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노수련생은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년 부녀자들은 또 생리가 올 것인데, 성명쌍수 공법에서는 당신의 명(命)을 닦는 데에 경혈지기(經血之氣)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리가 오지만, 많지 않을 것이며, 지금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고만한 정도면 되는데 이 역시 보

편적인 현상이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모자라면 당신이 어떻게 명(命)을 닦겠는가? 남자 역시 노인이나 청년이나 모두 온몸이 가쁜함을 느낄 것이다.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런 변화를 느낄 것이다.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은 연마(煉)하는 것이 아주 크며, 다른 많은 공법처럼 동물을 모방해 연마(練)하지 않는다. 이 한 세트 공법이 연마(煉)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히 크다. 석가 모니·노자가 그때 말한 이치는 모두 우리 은하계 범위 내의 이치였다.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가 연마(煉)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주의 연화원리(演化原理)에 따라 수련하며, 우주의 최고 특성 - 眞(쩐)·善(싼)·忍(런) 표준에 따라 우리의 수련을 지도한다. 우리는 이처럼 큰 것을 연마(煉)하는데, 우주를 연마하는 것과 같다.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는 또 하나 극히 특수하고, 모든 공법과 다 같지 않은 최대 특징이 있다. 지금 사회에서 유전하는 기공은 모두 단도(丹道)로 가고, 연단(煉丹)하는 것에 속한다. 연단하는 기공으로 속인 중에서 개공개오(開功開悟)에 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는 단도로 가지 않는다.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은 아랫배 부위에 法輪(파룬)을 수련하는데 학습반에서 내가 직접 수련생들에게 넣어준다. 내가 法輪大法(파룬파파)를 강의할 때 우리는 여러분에게 法輪(파룬)을 잇달아 넣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감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다. 대다수 사람은 감각이

있는데, 사람마다 신체 소질(素質)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法輪(파룬)을 연마(煉)하지, 단(丹)을 연마(煉)하지 않는다. 法輪(파룬)은 우주의 축소판으로서, 우주의 모든 공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는 자동적으로 운행(運轉)·회전(旋轉)할 수 있다. 그는 당신의 아랫배 부위에서 영원히 도는데, 일단 당신에게 넣어준 후에는 다시는 밋지 않으며 늘 영원히 이렇게 돈다. 그는 바른쪽으로 도는 과정 중에서 자동적으로 우주 중의 에너지를 흡취(吸取)할 수 있고, 그 스스로 에너지를 연화(演化)할 수도 있어 당신 신체의 각개 부분마다 연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동시에 그가 반대쪽(반시계방향)으로 돌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 폐기물질을 쳐서 내보낸 후, 신체 주위에서 흩어져 버리게 한다. 그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아주 멀리 쳐서 내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 그가 쳐서 내보낸 에너지는 당신 신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다. 불가는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며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중시한다. 자신을 수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에 다른 사람도 따라서 이로울 수 있는데, 무의식중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조정(調整)해 주거나 병 치료 등등을 해 줄 수 있다. 물론 에너지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法輪(파룬)이 바른쪽(시계방향)으로 돌 때, 그 자신이 거둬들일 수 있는데, 그가 항상 밋지 않고 돌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왜 이 法輪(파룬)은 밋지 않고 항

상 돌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묻는다: 그는 어찌 하여 돌 수 있습니까?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너지가 많이 모여 단(丹)을 형성한다는 이것은 이해가 잘 되지만,法輪(파룬)이 회전함은 불가사의(不可思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드는데, 우주는 운동하고 있고, 우주 중의 모든 은하계, 모든 성계(星系)가 모두 운동하고 있으며, 9대 행성이 태양을 둘러싸고 돌고 있는가 하면, 지구 또한 자전(自轉)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누가 그것을 밀어 주었는가? 누가 그것에 힘을 가해 주었는가? 당신이 속인 중의 그런 개념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일종의 선기(旋機)이다. 우리의法輪(파룬) 역시 이러하며 그는 곧 돌고 있는 것이다. 그는 속인이 정상적인 생활 상태하에서 연공(煉功)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연공 시간을 증가시켰다. 어떻게 증가시켰는가? 그가 멎지 않고 회전하기 때문에 끊임 없이 우주 중에서 에너지를 흡취(吸取)하고, 에너지를 연화(演化)한다. 당신이 출근해도 그가 당신을 연마(煉)하고 있다. 물론 또法輪(파룬)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신체에 많고 많은 기능(機能)·기제(機制)를 넣어주는데, 모두法輪(파룬)과 연대하여 자동으로 돌고 자동으로 연화한다. 그러므로 이 공(功)은 모두 완전히 자동으로 사람을 연화하고 있어 ‘공이 사람을 연마함(功煉人)’을 형성하는데, 또 ‘법이 사람을 연마함(法煉人)’이라고도 한다. 당신이 연공(煉功)하지 못할 때에 공(功)이 당신을 연마(煉)하고, 당신이 연공할 때

에도 공은 여전히 당신을 연마하고 있다. 당신은, 식사하거나, 잠을 자거나, 출근해도 모두 공의 연화 중에 있다. 당신은 연공해서 뭘 하는가? 당신이 연공하는 것은 法輪(파륜)을 가지(加持)하고, 내가 당신에게 넣어준 모든 이런 기능(機能)과 氣機(치지)를 가지하는 것이다. 고층차 중에서 수련할 때는 모두 무위(無爲)이며, 동작 역시 기(機)에 따라 움직이고, 어떤 의념(意念)으로도 이끌지 않으며, 또 호흡 등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공(煉功)함에 또 어느 시간·장소를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어느 시간에 연공하면 좋은가? 자시(子時), 진시(辰時), 오시(午時)인가? 우리는 시진(時辰)을 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시에 연공하지 못해도 공이 당신을 연마(煉)하며, 당신이 진시에 연공하지 못해도 공이 여전히 당신을 연마하며, 당신이 잠을 자도 공은 여전히 당신을 연마하며, 당신이 길을 걸어도 공은 여전히 당신을 연마하며, 당신이 출근해도 공은 역시 당신을 연마하고 있다. 이것은 당신의 연공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득도(得道)하려는 마음을 품는데, 그것은 당연히 수련의 목적이다. 수련의 최종 목적은 바로 득도·원만(圓滿)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의 남은 생의 나이가 이미 아주 한정되어 있어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우리 法輪大法(파륜따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연공 노정을 단축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또한 성명쌍수 공법이므로 당신이 끊임없이 수

련할 때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당신이 끊임없이 연마(煉)하면 끊임없이 연장해 주어 근기(根基)는 좋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 당신의 연공 시간 또한 넉넉해진다. 그러나 한 가지 표준이 있는바, 당신이 하늘에서 정한 원래의 생명노정을 지나 나중에 이어온 생명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연공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이므로, 당신이 사상적으로 조금이라도 편차(偏差)가 생기면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노정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당신이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지난 이후에는 이런 통제를 받지 않는데, 그때는 곧 다른 상태다.

방위(方位)를 말하지 않으며 공을 거두어들임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法輪(파륜)은 항상 멎지 않고 돌 뿐만 아니라 멎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전화가 오거나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당신은 즉시 가서 일을 보아도 되며 공을 거둘 필요가 없다. 당신이 일할 때, 法輪(파륜)은 즉시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회전하여 단번에 체외로 발산해 나간 에너지를 도로 흡수(吸收)할 수 있다. 인위적인 봉기관정(捧氣灌頂)은 당신이 아무리 받든다 해도 잃을 것이다. 法輪(파륜)은 영성(靈性)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줄 안다. 또 방위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모두 운동하고 있고, 은하계가 돌고 있으며, 9대행성이 태양을 둘러싸고 돌고 있고, 지구 또한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주의 이렇게 큰 이치에 따라 연마(煉)하는데, 어디가 동남서북인

가? 없다. 어느 방위를 향해 연마하든 모두 전 방위를 향해 연마하는 것이며, 어느 방위를 향해 연마하든 모두 동시에 동남서북을 향해 연마하는 것과 같다. 우리 法輪大法(파룬파)는 수련생에게 편차(偏差)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어떻게 보호하는가? 당신이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法輪(파룬)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나의 뿌리는 모두 우주에 박혀 있으므로 누가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곧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는 곧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한 말이 듣기에는 아주 허황한 것 같지만, 이후에 당신이 배워 가면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너무 높은 것을 나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얕은 데서부터 깊은 데로, 계통적으로 고층차의 법을 명백히 논술할 것이다. 만약 당신 자신의 心性(썬썬)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당신이 구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는 많은 노수련생의 法輪(파룬)이 이미 변형된 것을 발견한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다른 것을 섞어서 연마(練)했으며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法輪(파룬)은 왜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가? 당신에게 주었으면 곧 당신의 것이므로 당신 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이 가지려는 것은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데, 이것이 이 우주의 이치다. 당신이 수련하려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강제로 수련하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나쁜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누가 당신을 강제하여 당신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자신이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여러 가(家)의 장점을 취하고 누구의 것도 다 가져와서 오늘은 이 공을 연마(練)하고 내일은 저 공을 연마하는데, 목적은 당신의 병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병을 제거했는가, 못 했는가? 제거하지 못 했으며, 단지 당신에게서 뒤로 미루어 놓았을 뿐이다. 고층차 중의 수련은 전일(專一) 문제를 중시하는데, 한 문(門)을 틀어쥐고 수련해야 하며, 어느 한 문에서 수련하든지 마음을 반드시 그 한 문에 두어야 한다. 줄곧 이 한 문 중에서 개공개오(開功開悟)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다른 공법으로 전입(轉入)하여 다시 수련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한 세트의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하게 전해 내려온 한 세트의 것은 상당히 멀고 오랜 연대를 거쳐 남겨온 것이며, 그것은 모두 상당히 복잡한 연화(演化)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감각에 의거해 연공(練功)하는데, 당신의 감각이 다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연화과정은 다른 공간에서는 극히 복잡하고 현묘하여 조금만 차이가 나도 안 된다. 마치 정밀계기에 당신이 다른 부속품을 하나 더 넣으면 망가지는 것과 같다. 당신의 모든 각개 공간의 신체는 모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현묘한 것으로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안 된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고. 당신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 안에다 넣으면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되어 곧 이 한 법문의 것을 교란하며, 당신은 때뚱게 나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속인사회 중으로 반영되어 와 속인의 번거로움을 가져올 것이다. 당신 자신이 가진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상관할 수 없는데, 이것은 오성(悟性) 문제다. 동시에 당신이 섞어 넣은 것이 이미 공을 난잡하게 하여 당신은 이미 수련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나도 여러분이 꼭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지 않고, 당신이 다른 공법 중에서 진수를 전해 받는다면, 나 역시 찬성이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진정한 고층차 수련은 반드시 전일(專一)해야 한다. 나는 당신에게 또 한 가지를 말하겠다: 현재 나처럼 이렇게 진정하게 고층차로 공을 전하는 사람은 둘도 없다. 당신은 나중에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해주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오성(悟性)이 너무 낮지 않기를 희망한다. 많은 사람이 고층차로 수련하려 하는데, 이것을 당신 앞에 놓아주었건만 당신은 아마 여전히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당신이 도처에서 사부를 모시고 돈을 아무리 써도 당신은 찾지 못한다. 오늘 당신에게 문 앞까지 가져다주었지만 당신은 아직 인식마저 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며, 또한 제도할 수 있는가, 제도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다.

제 2 강

천목(天目)에 관한 문제

많은 기공사 역시 천목(天目)의 일부 정황을 말했다. 그러나 법은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 부동한 현현형식(顯現形式)이 있다. 수련하여 어느 한 층차 중에 이른 사람, 그는 단지 그 한 층차 중의 광경을 볼 수 있을 뿐, 이 층차를 넘어선 진상을 그는 보지 못하며 믿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이 한 층차 중에서 본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여긴다. 그가 것처럼 높은 층차 중까지 수련하지 못했을 때, 그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층차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의 사상도 승화해 올라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천목,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것이라 하는데, 결국 말들이 아주 혼란스러웠고 누구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 천목 역시 저층차(低層次)에서 분명하게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천목의 구조는 비밀 중의 비밀에 속했기 때문에 속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예부터 또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는 또한 과거의 그런 이론을 둘러싸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대과학으로, 가장 알기 쉽고 통속적인 현대 언어로 해석하며 또한 그것의 근본 문제를 말한다.

우리가 말하는 천목은 실질적으로 바로 사람의 양미간 조금 위, 송과체(松果體)에 연결되는 이 위치에 있으며, 이것이 주통로다. 신체에는 또 많고 많은 눈이 있는데, 도가에서는 매 규(竅)가 모두 눈이라고 한다. 도가에서는 신체의 혈위(穴位)를 규(竅)라 하고, 중의(中醫)에서는 혈위(穴位)라 한다. 불가에서는 땀구멍 하나하나가 다 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로 글자를 알아내고 또한 손이나 뒤통수로도 보며 또 어떤 사람은 발로 보고 배로 본다고 하는데, 모두 가능하다.

천목을 말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우선 우리 사람의 이 한 쌍의 육안을 말해 보자. 현재 어떤 사람은, 이 한 쌍의 눈은 우리 이 세계 중의 어떤 물질, 어떤 물체든 볼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일종의 고집스러운 관념이 생겨서 그는 눈을 통해 본 것만이 확실하고 확실한 것이라 여기며,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과거에는 줄곧 이런 사람을 오성(悟性)이 좋지 않다고 여겼는데, 일부 사람은 역시 왜 오성이 좋지 않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이 말은 듣기에는 아주 이치에 맞

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 높은 층차 중에서 보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떤 시공(時空)이든 모두 물질로 구성된 것이어서 당연히 부동(不同)한 시공은 부동한 물질구조가 있으며 부동한 생명체의 각종 현현형식(顯現形式)이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주겠다. 불교 중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현상이 모두 환상이고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어찌하여 환상인가? 이 확실하고 확실하게 거기에 놓여 있는 물체, 그것을 누가 가짜라고 할 수 있는가? 물체가 존재하는 형식은 이런 것이지만, 그것의 표현 형식은 도리어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오히려 일종의 공능이 있어 우리 물질공간의 물체를 우리가 지금 본 이런 상태로 고정시킬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이런 상태가 아니며 우리 이 공간 중에서도 그것은 이 상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사람을 본다면 어떤 모양이겠는가? 온 신체는 성글고, 소분자(小分子)로 구성된 것인데, 마치 모래와 같은 과립(顆粒) 모양이고, 운동하는 것으로서, 전자(電子)는 원자핵을 둘러싸고 운동하고 있고, 온 신체는 모두 연동(蠕動)하며 운동하고 있다. 신체 표면은 매끄럽지 않으며 불규칙하다. 우주 중의 어떤 물체, 강(鋼)·철(鐵)·돌 모두 마찬가지로, 그것 속의 분자 성분은 모두 운동하지만, 당신은 전반 형식을 다 보지 못하는데, 사실 그것은 모두 안정된 것이 아니다. 이 책상 역시 연동하고 있지만 눈은 오히려 진상을 보지 못하는데, 이 한 쌍의 눈은 사람에게 일종의 착각을 조성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미시하의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런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 일정한 미시하의 것을 그는 볼 수 있다. 바로 우리 사람이 이 물질공간의 이 한 쌍의 눈이 있게 된 후부터 곧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가상(假相)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수련계에서는 예부터 이런 사람을 오성(悟性)이 좋지 않아 속인의 가상에 미혹되었으며 속인 중에 미혹되었다고 여겼다. 이것은 종교 중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말로서, 사실 우리가 보아도 역시 이치가 있다.

이 한 쌍의 눈은 우리 현존하는 물질공간의 물건을 이런 상태로 고정시킬 수 있는, 이것 외에 그것은 무슨 큰 능력이 없다. 사람이 물건을 보는 것 역시 눈에 직접 상(象)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눈은 사진기의 렌즈와 같이 단지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할 뿐이다. 먼 곳을 보려면 렌즈를 길게 뽑아야 하듯이, 우리의 눈도 이런 작용을 일으키고; 어두운 곳을 볼 때는 동공이 확대되어야 하듯이 사진기도 어두운 곳에서 찍으려면 그 조리개를 역시 확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출량이 부족하여 모두 검게 되며; 바깥의 아주 밝은 곳으로 나가면 동공이 재빨리 축소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눈이 부시어 아무것도 똑똑히 보이지 않듯이 사진기 또한 이런 원리로서 조리개를 역시 축소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물체를 찍을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은 단지 한 가지 도구일 따름이다.

우리가 진정하게 물건을 보고 한 사람을 보며 한 물체가 존재하는 형식을 보는 것은 사람의 대뇌에서 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눈을 통해 보고, 다시 시신경(視神經)을 통해 대뇌 후반부의 송과체(松果體)에 전도(傳導)하여 이 한 구역 중에서 그것이 영상으로 반영되어 나오게 한다. 이는 곧 진정하게 영상을 반영해 물건을 보는 것은 우리 대뇌의 송과체 이 한 부분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천목 열기란 바로 사람의 시신경을 피하고 사람의 양미간에 통로를 열어 놓아 송과체가 직접 밖을 내다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곧 천목 열기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이것 역시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이 한 쌍의 눈은 필경 도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물체를 찍을 수 있는데, 눈이 없으면 역시 안 되지 않은가. 현대의학의 해부학에서는 이미 이 송과체 전반(前半) 부분에 그것이 사람 눈의 조직 구조를 모두 구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이 사람의 머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그것을 퇴화된 눈이라고 한다. 퇴화된 눈인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 수련계에서는 아직 보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필경 현재 의학에서는 이미 사람의 머리 가운데 그 부위에 눈이 하나 있음을 인식했다. 우리가 열어 놓는 이 한 갈래 통로는 마침 그것의 이 한 점과 마주하고 있는데, 바로 현대의학상의 인식과 들어맞는다. 이 눈은 우리 이 한 쌍의 육안처럼 사람에게 가상을 만들

어 주지 않으며, 그것은 사물의 본질을 보고 물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목 층차가 아주 높은 사람, 그는 우리 공간을 투과하여 다른 시공을 볼 수 있고 속인이 보지 못하는 광경을 볼 수 있으며, 층차가 높지 않은 사람은 꿰뚫는 힘이 있을 수 있어 벽을 사이에 두고 물체를 보거나 인체를 투시할 수 있는데, 그는 이런 공능을 구비하고 있다.

불가에서는 5통(五通)을 말한다: 육안통(肉眼通)·천안통(天眼通)·혜안통(慧眼通)·법안통(法眼通)·불안통(佛眼通)이다. 이것이 천목의 5대(五大) 층차로서 매 한 층차는 또 상, 중, 하로 나뉜다. 도가에서는 구구팔십일층(九九八十一層) 법안(法眼)을 말한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의 천목을 열어주지만, 천안통(天眼通) 이하로는 열어주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비록 당신이 여기에 앉아서 수련을 시작했지만, 당신은 필경 속인 중에서 방금 첫걸음을 떼었으므로 아직도 많은 속인의 집착심을 내려놓지 못했다. 만약 천안통 이하로 열어준다면 당신은 속인이 인정하는 특이공능(特異功能)이 나올 것이며, 당신은 벽을 사이에 두고 물체를 보고, 인체를 투시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 공능을 이처럼 광범위하게 전하여 사람마다 모두 이런 정도로 열어준다면 속인사회를 심하게 교란할 것이며 속인사회 상태를 파괴할 것이다. 국가 기밀마저 모두 지킬 수 없고, 사람이 옷을 입으나 입지 않으나 매한가지며,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당신이 밖에서 다 볼 수 있고, 거리를 가다 복권이 눈에 띄면 그 1등상을 당신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람마다 모두 천안통 천목이 열렸다면 그것이 인류사회이겠는가? 인류사회를 심하게 교란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 정말로 당신을 이 한 층차로 열어준다면 당신은 아마 즉시 기공사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기공사가 되려 했는데 이렇게 천목이 열렸으므로 마침 다른 사람의 병을 봐줄 수 있게 되었다. 이진 내가 당신을 샀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당신을 어느 층차로 열어주는가? 나는 당신을 직접 해안통, 이 층차로 열어준다. 고층차로 열어주자니 당신의 心性(썬쌩)이 모자라고, 저층차로 열어주자니 속인사회 상태를 심하게 파괴할 수 있다. 해안통으로 열어줌으로써, 당신은 벽을 사이에 두고 물체를 보거나, 인체를 투시하는 이런 능력은 구비하지 않지만, 당신은 오히려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그것은 당신에게 연공(煉功)하는 신심(信心)을 북돋워 줄 수 있고, 당신은 속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며, 당신은 그것이 진실로 존재한다고 느낄 것이다. 지금 당신이 푹 푹히 보든 푹푹히 보지 못하든 당신에게 모두 이 층차로 열어줌으로써 당신의 연공(煉功)에 좋은 점이 있다. 진정으로 대법(大法)을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心性(썬쌩) 제고를 엄격히 요구하면 이 책을 보아도 같은 효과가 있다.

사람의 천목 층차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천

목을 열어주었다 해서 무엇이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 층차 구분이 있다. 그러면 이 층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사람의 천목은 안에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장(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정화지기(精華之氣)라고 한다. 그것은 무슨 작용을 하는가? 마치 텔레비전의 형광판과도 같은데, 만약 형광분이 없다면, 텔레비전을 켜도 그것은 전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빛만 있고 영상은 없다. 바로 형광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로소 영상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이 예가 아직 그다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보고, 그것은 형광판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인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요만한 정화지기(精華之氣)는 극히 진귀한 것으로서, 德(더)에서 정련해 낸 더욱 정화(精華)적인 것으로 구성되었다. 흔히 때 사람에게 존재하는 정화지기는 모두 같지 않은데, 만 명 중에서 같은 층차 중에 있는 사람을 찾자면 아마 두 사람 있을 것이다.

천목의 층차는 바로 우리 이 우주 중의 법의 직접적인 체현이다. 그는 초상(超常)적인 것으로서 사람의 心性(썬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心性(썬쌩)이 낮으면 그의 층차도 낮다. 왜냐하면 心性(썬쌩)이 낮으면 그의 요만한 정화지기가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이며, 이 사람의 心性(썬쌩)이 아주 높으면 그는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속인사회 중에서 명(名), 이(利),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개인이

익, 칠정육욕을 아주 담담하게 보아 정화지기가 비교적 잘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천목이 열린 후에는 비교적 똑똑히 볼 수 있다. 6세 이하 어린이는 열린 후 아주 똑똑히 볼 수 있으며, 열기도 쉬워 말 한 마디면 바로 열 수 있다.

속인사회의 거센 흐름(大洪流), 큰 염색항아리(大染缸)의 오염으로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많은 것이 모두 그릇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잘살려고 하지 않는가? 잘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사람의 이기적인 심리를 조장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점유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속인 중에서 다투고 싸운다면, 이것은 우주의 특성과 상반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어린이를 가르칠 때, 어른은 흔히 그가 장래 속인사회 중에서 발붙일 곳이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너는 좀 약해 놀아라.”라고 가르친다. ‘약다’는 것은 우리 이 우주 중에서 볼 때 이미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르고 개인의 이익을 담담히 보라고 한다. 그가 이렇게 약은 것은 바로 개인의 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다. “누가 널 괴롭히면 너는 그의 선생님을 찾고 그의 부모를 찾아라.”, “돈을 보거든 주워라.” 바로 이렇게 그를 가르친다.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이 어린이는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 그는 속인사회 중에서 서서히 이기적 심리가 갈수록 커져서, 그는 부당한 이익을 점유할 것

이며, 그는 德(더)를 잃어갈 것이다.

德(더)란 이런 물질은 손실된 후에 그것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그러나 이런 정화지기, 그것은 흩어져버릴 수 있다. 만약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매우 교활하고 이기심이 아주 강해 오직 이익만 탐낸다면, 흔히 이런 사람은 천목이 열린 후에도 안 되며 똑똑히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원히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수련과정 중에서 바로 반본귀진(返本歸眞)하려 하는데, 끊임없이 연공(煉功)하면 끊임없이 보충되며 새롭게 보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心性(썬썬)을 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정체제고(整體提高), 정체승화(整體昇華)를 중시한다. 心性(썬썬)이 올라오면 다른 것들도 모두 따라 위로 올라오며, 心性(썬썬)이 올라오지 못하면 천목의 그만한 정화지기도 보충될 수 없는데, 바로 이 이치다.

두 번째 요소는, 곧 자신이 연공(煉功)할 때, 만약 근기가 좋으면 역시 천목을 연마(煉)해 열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천목이 막 열릴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왜 깜짝 놀라는가? 일반적으로 연공(煉功)은 모두 저녁 자시(子時), 밤이 깊어 인적이 없을 때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가 연마(煉)하고 연마하는데 돌연 눈앞에 커다란 눈 하나가 보여, 순간 그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이렇게 놀란 것이 이만저만이 아닌지라 이때부터 다시는 감히 연마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가! 그렇게도 커다란 눈 하나가 깜박깜박하

면서 보고 있는데, 아주 또렷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안(魔眼)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佛眼) 등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눈이다. 물론,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 수련인의 공의 전반 연화(演化) 과정은, 다른 공간에서는 아주 복잡한 과정으로서, 또 다른 한 공간뿐이 아닌 모든 공간, 각개 공간 중의 신체가 모두 변화를 일으킨다. 당신 자신이 해낼 수 있는가? 해내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사부가 안배한 것이며, 사부가 한다. 그러므로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고 한다. 당신 자신은 다만 이런 소원만 있고 이렇게 생각할 뿐, 진정 그 일은 사부가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연마(煉)하여 천목을 여는데, 우리가 당신의 눈이라고 하지만 당신 자신은 연화해 낼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사부가 있어 사부가 당신의 천목이 열린 것을 보고 당신에게 눈을 하나 연화해 주는데, 그것을 진안(眞眼)이라고 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부가 없지만 길을 지나가는 사부가 있다. 불가에서는 말한다: 부처는 없는 곳이 없어 어디에나 있는, 이런 정도로 많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머리 석 자(三尺) 위에 신령이 있다. 바로 매우 많다는 말이다. 길을 지나던 사부가 보니 당신이 연마(煉)를 관찮게 하여 천목은 이미 열렸으나, 눈이 없으므로 하나를 연화(演化)해 당신에게 주는데, 이것 역시 당신 자신이 연마해 낸 것으로 쳐 준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도함에 조건을 논하지 않고, 대가를 논

하지 않으며, 보수를 바라지 않고, 명예 또한 바라지 않아 속인 중의 모범 인물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인데, 이는 완전히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의 천목이 열린 후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빛의 자극을 심하게 받아 눈부심을 느낀다. 사실 당신의 눈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송과체를 자극한 것인데, 당신은 마치 눈을 자극한 것처럼 느낀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이 눈이 없기 때문인데, 당신에게 이 눈을 넣어준 후에는 당신은 눈이 부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일부 사람은 이 눈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과 우주의 본성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은 아주 천진하고 호기심도 매우 많아, 역시 안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인데, 당신의 천목이 열렸는가 열리지 않았는가,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며, 그것도 안으로 당신을 들여다본다. 이때 당신의 천목 역시 열렸고, 그것이 마침 당신을 보고 있어, 갑자기 당신이 그것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사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눈으로서, 당신이 금후 다시 물건을 볼 때는 바로 이 눈을 통해서 보는데, 당신은 이 눈이 없으면 전혀 보지 못하며 열렸다 해도 보지 못한다.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층차를 돌파하여 각개 공간의 차이를 현현(顯現)해 내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진정하게 층차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물건을 보는 데에는 주통로 외에 사람에게에는 또 많은 부통로가 있다. 불가에서는 땀구멍 하나하나가 다 눈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신체의 모든 규(竅)가 다 눈

이라 하는데, 즉 모든 혈위(穴位)가 다 눈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가 말한 것 역시, 법이 신체에서 연변(演變)한 한 가지 형식이므로, 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충차는 이것과 또 같지 않다. 주통로 이외에 두 눈썹, 눈까풀 위, 눈까풀 아래와 산근(山根) 등 몇몇 부위에도 몇 개 주요한 부통로가 있다. 그것들이 곧 충차 돌파 문제를 결정한다. 물론 일반 수련인으로서, 만약 이 몇몇 곳으로 모두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돌파한 충차는 이미 아주 높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눈도 수련해서 역시 각종 형식의 공능을 구비했다. 그러나 이 눈을 잘 장악하지 못하면, 그가 늘 이 물체는 보지만 저 물체는 보지 못하는 데, 역시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흔히 한 눈으로는 저쪽을 보고, 또 한 눈으로는 이쪽을 본다. 그러나 이쪽 눈(오른쪽 눈) 밑에는 부통로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오른쪽 눈을 쓰기 좋아하기 때문에 오른쪽 눈 밑에는 부통로가 없다. 이는 世間法(쓰젠파) 수련 중에 나타나는 몇 개 주요한 부통로를 가리킨 것이다.

극히 높은 충차에 이르러,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벗어난 이후에는 또 일종의 복안(複眼)과 같은 그런 눈이 나타날 것이다. 즉 온 얼굴의 상반부에 큰 눈이 하나 생길 것인데, 그 속에 무수한 작은 눈들이 있다. 어떤 아주 높은 대각자가 수련해 낸 눈은 특별히 많아 온 얼굴에 다 있다. 모든 눈은 다

이 큰 눈을 통해서 보며, 무엇을 보려면 바로 그것을 보는데, 한번 척 보면 모든 층차를 다 본다. 현재 동물학자·곤충학자들은 파리를 연구한다. 파리의 눈은 아주 크며, 현미경으로 보면 그것 속에 무수한 작은 눈이 있는데 그것을 복안(複眼)이라고 한다. 극히 높은 층차에 이르면 아마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인데, 여래보다 훨씬 높아야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속인은 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층차에서도 그것의 존재를 보지 못하며, 단지 정상적인 사람과 같음을 볼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층차의 돌파, 바로 각개 공간을 돌파할 수 있다는 문제를 말한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천목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했다. 우리가 외력(外力)으로 당신의 천목을 열어주기는 비교적 빠르고, 비교적 쉽다. 내가 천목을 말할 때, 우리 매 사람의 앞이마가 모두 조여들어 살이 한테로 모이고, 모여서는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렇지 않은가? 이런 것이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사람마다 모두 감각이 있을 것인데, 힘 또한 아주 커서 안으로 민다. 우리는 당신에게 천목을 여는 전문적인 공(功)을 내보내어 당신의 천목을 열어주는 동시에, 또 法輪(파룬)을 내보내어 당신을 위해 보수(修補)해 준다. 우리가 천목을 말할 때,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람마다 열어준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모두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사람마다 모두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당신 자신과 직접 관계가 있다. 괜찮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괜찮으니 천천히 수련하라. 당신이 끊임없이 층차를 제고함에 따라 당신은 점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똑똑히 보지 못하다가 차츰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면, 당신이 이 한 마음을 굳게 하고 수련할 때면, 당신에게서 흠어져 없어졌던 것이 모두 보충되어 올 것이다.

스스로 천목을 열기는 비교적 어렵다. 나는 스스로 천목을 여는 몇 가지 형식이 있음을 말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사람이 가부좌하고 있을 때, 앞이마를 관찰하고 천목을 관찰하면 앞이마는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없음을 느낀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는 앞이마가 점차 하얗게 밝아지는 것을 느낀다. 한동안 수련하면 그는 앞이마가 점차 환해지며 환해진 후에 붉어지는 것을 발견한다. 이때에 이르면 그것이 꽃잎처럼 뒤집힐 것인데, 마치 영화나 텔레비전에서처럼 꽃봉오리가 순식간에 피어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 붉은 색은 원래는 평평한데, 단번에 가운데서부터 부풀어 올라 끊임없이 뒤집히고 끊임없이 뒤집힌다.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전부 뒤집어 넘기려 한다면, 10년 8년이라도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온 천목이 모두 막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천목은 막히지 않아, 그는 통로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연공(煉功)하지 않고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연공할 때 갑자기 눈앞에 검고 둥그런 것이

하나 나타날 것이다. 연공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점차 하에 지며, 하얀 데서부터 점차 환해지는데, 최후에는 갈수록 환해져서 눈이 부신 것을 좀 느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태양을 보았다, 나는 달을 보았다. 사실 당신은 태양을 본 것이 아니고 달을 본 것도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본 것은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이 통로다. 어떤 사람은 충치를 돌파함이 비교적 빨라, 눈을 넣어준 후에는 직접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어렵다. 그는 마치 터널 같고, 또 어떤 것은 우물 같기도 한 이 통로를 따라 연공할 때마다 밖으로 내달린다고 느끼는데,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자신이 밖으로 달린다고 느낀다.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달리고, 어떤 사람은 날고, 어떤 사람은 내달리며, 어떤 사람은 마치 차를 타고 밖으로 돌진한다고 느끼지만, 늘 끝까지 돌파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스스로 천목을 열기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도가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 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소우주라면 앞이마에서 송과체(松果體)까지는 10만 8천 리에 그치지 않을 것인즉, 그는 늘 밖으로 돌진하지만 언제나 끝까지 돌파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도가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 보는데, 아주 이치가 있다. 그의 조직구조가 우주와 아주 유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이 물질공간의 신체가 존재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현재 과학이 인식한 물질신체의 세포 이하는 어떤 상태인가? 각종 분자 성분, 분자 이하는 원자, 양성자,

원자핵, 전자, 쿼크이고, 현재 연구해 낸 최소 미립자는 중성미자다. 그러면 가장 작고 가장 작은 미립자는 무엇인가? 연구하려면 실로 너무나도 어렵다. 석가모니는 만년(晩年)에 이런 한 마디 말을 했다. 그는 말했다: “크기로는 밖이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 무슨 뜻인가? 여래 이 층차에서는, 크게는 우주의 변두리를 보아내지 못하고, 작게는 물질의 최소 미립자를 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크기로는 밖이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라고 했다.

석가모니는 또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학설을 말했다. 그는 우리 이 우주 중에, 우리 이 은하계 중에 우리 인류와 마찬가지로 색신(色身) 신체가 존재하는 별이 3천 개나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모래 한 알 속에 또 이런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했다. 모래 한 알이 바로 우주와 같아, 속에는 역시 우리같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 별이 있으며, 또 산천 하류가 있다.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 속에 또 모래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 모래 속에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삼천대천세계 속에 또 모래가 있고, 그 모래 속에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래 이 층차에서는 그것의 끝을 보아낼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분자세포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크냐고 묻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우주, 그것은 변두리가 있다. 그러나 여래 이런 층차에서는 그것을 모두 가

없이 넓고, 무한히 큰 것으로 본다. 사람의 신체 내부, 분자에서 미시하의 미립자에 이르기까지는 이 우주와 마찬가지로 크다고 하는데,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다. 한 사람, 한 생명을 만드는 데에 극미시하에서 이미 그의 특정한 생명 성분과 그의 본질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현대과학이 이것을 연구하기에는 아직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전체 우주 중에 존재하는 고급지혜성구(高級智慧星球)의 그런 생명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은 상당히 낮다. 바로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존재하는 다른 공간도 우리는 돌파하지 못하지만, 다른 별에서 오는 비행접시는 직접 다른 공간 속에서는 가는데, 그 시공(時空)의 개념마저 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오려면 곧 오고, 가려면 곧 가는데, 빠르기가 사람의 관념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천목을 말하면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당신이 통로에서 밖을 향해 내달릴 때, 당신은 그것이 가없이 무한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아마 다른 정황이 보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한 갈래 터널을 따라 뛰는 것이 아니라 한 갈래 끝없는 큰길을 따라 앞으로 달리고 있다고 느낄 것인데, 길 양쪽에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도시가 있으며, 줄 곧 밖으로 내달린다. 듣기에는 더욱 허황하다. 나는 어떤 기공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는, 사람의 땀구멍 하나 속에 도시가 하나 있고, 그 속에서 기차가 달리고 자동차가 달린다고 했다. 다른 사람은 듣고서 아주 놀랍고, 아주 허황하

다고 느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립자 물질에는 분자·원자·양성자가 있는데, 맨 아래로 캐 내려가, 만약 당신이 매 층마다 이 한 층의 면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한 개의 점이 아니라 분자 한 층의 면, 원자 한 층의 면, 양성자 한 층의 면, 전자핵 한 층의 면을 보았다면, 당신은 곧 부동(不同)한 공간 중에서 존재하는 형식을 본 것이다. 사람의 신체를 포함한 어떤 물체든 모두 우주공간의 공간 층차와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 통한다. 우리 현대물리학은 물질의 미립자를 연구함에 다만 미립자 하나를 연구하는데, 그것을 분석하고 분열시켜, 전자핵이 분열한 후 다시 그것의 핵분열 후의 성분을 연구한다. 만약 이런 계측기가 있어 전개(展開)할 수 있고, 이 한 층차 중의 그것을 볼 때에, 모든 원자 성분 또는 분자 성분이 이 한 층 중에서 전반적으로 체현되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곧 이 공간을 돌파했고, 다른 공간이 존재하는 진상(眞相)을 본 것이다. 사람의 신체는 바깥공간과 대응하는데, 그것은 모두 이런 존재 형식이 있다.

스스로 천목을 여는 데는 또 몇 가지 부동(不同)한 상태가 있는데, 우리는 비교적 보편적인 일부 현상을 주로 말했다. 또 어떤 사람은 천목이 돌고 있는 것을 본다. 도가공(道家功)을 연마(煉)하는 사람은 늘 천목 안이 도는 것을 보는데, 태극판이 ‘팍’ 갈라진 다음에는, 그는 영상을 본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머리 안에 태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서 사부가 당신에게 넣어준 한 세트의 것으로서 그 중 하나가 태극이

다. 그가 당신의 천목을 봉했는데, 당신이 열 때가 되면 그것이 갈라진다. 그가 특별히 당신에게 안배한 것이지, 당신의 머리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천목 열기를 추구하지만, 도리어 연마(練)할수록 열리지 않는데, 무슨 까닭인가? 그 자신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천목은 구할 수 없는 것이기에 구할수록 더욱 없다. 구하면 구할수록, 그것은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의 천목 안에서 또 일종의 것이 넘쳐 나오는데, 감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것이 당신의 천목을 덮어버릴 것이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매우 큰 장(場)을 형성하며, 갈수록 많이 넘쳐 나올 것이다. 천목이 열리지 않을수록, 그것을 추구할수록, 이런 것이 더욱 많이 넘쳐 나와 결국 그의 온 신체를 모두 둘러싸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두께 또한 아주 두꺼워서 매우 큰 장을 갖는다. 이 사람의 천목이 정말로 열렸다 해도 그는 역시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이런 집착심으로 봉해졌기 때문이다. 장래에 그가 더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집착심을 완전히 버렸을 때면, 그것이 천천히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주 간고하고 긴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매우 불필요하다. 어떤 사람 그는 알지 못하는데, 사부가 그에게 구해서는 안 된다, 구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지만, 그는 믿지 않고 줄곧 추구하여 결국 바라는 바와 정반대로 된다.

요시공능(遙視功能)

천목과 직접 관계가 있는 한 가지 공능을 요시(遙視)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여기에 앉아서 북경(北京)의 광경을 볼 수 있고 미국의 광경을 볼 수 있으며 지구의 저쪽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과학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 보고 저렇게 해석해 봐도 설명이 잘 되지 않자, 사람이 어찌 이렇게 큰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아니다. 世間法(쓰젠파), 이 층차 중에서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 요시를 포함하고 많고 많은 특이공능을 포함하여 그가 본 것은 모두 하나의 특정한 공간 내에서 작용을 일으키며, 가장 크다 해도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이 물질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두 자신의 공간장(空間場)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신체는 어떤 특정한 공간 중에 한 장(場)을 갖고 있다. 이 장과 德(터)의 그 장은 또한 같은 장이 아니며 동일(同一)한 공간이 아니지만, 크기는 같은 장 범위이다. 이 장과 우주는 일종의 대응하여 비치는 관계인데, 우주 저쪽에 무엇이 있으면 그의 이 장 중에 그것이 대응하여 비쳐오며, 모두 대응하여 비쳐올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영상(影像)으로서 진실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지구에 미국이 있고 워싱턴이 있어 그의 장 중에도 미국이 비쳐 나오고 워싱턴이 비쳐 나오

지만, 그것은 그림자다. 그렇지만 그림자 역시 일종의 물질존재로서 그것은 대응하여 비쳐온 관계며, 저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는 요시공능이란 바로 그 자신의 공간장(空間場) 범위 내의 것을 보는 것이다. 그가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벗어난 후에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직접 보는 것으로서 불법신통(佛法神通)이라 하며, 그것은 위력이 비할 바 없다.

世間法(쓰젠파) 중에서 요시공능은 어찌된 일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분석해 주겠다: 이 장의 공간 중에서 사람의 앞이나 부위에는 거울 하나가 있는데, 연공(煉功)하지 않는 사람의 것은 덮어져 있고, 연공하는 사람의 그것은 뒤집어져 있다. 사람의 요시공능이 나올 때에는 그것이 반복하여 뒤집힐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화필름은 매초 24프레임이어야만 그림의 움직임이 이어지게 할 수 있으며, 24프레임보다 적을 때는 곧 뛰는 감이 있다. 그것이 뒤집히는 속도는 매초 24프레임을 초과하는데, 그것은 비춰진 물체를 거울에 찍어 놓고 뒤집혀서 당신이 보게 하고 다시 뒤집힌 후에는 곧 지워버린다. 그런 다음 다시 비추고, 다시 뒤집히며, 다시 지우면서 끊임없이 뒤집힌다. 그러므로 당신이 보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바로 그것이 당신 공간장 내의 것을 비춰 당신에게 보여준 것인데, 공간장 중의 것은 대우주(大宇宙) 중에서 대응해 비쳐온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몸 뒤를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작은 거울로

신체 주위를 모두 비출 수는 없잖은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의 천목 층차가 천안통을 초과해 혜안통에 진입하려는 데까지 열렸을 때, 곧 우리 이 공간을 돌파하게 된다. 바로 이때, 곧 돌파하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을 때에, 천목은 일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체를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을 보아도 없고, 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며,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 특정한 공간 중에서 다시 종심(縱深)으로 보아 내려갈 때, 사람이 없음을 발견할 것이며, 다만 거울 하나가 당신의 이 공간장 범위 내에 서 있을 뿐이다. 이 거울은 당신의 공간장에서 당신의 전체 공간장과 똑같이 크다. 그러므로 그것이 안에서 뒤집히고 뒤집힐 때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당신의 공간장 범위 내에서, 오직 우주 중에서 대응해 비쳐온 것이라면, 그것은 전부 당신에게 비춰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요시공능이다.

인체과학을 연구하면서 이 공능을 측정할 때 흔히 그것을 부정하기 쉽다. 부정하는 이유는 이렇다. 예를 들어 아무개의 북경에 있는 친척이 뭘 하고 있는가? 이 친척의 이름과 대략적인 정황을 말하면 그는 곧 보아낸다. 그는 말한다: 이 건물은 어떤 모양이고, 이 문은 어떻게 들어가며, 방으로 들어가면 방안의 꾸밈은 어떠한가. 모두 맞게 말한다. 사람은 뭘 하고 있는가? 사람은 지금 글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해서 그의 친척을 찾는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나는 밥을 먹고 있다. 이걸 그가 본 것과 다르

지 않은가? 과거에 이런 공능을 부정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본 환경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이 공간과 시간을 우리는 시공(時空)이라고 하는데, 공능이 존재하는 그 공간의 시공과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양쪽의 시간개념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 전에는 거기에서 글을 썼지만 지금은 밥을 먹고 있는, 이런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흔히 인체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약 통상적인 이론으로 현재 과학에 비추어 이렇게 추리하고 연구한다면 만 년이 더 지나도 헛수고다. 이런 것들은 본래 속인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상은 일종의 전환(轉變)을 일으켜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숙명통공능(宿命通功能)

또 천목과 직접 관계가 있는 한 가지 공능이 있는데, 숙명통(宿命通)이라고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여섯 가지 공능이 공인받고 있는데, 그중에 천목, 요시가 포함되며 또 숙명통이 있다. 무엇을 숙명통이라고 하는가? 바로 한 사람의 장래와 과거를 알 수 있고, 크게는 사회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으며, 더욱 크게는 온 천체(天體) 변화의 법칙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숙명통공능이다. 물질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기 때문에 특수한 공간 중에는 어떤 물체든지 모두 많고 많

은 다른 공간 중에서 존재하는 형식이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의 신체가 움직이기만 하면 사람 신체 내의 세포들이 모두 따라서 움직이는데, 미시하의 모든 분자·양성자·전자, 가장 작고 가장 작은 모든 성분들도 모두 따라서 운동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식이 있고,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신체형식에도 일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물질불멸(物質不滅)을 말하지 않는가? 어떤 특정한 공간 중에서,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면, 즉 사람이 손을 한번 휘둘러 어떤 일을 하면 모두 물질로 존재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영상과 정보가 남을 것이다. 다른 공간에서 그것은 불멸하는 것으로서 영원히 그곳에 존재할 것이며, 공능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존재했던 광경을 보기만 하면 곧 알 수 있다. 장래에 당신이 숙명통공능이 있게 된 후, 당신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보려 하면 그것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이미 동시에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 한 사람이 태어날(降生) 때에 하나의 특수하고 시간개념이 없는 공간 중에 사람의 일생이 이미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생뿐만이 아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개인분투, 자아개조는 필요 없는가? 그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사실 개인분투는 인생의 작은 것을 개변할 수 있으며 일부 작은 것들은 개인분투를 통해 일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바로 당신이 개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업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업을 짓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억지로 이렇게 하면 그는 곧 다른 사람의 이익을 점유하여, 그는 나쁜 짓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련에서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르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치다. 왜냐하면 당신이 노력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당신의 생명 중에 이것이 없는데 사회 중에서 본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당신이 얻는다면, 당신은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큰 일은 그가 움직이려고 해도 속인으로서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나쁜 일만 하고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을 모두 한다면, 그는 그의 인생을 개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하는 것은 철저한 환멸이다. 우리가 고층차에서 볼 때, 사람이 죽어도 元神(웬선)은 불멸(不滅)한다. 元神(웬선)은 어찌하여 불멸하는가? 사실 우리가 사람이 죽은 후에 영안실에 놓인 그 사람을 보면, 그것은 단지 우리 이 공간 중의 인체 세포에 불과하다. 내장(內臟), 신체 속의 각 세포 조직, 온 인체는 이 공간 중의 세포가 탈락된 것일 뿐, 다른 공간의 분자·원자·양성자 등의 성분보다 더욱 작은 물질 미립자로 된 신체는 전혀 죽지 않았으며, 그것은 다른 공간 속에, 미시하의 공간 중에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다 한 사람이 직면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세포가 전부 해체되는 것인데,

불교 중에서는 형신전멸(形神全滅)이라 한다.

사람이 그의 일생을 개변시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유일한 방법으로서, 바로 이 사람이 이후부터 한 갈래 수련(修鍊)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수련의 길을 걸으면 그의 인생을 개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누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수련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하는, 이 의념(意念)이 움직이기만 하면 마치 금과 같이 빛나서十方세계(十方世界)를 진동하기 때문이다. 불가의 우주에 대한 개념은十方세계 학설이다. 왜냐하면 고급 생명이 볼 때 사람의 생명은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생명은 우주 공간 중에서 생겨난 것이며, 우주와 동일한 성질이고 선량한 것으로서,眞(眞)·善(善)·忍(忍), 이런 물질로 구성되었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도 군체적인 관계가 있어, 그는 군체 중에서 사회관계가 발생할 때 일부가 좋지 않게 변하여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 층차 중에서 또 그는 있을 수 없게 되고, 그는 더욱 나쁘게 변하여 그는 또 한 층차 떨어졌으며;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 최후에는 속인 이 층차 중까지 떨어져 내려왔다.

이 층차 중에서 이 사람은 마땅히 훼손되고 소멸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대각자들은 대자비심에서 특별히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바로 우리 인류사회와 같은 이런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그에게 사람의 육신을 하나 더 주었고 우리 이 물질 공간에서만 국한하여 물체를 볼 수 있는 이런 한 쌍의 눈을

더 주었다. 즉 미혹 중에 떨어져서 그로 하여금 우주의 진상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공간 중에서는 모두 볼 수 있다. 이 미혹 중에서, 이 상태하에서 그에게 이런 기회를 남겨 주었다. 미혹 중에 있기 때문에 또한 가장 고달프며 이 신체가 있어 그에게 고생을 겪게 한다. 사람이 이 공간에서 되돌아 올라올 수 있음을, 도가의 연공(煉功)에서는 반본귀진(返本歸眞)이라 하는데, 그에게 수련하려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곧 불성(佛性)이 나온 것으로서, 이 마음을 가장 진귀하게 보아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것이다. 사람이 이처럼 고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아직 방향을 잃지 않고, 또 되돌아가려고 하므로,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것인데, 무조건 그를 도와주며 무슨 일이든 그를 도와줄 수 있다. 왜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속인에게는 해줄 수 없는가? 바로 이런 이치다.

그러면 한 속인으로서 병을 치료하려 한다면, 당신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 속인은 곧 속인으로서, 속인은 마땅히 속인사회의 상태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 부처는 중생을 널리 제도하지 않는가, 불가는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말하지 않는가.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이 불교 중의 모든 경전을 다 뒤져보아도 속인의 병을 제거해 줌이 바로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이라는 말이 없다. 이 몇 해 사이 바로 그런 가짜 기공사들이 이 일에 화란(禍亂)을 일으켰다. 진정한 그런 기공사, 길을 닦은 그런 기공사들은 전혀 당신에게 남의

병을 치료해 주라고 하지 않았으며, 그는 다만 당신 자신이 단련하여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라고 가르쳤을 뿐이다. 당신은 속인인데, 당신이 이틀간 배워서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집착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명리를 추구하고, 초상(超常)적인 것을 추구하여 속인 중에서 과시한다! 그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추구할수록 더욱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당신이 이처럼 속인의 이 사회 상태를 함부로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우주에는 곧 이런 이치가 있는데, 당신이 반본귀진하려 할 때, 남들은 곧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는 사람의 생명은 마땅히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마땅히 속인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인류에게 아무 병도 없이 편안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한다면, 당신에게 신선이 되라고 해도 당신은 가지 않을 것이다. 병도 없고, 고생도 없으며, 무엇을 갖고자 하면 곧 그것이 있는데, 이 얼마나 좋은가. 정말로 신선세계다. 그러나 당신은 좋지 않게 변해 이 일보까지 떨어진 것이므로, 당신은 편안할 수 없다. 사람은 미혹 중에서 나쁜 일을 하기 쉬운데, 불교 중에서는 업력운보(業力輪報)라고 한다. 그러므로 흔히 일부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무슨 마난(魔難)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모두 업력운보 중에서 그의 업을 갚고 있는 것이다. 불교 중에서는 또 부처

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한다. 한 부처가 손을 한 번 휘저으면, 전 인류의 병이 모두 없어지는데, 이것은 보증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부처가 어째서 이 일을 하지 않는가? 그가 이전에 좋지 않은 일을 해 빚을 졌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그를 치료해 주었다면 곧 우주의 이치를 파괴하는 것과 같으며, 이 사람은 나쁜 일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나 속인사회의 상태를 수호하며 누구도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다. 유일하고 진정하게 당신이 병이 없는 편안함을 찾아 진정한 해탈의 목적에 도달하려면 오직 수련뿐이다! 사람에게 정법(正法)을 수련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이다.

많은 기공사가 어찌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그는 왜 병 치료를 말하는가? 어떤 사람은 아마 이 문제를 생각할 것인데, 대다수 이 부류는 모두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공사가 자비심에서, 연민(憐憫)에서, 수련과정 중에 중생이 모두 고생스러운 것을 보고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이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그는 치료를 잘할 수는 없는데, 그는 다만 당신의 이 병을 잠시 억제해 주거나, 혹은 당신에게서 미뤄 놓아 현재 얻지 않으면 장래에 얻도록 병을 뒤로 미뤄 놓거나, 혹은 당신에게서 전화(轉化)해 주어 당신의 친인 몸 에다 전화해 놓는다. 그러나 진정하게 당신의 이 업(業)을 철저히 없애버리는 것은, 그는 할 수 없다. 속인에게 함부로 이

렇게 함을 허용하지 않으며, 수련하는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이치다.

불가가 중생을 널리 제도한다는 이 말의 함의는 당신을 속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 중에서 고층차로 끌어올려 영원히 고생을 겪지 않게 하며 해탈시킨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것은 이런 함의이다. 석가모니는 열반(涅槃)의 피안(彼岸)을 말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가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진정한 함의이다. 만약 당신에게 속인 중에서 복만 누리게 하고, 돈이 많아 당신 집의 침대도 모두 돈으로 깔았으며 아무런 고통도 없다면, 그럼 당신에게 신선이 되라고 해도 당신은 다 싫다고 할 것이다.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인생행로를 개변해 줄 수 있으며, 또 오직 수련해야만 비로소 개변할 수 있다.

숙명통공능의 형식은 사람의 앞이마 부분에 텔레비전의 작은 형광판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앞이마 이 부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앞이마와 거리가 아주 가까우며, 어떤 사람은 앞이마 속에 있다.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볼 수 있으며, 만약 그것이 아주 강하다면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그의 공간장(空間場) 범위 내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공능이 나온 후에, 또 일종의 공능을 운반체로 삼아 다른 공간 중에서 본 광경을 반영해 오기 때문에 바로 이 천목 중에서 보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장래를 보고 한 사람의 과거를 보는데, 보는 것이 아주 정확하다. 점을 아무리 잘

친다 해도, 작은 일이나 세부적인 것은 역시 추산해 내지 못하는데, 그는 오히려 아주 똑똑히 볼 수 있고, 연대(年代)까지도 보아낼 수 있다. 변화된 세부까지도 모두 보아낼 수 있는데, 그가 보는 것은 바로 부동(不同)한 공간의 사람 또는 사물의 진실한 반영이기 때문이다.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기만 하면, 사람마다 천목을 열어준다. 그러나 우리가 그 후에 말한 몇몇 공능, 이것은 열어주지 않는다. 층차를 끊임없이 제고함에 따라, 숙명통공능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며 장래 수련 중에서 이런 정황을 만날 것이다. 이런 공능이 나올 때에 곧 어찌된 일인가를 알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법이요, 이치요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말해 준다.

오행(五行) 중에 있지 않고, 삼계(三界) 밖으로 벗어나다

무엇이 ‘오행(五行) 중에 있지 않고, 삼계(三界) 밖으로 벗어나다’인가? 이 문제를 말하자면 아주 참예하다. 과거에 많은 기공사가 이 문제를 말했는데, 기공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문이 딱 막혀버렸다. “연공(練功)하는 당신들 누가 오행을 벗어났으며, 당신들 누가 삼계에 있지 않은가?” 일부 사람, 그는 기공사가 아니며, 그의 이 기공사는 자칭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겠으면 말하지 말 것이지, 그가 또 감히 말하므로 사람들은 곧 그의 입을 막아버린다. 수련계에 아주 큰

손실을 조성했고 아주 큰 혼란을 조성했으며 사람들은 이를 구실로 기공을 공격했다. 오행 중에 있지 않고 삼계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은 수련계의 한 마디 말로서, 그것은 종교에서 왔고 종교 중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 배경을 이탈할 수 없으며 당시 환경을 이탈해서 이 문제를 말할 수 없다.

무엇이 오행 중에 있지 않은 것인가? 우리 중국의 고대 물리학이나 현재의 물리학도 모두 다 중국의 오행학설이 맞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 이 오행이 우리 우주 중의 만사만물을 구성했다는 이것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행을 말한다. 이 사람이 오행을 벗어났다는 말을 현재의 말로 하면 곧 우리 이 물질세계를 벗어났다는 것인데, 듣기에는 너무나 허황하다. 여러분, 이러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라. 기공사에게는 공(功)이 존재한다. 나는 실험을 했고 많고 많은 기공사도 모두 이런 측정을 했으며, 그의 에너지를 측정했다. 왜냐하면 이 공(功) 중의 물질성분은 우리 현존의 많은 계측기로 모두 측정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공사가 내보내는 성분은 그러한 계측기만 있으면 공의 존재를 측정해 낼 수 있다. 현재의 계측기로 적외선·자외선·초음파·초저주파·전기·자기·감마선·원자·중성자를 측정해 낼 수 있다. 기공사는 모두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기공사가 내보내는 물질은 계측기가 없어서 측정하지 못한다. 무릇 계측기가 있는 것은 모두 측정해 낼 수

있는데, 기공사가 내보내는 물질은 극히 풍부함을 발견했다.

하나의 특수한 전자기장(電磁場)의 작용하에서 기공사는 강대한 휘광(輝光)을 내보낼 수 있는데, 특별히 아름답다. 공력이 높을수록 내보내는 에너지장도 더욱 크다. 속인에게도 있으나, 아주 작고 아주 작은 휘광이다.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 중에서 사람들은 에너지는 곧 중성자·원자 이런 것들이라고 여긴다. 많은 기공사들이 모두 측정을 받았는데, 비교적 명망 있는 기공사들도 측정을 받았다. 나도 측정을 받았는데, 측정할 때 내보낸 감마선과 열중성자는 정상적인 물질 방사량의 80배에서 170배를 초과했다. 이때 측정 계측기의 지침이 최대치를 가리키고 지침이 끝에 도달했기 때문에 최후에는 얼마나 큰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강대한 중성자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하다! 사람이 어찌 이처럼 강대한 중성자를 내보낼 수 있는가? 이 역시 우리 기공사는 공(功)이 존재하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점은 과학기술계에서 실증되었다.

오행을 벗어나려면 역시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이어야 한다. 성명쌍수 공법이 아니면 그의 층차 높이의 공만 자랄 뿐이다. 그러나 명(命)을 닦지(修) 않는 공법은 여전히 이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오행을 벗어나기를 말하지 않는다. 성명쌍수 공법, 그것의 에너지는 신체의 모든 세포 중에 저장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연공(煉功)하는 사람, 이제 막 공이 자란 사람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과립은 아주 굵고 간극

이 있으며,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위력이 아주 작다. 충차가 더욱 높아지면, 그 에너지 밀도는 일반 물 분자의 백 배, 천 배, 억 배를 더 초과할 수 있는데, 모두 가능하다. 왜냐하면 충차가 높을수록 그것의 밀도가 더욱 높고 더욱 세밀하며, 위력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하에서 에너지를 신체의 매 하나 세포 중에 저장하는데, 또 우리 이 물질 공간 신체의 매 세포 중뿐 아니라, 기타 공간의 모든 신체, 분자·원자·양성자·전자, 줄곧 극미시하의 세포 중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런 에너지로 충실해진다. 오래오래 지나면 사람의 신체는 완전히 이런 고에너지물질로 충만해진다.

이런 고에너지물질은 영성(靈性)이 있으며 그것은 능력이 있다. 그것이 많아지고 밀도가 높아져 인체의 모든 세포에 충만해진 후, 그것은 사람의 육체세포, 가장 무능한 세포를 억제할 수 있다. 일단 억제된 후에는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최후에는 완전히 사람의 육체세포를 대체하게 된다. 물론 내가 말하기는 쉬우나 이 일보까지 수련하는 것은 대단히 느린 과정이다. 당신이 이 일보까지 수련했을 때, 당신 신체의 모든 세포는 모두 이런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된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당신의 신체는 아직도 오행으로 구성된 것인가? 아직도 우리 이 공간의 물질인가? 그것은 이미 다른 공간에서 채집한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것이다. 그 德(덕)의 성분 역시 다른 공간 중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그것 역시 우리 이 공간의 시간장(時間場)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재 과학은, 시간에는 장(場)이 존재하고, 시간장의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다른 공간, 그것의 시공간개념은 우리 이쪽과 모두 같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공간의 물질을 제약할 수 있겠는가? 전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때 당신은 오행 중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당신은 아직도 속인의 신체인가? 전혀 아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 속인은 보아내지 못한다. 비록 그의 신체가 이런 정도로 개변되었지만 아직 수련의 끝이라고 할 수 없고, 그는 아직 계속 충차를 돌파하여 위로 수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속인 중에서 수련해야 하며, 사람들이 모두 그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후로는 어떻게 하는가? 그는 수련 과정 중에서, 그의 모든 분자 세포가 비록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되지만, 그 원자는 배열순서가 있는 것으로서, 분자·원자핵의 배열순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세포의 분자 배열순서는 곧 그런 상태로서 만져보면 부드럽고, 뼈의 분자 배열순서는 밀도가 높아서 만져보면 단단하며, 혈액의 분자 밀도는 아주 낮아 그것은 곧 액체다. 속인은 외관상 당신의 변화를 보아내지 못하는 데, 그의 분자세포는 여전히 원래 그런 구조와 배열순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속 에너지가 개변(改變)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때부터 자연 노쇠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세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청춘이 오래 머무르게 된다. 수련과정 중에 사람은 젊어

보일 것이고, 최후에는 거기에 고정된다.

물론 그 신체가 자동차에 부딪히면 여전히 골절할지도 모르며, 칼에 베이면 여전히 피가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분자배열 순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다만 그는 자연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고, 자연적으로 노화하지 않을 것이며, 신진대사가 없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행을 벗어난다. 여기 어디에 무슨 미신이 있는가? 과학적 이치로도 모두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말하는데, 사람들은 당신이 미신 행위를 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한 마디 말 그것은 종교에서 왔고, 우리 현대 기공이 달아준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삼계(三界)를 벗어난인가? 내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공이 자라는 관점은 우리가 心性(썬썬)을 수련하여 우주의 특성에 동화하는 것으로서, 우주의 특성이 당신을 제약하지 않게 되고, 당신의 心性(썬썬)이 승화해 올라오면, 그 德(더)의 성분은 곧 공으로 연화(演化)된다. 끊임없이 위로 자라고, 위로 상승하여 고층차로 승화한 후, 곧 한 가닥 공기둥을 형성한다. 이 한 가닥 공기둥이 얼마만큼 높으면 당신의 공도 그만큼 높다. 이런 한 마디 말이 있다: 대법은 끝없는바(大法無邊), 당신의 그 마음에 의거해 수련해야 하며, 당신이 얼마나 높이 수련할 수 있는가는 완전히 당신의 인내력과 고생을 견뎌내는 능력에 달렸다. 당신이 자신의 백색물질을 다 썼다면 당신은 고생을 통해 자신의 흑색물질 그것도 백색물질로

전화(轉化)할 수 있다. 그래도 모자라면 친척이나 친한 친구의 것을, 그는 수련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함으로써 당신은 역시 공이 자랄 수 있는데, 이것은 극히 높은 층차로 수련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한 속인이 수련함에 당신은 친인(親人)을 대신해 죄를 감당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큰 업력으로는 일반인은 수련 성취하지 못한다. 내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부동(不同)한 층차의 이치다.

종교 중에서 말하는 삼계는 구층천(九層天) 또는 삼십삼층천(三十三層天)이다. 다시 말해서 천상·지상·지하로 삼계 내의 중생을 구성했다. 그것은 삼십삼층천 내의 모든 생물이 모두 육도윤회(六道輪廻)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육도윤회의 의미는 바로 금생은 사람이지만, 내생은 동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불교 중에서는 말한다: 살아있는 동안에 다그쳐야 하는데, 지금 수련하지 않고 언제 수련하겠는가? 왜냐하면 동물은 수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법을 듣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수련해도 정과(正果)를 얻지 못하고, 공이 높아지면 또 천살(天殺)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몇백 년에 인체 하나를 얻지 못하다가 천여 년에 인체 하나를 얻었는데, 인체를 얻고도 소중히 해야 함을 모른다. 만약 당신이 돌로 탄생(托生)한다면 만 년이 되어도 나오지 못하며, 그 돌이 분쇄되지 않고 풍화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즉, 인체를 하나 얻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만약 진정하게 대

법(大法)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행운이다. 사람 몸을 얻기 어렵다는 이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연공(煉功)에서는 층차 문제를 말한다. 이 층차는 전적으로 자신에 의거해 수련해야 하는데, 만약 당신이 그것의 삼계를 벗어나려고 하여 당신의 공기둥이 아주 높고 아주 높이가 수련되었다면, 당신은 곧 그것의 삼계를 돌파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가부좌하여 元神(웬선)이 몸을 떠날 때 단번에 아주 높이 올라갔다. 어떤 수련생이 나에게 쓴 심득체험에서 말했다: 스승님, 저는 몇몇 층 하늘에 올라가서 저는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더 높이 올라가 보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올라갈 수 없고 감히 올라가지 못하겠으며, 더는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의 공기둥이 곧 그만큼 높고, 그는 그의 공기둥에 앉아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 중에서 말하는 과위(果位)인즉, 그 과위까지 수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련인으로 말하면 아직 과위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그는 아직도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끊임없이 승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제고하고 있다. 당신의 공기둥이 삼계의 한계를 돌파했다면, 당신은 바로 삼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측정했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삼계는 단지 우리 9대 행성 범위 내에 불과함을 발견했다. 어떤 사람은 10대 행성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과거의 그런 기공사들,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의 공기둥은 은하계를 벗

어났으며, 상당히 높아 그 삼계를 그는 일찍이 지나갔다. 내가
방금 말한 삼계 밖으로 벗어난다는 이것은 사실 바로 층차 문
제다.

구하고자 하는 문제

많은 사람이 구하려는 마음을 품고 우리 수련장에 들어온
다. 어떤 사람은 공능을 구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론이나
들어보려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하려고 생각하
고, 또 어떤 사람은 法輪(파룬)을 얻으려고 생각하는데, 어떠
한 심태(心態)든 다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우리 집에
아직 이 학습반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학비를
좀 드릴 테니 당신께서 그에게 法輪(파룬)을 하나 주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을 거치고, 극히 멀고 오랜 연대를
거쳤는데, 숫자만 말해도 깜짝 놀랄 것이다. 이처럼 오래고 먼
연대를 거쳐 형성한 것인데, 당신이 몇십 위안(元)으로 法輪
(파룬)을 사려고 하는가? 우리는 왜 무조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가? 바로 수련하는 사람이 되려는 당신의 이 마음은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살 수 없는 것으로서, 불성(佛性)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한다.

당신은 구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당신은 이것을 위해
온 것인가? 당신이 사상 중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른 공
간에서 나의 법신(法身)은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 두 개 시

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보면 당신의 사유 구성은 극히 느린 과정이다.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는 다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바르지 않은 사상을 모두 버려야 한다. 불가에서는 연분을 중시하는데, 여러분은 모두 연분으로 왔기에, 얻었다면 이는 당신이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소중히 여겨야 하며, 어떤 구하려는 마음도 품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종교 수련에서, 불가에서는 공(空)을 주장하여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공문(空門)으로 들어가고, 도가에서는 무(無)를 주장하여 아무것도 없으며 가지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연공인(煉功人)은 유심연공(有心煉功), 무심득공(無心得功)을 주장한다. 일종의 무위(無爲) 상태의 수련으로서, 오직 당신이心性(썬쌩)을 수련하기만 하면 당신의 층차는 돌파되며, 당신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면 바로 집착심이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서 단번에 이렇게 높은 법을 전하므로 당연히 당신의心性(썬쌩)에 대한 요구도 높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구하려는 마음을 품고 와서 법을 배워서 안 된다.

여러분을 책임지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이 법을 당신에게 투철하게 말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천목을 추구할 때, 이 천목은 스스로 막힐 것이며, 당신 자신을 봉해놓을 것이다. 아울러 내가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世間法(쓰젠파)에서 수련할 때에 사람에게서 나온 모

든 공능이 모두 육신 자체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본능으로서, 우리는 현재 특이공능이라고 한다. 그것은 다만 현존의 공간, 즉 우리 이 공간 내에서만 그것의 작용을 발휘하여 속인을 제약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소능소술(小能小術)을, 당신이 그것을 추구해서 뭘 하겠는가? 추구하고 추구해도 出世間法(추쓰젠파) 이후에 이르면, 다른 공간에서는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벗어날 때에 이런 모든 공능을 전부 버려야 하며, 그것들을 하나의 아주 깊은 공간 중에 눌러 넣어두었다가 장래 당신의 수련과정 중의 기록으로 삼는, 단지 이런 약간의 작용을 일으킬 뿐이다.

世間法(쓰젠파)에서 벗어난 후, 사람은 새롭게 수련해야 한다. 그러한 신체는 내가 방금 말한 오행을 벗어난 신체로서, 그는 불체(佛體)다. 그러한 신체는 역시 불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불체는 새롭게 수련을 시작해야 하며, 공능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를 공능이라 하지 않고 불법신통(佛法神通)이라 한다. 그는 위력이 무궁하여 각개 공간을 제약하며 진정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당신이 공능을 추구하여 무슨 쓸모가 있는가? 무릇 공능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신이 속인 중에서 쓰거나 속인 중에서 과시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그것을 가져서 뭘 하겠는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장식품으로 하려 해도 또한 보기 좋은 것으로 찾아야 하는데! 보증코 당신의 잠재의식 중에 그것을 쓰려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속인 중의 기능으로 여겨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완전히 일종 초상(超常)적인 것으로서, 당신으로 하여금 속인 중에서 과시하게 할 수 없다. 과시하는 자체가 바로 아주 강한 집착심이고 매우 좋지 않은 마음이며, 수련인이 제거해야 할 마음이다. 당신이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려 하며, 개인분투 중에서 당신이 속인 중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안 된다. 그것은 고층차의 것을 써서 속인사회를 교란하고, 속인사회를 파괴하는 것인바, 생각이 더욱 나쁘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능이 나옴은 흔히 양쪽에 비교적 많은데, 어린이와 나이 많은 노인이다. 특히 나이 많은 부녀자들은 흔히 心性(썩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녀는 속인 중에서 아무런 집착심도 없다. 공능이 나온 후, 그녀는 쉽게 파악하며 그런 과시심리가 없다. 젊은이들은 왜 나오기 어려운가? 특히 남성 청년, 그는 여전히 속인사회 중에서 한번 분투해 보려 하고 또한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 일단 공능이 나오면, 그것을 운용하여 그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며, 그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종의 능력으로 삼을 것인즉, 그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공능이 나올 수 없다.

수련의 일은 아이들 장난이 아니고, 속인 중의 기능도 아니며, 매우 엄숙한 일이다. 당신이 수련하려 하는가 하지 않는가, 당신이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心性(썩썩)을 어떻게 제고하는가에 달렸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공능을 구해 올 수 있다면, 그건 참 큰일이다. 당신이 보라. 그는 무슨 수련이고 수련이 아니고, 이런 일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心性(썸썸)이 속인에 기초를 두고 있고 공능 또한 구해서 온 것이므로 그는 아마 어떤 나쁜 일이든지 다 할 것이다. 은행에 돈이 많으니 좀 운반해 오고, 거리에 복권이 많으니 그 1등상을 뽑는다. 왜 이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가?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德(더)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 공능이 나온 후에 나쁜 일을 하기 쉽다. 나는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며, 전혀 그런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당신이 德(더)를 중히 여기지 않고 心性(썸썸)을 수련하지 않으면 공능이 아예 나올 수 없다. 어떤 사람은 心性(썸썸)이 좋아 어느 층차에서 일단 공능이 나오면 나중에 그가 잘 파악하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데, 역시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가 일단 나쁜 일을 하기만 하면 공능은 바로 약해지거나 없어진다. 이렇게 한번 잃기만 하면 영원히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장 엄중한 것은 사람에게 집착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기공사가 말하기를, 그의 공을 배우면 사흘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닷새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광고를 하드시피 하는데, 이것을 기공상(氣功商)이라고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이 한 속인으로서 당신이 기(氣)를 좀 내보냈다 하여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 줄 수 있겠는가? 속인 몸에도 기가 있고 당신도 기가 있는데, 당신은 이제 막 연공(練功)하

여 다만 당신의 노궁혈(勞宮穴)이 열렸으며, 기를 끌어들이고 내보낼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줄 때, 다른 사람의 몸에 있는 것도 기(氣)이므로 당신을 다스릴지도 모른다! 어디 기와 기 사이에 제약작용이 있는가? 기는 전혀 병을 치료할 수 없다. 게다가 당신이 그의 병을 치료해 줄 때, 당신과 환자는 같은 장(場)을 형성하므로, 환자 몸의 병기(病氣)가 전부 다 당신 몸에 달라붙어 똑같이 많아진다. 비록 뿌리는 그의 몸에 있지만 만약 병기가 많으면 당신도 병에 걸릴 것이다. 당신은 일단 당신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당신은 문을 열고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즉, 당신은 집착심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병을 잘 봐주는데, 얼마나 기쁜가! 왜 잘 봐줄 수 있는가? 당신은 생각해 보지 않는가. 가짜 기공사의 몸에는 모두 부체(附體)가 있는데, 당신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당신에게 그런 정보를 줌 준 것이다. 당신이 세 사람이나 다섯 사람, 열 사람이나 여덟 사람을 치료하고 나면 곧 없어진다.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 소모로서, 이후부터는 요만한 에너지도 더는 없다. 당신 자신이 공이 없는데 어디에서 온 공이란 말인가? 우리 기공사들은 몇십 년 수련을 거치는데, 과거에 수도(修道)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다. 정법문(正法門)을 틀어쥐고 수련하지 않고 편문(偏門)에서 수련하거나 소도(小道)에서 수련한다면 상당히 어렵다.

당신이 보기에 어떤 대기공사(大氣功師)는 명성이 자자한

것 같지만, 몇십 년을 수련했어도 겨우 고만한 공밖에 수련해
 내지 못했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았는데, 학습반에 한번 참가
 했다고 해서 당신에게 공이 올 수 있겠는가? 어디 그런 일이
 있는가? 당신은 이후부터 집착심이 생긴다. 일단 집착심이 나
 와서, 당신이 병을 잘 치료하지 못하면 당신은 조금해한다. 어
 떤 사람은 자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그가 병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병을 내가 대신 얻고 그의 병이
 낫게 하자. 그것은 자비심(慈悲心)에서가 아니다. 그는 그 명
 리심(名利心)을 전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심이 아예
 생길 수 없다. 그는 자신의 명성을 잃을까 두려워, 자기가 이
 병을 얻지 못함을 한스러워한다. 그는 이 명성을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하는데, 명성을 추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
 가! 그가 이런 소원을 내보내기만 하면, 그럼 좋다, 그 병은
 단번에 그의 몸으로 전화해 온다. 정말로 이런 작용이 일어나
 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병에 걸린다. 다른 사람은 나왔지만
 남의 병을 봐주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서 괴로워한다. 당신
 은 병을 고쳤다고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을 기공사라고
 부르면, 당신은 기빠서 득의양양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것은 집착심이 아닌가? 병을 잘 고치지 못하면 풀이 죽어
 의기소침해지는데, 이것은 명리심이 작용을 일으킨 것이 아닌
 가?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봐준 환자의 병기는 모두 당신 몸
 에 달라붙을 것이다. 그 가짜 기공사는 당신에게 어떠어떠하
 게 밖으로 배출하라고 가르쳐 준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데, 전혀 배출해 버릴 수 없으며, 조금도 배출해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은 좋은 기와 나쁜 기를 변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래오래 되면, 당신의 신체 속은 전부 시꺼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업력이다.

진정으로 수련하자면 당신은 정말 어려워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비로소 그것을 백색물질로 전화시킬 수 있겠는가? 아주 어려운데, 특히 근기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쉽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줄곧 병 치료, 병 치료만 추구한다. 당신이 구하고 있음을 그 동물이 보고 그것이 곧 올라오려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체(附體)다. 당신은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는가? 당신에게 치료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연고 없이 당신에게 치료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잃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는 바, 아주 위험하다. 최후에 당신은 그것을 불러왔는데, 당신은 또 무슨 수련을 하겠는가? 곧 철저한 끝장이다.

일부 근기(根基)가 좋은 사람은 자신의 근기로 다른 사람의 업과 바꾼다. 그 사람은 병이 있으며, 그의 업력은 크다. 만약 당신이 한 중병환자를 치료한다면, 당신이 병을 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얼마나 괴로운지 말도 말라! 과거에 병을 보았던 우리 아주 많은 사람이 곧 이런 감각이 있었을 것인데, 환자는 좋아졌지만, 당신은 집에 돌아가서 한번 크게 앓는다. 시간이 길어져서 업력으로 전환되어 오는 것이 많으며, 당신은 남에게 德(더)를 주고 업력으로 바꾸는데,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지 않는가. 당신이 가지려는 것이 병이라고만 보지 말라. 업 역시 德(터)으로써 교환해야 한다. 이 우주 중에는 이런 이치가 있는데, 당신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관할 수 없으며, 또 당신을 좋다고 할 수도 없다. 우주 중에는 한 가지 특정한 것이 있는데, 즉 누가 업력이 많으면 바로 그가 나쁜 사람이다. 당신은 자신의 근기로 그의 업력을 전환해 주는데, 업력이 많아서야 또 무슨 수련을 하겠는가? 당신의 근기는 전부 다 그에 의해 망가졌다. 그것이 무섭지 않은가? 다른 사람은 병이 나았고 그는 편안해졌지만, 당신은 집에 가서 괴로워한다. 당신이 만약 암 환자 둘을 낫게 했다면 당신 자신은 그를 대신해서 가야 하는데, 이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바로 이러하다. 많은 사람이 그 중의 이치를 모른다.

일부 가짜 기공사를, 당신은 그의 명성이 얼마나 큰가만 보지 말라. 유명(有名)하다는 명(名)이 꼭 명백하다는 명(明)은 아니다. 속인은 무엇을 아는가? 한 무리가 떠들어대면 곧 믿는다. 당신은 그가 현재 이렇게 하는 것만 보지 말라. 그는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그 자신을 해치는데, 한두 해 지나 당신은 그가 어떤 모양인가를 보라. 수련은 이렇게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수련은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데 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초상(超常)적인 것으로서 우리 속인 중의 기능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져와 이처럼 마음대로 파괴함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가짜 기공사들은 정말로 난장판

을 만들고 있다. 기공을 명예 추구와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며, 그는 세력을 확대하는 사악한 단체를 만드는데, 진정한 기공사보다 몇 배나 더 많다. 속인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은 곧 믿는가? 기공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여기는데,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이치다.

속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각종 사회관계가 발생할 때, 개인 이익을 위해 나쁜 일을 하는데, 빚진 것은 곧 감당하고 갚아야 한다. 가령 당신이 마음대로 치료하고 당신이 정말로 낫게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부처는 없는 곳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부처가 왜 이 일을 하지 않는가? 그가 인류를 모두 편안하고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은가! 그는 왜 하지 않는가? 사람은 자신의 업력은 자기가 갚아야 하며, 누구도 감히 이 이치를 파괴하지 못한다. 개인이 수련과정 중에서 그가 자비(慈悲)로 가끔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다만 그의 병을 뒤로 미뤘을 뿐이다. 당신이 현재 고통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고통을 겪거나, 또는 당신에게 다른 것으로 전환해, 당신이 병을 얻지 않으면 당신은 돈을 잃거나, 재난을 당하는데 아마 이럴 것이다. 진정하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단번에 그 업을 당신에게서 없애버리는 그것은, 다만 수련하는 사람에게만 국한할 뿐, 속인에게는 해줄 수 없다. 나는 여기에서 나의 이 한 가(家)의 이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온 우주의 진리를 말하고 있으며, 나는 수련계의 실제 정황을 말하고 있다.

우리 여기서는 당신에게 병 치료를 가르치지 않으며, 우리는 대도(大道)·정로(正路)로 당신을 이끌고, 위로 당신을 이끈다. 그러므로 나는 학습반을 열 때마다 말했다.法輪大法(파룬파파)의 제자라면 모두 병을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당신이 병을 본다면 나의法輪大法(파룬파파)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을 바른 길로 이끌기 때문에 世間法(쓰젠파) 수련과정 중에서 줄곧 당신의 신체를 정화(淨化)해 주고, 신체를 정화해 주고, 신체를 정화해 주는데, 줄곧 고에너지물질로 완전히 전화될 때까지다. 당신은 또 자신의 몸에다 그런 검은 것들을 끌어다 넣는데,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그것은 업력이다! 전혀 수련할 수 없다. 당신에게 많아지면 당신은 감당해 내지 못하고, 고생을 너무 크게 겪는다면 당신은 곧 수련할 수 없는데, 바로 이 이치다. 내가 이 대법(大法)을 전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기왕 이 대법(大法)을 전할 수 있었던 만큼, 그를 보호할 방법이 있다. 당신이 만약 남의 병을 봐준다면, 당신의 몸에 넣어준 일체 수련의 것을 나의 법신이 전부 거둬들일 것이다. 당신에게 명리를 위해 이처럼 진귀한 것을 함부로 훼손하게 할 수 없다. 법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으면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의 사람이 아니며, 당신의 신체를 속인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좋지 않은 것들을 당신에게 돌려준다. 왜냐하면 당신은 속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제부터 시작하여 강의를 들은 후, 우리 많은 사람은 온몸

이 가쁜한 감을 느낀다. 그러나 병이 심한 극소수 사람은 선행(先行)하여, 어제부터 괴롭기 시작했다. 어제 내가 여러분의 신체에서 좋지 않은 것을 떼어버린 다음, 우리 대다수 사람은 몸이 가뿐하고 신체가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 이 우주 중에는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이치가 있어, 당신에게서 전부 제거해 버릴 수는 없으며, 당신이 조금이라도 감당하지 않는 이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병의 근본원인과 신체가 좋지 못한 근본원인은 우리가 당신에게서 제거해 버렸지만, 당신은 아직도 병의 장(場)이 있다. 천목 층차가 아주 낮게 열렸을 때, 신체에 한 덩이 한 덩이 검은 기와 혼탁한 병기(病氣)가 있음을 보는데, 그것 역시 농축된, 농도가 아주 높은 검은 기 덩어리로서, 그것이 일단 흩어지면 당신의 온 신체에 가득 찰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어떤 사람은 전신에 오한이 나서, 마치 심한 감기에 걸린 것처럼 뼈마저 모두 아픈 것을 느낄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국부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것인데, 다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어지러울 것이다. 당신이 이전에 병이 있던 곳은 아마 기공을 연마(練)하여 나았고, 또는 어느 기공사가 봐주어 나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또 새로 들춰 나온다.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낮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에게서 뒤로 미루어 놓았을 뿐, 아직도 그 위치에 있으며, 당신에게서 현재 재발하지 않아도 장래에 재발하게 한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들춰내야 하고, 당신에게서 모두 쳐서 내보

내야 하며, 뿌리부터 전부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병이 또 재발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업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반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국부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괴롭고 저렇게 괴로우며 각종 괴로움이 모두 나올 것이지만, 모두 정상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괴롭든지 와서 강의를 듣는 것을 꼭 견지해야 한다. 당신이 이 강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당신의 어떤 증상이든 모두 없어지고, 어떤 위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당신이 ‘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오는 것을 견지하기 바란다. 법은 얻기 어렵다. 당신이 괴로울 때일수록 물극필반(物極必反)임을 설명하는데, 당신의 온몸을 정화(淨化)해야 하며, 반드시 전부 정화해야 한다. 병근(病根)은 이미 떼어버렸고, 남은 요만한 검은 기, 그것이 스스로 나오게 하여, 당신에게 고만한 난(難)을 겪게 하며, 고통을 좀 받게 하는데, 당신이 조금도 감당하지 않는 이것은 안 된다.

속인사회 중에서 명(名)·이(利)를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쟁탈하면서 당신은 잘 자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여, 당신의 신체를 이미 상당히 말이 아닐 정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공간에서 당신의 신체를 보면 그 뼈마저도 군데군데 시커멓다. 바로 이런 신체를 단번에 당신에게 정화해 주는데, 조그마한 반응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설사하면서 토하기도 한다. 과거에

많은 지역의 수련생이 나에게 쓴 심득체험 중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스승님, 저는 학습반에서 강의를 듣고 돌아가는 길에 집에 도착할 때까지 줄곧 화장실만 찾았습니다. 이는 내장(內臟)까지도 모두 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소수의 사람은 또 잠을 잘 것인데, 내가 강의를 끝내면 그도 잠을 깬다. 무엇 때문인가? 그의 머리 안에 병이 있어 그에게 조정(調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조정하면, 그는 전혀 견디내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를 마취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청각부분에 문제가 없어 그는 잠을 달콤히 자지만 도리어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듣는다. 사람은 이때부터 정신이 나며 이들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는다. 모두 부동(不同)한 상태로서 모두 조정해야 하는데, 당신의 온몸을 전부 정화(淨化)해 주어야 한다.

진정으로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하는 사람은,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현재부터 시작하여 모두 반응이 있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가 입으로는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는 전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해주기가 아주 어렵다. 또 일부분 사람들은 나중에야 내가 강의한 내용을 알아듣고, 그가 내려놓아 신체가 정화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온몸이 가뿐해졌으나, 그는 이제야 병을 제거하기 시작해, 이제야 괴롭기 시작한다. 매번 학습반에 모두 이렇게 뒤떨어지고 오성이 좀 차(差)한 사람이 있다. 그

리므로 당신이 어떤 정황과 마주치더라도 모두 정상이다. 다른 지역에서 학습반을 열 때, 모두 이런 정황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괴로워 의자에서 엎드린 채 가지 않고, 내가 강단에서 내려와 그를 치료해 주기를 기다린다. 나는 손을 대어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이 한 고비도 넘기지 못한다면, 금후 당신 자신이 수련할 때에 당신에게 많은 큰 난(難)이 나타날 것인데, 이것조차 넘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또 무슨 수련을 하겠는가? 요만한 일도 당신은 넘기지 못하는가? 다 넘길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는 나를 찾아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 말라. 나는 역시 병을 치료하지 않으며, 당신이 ‘병’이란 이 글자를 꺼내기만 해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사람이란 제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서, 매 학습반마다 언제나 100분의 5, 100분의 10의 사람이 따라오지 못한다. 사람마다 모두 도를 얻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연마(煉)를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여전히 당신이 수련해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하고, 또한 당신이 결심하고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사람마다 성불(成佛)한다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진정으로 대법(大法)을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책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태가 나타날 것이며, 마찬가지로 마땅히 얻어야 할 일체를 얻을 것이다.

제 3 강

나는 수련생을 모두 제자로 여긴다

여러분을 아는가? 나는 한 가지 어떤 일을 했는가? 나는 모든 수련생을 전부 제자로 여기고 이끄는데, 혼자서 배우며 진정하게 수련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층차로 공을 전함에 당신을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책임지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고, 당신에게 속인이 알지 말아야 할 이렇게 많은 이치를 알게 했으며, 나는 이 대법(大法)을 당신에게 전해 주었는가 하면, 또 당신에게 많고 많은 것을 주려 한다. 당신의 신체를 정화(淨化)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일부 문제에도 연관되기 때문에 당신을 제자로 삼아 이끌지 않으면 전혀 안 된다. 함부로 한 속인에게 이렇게 많은 천기(天機)를 누설하는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시대도 변해 우리는 절을 하고 읊(揖)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형식은 아무 쓸모가 없으며 하면 마치 종교와도 같아,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절을 하고 사부를 모신다 해도 당신이 문만 나서면 역시 제멋대로라, 속인 중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면 또 무엇을 하고, 당신의 명리를 위해 당신은 다투고 당신은 싸울 것 인즉,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당신은 아마도 나의 깃발을 내걸고 대법(大法)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다!

진정으로 수련하는 일은 전적으로 당신의 이 마음에 의해 닦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신이 수련할 수 있고 오로지 당신이 착실하고 견정(堅定)하게 수련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곧 당신을 제자로 삼아 이끌 것인즉,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부 사람, 그는 자신을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수련해 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일부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이 진정하게 수련해 나갈 것이다. 오직 당신이 수련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당신을 제자로 삼아 이끈다.

날마다 이 몇 장 동작만 연마(煉)한다고 해서法輪大法(파룬파파)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련은 우리가 말하는 그心性(썬썬) 표준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진정하게 자신의心性(썬썬)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련이다. 당신이 그런 동작만 연마(煉)하고心性(썬썬)을 제고하지 않아 강대한 에너지로 일체를 가지(加持)할 수 없다면 수련이라고 할 수 없

으며, 우리도 당신을 法輪大法(파룬파파)의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당신이 연공(煉功)하더라도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의 요구에 따라하지 않고, 당신이 心性(썬썬)을 제고하지 않으며 속인 중에서 당신이 여전히 제멋대로 한다면, 당신은 기타 번거로운 일들을 만날지도 모른다. 자칫하면 또 당신은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하여 당신의 연마에 편차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정하게 우리 心性(썬썬) 표준의 요구에 따라 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시는 나를 찾아 무슨 사부를 모시는 이런 형식적인 일을 하지 말라. 당신이 오직 진정으로 수련한다면 나는 이렇게 당신을 대할 것이다. 나의 법신(法身)은 이미 많기로 헤아릴 수 없으며, 이만한 수련생들은 물론, 더 많아도 나는 역시 책임질 수 있다.

불가공(佛家功)과 불교(佛敎)

불가공(佛家功)은 불교(佛敎)가 아니다. 이 한 점을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실 도가공(道家功) 역시 도교(道敎)가 아니다. 우리 일부 사람들은 늘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가리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절의 화상(和尚)이고 또 일부 사람들은 거사(居士)인데, 그는 그가 불교 중의 일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하여, 그는 우리 수련생들 속에서 불교 중의 일을 마구 선전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부동(不同)한 법문 중의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에는 종교의 형식이 있지만, 우리 여기에서는 우리 이 한 법문 수련의 일부분을 전하는 것이며,法輪大法(파룬따파)의 전수제자(專修弟子) 외에는 종교 형식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법시기(末法時期)의 불교가 아니다.

불교 중의 법은 다만 불법(佛法) 중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또 많은 고심대법(高深大法)이 있으며 각개 층차 중에는 또 부동(不同)한 법이 있다. 석가모니는 수련에 8만 4천 법문이 있다고 했다. 불교 중에는 겨우 몇 개 법문이 있으며, 그것은 다만 천태종·화엄종·선종·정토·밀종 등등 이런 몇 개 법문에 불과한데, 끝자리 수마저도 못 채우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것은 전체 불법을 개괄할 수 없으며, 그것은 다만 불법의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法輪大法(파룬따파) 역시 8만 4천 법문 중의 한 법문으로서 원시불교나 말법시기의 불교와 관계가 없으며 현재의 종교와도 관계가 없다.

불교는 2천5백 년 전 고대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창립한 것이다. 당시 석가모니가 개공개오(開功開悟)한 후, 그는 기억 속에서 그 자신이 이전에 수련했던 것을 상기했고, 그것을 내놓아 사람을 제도했다. 그의 그 한 법문은 몇만 권의 경서가 나왔든지 간에 사실은 세 글자일 뿐으로서, 그의 그 한 법문의 특징을 ‘계(戒)·정(定)·혜(慧)’라고 한다. 계(戒)란, 바

로 속인 중의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당신에게 이익에 대한 추구를 강제로 잃도록 하며, 세속의 모든 것과 단절하게 하는 등등이다. 이러면 그의 마음은 비워지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곧 정(定)에 들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상보상성(相輔相成)하는 것이다. 정(定)에 들어 가부좌하여 착실히 수련하며, 정력(定力)에 의거해 위로 수련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한 법문의 진정한 수련 부분이다. 그 역시 수법(手法)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자신의 本體(번티)를 개변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의 층차 높이의 이 공(功)을 수련할 뿐이다. 그러므로 줄곧 그의 心性(썬썬)만 수련하고 명(命)을 닦지 않으며 공의 연화(演化)도 말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는 정(定) 중에서 그의 정력(定力)을 증강하며 가부좌 중에서 고통을 겪고 그의 업을 없애버린다. 혜(慧),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개오(開悟)하여 대지대혜(大智大慧)함을 가리킨다. 우주의 진리를 보고, 우주 각개 공간의 진상을 보며, 신통이 크게 나타난다. 개혜(開慧)·개오(開悟), 또는 개공(開功)이라고 한다.

당시 석가모니가 이 한 법문을 창립할 때, 인도에서는 여덟 가지 종교가 동시에 유전(流傳)하고 있었다. 뿌리가 아주 깊은 종교가 있었는데, 바라문교(婆羅門敎)라고 했다. 석가모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줄곧 다른 종교와 의식형태의 투쟁이 일어났다. 석가모니가 전한 것은 정법(正法)이었기 때문에 법을 전하는 전반 과정 중에서 그가 전한 불법은 갈수록 강성해졌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은 갈수록 쇠약해졌으며, 뿌리

가 깊은 그 바라문교마저 멸망 상태에 직면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열반한 이후 기타 종교들이 또 흥성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바라문교가 또 새로 흥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교 중에서는 오히려 어떤 정황이 나타났는가? 일부 승려들은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서 개공하고 개오했으나 열린 층차가 비교적 낮았다. 석가모니는 여래(如來) 그 층차에 도달했으나 많은 승려는 이 층차에 도달하지 못했다.

부동한 층차 중에서 불법은 부동한 현현(顯現)이 있다. 그러나 높을수록 진리와 더욱 접근하며, 낮을수록 진리와 더욱 멀어진다. 그러므로 그런 승려들은 저층차(低層次)에서 개공 개오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그 층차 중에서 본 우주 중의 현상(顯像), 요해(了解)한 정황과 깨달은 이치로 석가모니의 말을 해석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승려들은 석가모니가 말한 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했다. 또 일부 승려들은 자신이 참오(參悟)한 것을 석가모니의 말로 삼아 말하며, 석가모니의 원래 말대로 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법은 면목이 전부 달라져 석가모니가 전한 법이 전혀 아니었으며, 최후에는 불교 중의 불법이 인도에서 소실되었다. 이것은 한 차례 중대한 역사적 교훈으로서, 후에 인도에서는 불교가 도리어 없어졌다. 소실되기 전에 불교는 여러 차례 개량(改良)을 거쳤으며 최후에는 바라문교의 것과 결합해 인도에서 현재의 종교를 형성했는데, 힌두교라고 부른다. 그것은 어떤 부처도 모시지 않고 다른 일부의 것들을 모시며 석가모니도 믿지 않는,

이런 정황이다.

불교는 발전과정 중에서 몇 차례 비교적 큰 개량이 나타났다. 하나는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가 말한 고승차의 이치에 근거해 대승불교(大乘佛敎)를 창립했다. 석가모니가 공개적으로 설한 법은 일반인들에게 들려준 것으로서, 자신이 해탈하는 데에 써서 나한(羅漢) 과위에 도달하며,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것을 소승불교(小乘佛敎)라고 했다. 동남아 국가의 화상(和尚)들은 원시적인 석가모니 시대의 수련방법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인지역(漢地)에서는 그것을 소승불교라고 한다. 물론 그 자신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은 그들이 석가모니 원래의 것을 계승했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이리하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석가모니 시대의 수련방법을 계승했다.

개량을 거친 이런 대승불교가 우리 중국에 전해 들어온 후 우리 중국에서 고정되었는데,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전하고 있는 이런 불교다. 그것은 사실상 석가모니 시대의 불교와는 이미 면목이 전혀 다르며, 옷차림에서부터 줄곧 전반 참오(參悟) 상태와 수련과정에까지 모두 변화가 일어났다. 원시불교는 오로지 석가모니만을 조존(祖尊)으로 모셨다. 그러나 현재의 불교는 많고 많은 부처와 대보살 등이 출현했을 뿐만 아니라, 다불(多佛) 신앙이다. 많은 여래불(如來佛)에 대한 신앙이 나타나 일종의 다불적인 불교로 되었다. 예를 들면 아미타불(阿彌陀佛)·약사불(藥師佛)·대일여래(大日如來) 등등이

며, 또한 많은 대보살(大菩薩)이 출현했다. 이렇게 되어 전반 불교는 당초 석가모니가 창립할 때와는 이미 완전히 달라졌다.

이 기간에 또 일종의 개량과정이 발생했다. 용수보살(龍樹菩薩)에게서 한 가지 비밀 수련 방법이 전해져, 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친 다음 우리 신강(新疆)에 진입해서 한인지역으로 전해 들어왔는데, 마침 당나라 시기여서 그것을 당밀(唐密)이라 했다. 우리 중국은 유가(儒家)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기 때문에 도덕관념이 일반 민족과는 다르다. 이 밀종(密宗) 수련법 중에는 남녀쌍수(男女雙修)란 것이 있어서 당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었으므로, 당나라 회창년간(會昌年間)에 멸불(滅佛)할 때 그것을 제거해 버려 당밀은 우리 한인지역에서 소실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동밀(東密)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시 우리 중국에서 배워 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관정(灌頂)을 거치지 않았다. 밀종의 말에 의하면, 관정을 하지 않고 밀종의 것을 배운다면 법을 훔치는 데 속해, 친히 전해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한 갈래는 인도·네팔을 거쳐 티베트로 전해 들어갔는데 장밀(藏密)이라 하며, 현재까지 줄곧 유전(流傳)해 왔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황으로서, 나는 극히 간단하고도 개괄적으로 그것의 발전 변화 과정을 말했다. 전반 불교는 발전과정 중에서 또 달마가 창립한 선종(禪宗)과 같은 것이 출현했으며 또 정토종·화엄종 등등이 있는데, 모두 석가모니가 당시에 말한 것들에서 참오(參悟)해 낸 것이며, 이것들 역시 개량불교에 속한다. 불교 중에

는 이런 10여 개 법문이 있으며, 그것들이 모두 일종의 종교 형식으로 들어갔으므로, 그것들은 모두 불교에 속한다.

금세기에 생긴 종교, 어찌 금세기뿐이겠는가, 몇 세기 전에 세계 각지에 수많은 새로운 교가 생겨났으며, 이런 대다수는 모두 가짜에 속한다. 대각자들이 사람을 제도함에 모두 자신의 천국이 있는데, 석가모니·아미타불·대일여래 등등, 이런 여래 불 그들은 사람을 제도함에 모두 자신이 주재(主持)하는 세계가 있다. 우리 이 은하계에는 이런 세계가 백여 개 있으며,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 역시 法輪世界(파룬쓰제)가 있다.

일부 가짜 법문이 사람을 제도한다는데 어디로 제도하는가? 그것은 사람을 제도할 수 없으며 그것이 말한 것은 법이 아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종교를 창립했는데, 초기 목적은 그가 정교(正敎)를 파괴하는 마(魔)가 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부동한 층차에서 개공개오하여 조그마한 이치를 보았지만, 그는 사람을 제도하는 각자(覺者)와는 차이가 너무 크며 그는 아주 낮다. 그는 조그마한 이치를 발견했는데, 속인 중의 일부 일들은 잘못된 것임을 발견했으며, 그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일을 하라고 알려주고, 시작할 때에는 다른 종교를 반대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최후에 그를 신봉했고 그가 한 말에 이치가 있다고 여겼으며, 그런 다음 갈수록 그를 더 믿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를 숭배하고 종교를 숭배하지 않았다. 그 자신은 명리심이 일어나 대중에게 그를 무엇이라 봉(封)하게 하고, 그 후부터 그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사교(邪教)에 속하며, 그것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할 지라도, 그것은 역시 사교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정교(正敎)를 믿는 것을 교란했고, 정교는 사람을 제도하나 그것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래오래 발전해 내려가면 뒤에서 나쁜 짓을 한다. 최근에 이런 유의 것도 우리 중국으로 많이 유전(流傳)해 왔다. 예를 들면 이른바 관음법문(觀音法門)이 바로 그 중 하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들리는 말로는 동아시아 어느 나라에는 2천여 종이나 있다고 하며, 동남아와 기타 서방국가에는 무엇이든 다 믿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 나라에는 공공연하게 무교(巫敎)가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말법시기에 나타난 마(魔)이다. 말법시기(末法時期)는 불교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층차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간이 모두 패괴(敗壞)되었음을 가리킨다. 말법(末法)이란 다만 불교의 말법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가 도덕을 유지할 심법(心法)의 단속이 없음을 말한다.

수련(修煉)은 전일(專一)해야 한다

수련은 전일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든지 다른 것을 섞어서 제멋대로 수련하면 안 된다. 어떤 거사, 그는 불교 중의 것을 수련하면서 또 우리 法輪大法

(파룬파파)의 것을 수련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최후에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누구도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불가(佛家)이지만, 여기에는 心性(썬썬) 문제가 있는 동시에 또 전일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체가 오직 하나뿐인데, 당신의 신체에 어느 문(門)의 공(功)이 생기겠는가? 어떻게 당신에게 연화(演化)해 주겠는가? 당신은 어디로 가려 하는가? 당신이 어느 한 법문(法門)에 따라 수련하면 당신은 곧 거기로 간다. 당신이 정토(淨土)에 따라 수련하면 당신은 아미타불의 극락 세계로 가고, 당신이 약사불(藥師佛)에 따라 수련하면 당신은 유리세계(琉璃世界)로 간다. 종교 중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하는데,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연공(煉功)을 말하고 있는데, 공(功)의 전반 연화 과정은 모두 확실히 그것 자신의 그 수련 법문을 따라 걷는 것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려 하는가? 당신이 두 척의 배에 발을 딛고 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비단 연공(煉功)과 절의 부처수련 사이를 뒤섞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련 방법 사이, 기공과 기공 사이, 종교와 종교 사이도 뒤섞을 수 없다. 동일한 종교라 할지라도 역시 그중의 몇 개 법문을 한데 뒤섞어 수련할 수 없으며, 오직 한 법문만 선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당신이 정토를 수련하면 그것은 곧 정토이고, 당신이 밀종을 수련하면 그것은 곧 밀종이며, 당신이 선종을 수련하면 그것은 곧 선종이다. 당신이 만약 두

척의 배에 발을 딛고 서서 이것도 수련하고 저것도 수련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불교 중에서도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중시하는데, 역시 당신이 섞어서 수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 역시 연공(煉功)이고, 그것 역시 수련(修煉)이며, 그것의 공(功)의 생성 과정은 모두 그것 자신의 그 한 법문 중에서 수련·연화하는 과정에 따라간다. 다른 공간 속에도 공의 연화 과정이 있으며, 또한 극히 복잡하고 극히 현묘(玄妙)한 과정으로서, 역시 제멋대로 다른 것을 섞어 수련할 수 없다.

어떤 거사는 불가공(佛家功)을 연마(煉)한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수련생들을 끌고 절에 가서 귀의(皈依)하게 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수련생들은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우리의 대법(大法)을 파괴하고 또한 불교 중의 계율도 파괴하는 동시에, 또한 수련생들을 교란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수련은 엄숙한 문제로서 반드시 전일해야 한다. 우리가 속인 중에서 전하는 이 부분은 비록 종교는 아니지만 수련하는 목표는 일치하며, 모두 개공(開功)·개오(開悟)하여 공성원만(功成圓滿)하는 이런 목적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말법시기에 이르면 사원(寺院) 중의 승려마저도 자신을 제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했는데, 하물며 거사(居士)는 더욱 관계할 사람이 없다. 당신이 스승을 모셨다고만 보

지 말라. 이른바 그 스승 역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그도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으면 헛되며, 이 마음을 닦지 않으면 누구도 올라가지 못한다. 귀의(皈依)는 속인 중의 형식으로서 당신이 귀의했다고 해서 곧 불가(佛家)의 사람인가? 부처가 곧 당신을 책임지는가? 그런 일은 없다. 당신이 날마다 이마가 터지도록 절을 하고 향을 한줌 한줌 피운다 해도 역시 소용없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그 마음을 착실하게 수련해야 한다. 말법시기에 이르러 우주는 이미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고 심지어 종교 신앙을 하는 곳마저 잘못되었는데, 공능이 있는 사람(화상을 포함)도 이 정황을 발견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공개적으로 정법(正法)을 전하고 있다. 나는 앞사람들이 여태껏 한 적이 없는 한 가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말법시기에 이렇게 큰 한 문을 열어놓았다. 사실 천 년에 만나기 어려우며 만 년에도 만나기 어렵다. 그러나 제도될 수 있는가 없는가, 즉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여전히 자신에게 달렸다. 내가 말한 것은 방대한 우주의 이치다.

나도 당신에게 반드시 나의 이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워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가지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수련하려면 당신은 반드시 전일(專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전혀 수련할 수 없다. 물론 당신이 수련하려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신을 상관하지 않으며, 법은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이 듣도록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일해야 하며, 다른 공법의 의념(意念)조차도

섞어 넣을 수 없다. 나 여기서는 의념활동을 말하지 않으며,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는 어떤 의념활동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속에 무슨 의념적인 것을 넣지 말아야 한다. 꼭 이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의념활동이 없는바, 불가에서는 공(空)을 말하고 도가에서는 무(無)를 말한다.

언젠가 한번 나는 나의 사상을 층차가 극히 높은 네뎃 명대각자(大覺者)·대도(大道)와 한데로 연결했다. 그 높음을 말하자면 속인이 볼 때는 그야말로 높아서 놀랄 정도다. 그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려고 했다. 나는 수련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나의 사상을 알고자 함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공능은 전혀 들어올 수 없다. 누구도 나를 알아낼 수 없으며, 누구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낼 수 없다. 그들이 나의 사상활동을 요해(了解)하고자 했기에, 그들은 나의 동의를 거쳐서, 어느 한 단계 나의 사상을 그들과 연결했다. 연결한 후 나는 좀 견뎌내기 어려웠다. 나의 층차가 얼마나 높든지 또 나의 층차가 얼마나 낮든지 간에 나는 속인 중에 있고, 나는 아직 유위(有爲)적인 일, 사람을 제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마음은 사람을 제도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은 어느 정도로 고요한가? 고요하기가 두려울 정도까지 이르렀다. 당신 한 사람이 이런 정도로 고요하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네뎃 사람이 거기에 앉아 모두 그런 정도로 고요하고, 마치 깊은 못의 고인 물(一潭死水)과도 같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들을 감수(感受)하려고 해도 감수할 수가 없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정말 마음속으로 아주 괴로운, 그런 기분을 느꼈다. 우리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하며 감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완전히 무위(無爲)이며 텅 빈 것이었다.

아주 높은 층차의 수련은 의념활동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속인이 기초를 닦는 이 층차에서 그 한 세트의 기초를 이미 다 닦았기 때문이다. 고층차 수련에 이르면, 특별히 우리의 공법은 자동적이며 모두 완전히 자동적인 수련이다. 오직 당신이 心性(썬썬)을 제고하기만 하면 당신의 공은 곧 자라며, 당신은 심지어 어떤 수법도 쓸 필요가 없다. 우리의 동작은 자동적인 기제(機制)를 강화하는 것이다. 선정(禪定) 중에서 그는 왜 늘 좌선하고 움직이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무위(無爲)인 것이다. 당신이 보견대 도가에서는 이런 수법, 저런 수법과 무슨 의념활동, 의념의 인도를 말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도가가 그 기(氣)의 층차를 조금 벗어난 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이런 의념, 저런 의념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부 다른 기공을 연마(練)했던 그 사람은 무슨 호흡이요, 의념이요 하는 등등을 늘 내려놓지 못한다. 내가 그에게 대학의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는 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는가, 어떻게 의념활동을 하는가 하면서 초등학교의 일을 묻는다. 그는 이미 이렇게 하는 데 습관이 되어, 기공은 곧 이런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이런 것이 아니다.

공능(功能)과 공력(功力)

우리 많은 사람이 기공 중의 용어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며 또 일부 사람들은 늘 헛갈리어 분명하지 않다. 그는 공능(功能)을 공력(功力)이라 말하고, 공력을 공능이라 말한다. 우리가 자신의 心性(썬썬)에 의거해 수련해 낸 이 공은 우주의 특성에 동화하여 자신의 德(더)가 공으로 연화(演化)된 것이다. 이것이 곧 한 사람의 층차의 높이, 공력의 크기, 그의 과위(果位)의 높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관건적인 공(功)이다. 수련과정 중에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가? 바로 일부 특이공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는 약칭하여 공능이라고 한다. 방금 내가 말한 층차를 제고하는 공을 공력이라고 한다. 층차가 높을수록 공력이 더욱 크며 공능이 더욱 강하다.

공능은 다만 수련과정의 부산물일 뿐, 그것은 층차를 대표하지 않고 한 사람의 층차의 높이, 공력의 크기를 대표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능은 역시 수련의 주요한 것으로 삼아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그가 진정하게 수련하기로 확정함과 동시에 그는 비로소 공능이 나올 수 있는데,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 수련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이런 것을 연마(煉)해서는 뭘 하는가? 속인 중에서 사용하려 하는가? 절대로 당신이 속인 중에서 함부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할수록 더욱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구하고 있는데, 구하는 자체가 바로 집착심이며, 수련에서 제거해야 할 것이 바로 집착심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아주 높고 깊은 경지로 수련했어도 그는 공능이 없다. 사부가 그에게 잠가준 것은, 그가 잘 파악하지 못해 자신이 나쁜 일을 할까 봐 염려해서다. 그러므로 줄곧 그에게 그의 신통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 공능은 사람의 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사람이 잠을 잘 때, 자신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 꿈을 꾸고 나면 다음날 아침 천지가 뒤집혔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무릇 큰 공능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함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다수는 잠가놓지만, 역시 절대적이지는 않다. 수련을 괜찮게 한 많은 사람이 자신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일부분 공능이 있음을 허용한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그에게 공능을 내놓아 마음대로 과시하라고 해도 그는 절대 내놓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신을 잘 파악할 수 있다.

반수(返修)와 차공(借功)

어떤 사람은 공을 연마(煉)한 적이 없거나 또는 단지 어느 기공 학습반에서 그런 재간을 약간 배웠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속하는 것이며, 또 무슨 수련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 그는 진

수를 전해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공이 왔다. 우리는 이런 공이 어떻게 온 것인가를 말하려는데, 몇 가지 형식이 있다.

한 가지는 반수(返修)에 속한다. 무엇이 반수인가? 바로 우리 일부 사람들은 비교적 많은 나이에 수련하려고 하나 처음부터 수련하자면 이미 늦었다. 기공 고조(高潮) 중에서 그도 수련하려고 하며, 그는 기공이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자신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제고하려 하며, 수련하려 하는 이런 소원을 품는다. 그러나 몇 년 전 기공 고조 중에서 그런 기공사들은 모두 기공을 보급했을 뿐, 고층차의 것을 진정하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정하게 공개적으로 고층차에서 공을 전하는 것은 역시 나 한 사람만이 하고 있을 뿐, 두 번째 사람이 없다. 무릇 반수하는 사람은 모두 50세 이상, 나이가 비교적 많은 사람으로서, 근기가 매우 좋고 몸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좋아, 거의 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려는 도제(徒弟), 물려줄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 수련하려고 생각하는데,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어디에 가서 사부를 찾겠는가? 그러나 그가 수련하려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곧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마치 금처럼 빛나十方세계(十方世界)를 진동한다. 사람들이 불성(佛性), 불성이라고 하는데, 곧 이 불성이 나온 것을 가리킨다.

고층차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

니다. 사람의 생명은 우주공간 중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우주의 眞(眞)·善(善)·忍(忍) 특성에 동화한 것이며, 본성은 본래 선(善)하고 선량한 것이다. 그러나 생명체가 많아진 후에 그도 일종의 사회적 관계가 생겼다. 그리하여 그중 일부분 사람들은 이기적이거나 좋지 않게 변해, 아주 높은 층차에 있을 수가 없어 아래로 떨어졌으며, 한 층차 중으로 떨어졌다. 이 층차 중에서 그는 또 좋지 않게 변해 또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떨어져, 최후에는 속인 이 층차 중에 떨어져 내려왔다. 이 층차에 떨어지면 사람을 철저히 없애버려야 하지만, 그런 대각자(大覺者)들은 자비로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서 사람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여, 이런 공간을 창조했다.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런 신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는 떠오를 수 있으며, 그는 또 크게 변하거나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는 사람에게 이런 신체, 우리 이 육신이 있게 했다. 이 신체가 있는 후, 추위도 안 되고, 더위도 안 되며, 힘들어도 안 되고, 배고파도 안 되는데, 어쨌든 고생이다. 병이 있으면 당신은 괴롭고, 생로병사(生老病死)해야 하는데, 바로 당신에게 이런 고생 속에서 업을 갚게 하며, 당신이 또 되돌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당신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 바로 그래서 사람은 미혹 중에 떨어져 온 것이다. 이 속에 떨어져 온 후에 당신에게 이 한 쌍의 눈을 창조해 주어, 당신이 다른 공간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물질의 진상을 보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장

고생스러운 것도 가장 진귀한데, 미혹 중에서 깨달음에 의거해 되돌아 수련하는 데는 고생이 매우 많아 되돌아감도 빠르다. 당신이 더 나빠진다면 생명은 곧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볼 때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으로 하여금 반본귀진하여 되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속인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한다. 속인은, 속인사회 중에서 그는 바로 속인인지라,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잘살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가 잘살수록, 그가 더욱 이기적일수록, 더 많이 점유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는 우주의 특성과 더욱 어긋나며, 그는 곧 멸망을 향해 나아간다.

고층차에서는 바로 이렇게 보는데, 당신은 전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후퇴한 것이다. 인류는 과학을 발전시켜 진보한다고 느끼지만, 사실 다만 우주 법칙에 따라감에 불과하다. 여덟 신선 중에 장과로(張果老)는 당나귀를 돌아앉아 탔는데, 그가 왜 당나귀를 돌아앉아 탔는지 아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그는 앞으로 가는 것이 곧바로 후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는 돌아앉아 탔다. 그러므로 일부 사람들이 수련하려고 생각할 때, 각자(覺者)들은 이 마음을 극히 진귀한 것으로 여겨 무조건 도와줄 수 있다. 마치 우리 오늘 여기에 앉은 수련생들처럼,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면 나는 무조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한 속인으로서 당신이 병을 보려 하고,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려 한다면 안 되며,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은 속인이 되려 하는데, 속인은

마땅히 생로병사(生老病死)해야 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며, 모든 것이 다 인연 관계가 있어 혼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 당신의 생명 중에 본래 수련이 없었으나 현재 당신이 수련하려고 생각하면, 그럼 이후의 길을 당신에게 새롭게 안배해 주고 당신의 신체를 조정(調整)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수련하려는 이 소원이 나오기만 하면 각자들이 보고 그야말로 진귀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세상 어디에 사부가 있어 가르치겠는가? 게다가 50여 세나 되는 사람이다. 대각자들은 가르칠 수 없는데, 그가 당신 앞에 나타나서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에게 설법하고 공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은 천기를 누설하는 것으로서 그 역시 떨어져야 하며, 사람은 자신이 나쁜 일을 하여 이 미혹 중에 떨어져 왔으므로 미혹 중에서 깨닫고 수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자들은 가르칠 수 없다. 생생한 부처가 당신에게 설법하고 또 당신에게 공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본다면, 십악불사(十惡不赦)한 사람도 모두 와서 배울 것이며 누구나 믿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깨닫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스스로 미혹 중에 떨어져 왔기 때문에 마땅히 휘떨되어야 하지만, 당신에게 한 차례 이 미혹 중에서 되돌아갈 기회를 주었다. 되돌아갈 수 있으면 되돌아가고, 되돌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계속되는 윤회와 휘떨이다.

길은 자신이 걷는 것인데, 당신이 수련하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왜냐하면 당시 출현한 기공 고조(高潮), 이 역시 천상(天象)의 변화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천상에 상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그의心性(心性)이 처한 위치에서 그에게 공(功)을 더해주는데, 그의 몸에 부드러운 수송관을 달아 수도꼭지처럼 열기만 하면 그것이 곧 온다. 그가 공을 내보내려 하면 공이 곧 오고, 그가 공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 자신은 아무런 공도 없는, 바로 이런 상태, 이것을 반수(返修)라고 하며, 위에서 아래로 수련하여 원만에 이른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수련은 아래에서 위로 수련하며 줄곧 개공(開功)하여 원만(圓滿)에 이를 때까지 수련한다. 반수(返修)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 아래에서 위로 수련하기에는 늦었으므로 그가 위에서 아래로 수련하면 빠르는데, 역시 당시에 조성된 현상이다. 이런 사람은 그의心性(心性)이 반드시 아주 높아야 하며, 그의心性(心性)의 위치에서 그에게 그만한 크기의 에너지를 더해준다. 목적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하나는 그때의 천상(天象)에 상응함으로써,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동시에 그는 고생을 겪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속인을 상대하므로 각종 속인의 마음이 모두 당신을 교란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그의 병을 잘 봐주었지만 그는 당신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당신이 그의 병을 봐줄 때, 나쁜 것들을 많이 떼어버리고, 그에게 아무리 치료해 주어도 그 당시에 꼭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

속으로 좋아하지 않고 당신에게 감사하지도 않으며, 당신이 그를 속였다고 욕할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를 겨냥해 당신의 마음을 이런 환경 중에서 연마(魔煉)하게 한다. 그에게 공을 준 목적은 그로 하여금 수련하여 위로 제고하라는 것이었다. 좋은 일을 하는 동시에 자신의 공능을 개발하여 자신의 공을 자라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치를 모른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그에게 설법해 줄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고, 깨닫는 문제이므로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

어떤 사람은 공이 올 때,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너무 더워서 이불도 덮을 수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어디나 만지면 거기에 전기가 있다. 그는 공이 온 것을 알고 누가 신체 어디가 아프다고 하여 척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아주 괜찮았고 매우 좋았다. 이후부터 그는 공이 온 것을 알고 기공사 노릇을 하는데, 간판을 걸고 그 스스로 자신을 기공사로 봉하고 행세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괜찮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주고 그에게 어떤 물건을 선물하는데, 그는 아마 모두 받지 않고 거절할 것이다. 그렇지만 속인의 이런 큰 염색항아리(大染缸) 속에서 오염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한 부류 반수(返修)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心性(썬썬) 수련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心性(썬썬)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서서히 작은 기념품을 주면 받는 데서부터 점점 큰 물건까지 주어도 가지는데, 나중에는 적게 주어도 안 된다. 결국 그는

말한다: 나에게 그렇게 많은 물건을 쥐서는 뭘 하겠소. 돈을 주시오! 돈을 적게 줘도 안 된다. 그는 정전(正傳) 기공사에 게도 불복하며, 귀에 가득 찬 것은 모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능력이 있다고 칭찬하는 말이다. 만약 누가 그를 좋지 않다고 하면 그도 좋아하지 않으며, 명리심이 모두 일어나서 그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고명(高明)하며 그가 대단하다고 여긴다. 그는 그에게 이 공을 준 것이 그로 하여금 기공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게 한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그에게 수련 하라는 것이다. 명리심이 일어나자마자 그의 心性(썬썬)은 실제로 떨어져 내려왔다.

나는 心性(썬썬)이 얼마만큼 높으면 공이 그만큼 높다고 말했다. 떨어져 내려오면 이 공도 그에게 것처럼 크게 줄 수 없으며, 역시 心性(썬썬)에 따라 주는데, 心性(썬썬)이 얼마만큼 높으면 공이 그만큼 높다. 이 명리심이 중할수록 속인 중에 떨어지는 것도 더욱 심하며 그의 공도 따라서 떨어진다. 최후에 그가 완전히 떨어져 내려왔을 때 공도 주지 않아 아무런 공도 없다. 몇 년 전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50여 세의 부녀자가 비교적 많았다. 당신은 그 할머니가 연공(練功)하는 것을 보라. 어떤 진수를 전해 받지도 못했고, 아마 어느 기공 학습반에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몇 개 동작을 배웠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이 왔다. 心性(썬썬)이 나빠져 명리심이 일어나기만 하면 곧 떨어지는데, 결국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며 공도 없다. 현재 반수

(返修)하다가 떨어진 이런 사람이 아주 많으며 남은 사람 역시 불과 몇 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그녀는 이것이 그녀에게 수련하라는 것임을 몰랐다. 그녀는 그녀에게 속인 중에서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며 기공사가 되라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녀에게 수련하라는 것이었다.

무엇이 차공(借功)인가? 이것은 연령 제한이 없지만, 한 가지 요구가 있다. 즉 반드시 心性(썬썬)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기공으로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역시 수련하려 한다. 이 마음이 수련하고자 하지만 어디 가서 사부를 찾겠는가? 몇 년 전에는 확실히 진정한 기공사가 공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전한 것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서, 고층차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남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차공(借功)을 말한 김에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는데, 사람에게는 그의 主元神(주웬선)[主意識(주이스)] 외에도 副元神(푸웬선)[副意識(푸이스)]이 있다. 어떤 사람은 副元神(푸웬선)이 하나 · 둘 · 셋 · 넷이 있으며, 다섯까지도 있다. 이 副元神(푸웬선)은 그의 성별과 꼭 같지는 않은데, 어떤 것은 남자이고 어떤 것은 여자로서 다 같지는 않다. 사실 主元神(주웬선) 역시 육신과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견하기로는 현재 남자에게는 여자 元神(웬선)이 특별히 많고, 여자에게는 남자 元神(웬선)이 특별히 많기 때문이다, 바로 현재 도가에서 말하는 음양이 뒤바뀌고(陰陽反

背), 음이 성하고 양이 쇠하는(陰盛陽衰) 이런 천상(天象)에 부합(符合)된다.

사람의 副元神(푸웬선)이 온 층차는 흔히 主元神(주웬선)보다 높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그의 副元神(푸웬선)이 온 층차가 특별히 높다. 副元神(푸웬선)은 부체(附體)가 아니다. 그는 당신과 동시에 모태에서 태어났고, 당신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모두 당신 신체의 일부분이다. 평소에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함은 主元神(주웬선)이 결정한다. 副元神(푸웬선)은 주로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을 통제하여 되도록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主元神(주웬선)이 아주 집착할 때는 副元神(푸웬선)도 어찌할 능력이 없다. 副元神(푸웬선)은 속인사회에 미혹되지 않지만 主元神(주웬선)은 속인사회에 쉽게 미혹된다.

어떤 副元神(푸웬선)이 온 층차는 아주 높아 고만한 차이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정과(正果)를 얻었을 것이다. 副元神(푸웬선)은 수련하려 하지만 主元神(주웬선)이 수련하려 하지 않으면 역시 방법이 없다. 기공 고조(高潮) 중에서, 어느 날 主元神(주웬선) 역시 공을 배우려 하고 고층차로 수련하려 했다. 물론 사상은 아주 소박했고, 명리(名利)나 이런 것들을 추구할 생각이 없었다. 副元神(푸웬선)은 참으로 기뻐다: 내가 수련하려고 해도 내가 결정할 수 없었는데,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니 나의 뜻에 딱 맞는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 사부를 찾겠는가? 副元神(푸웬선)은 아주 능력이 있어 그는

신체를 떠나 그가 전생에 알던 대각자를 찾아갔다. 어떤 副元神(푸웬선)은 층차가 아주 높아 인체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가서는 수련하겠다고 하면서 차공(借功)을 요청한다. 남들이 보니 이 사람은 역시 괜찮았다. 수련하려 하면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는가. 이리하여 副元神(푸웬선)은 공을 빌려왔다. 흔히 이런 공은 방사되는 힘이 있기에 수송관으로 보내며; 또 어떤 것은 형태가 이루어진 것을 빌려오기도 하는데 형태가 이루어진 것은 흔히 공능을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는 동시에 공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내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밤에 잠잘 때 못 견디게 덩터니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 공이 왔다. 어디나 만지면 저기에 전기가 있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었으며 그도 공이 온 것을 알았다. 어디에서 왔는가? 그는 모른다. 그는 대체로 우주공간 중에서 왔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왔는지 그는 모르며, 副元神(푸웬선)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副元神(푸웬선)이 수련하기 때문에 그는 다만 공이 온 것을 알 뿐이다.

흔히 차공(借功)하는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데, 젊은 사람이 비교적 많다. 그리하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20여 세, 30여 세, 40여 세의 사람이 다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다. 젊은 사람은 자신을 파악하기가 더욱 쉽다. 당신이 보라. 그는 평소 아주 좋으며, 속인사회 중에서 무슨 능력이 없을 때, 그의 명리심은 아주 담담하다. 일단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때면, 흔히 명리적인 교란을 받기 쉬운 데, 그는 남은 생애에 아직 먼 길이 있다고 느껴, 더욱 보람차게 해보려 하며, 한번 분투하여 속인의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일단 공능이 나오고 능력이 있게 되면, 그는 그것을 흔히 속인사회 중에서 개인목표를 추구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삼는다. 그러면 안 되며 이렇게 사용하는 것 역시 허용하지 않는데, 쓸수록 이 공은 더욱 적어져서 최후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이 떨어져 내려온 것이 더욱 많은데, 내가 보니 지금은 하나도 없다.

방금 내가 말한 이 두 가지 정황은 모두 心性(썸썸)이 비교적 좋은 사람이 공을 얻음에 속한다. 이 공은 자신이 연마(煉)해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覺者) 거기에서 온 것이므로 공(功) 자체는 좋은 것이다.

부체(附體)

우리 많은 사람이 아마 수련계에서 동물, 여우 족제비 뱀 귀신 등등 이런 것들이 몸에 붙는 것에 관련된 일을 들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어떤 사람은 연공(練功)하여 특이공능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 특이공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 특이공능은 바로 사람의 본능이다. 다만 인류사회가 앞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람은 갈수록 우리 이 물질공간의 유형적인 것에 착안하고, 갈수록 우리 현대화한 도구에 의

존할 뿐이어서, 우리 사람의 본능은 갈수록 퇴화되고, 최후에는 이런 본능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공능이 있으려면 여전히 수련을 거쳐 반본귀진하여, 그것을 수련해 내야 한다. 그러나 동물은 이런 복잡한 사상이 없어서, 그것은 우주특성과 소통하며, 그것은 선천적인 본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이 수련할 줄 알고, 여우는 단(丹)을 연마(練)할 줄 알며, 그 뱀 등등도 수련할 줄 안다고 한다. 그것이 수련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그것도 무슨 연마고 아니고를 전혀 몰랐으며, 그것은 선천적인 그런 본능이 있다. 그렇다면 특정한 조건하에서, 특정한 환경하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효능을 발휘할 수 있어 그것은 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공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리하여 그것은 능력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 과거의 말로는, 영기(靈氣)를 얻었고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속인이 보기에는 동물이 어떠한가하게 대단하여 사람을 쉽게 좌우지할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말하는데 사실 대단하지 않으며, 진정한 수련자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그것이 천 년이나 8백 년을 수련했다고만 보지 말라. 아직 새끼손가락 하나로 비빌 나위도 없다. 우리는 동물이 이런 선천적 본능을 갖고 있어 그것이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이 우주 중에는 또 이런 이치가 있는데, 바로 동물이 수련 성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서(古書) 중에서, 몇백 년에 한 차례씩 그것들을 죽여야

한다면, 큰 겁(劫) 작은 겁이라고 쓴 것을 보았을 것이다. 동물이 일정한 시간에 이르러 공이 자라면, 그것을 소멸해야 하기에 벼락으로 치는 등등, 그것이 수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처럼 이렇게 수련할 수 없다. 사람의 특징을 구비하지 못해, 그것이 수련 성취하면 보증코 마(魔)가 되기에 그것이 수련 성취하는 것을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살(天殺)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것도 이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인류사회는 현재 크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다 한다.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데, 인류사회가 위험하지 않단 말인가?

물극필반(物極必反)이다! 우리는 인류사회가 사전시기(史前時期) 때 차례 부동(不同)한 주기로 휘멸될 때, 모두 인류의 도덕이 극히 패괴(敗壞)한 정황하에서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공간과 많은 다른 공간은 모두 극히 위험한 지경에 처했으며, 이 층차 중의 다른 공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재빨리 도망치려 하고, 그것도 고층차로 오르려 하는데, 층차를 제고하면 그것은 도망갈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수련하려면 반드시 인체(人體)가 있어야 하므로, 연공인(練功人)에게 부체가 달라붙는 일이 나타났는데, 이는 그 원인 중 하나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왜 이렇게 많은 대각자, 이렇게 높

은 공부(功夫)가 있는 많은 사부가 상관하지 않는가? 우리가 우주 중에는 또 이런 이치가 있다: 당신 자신이 구하는 것, 당신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간섭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게끔 가르치는 동시에 법을 당신에게 투철히 말해 주어 당신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배우고 안 배우고는 여전히 당신 자신의 문제다. 사부가 문으로 이끌어 들이나 수행은 자신에게 달렸다. 당신을 강박하고 핍박하여 수련하게 할 사람은 없으며, 수련하고 안 하고는 당신 자신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어느 길로 가려하고, 당신이 무엇을 가지려 하며, 당신이 무엇을 얻으려 하든지 누구도 당신을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선(善)을 권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보기에 그가 연공(練功)하지만, 사실 모두 부체(附體)에게 얻게 했다. 왜 부체를 불러왔는가? 전국 각지에서 연공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 몸 뒤에 부체가 있는가?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감히 연공하지 못할 것인데, 그 숫자는 사람을 상당히 놀라게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속인사회에 화란(禍亂)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이런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 역시 인류 스스로 불러온 것으로서, 인류가 패괴(敗壞)하고 있기 때문에 도처가 모두 마(魔)이다. 더욱이 그런 가짜 기공사들은 몸에 모두 부체가 있으며, 그가 공을 전함은 바로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동물이 인체에 오르는 것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고 올라오면 그것을 죽여야 했는데, 누가 보아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려 하며 그것을 모신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나는 명확히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것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은 공능을 구했는데, 정법 수련의 각자가 당신에게 줄 수 있겠는가? 구함이 바로 속인 중의 집착이며, 이런 마음은 버려야 한다. 그럼 누가 줄 수 있는가? 오직 다른 공간의 마(魔)와 각종 동물만이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구한 것과 같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것이 왔다.

몇이나 되는 사람이 정확한 생각으로 연공(練功)하는가? 연공(煉功)은 德(터)를 중시해야 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하며, 선(善)을 행해야 하는데, 곳곳마다 일마다 모두 이렇게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공원에서 연마(練)하든 집에서 연마하든, 몇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 그 또한 무슨 공을 연마하는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연마하면서 흔들거리고, 입으로는 또 말을 한다: 참! 내 며느리는 내게 정말 효심이 없다, 우리 시어머니는 왜 그리 못됐을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부터 국가 대사에 이르기까지, 그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의 개인관념에 부합(符合)되지 않으면 더욱 화가 나서 야단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이것이 연공(煉功)인가? 또 어떤 사람은 연공(練功)한다고 거기에서 참장(站樁)을 연마(練)하는데, 힘들어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한가하지 않다: 지금은 물건이 다 이렇게 비싸져, 물가도 올랐으며, 우리 직장에서는 봉급도 주지 못하는데, 나는 왜 공능을 연마해 내지 못할까? 내가 공능을 연마해 내어나도 기공사가 되면 나 역시 부자가 되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병을 봐주고 돈을 벌 텐데. 그는 다른 사람이 공능이 나온 것을 보자 그는 더욱 조급해하며, 그는 줄곧 공능을 추구하고 천목을 추구하며 병을 치료할 수 있기를 추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것은 우리 우주 중의 특성, 眞(쩐)·善(싼)·忍(런)과 차이가 얼마나 큰가! 전부 다 위배되었다. 좀 엄중하게 말하면, 그는 사법(邪法)을 연마(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각하지 못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할수록 내보내는 의념(意念)은 더욱 나쁘다. 이 사람, 그는 법을 얻지 못하고 德(더)를 중시해야 함을 모르므로, 연공(練功)에서 수법을 통해 공을 연마해 낼 수 있고, 그가 무엇을 원하면 추구해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 자신의 사상이 바르지 않기에 좋지 않은 것을 불러왔다. 그 동물은 보아냈다: 이 사람은 연공하여 돈을 벌려 하며, 저 사람은 이름을 날리려 하고 공능을 얻으려 하는구나. 참, 그의 이 신체도 괜찮고, 갖고 있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의 사상은 참으로 나빠서 그는 공능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는 사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에게 사부가 있다 해도 나는 역시 두렵지 않다. 그것은, 그가 이렇게 공능을 추구하는 것을 정법수련의 사부가 보고,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주지 않을 것이며,

바로 집착심이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할수록 그에게 공능을 더욱 주지 않아 그는 더욱 깨닫지 못하는데, 추구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그 사부가 탄식하는데, 이 사람이 끝장난 것을 보고 그를 더는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사부가 없으나, 지나가는 분이 좀 상관할 수 있다. 각자(覺者)는 각개 공간에 많기 때문에 그 각자는 이 사람을 보는데, 그를 찬찬히 살펴 면서 하루 동안 따라다니며 보다가 안 되겠기에 가버리고, 다음날 또 한 분이 와서 이 사람을 살펴보니 안 되겠기에 또 가 버린다.

동물은, 그에게 사부가 있든 지나가던 사부가 있든, 그가 추구하는 것을 그의 사부는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물은 대각자가 있는 공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은 빈틈을 탔다. 우리 우주 중에는, 그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가지려 하는 것을 일반 정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는 이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빈틈을 탔다: 그가 가지려고 하면 내가 그에게 주고, 내가 그를 돕는, 이것은 잘못이 없지 않은가? 그것이 준다. 처음에 그것은 감히 올라가지 못하고 먼저 그에게 공을 조금 주어 시험해 본다. 그는 추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공이 왔으며, 병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보니 아주 좋았으며, 마치 연주할 악곡의 전주(前奏) 같았다: 그는 가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내가 올라가자. 올라가야 많이 주고 통쾌하

게 줄 수 있다. 당신은 천목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가? 이번에는 당신에게 무엇이든 다 주겠다. 그리하여 그것이 올라붙는다.

그의 그 추구하는 사상은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천목이 열렸고, 또한 공(功)도 내보낼 수 있으며, 조그마한 공능도 왔다. 그는 정말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이 이런 것을 추구하여 마침내 왔고, 연마(練)해 냈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연마해 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인체를 투시할 수 있고 사람의 신체 어디에 병이 있는지 볼 수 있다고 느꼈다. 사실 그의 천목은 전혀 열리지 않았다. 그 동물이 그의 대뇌를 통제하고서 그 동물이 제 눈으로 본 다음, 그의 대뇌에 반영한 것인데, 그는 자신의 천목이 열렸다고 여겼다. 공을 내보내려면 당신이 내보내라. 그가 손을 내밀어 공을 내보낼 때 그 동물이 그의 몸 뒤에서 작은 발을 내밀기도 하고, 그가 공을 내보낼 때 그 작은 뱀 대가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 병이 있는 곳과 그 흑이 자라는 곳을 혀로 핥고 또 핥는다. 이런 유의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부체(附體)는 모두 그 자신이 구해서 온 것이다.

그는 추구하기를 돈을 벌려 하고 이름을 날리려 한다. 때마침 이 공능도 있고, 병 치료도 할 수 있으며, 천목으로 볼 수도 있게 되어 그는 매우 기뻐다. 동물이 보니, 당신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닌가? 좋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한 속인의 대뇌가 통제당하기란 그야말로 쉬운 일이다. 그것

이 많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 그에게로 병을 보러 오게 하는데, 무척 많이 오게 한다. 거참, 그가 이쪽에서 병을 봐주고, 저쪽에서는 그것이 신문사 기자들을 시켜 신문에 선전하게 한다. 그것이 속인을 통제하여 이런 일을 하는데, 병을 보러 온 어느 사람이 돈을 적게 내놓아도 안 되는데, 당신의 머리가 아프게 해서 어쨌든 당신은 돈을 많이 내야 한다. 명리쌍수(名利雙收)라, 돈도 벌었고 이름도 날렸으며, 이 기공사 노릇까지 하게 되었다. 흔히 이런 사람은 心性(썬썬)을 중시하지 않고 무엇이든 감히 말하는데, 하늘이 첫째고 그가 둘째다. 그는 그가 서왕모·옥황상제가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고 감히 말하며, 그는 그가 부처라고도 감히 말한다. 그는 진정한 心性(썬썬) 수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연공(練功)하면 공능을 추구하여, 결국 동물 부체를 불러오게 된다.

어떤 사람은 아마 생각할 것이다: 이게 나쁠 게 뭐 있는가. 어쨌든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되고, 게다가 이름도 날릴 수 있지 않은가. 적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사실 그것은 목적이 있으며 그것이 아무런 연고 없이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우주 중에는, 잃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한다는 이치가 있다. 그것은 무엇을 얻는가? 나는 방금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당신 신체의 고만한 정화(精華)를 얻어 사람의 형상을 수련해 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체에서 사람의 정화를 채집한다. 그러나 인체의 정화는 단 이 한 몫으로서, 수련하려면 이 한

몫밖에 없다. 당신이 만약 그것에게 가져가게 한다면, 당신은 수련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또 무슨 수련을 하겠는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당신은 아예 수련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아마 말할 것이다: 나는 수련할 생각도 없고, 나는 다만 부자가 되려 하기에 돈만 있으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은 돈을 벌려 하지만, 내가 이 이치를 당신에게 말해 주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만약 그것이 당신 몸에서 일찍 떠난다면 당신은 곧 사지가 무력해질 것이다. 그 이후부터 한평생 내내 이럴 것인데, 사람의 정화를 그것이 너무 많이 빼갔기 때문이며; 만약 그것이 당신 몸에서 늦게 떠난다면 당신은 곧 식물인간으로서 후반생에 당신은 오직 숨만 남아 침대에 누워있을 것이다. 당신이 돈이 있다 하여 쓸 수 있는가? 당신이 이름이 있다 하여 향수(享受)할 수 있는가? 무섭지 않은가?

이런 일은 오늘날 연공(練功)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두드러지며 특별히 많다. 그것은 몸에 붙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元神(원선)까지도 죽여 버리는데, 그것이 사람의 니환궁(泥丸宮)에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틀어박혀 있다. 보기에는 그것이 사람 같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닌데, 현재 이런 정황까지도 나타났다. 인류의 도덕수준이 모두 변화되었기에,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당신이 그에게 나쁜 일을 한다고 알려주어도 그는 믿지 않는다. 그는 돈을 벌고 돈을 추구하고 부자

가 되는, 이것은 천경지의(天經地義)이며, 이것이야말로 옳은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악한 짓도 하는데, 무엇이든 그는 감히 한다. 그것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얻지 못하는지라, 그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에게 그것을 주겠는가? 그것은 당신 몸의 것을 얻으려고 한다. 물론 우리가 말했듯이,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이 관념이 옳지 않고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불러온다.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말해 보자. 우리 이 한 법문을 수련함에, 오직 당신이 心性(썬썬)을 파악할 수만 있으면, 일정압백사(一正壓百邪)라, 당신은 어떤 문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약 心性(썬썬)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신이 이것을 추구하고 저것을 추구한다면 틀림없이 번거로움을 불러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원래 연마(練)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 우리는 연공(煉功)은 전일(專一)해야 하며 진정한 수련은 전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일부 기공사가 책까지 써냈다고 보지 말라.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그 책 속에는 무엇이든 다 있는데, 그가 연마(練)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뱀이고, 그것은 여우이며, 그것은 족제비다. 당신이 그런 책을 보면 이런 것들이 글자 속에서 밖으로 튀어나온다. 내가 말했듯이, 이 가짜 기공사는 진짜 기공사보다 몇 배나 더 많아 당신은 역시 가려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잘 파악해야 한다. 나는 또한 여기에서, 당신이 반

드시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어느 문(門)을 수련해도 된다. 그러나 과거에 한 마디 말이 있다: 천 년에 정법을 얻지 못할지언정 하루라도 야호선(野狐禪)은 닦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잘 파악해야 하며, 진정으로 정법을 수련하고, 어떤 것도 섞어서 닦지 말아야 하며, 의념(意念)마저도 더해 넣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法輪(파룬)마저 변형되었는데, 왜 변형되었는가? 그는 말한다. 나는 그런 공을 연마(練)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가 연공(練功)하기만 하면 그의 의념이 곧 그의 원래 것들을 안으로 더해 넣는데, 그렇다면 끌어넣은 것이 아닌가? 부체(附體), 이 문제를 우리는 이만큼 말한다.

우주어(宇宙語)

무엇이 우주어인가? 바로 이 사람이 갑자기 일종의 영문도 모르는 말을 한다. 재잘재잘, 재잘재잘하는데,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신도 모른다. 타심통공능(他心通功能)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인 뜻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능력이며 공능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역시 공능이 아니고 수련자의 능력도 아니며, 당신의 층차를 대표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어찌된 영문인가? 바로 당신의 사상이 일종의

외래 영체(靈體)에게 통제당한 것이다. 당신은 그래도 아주 좋다고 느껴, 당신은 가지기를 좋아하고 당신은 기뻐하는데, 당신이 기뻐할수록 그것이 당신을 더욱 단단히 통제한다.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그것에게 통제당해서야 되겠는가? 또한 그것이 온 층차는 아주 낮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번거로움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가장 진귀한 것으로서 만물의 영장인데, 당신이 어찌 이런 것들에게 통제당할 수 있는가? 당신의 신체마저도 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은 사람의 몸에 달라붙고, 또 어떤 것은 사람의 몸에 붙지 않고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조종하고, 당신을 통제한다. 당신이 말하려 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말하게 하는데, 재잘거리게 한다. 또 전(傳)할 수도 있어, 누가 배우려 하여 담대해져 입을 열면, 그도 말하게 된다. 사실 그것들도 한 무리 한 무리씩이며, 당신이 말하려 하면 곧바로 그것이 하나 올라와 당신에게 말하게 한다.

왜 이런 정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역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자신의 층차를 제고하려 하지만, 그쪽에는 겪을 고생이 없으므로 수련할 수 없고, 제고할 수 없다. 그것은 곧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어 사람을 도와 좋은 일을 하려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내보낸 에너지가 병이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제약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환자의 당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치료하여 낮게 해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입으로 그것을 내보내면 이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바로 이러할 뿐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늘의 말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처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짓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처는 쉽게 입을 열지 않는다. 만약 우리 이 공간에서 입을 열어 말한다면, 그는 인류에게 지진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 우르릉 쿵쾅하는 소리 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내가 천목으로 보았는데, 그는 나와 말을 했다. 그는 당신과 말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보았다는 나의 범신 역시 당신과 말한 것이 아니며, 그가 내보낸 의념은 입체적인 소리를 갖고 있어 당신이 듣기에는 마치 그가 말하는 것 같다. 그는 통상 그의 그 공간 중에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전도(傳導)되어 온 후에 당신은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공간의 시공 개념이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 이쪽 공간의 한 시진(時辰)은 바로 지금의 두 시간이다. 그러나 그 큰 공간 중에서는 우리의 이 한 시진이 곧 그의 1년인데, 그의 시간에 비해 오히려 느리다.

과거에 “하늘에서는 겨우 하루가 지났으나, 지상에서는 이미 천 년이 지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공간이 없고 시간 개념

이 없는 그런 단원세계(單元世界)를 가리킨 것으로서 바로 대각자가 머무는 세계다. 예컨대 극락세계(極樂世界)·유리세계(琉璃世界)·法輪世界(파룬쓰제)·연화세계(蓮花世界) 등등이 그러한 곳들이다. 그러나 그 큰 공간의 시간은 도리어 더욱 빠르는데, 당신이 설령 그가 하는 말을 접수할 수 있어 들을 수 있어도, 천이통(天耳通)인 어떤 사람은 이 귀가 열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 당신은 분명하게는 알아듣지 못한다. 당신이 무엇을 들어도 모두 그러한데, 마치 새가지저귀는 소리 같고, 축음기를 빨리 돌릴 때의 소리와 같아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한 말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일종의 공능을 운반체로 삼아 이 시간의 차이를 없애버리고 당신의 귀로 전해 와야만 당신은 비로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정황이다. 어떤 사람은 부처의 언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각자들은 상호간에 만나 두 사람이 웃기만 하면 무엇이든 모두 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성(無聲)의 사유전감(思維傳感)으로서, 접수한 것은 입체적인 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둘이 웃을 때 이미 의견 교환이 끝났다. 단지 이런 형식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다른 방법도 채용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밀종에서 티베트의 라마는 수인(手印)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라마에게 물어보라. 수인이 무엇인가? 그는 당신에게 무상유가(無上瑜伽)라고 알려 준

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도 모른다. 사실 바로 대각자(大覺者)의 언어다. 사람이 많을 때 그는 그 대수인(大手印)을 하는데, 매우 아름다운 각종 대수인이며; 사람이 적을 때 그는 소수인(小手印)을 하는데, 역시 매우 보기 좋은 각종 자세의 소수인으로서, 무척 복잡하고 무척 풍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것은 모두 천기(天機)였으나 우리는 모두 말했다. 티베트에서 사용하는 것은 단지 연공(煉功)을 위한 그 몇 개 단일한 동작일 뿐이며, 그것은 그것을 귀납하여 체계화했다. 그것은 단지 연공의 그런 단일한 언어이며, 또한 그 몇 가지 연공 형식일 뿐, 진정한 수인(手印)은 상당히 복잡하다.

스승은 수련생에게 어떤 것들을 주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나의 손을 잡아당긴 채 잡고서는 놓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남이 악수하는 것을 보고는 그 역시 나와 악수한다. 나는 그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다. 어떤 사람은 스승과 악수하려 하면서 매우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좀 얻으려고 손을 잡아당기고는 놓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진정한 수련은 당신 개인의 일로서, 여기서는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거나, 당신에게 정보를 좀 주고 당신에게 병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지도 않는다. 당신의 병은 내가

직접 당신을 위해 제거해 버리는데, 연공장(煉功點)에서 나의 법신이 제거해 주며, 혼자서 책을 보며 배워도 나의 법신이 제거해 준다. 당신은 나의 손만 만지면 공(功)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웃음거리가 아닌가?

공은 자신의 心性(썬썬)에 의거해 닦는 것이다. 당신이 착실하게 수련하지 않으면 그 공은 자라 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心性(썬썬) 표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공이 자랄 때, 층차가 높은 사람은 당신이 그 집착심, 그 물질을 제거하면 정수리에 척도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척도는 공기등식 존재로서, 척도가 얼마만큼 높으면 공기등도 그만큼 높은데, 그것은 당신 자신이 수련해 낸 공을 대표하며 당신의 心性(썬썬) 높이도 대표한다. 다른 사람 누가 당신에게 얼마를 더해 주든지 안 되며, 조금만 더해도 놓여 있지 못하고 모두 떨어진다. 나는 즉시 당신을 ‘삼화취정(三花聚頂)’에 도달하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이 문만 나서면 공은 곧 떨어진다. 그것은 당신 것이 아니며 당신이 수련해 낸 것이 아니어서 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心性(썬썬) 표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 누가 더하려 해도 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전히 자신에 의거해 수련해 낸 것이며 자신의 그 마음을 수련한 것이다. 착실하고 착실하게 공이 위로 자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제고해 우주 특성에 동화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올라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찾아 서명을 해 달라고 하지만, 나는 서명하고 싶지 않다. 어떤 사람은 스

승님께서 서명해 주셨다면 그 과시하려 하며 스승의 정보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 이것 또한 집착심이 아닌가? 수련은 자신에 의거해야 하는데 당신은 무슨 정보를 말하는가? 고층차 수련에서 당신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다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당신 자신이 연마(煉)해 낸 그 공은, 극미시하에서, 그 공의 미립자상에서 당신의 형상과 똑같다. 世間法(쓰젠파)를 벗어났을 때 당신은 곧 불체(佛體) 수련이다. 그 공은 모두 불체 형상으로서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데, 매 작은 미립자상에서 모두 그렇다. 그러나 동물의 그 공은 모두 작은 여우, 작은 뱀 그런 것이고, 극미시하의 작은 미립자상에서는 모두 이런 것들이다. 또 무슨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 엽차, 그것을 휘휘 저어서는 당신이 마셔봐라, 어쨌든 그것도 공(功)이라고 한다. 속인은 일시적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병을 뒤로 쏘미루어 억제하는데, 어쨌든 속인은 곧 속인이라, 그가 신체를 어떻게 나쁘게 만들든지 우리는 역시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연공인(煉功人)이기에 나는 비로소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말해 준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 무슨 정보라든가, 이런 저런 것, 그런 것들을 절대 갖지 말아야 한다.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정보를 보낼 테니 당신들은 전국 각지에서 받아라. 받기는 뭘 받는단 말인가?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이런 일은 무슨 큰 작

용을 일으킬 수 없으며, 설령 그것이 좋은 점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다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 공은 자신이 수련해 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보내는 그 무슨 정보공(信息功)은 충차를 제고할 수 없으며, 단지 속인의 병을 제거해 줄 뿐이다. 반드시 마음을 똑바로 놓아야 한다. 수련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오직 당신 스스로 진정하게 수련해야만 자신이 비로소 충차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주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많은 사람이 공을 연마(煉)한 적이 없고, 신체에는 병이 있으며; 비록 많은 사람이 다년간 연공(練功)했지만, 여전히 기(氣) 중에서 배회하고 있는데 역시 공은 없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지만, 당신은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내가 부체의 문제를 말할 때, 나는 이미 대법(大法)을 진정하게 수련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붙어 있는 부체를, 신체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붙어 있는 모든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든 전부 다 떼어버렸다. 진정하게 혼자서 수련하는 사람이 이 대법(大法)을 볼 때, 역시 당신의 신체를 청리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 집의 환경도 청리해 주어야 한다. 과거에 당신이 모셨던 그 여우·죽제비의 위패, 그것을 당신은 어서 빨리 던져버려라. 당신에게 모두 청리해 주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가장 편리한 문을 열어주어 당

신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지만,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에 한해서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수련을 생각하지 않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그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럼 우리도 책임질 수 없으며,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다른 사람이 그의 몸에 부체가 있다 하였고 그 자신도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일단 그에게서 떼어버린 후에도 그는 그 마음의 병을 제거하지 못해 그는 늘 그런 상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끼며 그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미 일종의 집착심으로서, 의심이라고 한다. 오래오래 되어 그 자신이 자칫하면 또 불러올 수 있다. 당신 자신이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에 학습반을 열 때 그에게 처리해 주었으며, 나는 이미 이런 일을 했고 모든 부체를 떼어버렸다.

도가는 저층차(低層次)에서 연공(煉功)함에 일부 기초를 닦아야 하는데, 주천(周天)을 형성해야 하고 단전(丹田)이라는 그 전(田)도 형성해야 하며, 또한 기타 일부 방면의 것도 형성해야 한다. 우리 여기서는法輪(파룬)·氣機(치지)를 넣어주어야 하며, 일체 수련의 기제(機制) 등 많고도 많은, 만 가지도 넘는 이런 것을 모두 당신에게 주어야 하는데, 마치 종자처럼 당신에게 심어준다. 당신의 병을 제거한 후, 해야 할 것을 모두 하고, 주어야 할 것을 전부 당신에게 넣어주어야만 당신은 비로

소 우리 이 한 법문 중에서 진정하게 수련해 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부 사람들은 心性(썬썬)을 중시하지 않는데, 체조하기만도 못하다.

진정하게 수련하면 당신을 책임져야 하며,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수련해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진정으로 수련해야만 하며, 우리는 이런 것을 모두 진정한 수련자에게만 준다. 내가 말했듯이, 당신을 진정하게 제자로 여겨 이끌어야 한다. 이것 외에 고층차의 법을 반드시 투철히 배워 어떻게 수련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다섯 가지 공법을 한꺼번에 전부 배워야 한다. 장래에 당신은 상당히 높은 층차,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고층차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정과(正果)를 얻기는 문제가 없다. 오직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면, 이 법을 나는 부동(不同)한 층차에 결합하여 강의하고 있어 금후 당신이 부동한 층차의 수련 중에서 당신은 그가 모두 당신에게 지도 작용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한 수련인으로서 금후의 인생행로는 개변될 것이며, 나의 법신이 당신에게 새롭게 안배해 줄 것이다. 어떻게 안배하는가? 어떤 사람들의 생명 노정은 얼마나 남았는가? 그 자신도 모르며; 어떤 사람들은 1년이나 반년이 지나 큰 병에 걸릴 수 있고, 병에 걸리면 몇 년이 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뇌혈전 또는 기타 병에 걸려 전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금후의 인생행로 중에서 당신은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우리는 당신

에게 모두 청리(淸理)해 주어야 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말해 둘 것은,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고, 속인에게 함부로 해주는 그것은 안 되며, 그것은 나쁜 일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속인의 생로병사, 이런 일들은 모두 인연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을 가장 진귀하게 보기 때문에, 오직 수련하는 사람에게만 움직여 줄 수 있다. 어떻게 움직여 주는가? 만약 사부의 위덕(威德)이 아주 높으면, 다시 말해서 사부의 공력이 아주 높으면 그가 당신에게 소업(消業)해 줄 수 있다. 사부의 공이 높으면 당신에게 많이 없애줄 수 있고 사부의 공이 낮으면 다만 조금 없애줄 수밖에 없다. 우리 예를 들어 말해 보자. 당신의 금후 인생행로 중의 각종 업력(業力)을 모두 집중시켜 그것의 일부분을 없애버리는데, 절반을 없애버린다. 나머지 절반도 당신은 넘지 못하는데, 산보다도 더 높다.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도를 얻을 때, 아마 장래에 많은 사람이 모두 이득을 볼 것이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한 몫씩 감당한다. 물론 그들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당신 자신이 연련(演煉)해 낸 많은 생명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主元神(주웬션)·副元神(푸웬션)을 제외하고도 또 많은 당신이 있으므로 모두 당신을 대신하여 한 몫씩 감당한다. 당신이 겁난(劫難)을 지날 때는 얼마 남지 않게 된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역시 상당히 커서 당신은

여전히 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무수한 여러 몫으로 나누어 당신이 수련하는 각개 층차 중에 배치해 놓고,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의 心性(심성)을 제고하게 하고, 당신의 업력(業力)을 전화(轉化)하여 당신의 공을 자라게 한다.

또한, 사람이 수련하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아주 엄숙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속인을 벗어난 것으로서, 속인 중의 어떤 일보다도 더 어렵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초상(超常)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속인 중의 어떤 일보다도 당신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야 한다. 우리 사람은 元神(웬선)이 있으며, 元神(웬선)은 불멸(不滅)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元神(웬선)이 불멸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元神(웬선)이 당신 전생의 사회활동 중에서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지 않겠는가? 분명 그럴 것이다. 살생을 했거나, 누구에게 뭔가 빚을 졌거나, 누구를 괴롭혔거나, 누구를 해쳤거나, 이런 일들을 했을 수 있다. 만약 이렇다면, 당신이 이쪽에서 수련하는 것을 그것은 저쪽에서 매우 똑똑히 보고 있다. 당신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면 그것은 당신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뒤로 미루어 당신이 현재 갚지 않으면 장래에 갚아야 하며, 장래에 갚을 때는 더욱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잠시 갚지 않아도 그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이 수련하려 하면 그것은 가만있지 않는다: 당신이 수련하려 하고, 당신이 가려 하는가. 당신이 공이 자라면 나는

당신에게 가 닿지도 못하고, 나는 당신을 건드릴 수도 없다. 그것은 가만있지 않는다. 그것은 천방백계(千方百計)로 당신을 방해하여 당신이 수련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각종 방법을 대어 당신을 교란하며, 심지어 정말로 와서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물론 당신이 여기에서 가부좌하고 있다고 해서 머리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이며,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속인사회의 상태에 부합(符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 문을 나서면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고층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기타 위험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상당히 위험하다. 진정한 수련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리 쉽지 않다. 당신이 수련하려 하면 곧 수련하여 올라가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수련하려 하면 즉시 생명위험에 부딪히며, 즉시 이 문제에 연관된다. 많고 많은 기공사가 감히 고층차로 공을 전하여 사람을 이끌지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는 바로 이 일을 해낼 수 없으며, 그는 당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도를 전한 많은 사람, 그는 다만 도제(徒弟) 하나만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가 도제 하나를 지키기에는 그래도 괜찮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것은, 일반인은 감히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무수한 법신(法身)이 있는데, 나의 매우 큰 신통법력(神通法力)을 구비하여 아주 큰 신통(神通), 아주 큰 법력(法力)을 펼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우리가 오늘날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표면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며, 나도 일시적인 생각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알려 줄 수 있다. 많은 대각자가 모두 이 일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법시기에 최후로 한 차례 정법(正法)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함에 빗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진정하게 정도(正道)에서 수련하면 누구도 감히 경솔하게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법신이 보호하고 있어 어떠한 위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빗진 것은 값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련의 길에서 일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유의 일들이 나타날 때 당신은 두렵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신에게 진정한 위험이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일부 예를 들 수 있다. 내가 북경에서 학습반을 열 때, 한 수련생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데, 길모퉁이를 돌아갈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급커브에서 이 수련생을 들이받았다. 이 수련생은 여성이고 50여 세였다. 그 승용차가 단번에 그녀를 들이받았는데, 아주 세게 부딪쳐 ‘땅’ 하고 머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녀의 머리가 바로 차에 부딪혔다. 이때 이 수련생의 발은 아직도 자전거에 걸친 채였으며 머리가 부딪히고서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혈도 없고, 흑마저도 없었다. 그 기사는 깜짝 놀라 차에서 뛰어 내리자마자 그녀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다치지 않았나요. 우리

병원에 갈까요?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당연히, 우리 이 수련생은 心性(썬썬)이 아주 높아 다른 사람에게 번거로움을 줄리가 없다. 괜찮다고 했지만 그 승용차는 부딪쳐 흠이 크게 패여 들어갔다.

이런 유와 같은 일들은 모두 목숨을 앗아가려고 온 것이다. 그러나 위험에 부닥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저번에 길림대학(吉林大學)에서 학습반을 열 때, 한 수련생이 길림대학 정문을 나와서 자전거를 밀고 막 길 가운데까지 갔는데, 승용차 두 대가 단번에 그를 가운데 끼워 넣어 부딪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일들에 부닥쳐도 모두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순간 차가 멈췄으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북경에 또 이런 한 가지 일이 있었다. 겨울은 비교적 일찍 어두워져 사람들도 비교적 일찍 잔다. 큰길에는 사람이 없었고 아주 조용했다. 한 수련생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서둘러 가는데, 앞에는 지프 한 대만 달리고 있었다. 달리고 달리다가 그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다. 그는 주의하지 않고 여전히 머리를 숙인 채 앞으로 달렸다. 그런데 그 지프가 또 갑자기 후진했는데, 빠른 속도로 후진했다. 차가 후진하는 것이 또한 아주 빨랐으며, 이 두 가닥 힘이 한 곳으로 쏠렸는데, 그 역시 목숨을 앗아가려고 온 것이다. 막 한데로 부딪치려는 그 순간, 한 가닥 힘이 단번에 그의 자전거를 반 미터 넘게 뒤로 잡아당겼으며, 또한 지프는 그의 자전거 바퀴와 맞닿아 즉시 급정거했

다. 아마 차 안의 기사가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당시에 이 수련생 역시 두렵지 않았으며, 무릇 이런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두렵지 않은데, 아마 나중에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는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이구, 누가 나를 잡아당겨 주었구나. 나는 그에게 감사드려야겠다. 머리를 돌려 막 감사드리려고 보니 큰길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조용했다. 그는 즉시 알았다: 스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또 한 가지는 장춘(長春)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수련생의 집 옆에서는 건물을 짓고 있었다. 현재 이런 건물은 모두 꽤 높게 짓는데, 그 비계는 모두 두 치 굵기의 철관으로서, 길이가 4미터다. 이 수련생이 집을 나와서 얼마 가지 않아 철관 하나가 그 높은 건물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와 곧장 그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혀왔다. 큰길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 멍해졌다. 그는 말했다: 누가 나를 치는가? 그는 누가 그의 머리를 한번 치는 것으로만 여겼다. 바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머리 위에서 큰法輪(파륜) 하나가 거기에서 돌고 있는 것이 보였고, 이 철관이 그의 머리를 스치면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미끄러져 내려온 후 땅에 박힌 채 넘어가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것이 정말로 사람의 몸에 꽂힌다면, 그렇게 무거운 그것이 정말로 탕후루(糖葫蘆)를 꿰듯이 단번에 밑바닥까지 썰 것인즉, 아주 위험하다!

이런 유의 일은 아주 많아 헤아릴 수 없으나, 위험이 나타난 적이 없다. 이런 유의 일을 반드시 다 만나는 것은 아닌데, 우

리 극소수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다.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보증코 당신은 어떠한 위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이 한 점을 나는 보증할 수 있다. 어떤 수련생, 그가 心性(썬썬)의 요구대로 하지 않고 동작만 연마(煉)하며, 心性(썬썬)을 수련하지 않는다면 그를 연공인(煉功人)이라 할 수 없다.

스승이 어떤 것들을 주는가를 말하자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준다. 나의 법신(法身)은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줄곧 보호해 준다. 그때면 당신은 世間法(쓰젠파) 수련을 벗어났을 것인데, 당신은 이미 도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당신 자신을 진정한 수련인으로 여겨야만 비로소 이 한 점을 해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책을 손에 들고 거리를 걸어가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 리(李) 스승님의 보호가 있으므로 자동차에 부딪힌다 해도 두렵지 않다. 이것은 대법(大法)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진수(眞修) 제자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장(能量場)

우리가 연공(煉功)할 때 주위에는 장(場)이 생길 것인데, 이 장은 어떤 장인가? 어떤 사람은 기의 장(氣場), 자기장(磁場), 전기장(電場)이라고 한다. 사실 당신이 그것을 무슨 장이라 해도 모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장이 포함하는

물질은 극히 풍부하기 때문이다. 우리 우주의 모든 공간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 공(功)에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에너지장이라고 함이 비교적 적합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상 그것을 에너지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장(場)은 무슨 작용을 하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정법 수련을 하는 사람은 이런 감각이 있을 것이다: 정법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자비(慈悲)를 중시하며, 그것은 우주의 眞(眞)·善(善)·忍(忍) 특성에 동화되므로, 우리 수련생들이 이 장에 앉기만 하면 모두 감수가 있고 사상 속에는 나쁜 염두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수련생은 여기에 앉으면 담배 피울 생각마저 나지 않으며, 아주 상화(祥和)한 분위기를 느끼는데, 매우 편안하다. 이것이 바로 정법 수련자가 휴대(攜帶)한 이런 에너지로서, 이 장의 범위 내에서 일으킨 작용이다. 장래 당신이 이 학습반에서 나간 후, 우리 거의 대부분 사람은 다 공이 있게 되며 진정하게 공이 나온다. 내가 당신에게 전해준 것은 정법 수련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도 이 心性(心淨)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당신이 끊임없이 연공(煉功)하고 우리 心性(心淨)의 요구에 따라 수련하면, 점차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며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法輪(파륜), 그가 안으로 돌 때는 자신을 제도하고, 밖으로 돌 때는 남을 제도할 수 있다. 밖으로

돌 때는 그가 에너지를 내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보게 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에너지장(能量場)에 덮인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어 그는 아마 아주 편안한 감을 느낄 것이다. 당신이 거리에서 다니든, 직장이나 집에서든 모두 이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당신은 무의식중에 당신의 장(場) 범위 내에 있는 사람, 그의 신체를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장은 일체 바르지 않은(不正確)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는 마땅히 병이 없어야 한다. 병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바르지 않은 상태에 속하기에 그것은 이런 바르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나쁜 사상이 있는 사람이 바르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당신 장(場)의 강력한 작용하에서 그의 사상을 개변할 수 있어, 그는 그때 나쁜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욕하려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욕하지 않을 수 있다. 오직 정법수련의 에너지장만이 비로소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불교 중에는 이런 한 마디 말이 있다. “불광이 널리 비치니, 예의가 원만하고도 밝도다(佛光普照, 禮義圓明).”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뜻이다.

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생은 어떻게 공(功)을 전하는가

우리 많은 수련생이 돌아간 후, 공법이 아주 좋다고 느껴 친척과 친구에게 전하려고 생각한다. 된다. 당신은 전할 수 있

으며 누구에게나 전해 주어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성명(聲明)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준 이렇게 많은 것은 가치로 가늠할 수 없다. 왜 여러분에게 주는가? 당신에게 수련하라는 것이다. 오로지 수련해야만 당신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장래에 공을 전할 때, 이런 것으로 명(名)을 구하고 이(利)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처럼 이렇게 학습반을 열고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책을 찍어야 하고 자료를 찍어야 하며, 도처에 공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받는 비용은 전국에서 이미 가장 적지만, 우리가 주는 것은 가장 많다. 우리는 진정하게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데, 이 점은 여러분 자신이 체험했을 것이다.法輪大法(파룬따파) 수련생으로서, 당신이 장래에 공을 전할 때 우리는 당신에게 두 가지 요구가 있다.

첫 번째 요구는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은 당신에게 돈을 벌고 명(名)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제도하기 위함이며, 당신으로 하여금 수련하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당신이 비용을 받는다면, 나의 법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회수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 또한 우리法輪大法(파룬따파)의 사람이 아니며 당신이 전한 것도 우리法輪大法(파룬따파)가 아니다. 당신들이 공을 전할 때는 명(名)을 구하지 않고 이(利)를 구하지 않으며, 무보수로 모든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전국 각지의 수련생은 모두 이렇게 하며 각지의 보도원(輔導員) 역시 모두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다. 우리의 공을 배우려 옴에, 오직 당신이 배우려 하면, 당신은 와서 배우라. 우리는 당신을 책임질 수 있으며 돈 한 푼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요구는 대법(大法) 속에 개인적인 것을 섞어 넣지 말아야 한다. 공을 전하는 과정 중에 당신의 천목이 열렸든, 당신이 무엇을 보았든, 어떤 공능이 나왔든지, 당신은 당신이 본 그 정황으로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를 말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 층차에서 본 고만한 일은 아직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말하는 법의 진정한 함의와는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그러므로 금후 당신이 공을 전할 때 이 일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의 고유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보증할 수 있다.

또한 나처럼 이런 형식으로 공을 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나의 이런 대보고(大報告) 형식으로 설법함을 허락하지 않는바, 당신은 법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의의가 아주 심원(深遠)한 것으로서, 고층차의 것을 결합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수련하는데, 장래 당신이 제고한 후, 당신이 돌아가 이 녹음을 들으면 당신은 끊임없이 제고될 것이고, 당신이 끊임없이 들을수록 당신은 줄곧 새로운 터득, 새로운 수확이 있을 것이며, 책을 읽으면 더욱 이리하다. 나의 이런 말은 아주 고심(高深)한 것

을 결합하여 이야기하므로, 당신은 이 법을 말할 수 없다. 당신은 나의 원래 말을 자신의 말로 삼아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법을 훔치는 행위이다. 당신은 다만 나의 원래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고, 책에는 어떻게 쓰여 있다고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대법(大法)의 힘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을法輪大法(파룬파파)의 것으로 간주하여 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전한 것은法輪大法(파룬파파)가 아니며, 당신은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에 따라, 당신의 사상에 따라 말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고 사람을 제도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작용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법을 말할 수 없다.

당신들이 공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연공장(煉功點)에서, 또는 공을 전하는 장(場)에서 수련생들에게 녹음·비디오를 틀어주고, 그런 다음 보도원이 그들에게 연공(煉功)을 가르칠 수 있다. 좌담회라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서로 연구 토론하고, 서로 담론하며, 서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法輪大法(파룬파파)를 전파하는 수련생(제자)을 스승·대사(大師) 등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대법(大法) 사부는 오로지 한 사람뿐이다. 입문한 선후는 가리지 않는바 모두 제자다.

당신들이 공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아마 생각할 것이다:

스승님께서서는 法輪(파룬)을 넣어주고 사람에게 신체를 조정(調整)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은가. 괜찮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매 수련생의 몸 뒤에는 모두 나의 법신(法身)이 있으며 또 하나만이 아니므로 나의 법신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당신이 그에게 가르쳐 줄 때, 만약 그가 연분(緣份)이 있으면 그 즉시 法輪(파룬)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연분이 조금 차(差)하면 신체 조정을 거쳐 연공(煉功)한 후에 점차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나의 법신이 그를 도와 신체를 조정해 줄 것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나의 책을 읽고, 나의 비디오를 보거나 나의 녹음을 들어 법을 배우고 공을 배우며, 진정하게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땅히 얻어야 할 이런 것들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수련생들이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하게 하는데, 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생이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을 절대로 금지한다. 우리는 당신을 위로 수련하도록 가르쳤고, 당신이 어떠한 집착심도 일으키지 않도록 했으며, 또한 당신 자신이 자신의 신체를 망치지 않도록 했다. 우리의 연공장(煉功場)은 다른 어떤 공법의 연공장(練功場)보다도 좋은데, 우리의 그 장은 당신이 가서 연공(煉功)하기만 하면 당신이 병을 조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의 법신(法身)이 한 바퀴 둘러앉았고, 연공장(煉功場) 상공에는 또 씩우개가 있으며, 위에는 큰 法輪(파룬)이 있고 큰

법신(法身)이 씌우게 위에서 장을 지키고 있다. 그 장은 일반 장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연공(練功)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수련하는 장이다. 우리 공능이 있는 많은 사람이 모두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의 이 장이 붉은 빛으로 씌워졌고 온통 붉은 것을 보았다.

나의 법신 역시 직접法輪(파룬)을 넣어줄 수 있으나, 우리는 집착심을 조장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에게 동작을 가르칠 때, 그가 말한다: 와, 나에게法輪(파룬)이 있다. 당신은 당신이 넣어준 것이라고 여길 텐데,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 분에게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은 이 집착심을 키우지 말라는 것이며, 모두 나의 법신이 하고 있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 제자는 바로 이렇게 공을 전한다.

누가 만약法輪大法(파룬파파) 중의 공법을 고친다면 그는 바로 대법(大法)을 파괴하며 이 한 법문을 파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공법을 순구류(順口溜)로 만드는데, 이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진정한 수련방법은 모두 사전시기(史前時期)에서부터 남겨 온 것이고, 상당히 멀고도 오랜 연대를 거쳐 남겨 온 것이며, 무수한 대각자를 수련해 냈다. 누구도 감히 이것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 역시 우리 이 말법시기에 비로소 이런 일이 나타났다. 역사상 이런 일이 모두 나타날 수 없었는데, 여러분은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제 4 강

실(失)과 득(得)

수련계에서는 늘 실(失)과 득(得)의 관계를 말하고, 속인 중에서도 실과 득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우리 연공인(煉功人)은 실과 득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는 속인과 다르다. 속인이 얻으려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며, 어떻게 잘살고 편안히 지내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연공인은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서, 우리는 속인이 얻으려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속인이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서, 오직 수련으로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실(失)은 역시 아주 작은 범위 내의 잃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잃음을 말하면 곧 돈이나 재물을 좀 희사하고, 누가 곤란하면 좀 도와주고, 거리에서 거지를 보면 돈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역시 일종의 버림(捨)이고 역시 일종의 잃음(失)이다. 그러나 이것

은 단지 이 한 문제에서 금전이나 물질상으로 좀 담담하게 본 것일 뿐이다. 재물을 포기함, 그것도 물론 한 방면이며 역시 비교적 주요한 한 방면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실(失)은 이런 작은 범위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람은 수련과정 중에, 한 연공(煉功)하는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데, 과시심·질투심·쟁투심·환희심, 많고 많은 각종 집착심 그것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실(失)은 광의(廣義)적인 것으로서, 전반 수련과정 중에서 속인의 그런 모든 집착, 각종 욕망을 마땅히 잃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데 다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화상(和尚)과 같지 않은가? 비구니와 같지 않은가? 다 잃는다면 못할 것 같다. 우리 이 한 법문,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이 부분은,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며 최대한 속인과 같게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물질이익에서 당신에게 그 무엇을 실제로 잃으라는 것이 아니다. 설사 당신이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할지라도, 또 당신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관건은 당신이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이 한 법문은 바로 직지인심(直指人心)으로서 개인이익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중에서 이런 문제를 담담하게 보고 가볍게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것이 관건 문제다. 절에서 하는 수련과 심산 밀림에서 하는 수련은, 당신을 속인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고, 강제로 당신에게 속인 중의

이 마음을 잃게 하며, 물질 이익에서 당신에게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신으로 하여금 잃게 한다.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지 않으며, 바로 속인의 이런 생활상태 중에서 어떻게 그것을 담담히 보아야 하는가를 요구한다. 물론 이것은 아주 어려우며, 이것 역시 우리 이 한 법문의 가장 관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잃음이란 곧 광의(廣義)적인 것이지 아주 협애(狹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돈과 재물을 좀 희사함을 말하는데, 당신은 지금 거리의 거지를 보라. 어떤 사람은 직업적인 거지로서 그는 당신보다도 돈이 더 많다. 우리는 큰 것에 착안해야지 작은 것에 착안하는 것이 아니다. 수련이라, 마땅히 정정당당하게 큰 것에 착안하여 수련해야 한다. 우리가 잃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진정하게 잃는 것은 바로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층차에서 보면 모두 속인 중에서 이미 얻은 조그마한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종교 중에서는 말한다: 당신이 돈이 아무리 많고 벼슬이 아무리 높다 해도 몇 십 년이라, 태어날 때 가지고 오지 못하며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공은 왜 이렇게 진귀한가? 바로 그것이 직접 당신의 元神(웬션) 몸에서 자라 태어날 때 가지고 오고, 죽을 때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접 당신의 과위(果位)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수련하기가 쉽지 않다. 즉 말해서, 당신이 버리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인데, 이래야만 비로소 당신

으로 하여금 반본귀진(返本歸眞)하게 할 수 있다. 얻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충차를 제고하고, 최후에 정과를 얻어 공성원만(功成圓滿)하는 것으로서, 해결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다. 물론, 우리들이 속인의 각종 욕망을 버리고, 진정한 수련인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이 점을 단번에 해내기는 그다지 쉽지 않은즉, 서서히 해야 한다. 내가 서서히 하라는 말을 당신이 듣고 당신은 스승님께서 서서히 하라고 알려주셨으니, 그럼 서서히 하자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서서히 제고함을 허용한다. 당신이 오늘 단번에 해낸다면 당신은 오늘 곧 부처인데, 역시 비현실적이므로 당신은 서서히 이 점을 해낼 것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인데 무엇인가? 바로 업력으로서, 그것과 사람의 각종 마음은 상보상성(相輔相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속인은 각종 좋지 못한 마음이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각종 좋지 못한 일을 하면 이런 흑색물질-업력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직접 관계가 있으며, 이 좋지 못한 것을 제거해 버리려면 우선 당신의 이 마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업력(業力)의 전화(轉化)

백색물질과 흑색물질 사이에는 전화(轉化) 과정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 후, 그것은 전화 과정이 있다. 좋은 일을 하면 백색물질 - 德(더)를 얻고, 나쁜 일을 하면 흑색물질 - 업력을 얻는다. 또 이어받고 전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한다. 전반생(前半生)에 좋지 못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꼭 전부 이런 것은 아닌데, 사람이 쌓은 이런 업력은 일생일세(一生一世)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련계에서는, 元神(웬션)은 불멸한다고 한다. 만약 元神(웬션)이 불멸한다면, 그는 아마 그의 전생에 사회 활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전생의 활동 중에서 아마 누구에게 빚을 졌거나, 누구를 괴롭혔거나, 또는 기타 좋지 못한 일들을 했거나, 살생 등등을 했을 것인즉, 그렇다면 곧 이런 업력을 조성하게 된다. 이런 것들, 그것은 다른 공간에서 아래로 쌓여 항상 따라다니는데, 백색물질 역시 마찬가지로서, 이런 내원(來源)에 그치지 않는다. 또 일종 정황이 있는데, 가족 중이나, 조상에게서도 아래로 쌓일 수 있다. 과거에 노인들이 이런 한 마디 말을 했다: 德(더)를 쌓아라 德(더)를 쌓아, 조상에서 德(더)를 쌓아라, 이 사람은 德(더)를 잃는다, 德(더)를 손상한다. 그 말은 모두 지극히 옳다. 현재의 속인에게는 이미 이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당신이 그런 젊은이들과 말하면서 德(더)가 없고 德(더)가 적음을 말하면 그는 전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실 그것의 의의는 확실히 아주 깊으며, 그것은 단지 근대인의 사상과 정신적 표준일 뿐만 아니라 진정하게 물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람의 신체

에는 이 두 가지 물질이 다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흑색물질이 많아진 후에는 고층차로 수련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흑색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오성(悟性)에 영향을 준다. 그것이 당신 신체 주위에 장(場)을 형성해 바로 그 속에 당신을 둘러싸고 있어, 우주의 眞(眞)·善(善)·忍(忍) 특성과 격리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오성(悟性)이 차(差)할 수 있다. 남들이 수련이요, 기공이요 하면 그는 일률로 미신으로 여겨 아예 믿지 않으며, 그는 가소로워한다. 흔히 이렇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수련하려면 아주 어려우며 높은 공이 자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만도 아니다. 우리는, 대법은 끝없는(大法無邊) 것으로서, 전적으로 당신의 이 마음에 의거해 수련해야 한다고 한다. 사부가 문으로 이끌어 들이나 수행은 개인에게 달렸으며, 전적으로 당신 자신이 어떻게 수련하는가를 본다.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이 견뎌낼 수 있는가 없는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없는가, 고생을 겪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다. 만약 이 한 마음을 굳게 먹으면 어떤 곤란도 가로막지 못할 것인즉, 그러면 문제없다고 나는 말한다.

흑색물질이 많은 사람은 흔히 백색물질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왜냐하면 백색물질은 직접 우주의 眞(眞)·善(善)·忍(忍) 특성에 동화하기 때문에 그의 心性(心聲)이 제고되어 올라오고 모순 중에서 자신을 제고할

수 있지만 하면 곧 그의 공이 자라는데, 바로 이렇게 통쾌하다. 德(더)가 많은 사람은 오성이 높아 몸을 고달프게 하고 (勞其筋骨) 마음을 괴롭게 하는(苦其心志)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데, 가령 신체 이 방면에서 좀 더 감당하고, 정신적으로 좀 적게 감당하더라도 공이 자랄 수 있다. 흑색물질이 많은 사람은 안 되는데, 반드시 먼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흑색물질을 백색물질로 전화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과정으로서 역시 극히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흔히 오성(悟性)이 좋지 못한 사람은 고통을 많이 겪어야 하는데, 업력이 크고 오성이 차(差)하면 그는 수련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

그가 어떻게 수련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선정(禪定) 중의 수련은 장기간 다리를 틀어야 한다. 다리를 틀기만 하면 아프고도 저리며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소란스럽기가 대단하다. 몸을 고달프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므로, 신체가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틀지만 아픈 것이 두려워서 내려놓으며 견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틀 시간 조금만 길어져도 견뎌내지 못한다. 일단 다리를 내려놓으면 연마(煉)는 헛된다. 다리를 틀어 아프기만 하면 얼른 좀 움직인 다음 다시 틀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의 다리가 아플 때, 우리는 흑색물질이 그의 다리로 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흑색물질은 바로 업력으로서 고통을 겪으면 소업(消業)할 수 있으며, 이로써 德(더)로 전화된다.

아프기만 하면 그 압력은 아래로 제거되기 시작하기에, 압력이 아래로 내리누를수록 그의 다리는 더욱 심하게 아프다. 그러므로 그의 다리가 아픈 것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이 아니다. 흔히 가부좌한 사람의 다리가 아픈 것은 진통(陣痛)이라, 한동안 아프고 특별히 괴롭지만 지나간 후에는 또 완화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또 아프기 시작할 것인데 흔히 이런 것이다.

압력은 한 덩이 한 덩이씩 없어지기 때문에, 한 덩이가 없어지면 다리는 조금 편해지고 잠시 후에 또 한 덩이가 나오면 또 아프기 시작한다. 흑색물질은 없어진 후 흩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 물질 역시 불멸하는 것이라, 없어진 후 직접 백색물질로 전화되는데, 이 백색물질이 바로 德(덕)이다. 왜 그것은 이렇게 전화될 수 있는가? 그가 고생을 겪었고 그 자신이 대가를 치렀으며 그가 고통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德(덕)은 바로 자신이 고통을 감당하고 고생을 겪으며 좋은 일을 해서 얻어오는 것이므로 좌선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조금 아프기만 하면 얼른 내려놓았다가 좀 움직이고 다시 트는데, 전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참장(站樁)에서 팔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 견뎌내지 못하고 내려놓는데, 전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요만한 고통이 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연공(煉功)하면서 이처럼 팔을 들어 수련 성취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쉽다고 나는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선정(禪定) 중에

서 수련할 때 나타난 정황이다.

우리 이 한 법문은 주로 이렇게 걷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일부분은 이 방면에서 작용을 일으킨다. 우리 대다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心性(썬썬) 마찰 중에서 업력을 전화하는데, 흔히 이 중에서 체현된다. 사람이 모순 중에서, 더욱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마찰 중에서는 그런 고통을 능가한다. 나는 신체적인 고통은 감당하기가 가장 쉬우며 이를 악물기만 하면 넘길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혈뜬고 싸울 때, 마음을 다스리기가 가장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한 사람이 있었다. 출근하자마자 두 사람이 그에게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주 듣기 거북한 말에 화가 발끈 치밀었다. 그러나 우리는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욱해도 대꾸하지 않으며,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스승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우리 연공인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야 하며 높은 자태여야 한다고 하셨다. 그는 그 두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흔히 모순이 생길 때, 사람의 심령(心靈)을 자극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쓸모없으며 제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이 번거로워질 것인데, 사람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그를 혈뜬는 두 사람의 형상을 자꾸 되돌아보려는 생각이 날 것이다. 되돌아보니 그 두 사람은 흥한 표정으로 한창 열이 나서 말하고 있다. 그는 순간 참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당장 그들과 맞설 것이다. 사

람과 사람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 때 그 마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렵다. 나는 모두 가부좌 중에서 지나간다면 그래도 쉽겠지만 늘 이럴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금후 연공(煉功) 중에 당신은 각양각색의 마난(魔難)과 마주칠 것이다. 이런 마난이 없이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여러 사람이 모두 너도 좋고 나도 좋아 이익상의 충돌이 없고 인심의 교란이 없이, 당신이 거기에 앉아 있기만 하면 心性(썬썬)이 제고되어 올라오는가? 그것은 안 된다. 사람은 실천 중에서 진정하게 자신을 연마(魔煉)해야만 비로소 제고해 올라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우리가 연공(煉功)하는데 왜 늘 번거로운 일과 마주치는가? 속인 중의 번거로운 일과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당신을 머리가 아래로 드리우게 하고 거기에 둥둥 뜨게 걸어놓고, 당신을 하늘에 데려가 고생을 겪게 할 수는 없는데, 그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속인 중의 상태로서, 오늘 누가 당신을 건드렸거나, 누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거나, 누가 당신을 언짢게 대한다거나, 갑자기 당신에게 불손하게 말하거나 하는데, 바로 당신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본다.

왜 이런 문제와 마주치는가? 모두 당신 자신이 빚진 업력이 조성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미 당신에게서 무수하고도 무수한 몫을 없애주었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약간의 것을 각개 층차 중에 나누어 놓았는데, 당신의 心性(썬썬) 제고를 위해 사

람의 마음을 연마(魔煉)하고, 각종 집착심을 버리도록 설한 일부 마난(魔難)이다. 이것은 모두 당신 자신의 난(難)으로서 우리는 당신의 心性(썬쌩) 제고를 위해 그것을 이용하는데, 당신이 모두 넘을 수 있게 한다. 당신이 오직 心性(썬쌩)을 제고하기만 하면 넘을 수 있는데, 당신 자신이 넘으려 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지, 넘으려 하면 넘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순과 마주쳤을 때, 당신은 그것을 우연한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모순이 생길 때 갑자기 나타나지만,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은 당신의 心性(썬쌩)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직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기만 하면 당신은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난(難)이나 모순이 오기 전에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모두 당신에게 알려 준다면 당신은 또 무엇을 수련하겠는가? 그것은 역시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것은 흔히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래야만 비로소 사람의 心性(썬쌩)을 고험(考驗)할 수 있으며, 비로소 사람의 心性(썬쌩)을 진정으로 제고하게 할 수 있다. 心性(썬쌩)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이렇게 해야 비로소 보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모순이 오는 것은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수련 과정 중에, 업력의 전화에서 이 문제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육신의 고달픔(勞其筋骨)보다 훨씬 더 어렵다. 당신이 연공(煉功)하면서 좀 더 연마(煉)해서 손이 시큰하도록 들었거나 혹은 다리가 지치도록

서 있었는데, 이런다고 공이 자라며, 당신이 몇 시간 더 많이 연마한다 하여 공이 자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다만 本體(번티)를 전화하는 작용을 할 뿐, 여전히 에너지의 가지(加持)가 필요하며, 그것이 층차를 제고하는 작용은 하지 못한다. 마음이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층차를 제고하는 관전이다. 육신을 고달프게 하는 것으로 제고해 올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 중국 농민은 매우 고생스러운데 마땅히 모두 대기공사여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아무리 육신이 고달프다고 해도 그보다는 못하며, 날마다 내리쬐는 해를 머리에 이고 일하는데, 고통스럽고 고된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데, 진정으로 제고하려면 진정하게 이 마음이 제고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하게 제고할 수 있다.

업력이 전화되는 과정 중에서 자신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속인처럼 일을 그릇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자비로운 마음과 상화(祥和)한 심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문제와 마주쳤을 때 당신은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다. 항상 당신의 마음이 늘 것처럼 자상자비(慈祥慈悲)하면 갑자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당신은 완충적 여지가 있으며, 사고할 여지가 있다. 마음속으로 늘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려고 생각한다면, 내가 말하건대 문제와 마주치기만 하면 당신은 어김없이 남과 맞서 싸울 것인데, 보충고 이리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모순과 마주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흑색물질이 백색물질로 전화(轉化)되고, 德(더)로 전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우리 인류가 오늘날 이런 정도로 발전하기까지는, 사람마다 거의 모두 업이 구르고 굴러서 온 것이며, 사람의 몸에는 모두 상당히 큰 업력이 있다. 그러므로 흔히 업력의 전화 문제에서 이런 정황이 나타날 것인데, 당신은 공이 자라는 동시에, 心性(썬쌩)이 제고되는 동시에, 당신의 업력 역시 동시에 제거되며 동시에 전화된다. 모순과 마주쳤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心性(썬쌩) 연마(魔煉) 중에 표현될 것이며, 당신이 참아낼 수 있으면 당신의 업력도 제거되고 당신의 心性(썬쌩)도 제고되어 올라오며, 당신의 공 역시 자라서 그것들은 한데로 융합(熔合)된다. 과거의 사람은 德(더)가 크고 그의 心性(썬쌩)이 본래부터 높아서, 오직 고생을 좀 겪기만 하면 공이 자랄 수 있었다. 현재의 사람은 이렇지 않아서, 고생을 하기만 하면 수련을 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깨닫지 못해 수련하기 또한 더욱 어렵다.

수련 중에서 실제로 모순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지 않게 대할 때, 아마 이 두 가지 정황이 존재할 것이다. 하나는, 당신이 전생에 남을 잘 대해 주지 않은 적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신 자신은 마음속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말한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그러면 당신은 왜 이전에 남을 그렇게 대했는가? 당신이 당신의 그때 일을 모르고, 이 한평생에 그 한평생의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모순 중에서 업력의 전화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할 때 우리는 마땅히 높은 자태여야 하며 속인과 같아서 안 된다. 직장에서나 기타 근무 환경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있으며, 사회와 접촉하지 않을 수 없고 적어도 또 이웃 사이에 관계가 있다.

사회교제 중에서 각양각색 모순과 모두 마주칠 것이다. 우리 속인에서 수련하는 이 부분은 당신이 돈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높은 벼슬을 하며, 당신이 개인 업체를 경영하거나 회사를 차리고, 무슨 장사를 하든지 모두 상관없이, 공평하게 거래하고, 마음을 바르게 놓으면 된다. 인류사회의 각 업종은 모두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은 탓이지, 무슨 직업에 종사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무슨 ‘장사꾼 열이면 아홉은 간상배’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속인들이 한 말로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 문제라고 나는 말한다. 만약 사람이 마음을 모두 바르게 놓고, 공평하게 거래하고, 당신이 대가를 많이 치렀으면 마땅히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속인 중에서 당신이 대가를 치러야 비로소 얻는 것으로서,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함이라, 노동소득이다. 각종 계층에서 모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부동(不同)한 계층에는 부동한 모순이 존재한다. 높은 계층에는 높은 계층의 모순 형식이 있는데, 모두 모순을 정확하게 대할 수 있으며, 어느 계층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든지 각종

욕망과 집착심을 모두 담담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 부동(不同)한 계층에서 모두 좋은 사람을 체현해 낼 수 있으며, 자신이 있는 계층 중에서 모두 수련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국영기업 또는 기타 기업에서를 막론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은 극히 특수하다. 다른 국가에서나 역사상 종래로 없었던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익 앞에서 모순이 특별히 첨예하게 나타나 옥신각신하면서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쟁투하는데, 내보내는 사상과 사용하는 수단은 모두 아주 나빠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어렵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 내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알려주었다: 누구누구가 당신에 대한 말을 심하게 퍼뜨렸고 상사에게 당신을 일러바쳐 당신을 아주 납작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상한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일반인이 이 어찌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런 모욕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그가 나를 혈뜰는다면 나도 그를 혈뜰겠다. 그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맞서 보자. 속인 중에서 이렇게 했다면 속인들은 당신을 강자(强者)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는 그건 한심하기 그지없다. 당신이 속인과 마찬가지로 다투고 싸운다면 당신은 곧 속인이며, 당신이 그보다 더하다면 당신은 그 속인보다도 못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모순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우선 마땅히 냉정해야 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선의(善意)로 해명할 수 있으며, 사정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모두 관계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너무 집착하면 역시 안 된다. 우리가 만약 이런 번거로움과 마주칠 때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투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가 이렇게 한다고 당신도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바로 속인이 아닌가? 당신은 그와 마찬가지로 다투고 싸우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마음속으로 또 그를 미워해서도 안 되며 정말로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를 미워하면 당신은 화를 낸 것이 아닌가? 당신은 참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眞(쩐)·善(싼)·忍(런)을 중시하는데, 당신의 선(善)은 더욱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와 같아서는 안 되며, 당신은 정말로 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데, 그가 당신을 아래위로 납작하게 만들어 고개를 들 수 없게 했다고만 보지 말라. 당신은 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에게 또 감사드려야 하는데, 정말 그에게 감사드려야 한다. 속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큐(阿Q)가 아닌가?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일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은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높은 표준으로 당신에게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속인의 그 이치로 당신에게 요구할 수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수련인으로서 당신이 얻는 것은 고충차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고충차의 이치로 당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당신이 그와 똑같이 한다면 당

신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닌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또 그에게 감사드려야 하는가? 당신이 생각해 보라.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 우주 중에는, 잃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며, 얻으면 곧 잃어야 한다는 이치가 있다. 그가 속인 중에서 당신을 납작하게 만들었기에 그를 가진 쪽으로 치는데, 그는 이익을 얻었다. 그가 당신을 납작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소문을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당신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 더욱 크고, 그가 잃는 德(더)는 더욱 많은데, 이런 德(더)를 모두 당신에게 준다. 동시에 당신 자신이 감당할 때면 당신은 마음을 아주 담담하게 내려놓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우주 중에는 또 이런 이치가 있다: 당신이 아주 큰 고통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업력도 전화를 가져오게 된다. 당신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인데, 얼마만큼 크게 감당했으면 그만큼 크게 전화해 모두 德(더)로 변한다. 연공인(煉功人)은 바로 이 德(더)를 가지려는 것이 아닌가? 당신은 업력도 제거했으니 양득(兩得)이 아닌가. 만약 그가 당신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디에 가서 心性(썬쌩)을 제고하겠는가? 너도 좋고 나도 좋아, 모두 화기애애하게 거기 앉아 있어도 공이 자라는, 그런 일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가 당신에게 이런 모순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心性(썬쌩)을 제고할 기회가 생겼으며, 당신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心性(썬쌩)을 제고할 수 있었는데, 당신의 이 心性(썬쌩)이 곧 제고되어 올라오지 않았는가? 삼득(三得)이다.

당신은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당신의 心性(썸썸)이 올라오면 당신의 공도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일거사득(一舉四得)이다. 당신은 어찌 그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당신은 마음속으로 정말 그에게 톡톡히 감사드려야 하는데, 확실히 이렇다.

물론 그가 내보내는 마음은 좋지 않은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당신에게 德(더)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당신에게 心性(썸썸)을 제고할 한 차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心性(썸썸) 수련을 반드시 중히 여겨야 한다. 心性(썸썸) 수련을 하는 동시에 업력을 제거하여 德(더)로 전화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층차를 제고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보상성(相輔相成)하는 것이다. 고층차에서 보면, 이 이치에는 모두 변화가 일어났다. 속인인 그는 이 일을 명백하게 보아내지 못하는데, 당신이 고층차에 이르러서 이 이치를 보면, 전체는 모두 변화가 일어났다. 속인 중에서 당신이 이 이치를 보고서 옳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정말로 옳은 것은 아니다. 고층차에서 보아야만 진정 맞는 것이며 흔히 이리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치를 투철히 말했다. 금후의 수련 중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한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고 진정하게 수련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 이치가 여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속인 중에 있기 때문에, 속인의 이 확실하고 확실한 물질이익이 거기에 놓여 있으므로, 아직도 이것이 실익이라고 여길 것이다. 속인의 거센 흐름 속에서 그

는 아직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사실 속인 중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영웅 모범인물을 본보기로 하는데, 그것은 속인 중의 본보기다. 당신이 수련자가 되려고 하면,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그 마음에 의거해 닦아야 하며,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 의거해 깨달아야 하는데, 본보기가 없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는 대법(大法)을 내놓았는데, 과거에는 당신이 수련하려 해도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당신이 대법(大法)에 따라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며,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느 층차까지 돌파하는가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렸다.

물론, 업력의 전화형식도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며 다른 방면에서도 표현될 수 있다. 사회에서나 가정 중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거리를 다닐 때나 또는 기타 사회 환경 중에서도 번거로운 일과 마주칠 수 있다. 속인 중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을 당신에게 모두 내려놓게 해야 한다. 어떠한 집착심이든 당신에게 있기만 하면, 각종 환경 중에서 그것을 닦아 없어지게 해야 한다. 당신에게 곤두박질치게 하고 그 중에서 도(道)를 깨닫게 하는데, 바로 이렇게 수련해 온 것이다.

비교적 전형적인 이런 정황이 또 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수련과정 중에, 당신이 연공(煉功)할 때면 흔히 당신의 배우자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데, 당신이 연공하기만 하면 당신과 싸운다. 당신이 다른 일을 하면 그는 그다지 상관하지 않

는다. 당신이 마작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허비해도 그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연공할 때처럼 그렇지는 않다. 당신의 연공은 그를 건드리지도 않고 신체를 단련하면서 또 그에게 영향 주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당신이 연공만 하면 그는 당신에게 물건을 마구 내동댕이치며 야단이다. 어떤 사람은 연공 때문에 부부가 이혼까지 하려 한다. 왜 이런 정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모두 생각해 보지 않는다. 나중에 당신이 그에게 묻는다: 내가 연공하면 당신은 왜 그렇게 크게 화를 냈나요? 그는 할 말이 없다. 정말로 할 말 없어 한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크게 화 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게 화를 냈네요. 사실 어찌된 영문인가? 연공하는 동시에 업력을 전화해야 하는데, 잃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고, 잃는 것 또한 나쁜 것인바,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집에 막 들어서자마자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욕을 한바탕 퍼부을 수 있는데, 당신이 만약 참고 지나갔다면 오늘 당신은 공(功)을 헛되이 연마(煉)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 역시 연공(煉功)은 德(덕)을 중히 여겨야 함을 알기에 평소 그의 배우자와 잘 지냈다. 생각해 본다: 평소 내가 말하면 고분고분했는데, 오늘은 그가 내 머리 위에 올라타는구나. 화를 참지 못하고 그와 맞서는 바람에 오늘 연마(煉)는 또 헛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업력이 거기에 있어서 그가 당신을 도와 제거하려 한 것인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와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없애버리지 못했다. 이런 일은 매우 많다. 우

리 많은 사람이 모두 이런 정황과 마주친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 당신이 다른 어떤 일을 해도 그는 당신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본래는 좋은 일이지만, 그는 오히려 당신과 늘 맞선다. 사실 바로 당신을 도와 소업(消業)해 주고 있지만 그 자신은 모른다. 그는 표면상으로만 당신과 맞서 싸우며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아주 좋게 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심으로 화를 낸다. 왜냐하면 업력이 누구에게로 떨어지면 바로 그가 괴롭기 때문인데, 보증코 이리하다.

心性(썬썬) 제고

과거에 많은 사람이 心性(썬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가 아주 많았으며, 일정한 층차까지 연마(煉)한 후 더는 올라갈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心性(썬썬)이 비교적 높아 연공(煉功) 중에 천목이 단번에 열렸고 어느 한 경지에 도달했다. 이 사람은 근기(根基)가 비교적 좋고 心性(썬썬)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의 공도 올라움이 무척 빨랐다. 그의 心性(썬썬)이 있는 위치에 이르렀을 때 그의 공도 여기까지 자랐는데, 그가 그의 공을 더 제고하려 하면, 이 모순 또한 두드러져서 그는 계속 그의 心性(썬썬)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원래부터 근기가 좋은 사람, 그는 그의 이 공이 꽤 참게 자랐으며 연마(煉) 또한 아주 잘 되었다고 느끼는데, 갑

자기 어찌하여 이처럼 많은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가? 어찌하여 무엇이나 다 좋지 않게 되는지, 다른 사람들도 그를 잘 대해 주지 않으며, 상사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가 하면, 가정 내 상황도 매우 불안해졌다. 왜 갑자기 이처럼 많은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자신은 아직 깨닫지 못한다. 그는 근기가 좋아 일정한 층차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수련인의 최후 원만(圓滿)의 표준이겠는가? 위로 수련하자면 아직 멀고도 멀다! 당신은 계속 자신을 제고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만한 근기가 일으키는 작용으로서, 당신은 비로소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데, 더 제고하려면 그 표준 역시 높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집을 잘 안 정시켜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다시 도를 닦겠다. 나는 당신이 망상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간섭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지할 수 없다. 아내와 자식, 부모형제를 포함한 그들의 운명, 그것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밖에, 당신이 뒷근심이 없고, 당신이 어떤 번거로움도 없다면 당신은 또 무엇을 수련하겠는가? 편안하고 편안하게 거기서 연공(煉功)을 한다고? 어디 그런 일이 있는가? 그것은 당신이 속인의 각도에서 생각한 것이다.

수련은 곧 이 마난(魔難) 중에서 수련해야 하며, 당신이 칠

정육육을 끊어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 담담히 여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당신이 그런 것들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수련해 내지 못한다. 어떤 일이든지 모두 인연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사람은 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사람에게는 정(情)이 있으며, 사람은 바로 이 정을 위해서 산다. 육친정·남녀지정·부모지정·감정·우정, 매사에 정분(情份)을 중시하며, 곳곳마다 이 정을 떠날 수 없다.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사랑과 미움, 전반 인류 사회의 모든 것이 전부 이 정(情)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이 정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당신은 수련하지 못한다. 사람이 이 정에서 뛰쳐나왔다면 누구도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며, 속인의 마음은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자비이며, 더욱 고상한 것이다. 물론 단번에 이것을 끊기는 그리 쉽지 않다. 수련이란 기나긴 과정으로서, 서서히 자신의 집착심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 연공인(煉功人)에게는 모순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이 평소 늘 자비로운 마음과 상화(祥和)한 심태를 유지한다면, 문제와 마주쳐도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충적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늘 자비롭고 선(善)으로 남을 대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매번 문제와 마주칠 때마다 이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해 낼 수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선 생각한다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연공(煉功)함에 높은 표준, 더욱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흔히 일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천목이 열려 부처를 보았는데, 집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당신은 왜 저를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저를 도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처는 당연히 상관하지 않는다. 그 난(難)은 바로 그가 설치한 것으로서, 목적은 당신이 心性(썌썌)을 제고해, 모순 중에서 당신이 제고해 올라오게 하는 데 있다. 그가 당신에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전혀 당신에게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해결해 준다면 당신은 또 어떻게 공이 자라며 어떻게 心性(썌썌)과 충차를 제고하겠는가? 당신의 공을 자라게 하는 것이야말로 관건이다. 대각자들이 보건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든지 그는, 겪는 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빛을 다그쳐 갇는다고 여기는데, 그는 바로 이런 생각이다.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부처에게 빌어도 안 되기에 부처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당신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일 때문에 불상도 부숴버리고 이때부터 부처를 욕한다. 그가 욕하기 때문에 心性(썌썌)도 떨어지고, 공도 없어진다.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을 알고 부처를 더욱 미워하는데, 그는 부처가 그를 해치고 있다고 여긴다. 그는 속인의 이치로 부처의 心性(썬썬)을 가늠하는데, 그 어찌 가늠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속인의 표준으로 고층차의 일을 대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흔히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생활 중의 고생을 자신에 대한 불공평으로 여겨, 많은 사람이 아래로 툭툭 떨어진다.

몇 년 전 많은 대기공사, 명성이 혁혁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내려왔다. 물론 진정한 기공사들은 모두 돌아갔으며, 그들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는 돌아갔다. 다만 속인 중에서 잘못된 일부 사람들이 남았으며, 心性(썬썬)이 떨어져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으나, 그는 이미 공(功)이 없다. 과거에 비교적 명망이 있던 일부 기공사들이 아직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사부는 그가 속인 중에 떨어졌고, 명리(名利) 속에 떨어져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미 안 되겠기에 그의 副元神(푸웬선)을 데리고 갔는데, 공은 모두 副元神(푸웬선) 몸에 있다. 이런 전형적인 예가 상당히 많다.

우리 이 한 법문 중에는 이런 유의 예가 비교적 적으며, 있다 해도 그리 두드러지진 않는다. 心性(썬썬)을 제고하는 면에서 뚜렷한 예는 특히 많다. 한 수련생이 산둥(山東) 모모(某某)시(市) 편직물공장에 다녔는데,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운 후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연마(煉)하도록 가르쳐 준 결과, 전 공장의 정신 면모를 모두 이끌었다. 예전에는 편직물

공장의 수건을 늘 자기 집으로 하나씩 가져갔는데 모든 직원들이 그랬다. 공을 배운 다음에는 그는 가져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에 가져갔던 것도 도로 가져왔다. 다른 사람들도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으며, 어떤 직원 역시 자신이 이전에 가져갔던 것을 모두 공장으로 도로 가져왔는데, 전 공장에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

모(某) 시(市)의 한 보도소 소장이 한 공장으로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하는 수련생들의 연마가 어떠한지 보러 갔는데, 그 공장의 공장장이 그들을 친히 접견하며 말했다: 이 직원들이 당신들의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운 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상사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가린 적이 없고, 이익 앞에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전 공장의 정신 면모를 모두 이끌었으며, 공장의 경제효율도 좋아졌습니다. 당신들의 이 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당신들의 스승님께서 언제 오시면 나도 참가하겠습니다. 우리가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주요 목적은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지 이런 일을 하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오히려 사회의 정신문명에 커다란 촉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사람마다 모두 내심에서 찾고, 사람마다 모두 자신이 어떻게 잘하겠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안정될 것이며, 인류의 도덕표준도 되돌아 올라 올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내가 태원(太原)에서 설법하고 공을 전할 때, 50여 세 되

는 수련생이 있었는데, 그들 노부부가 학습반에 참가하러 왔다. 그들이 큰길 가운데에 왔을 때 승용차 한 대가 아주 빨리 달려왔는데, 그 승용차의 백미러가 순식간에 노부인의 옷을 걸었다. 걸고는 그녀를 10여 미터 끌고 가다가 땅바닥에 ‘탁’ 내동댕이쳤고, 차는 20여 미터나 더 가서야 멈췄다. 기사가 차에서 뛰어내린 후 기분 나빠하며 말했다: 아니, 당신은 길을 가면서 보지도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사람은 바로 이러하데, 문제와 마주치면 우선 책임을 떠넘기고, 탓할 것이든 탓하지 않을 것이든 그는 모두 밖으로 미루어 버린다. 차 안에 앉아 있던 사람이 말했다: 넘어진 게 어떠한지 보고 병원으로 모셔야지. 기사가 알아듣고 얼른 말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병원에 가 봅시다. 그 수련생이 땅에서 천천히 일어난 후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들은 가보세요. 먼지를 툭툭 털며 남편을 이끌고 갔다.

학습반에 와서 나에게 이 일을 말했을 때 나도 아주 기뻐다. 우리 수련생의 心性(심성)은 확실히 제고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스승님, 저는 오늘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웠기에 망정이지, 제가 만약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퇴직한 데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높고 아무런 복지대우도 없다. 50여 세나 되는 사람이 승용차에 그렇게 멀리 끌려가서 땅에 내동댕이쳐졌다. 어디 다쳤나요? 어디나 다 다쳤다.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도 않는다. 병원으로 갑시다.

가자. 입원해 있으면서 퇴원하지도 않는다. 속인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연공인(煉功人)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좋고 나쁨은 사람의 일념(一念)에서 나오며, 이 일념의 차이가 부동(不同)한 후과(後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나이에 속인이라면 다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녀는 살갗 하나 안 다쳤다. 좋고 나쁨은 일념에서 나오는데, 만약 그녀가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말했다 하자: 아이고, 난 안되겠다. 여기도 다쳤고, 저기도 다쳤다. 그러면 아마 근육이 끊어지고 골절하여 반신불수가 되었을 것이다. 당신에게 돈을 얼마를 주든지, 당신은 병원에 머물며 남은 생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구경꾼들마저 이상하게 느낀다. 이 할머니는 왜 그에게서 돈을 좀 뜯어내지 않는가. 그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한다. 지금의 사람은 도덕수준마저 비뚤어짐이 발생했다. 기사가 차를 빨리 몰았지만, 그가 일부러 사람에게 부딪치려고 했겠는가? 그는 본의 아니게 한 게 아닌가? 그러나 우리 지금의 사람은 바로 이러하다. 만약 그에게 돈을 좀 뜯어내지 않으면 이 구경꾼들조차 마음속으로 불만스러워한다. 내가 말하는데, 지금은 좋고 나쁜 것조차 분명하게 분간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어도 그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덕 수준에 모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이익만 탐내며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한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좌우명이 되기까지 했다!

북경의 한 수련생이 저녁 식사 후 아이를 데리고 전문(前門)에 가서 산책하는데 방송차가 복권 뽑는 선전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재미로 복권을 뽑으려고 했다. 뽑을 테면 뽑아봐라. 아이에게 1위안을 주어 뽑게 했더니 대번에 2등상을 뽑았다. 어린이용 고급 자전거 한 대를 주니 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그때 머리가 ‘윙’ 올랐다: 나는 연공인(煉功人)인데, 어찌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부당한 재물을 얻음으로써 나는 그에게 얼마나 많은 德(더)를 주어야 하는가? 아이에게 말했다: 우리 가지지 말자. 우리 가지려면 직접 가서 사자. 아이는 뿌루통해졌다: 아빠에게 사달라고 하니 아빠는 사주지도 않고, 나 스스로 한 대 뽑았는데 아빠가 날 못 가지게 할 건 뭐예요. 울고불고 떼를 써서 할 수 없이 집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돌아온 후, 생각할수록 마음에 걸려 차라리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복권도 없어졌는데 내가 돈을 그들에게 갖다 주면, 그들이 나눠 가질 것이 아닌가? 차라리 나는 돈을 직장에 가져가 찬조(贊助)하자.

다행히 직장에는 적지 않은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생이 있고, 상사도 그를 이해했다. 만약 일반적인 환경하에서, 일반적인 직장에서라면, 당신이 연공인(煉功人)으로서 자전거를 한 대 뽑았는데, 당신이 가지지 않고 돈을 직장에 찬조하겠다고 한다면, 상사도 이 사람은 정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

다. 다른 사람들도 의론이 분분할 것이다: 이 사람은 연공(煉功)해서 편차가 생겼고 주화입마(走火入魔)한 것이 아닌가? 내가 말했듯이, 도덕 수준에 비뚤어짐이 발생했다. 오륙십 년 대라면 이게 다 무슨 일일 것인가. 평범하고 평범해서 그 누구도 놀랍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도덕 수준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 우주의 특성 - 眞(眞)·善(善)·忍(忍),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좋다고 해서 당신이 꼭 좋은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이 당신을 나쁘다고 해서 당신이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마저 모두 비뚤어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우주의 이 특성에 부합(符合)해야만 그는 비로소 좋은 사람이며, 이것이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으로서, 이것은 우주 중에서 승인받은 것이다. 당신은 인류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만 보지 말라. 인류의 도덕 수준이 크게 미끄러지고, 세상 기풍이 날로 떨어져 오직 이익만 탐내고 있지만, 우주의 변화는 인류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한 수련인으로서 속인의 표준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속인이 이 일이 옳다고 한다 해서 당신이 이것에 따라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속인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속인이 나쁘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도덕 표준이 비뚤어진 시대에는 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 당신이 그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어도 그는 믿지 않는다! 한 수련인으

로써 우주의 특성으로 가늠해야만, 비로소 무엇이 진정 좋고, 무엇이 진정 나쁜가를 변별해 낼 수 있다.

관정(灌頂)

수련계에 이런 정황이 있는데, 관정(灌頂)이라고 한다. 관정은 불가 밀종 수련 방법의 한 가지 종교 형식이다. 목적은 관정을 거친 후 이 사람은 다시는 다른 문(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 한 문의 진정한 제자로 승인받는다라는 것이다. 현재는 어디가 이상한가? 연공(練功)하는 데에도 이런 종교 형식이 나타났으며, 도가 공법에서도 관정을 하는데, 밀종(密宗)뿐만이 아니다. 내가 말했듯이, 무릇 밀종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에서 밀종 공법을 전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당밀(唐密)은 우리나라에서 소실된 지 이미 천여 년이 넘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장밀(藏密)은 언어의 제한을 받아서 줄곧 우리 한인지역(漢地)으로 완정(完整)하게 전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은 밀교(密敎)로서 반드시 사원(寺院) 중에서 비밀리에 수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반드시 사부의 비밀 전수를 거쳐야 하는데, 사부가 그를 데리고 비밀리에 수련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절대로 전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이런 목적을 품고 티베트에 가서 공(功)을 배우는데, 다른 사람을 사부로 모시고 장밀(藏密)을 배워 장래

에 기공사가 되어 이름을 날리고, 돈을 벌려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진정하게 진수를 전해 받은 활불(活佛) 라마는 모두 아주 강한 공능이 있어, 공을 배우려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낼 수 있다. 그가 무엇을 하려 왔는가는 그 마음을 한번 보기만 하면 곧 안다. 여기에 와서 이것을 배우고, 나가서 기공사가 되어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며, 이 문(門)의 부처수련 방법을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이처럼 엄숙한 부처수련 법문을, 당신으로 하여금 무슨 기공사가 되어 명리를 좇아 함부로 파괴하게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무슨 동기인가? 그러므로 아예 그에게 전하지 않아 진수를 전해 받을 수 없다. 물론, 사원(寺院)도 많아 겉모양의 것을 조금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마음이 바르지 않아 기공사가 되어 나쁜 일을 하려 할 때면 부체(附體)를 불러올 것이다. 부체동물도 공이 있지만 장미가 아니다. 진정하게 법을 구하러 티베트에 간 사람은, 한번 가면 아마 그곳에 자리 잡고 나오지 않을 것인즉, 이는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다.

이상하다. 현재 많은 도가 공법에서도 관정을 말한다. 도가는 맥으로 가는(走脈) 것인데 무슨 관정을 하는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남방에서 공을 전할 때, 특히 광둥(廣東) 그 지방에 비교적 많았는데, 10여 가(家)나 되는 난잡한 공법이 관정을 말하고 있었다. 무슨 뜻인가? 그가 당신에게 관정해 줌으로써 당신은 그의 제자가 되고, 다시는 다른 공을 배울 수 없으며, 다른 공을 배우면 그가 당신을 징벌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짓을 한다. 이것은 사문왜도(邪門歪道)가 아닌가? 그가 전한 것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서, 군중들은 배운 후 좋은 신체를 얻으려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짓을 해서는 뭘 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의 공을 연마(練)하면 다른 공을 연마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가 사람을 제도하여 원만을 이루게 할 수 있는가? 남의 자제(子弟)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이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

도가에서는 이런 짓을 말하지 않는데 역시 무슨 관정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내가 발견하기로는 관정을 가장 대단하게 한다는 그 기공사, 그의 그 공기둥은 얼마나 높은가? 기껏해야 이, 삼층집 고만한 높이이다. 아주 유명한 대기공사인데 내가 보니 공이 떨어진 것이 너무나도 가련하다. 수백 수천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관정을 해주고 있었다. 그의 공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곧 고만한 높이였다. 그 공은 잠깐이면 내려가서 곧 없어지는데 또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관정을 해줄 것인가.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관정은, 다른 공간에서 보면 사람의 뼈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백옥(白玉)처럼 변한다. 바로 공과 고에너지물질로 신체를 정화(淨化)하며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관(灌)해 준다. 이 기공사는 이 점을 해낼 수 있는가? 그는 해내지 못한다. 그는 무엇을 하는가? 물론 모두 종교 일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목적은 그의 공을 배우면 곧 그의 사람이 되기에, 당신이 그의 학습반에 참가해 그의 짓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은 당신의 고만한 돈을 흘러내려는 것인데, 누구도 그의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다.

法輪大法(파룬파파)의 제자는 기타 불가 법문의 제자와 마찬가지로 사부(上師)가 여러 차례 관정해 주지만, 당신이 알지 못하게 한다. 공능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고 민감한 사람도 감수할 수 있는데, 잠을 잘 때나 혹은 어느 때라도 갑자기 한 줄기 뜨거운 흐름이 정수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전신을 관통할 것이다. 관정의 목적은 당신에게 높은 공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며, 공은 당신 자신이 수련해 내는 것이다. 관정은 일종의 가지(加持) 방법으로서, 바로 당신의 신체를 정화(淨化)해 주고, 당신의 신체를 진일보로 청리(清理)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관정해 주어야 하며, 매 층차마다 모두 당신을 도와 신체를 청리해 주어야 한다.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功在師父)기 때문에, 우리는 관정 이런 형식을 말하지도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사부를 모시는 일을 한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내가 좀 언급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부로 모시려 한다. 우리 현재 이 역사시기는 중국 봉건사회와 다른데, 거기서 무릎 꿇고 절을 하면 곧 사부를 모시는 것으로 치는가? 우리는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절을 하고 향을 피워 부처님께 경배하며, 마음속으로 좀 경건하기만 하면 공이 자

랄 것이다. 그것은 다 가소롭다고 나는 말한다. 진정한 연공(煉功)은 전적으로 자신에 의거해 수련해야 하며, 무엇을 구해도 다 소용이 없다. 부처에게 빌지 않고 향을 피우지 않아도, 진정하게 수련인의 표준에 따라 수련하면, 그가 당신을 보기만 해도 특별히 기뻐한다. 당신이 밖에서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당신이 그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면, 그가 당신을 보기만 해도 괴로워하는데, 바로 이런 이치가 아닌가? 진정한 수련은 자신에 의거해야 한다. 오늘 당신이 절을 하고 사부를 모셨다 해도 문만 나서면 제멋대로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이런 형식을 전혀 주장하지 않으며, 당신은 나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착실하게 수련하고 아울러 대법(大法)으로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기만 하면, 나는 당신을 모두 제자로 여겨 이끌 것이다. 오직 당신이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기만 하면 우리는 곧 당신을 제자로 여기고 이끌 것이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는 데 그 이름만 걸어놓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1기 수련생, 2기 수련생, 당신이 이 동작만 연마(煉)한다 해서 곧 우리 제자인가? 당신은 진정하게 우리 이心性(썬썬) 표준에 따라 수련해야 비로소 건강한 신체에 도달할 수 있으며, 비로소 진정하게 고층차로 나아가는 데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형식을 주장하지 않으며,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

면 곧 우리 이 한 문(門) 중의 사람이다. 나의 범신은 무엇이 나 다 알고 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는 다 알고 있으며, 무엇이냐 그는 다 할 수 있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으면 그는 당신을 상관하지 않으며, 당신이 수련하면 끝까지 돕는다.

어떤 공법 중의 연공인(練功人)은 아직 사부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느 방향을 향해 절을 하고 돈을 몇백 위안만 바치면 된다고 한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 사람은 또 아주 흡족해하는데, 이때부터 그 공, 그 사람을 옹호하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를 다른 공을 배워서 안 된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매우 가소롭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정수리 만지기를 한단데, 그가 한번 만져서 무슨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밀종(密宗)의 기치를 내걸고 공을 전하는 것만이 가짜가 아니라, 불교 그 한 문(門)의 것을 내걸고 공을 전하는 것도 모두 가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불교의 몇천 년래의 수련방법이 바로 그런 형식인데 누가 고친다면 그것이 여전히 불교이겠는가? 수련방법은 엄숙하게 부처를 수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극히 현묘(玄妙)한 것으로서, 조금만 고쳐놓아도 난잡해진다. 왜냐하면 공의 연화(演化) 과정은 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감각은 아무것도 아니며, 감각에 의거해 수련해서는 안 된다. 화상(和尚)의 종교형식은 바로 수련 방법이므로, 고치기만 하면 곧 그 한 문의 것이 아니다. 매 한

문마다 모두 대각자(大覺者)가 주재(主持)하고 있으며 매 한 문 역시 무척 많은 대각자를 수련해 냈으나, 누구도 감히 그 한 문의 수련방법을 함부로 고치지 못했는데, 한 소기공사(小氣功師)가 무슨 위덕(威德)이 있어 감히 주(主)를 업신 여기고 부처수련의 법문(法門)을 고친단 말인가? 만약 정말로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여전히 그 한 법문이겠는가? 가짜 기공은 변별해 낼 수 있다.

현관설위(玄關設位)

현관설위(玄關設位)를 현관일규(玄關一竅)라고도 한다. 『단경(丹經)』·『도장(道藏)』·『성명규지(性命圭旨)』 중에서 이런 용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찌된 일인가? 많은 기공사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반 기공사가 있는 층차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또한 그가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인이 그것을 보려면 혜안통(慧眼通)의 상층 이상에 이르러야 비로소 볼 수 있으며, 일반 기공사는 이 층차에 도달하지 못했기에 보지 못한다. 예부터 수련계에서는 모두 탐구해 왔다. 무엇이 현관(玄關)인가? 그 어디가 일규(一竅)인가? 어떻게 설위(設位)하는가? 당신이 『단경(丹經)』·『도장(道藏)』·『성명규지(性命圭旨)』 중에서 보면, 그것은 모두 이론을 둘러싸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실질적인 것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 말하고 말한다는 것이 당신을

얼떨떨하게 만들기만 하고 명백히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것은 속인에게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은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이런 말을 당신에게 알려 준다: 절대 그 난잡한 기공서적들을 보지 말라. 위에서 말한 몇 권의 고서(古書)가 아니라 현재의 사람이 쓴 가짜 기공서를 말하는데, 당신은 펼치지도 말라. 당신의 머릿속에 한 가닥 염두(念頭)가 조금이라도 나왔다 하자: 아이고, 이 말은 일리가 있구나. 이 염두가 얼핏 스치기만 하면 그 안의 부체(附體)가 곧 달라붙을 것이다. 아주 많은 것은 부체가 사람의 명리심을 지휘·통제하여 쓴 것이다. 가짜 기공서는 많으며 상당히 많다. 많은 사람 그는 책임지지 않으며, 일부 부체, 난잡한 것들을 그는 다 써넣는다. 바로 위에서 말한 고서 몇 권 혹은 기타 관련된 고서까지도 일반적으로 모두 보지 않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는 전일불란(專一不亂)의 문제가 있다.

중국기공협회의 한 지도자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말해 주었는데, 나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북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는 늘 기공 강좌를 들었다. 듣고 들어 들은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기공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여겼다. 왜냐하면 모두 한 층차 중에 있으며 모두 이런 것들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가짜 기공사들과 마찬가지로 기공의 내포(內涵)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면 좋다. 그도 기공서를

쓰려고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연공(煉功)하지 않는 사람이 기공서를 쓰는데, 현재의 기공서는 바로 당신이 그의 것을 베끼고 그가 당신 것을 베낀 것이다. 그는 쓰고 쓰다가 현관(玄關)이란 여기까지 쓰고는 써내려갈 수 없었다. 현관을 누가 아는가? 진정한 기공사도 아는 사람이 몇 안 된다. 그는 한 가짜 기공사에게 물었다. 그는 가짜인 줄 몰랐고, 본래 그 역시 기공을 모른다. 그러나 이 가짜 기공사가 다른 사람의 물음에 말문이 막힌다면, 다른 사람은 그가 가짜임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감히 허튼소리를 했다. 현관일규(玄關一竅)란 소변보는 부위 끝(小便頭上)에 있다고 했다. 듣기만 해도 아주 가소롭다. 당신은 아직 웃지 말라. 이 책이 사회에 나오기까지 했다. 즉 말해서 우리 오늘날의 기공서는 가소롭기가 이런 정도에까지 도달했다. 당신이 그런 것을 봐서 무슨 소용이 있는지 당신이 말해 보라. 소용없으며 사람만 해칠 뿐이다.

무엇을 현관설위(玄關設位)라고 하는가? 사람이 世間法(쓰젠파) 수련 중에서, 수련이 중층 이상에 이르렀을 때, 즉 世間法(쓰젠파)의 고층차에서 수련할 때, 사람은 원영(元嬰)이 나오기 시작한다. 원영은 우리가 말하는 영해(嬰孩)와는 별개의 것이다. 영해는 아주 작고 까불기를 좋아하며 장난을 잘 친다. 원영은 잘 움직이지 않으며,元神(웬션)이 그를 주재(主宰)하지 않으면 그는 거기 앉아 움직이지 않는데, 손을 절인하고서 연꽃 위에 다리를 틀고 앉아 있다. 원영은 단전에

서 생겨나오며 극미시하에서 바늘 끝보다도 더 작을 때 그를 볼 수 있다.

그 밖에 한 문제를 설명하겠다. 진정한 단전(丹田)은 단 한 패기로서 아랫배 부위에 있다. 회음혈(會陰穴) 위, 사람 신체 안의 아랫배 이하가 곧 이 한 패기 전(田)이다. 많은 공, 많은 공능, 많은 술류(術類)의 것, 법신(法身)·원영(元嬰)·영해(嬰孩), 많고 많은 생명체는 모두 이 전(田)에서 생기는 것이다.

과거에 일부 수도(修道)하는 사람들이 상단전(上丹田)·중단전(中丹田)·하단전(下丹田)이란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사부가 몇 대를 전했으며 책에서도 이렇게 썼다고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주는데, 조잡한 이것은 고대에도 있었으므로, 당신은 몇 대를 이어받아 전해 왔다고만 보지 말라.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세간소도(世間小道) 역시 줄곧 속인 중에서 유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수련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것을 가리켜 상단전·중단전·하단전이라고 하는데, 그의 뜻은 단(丹)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곳이 곧 단전(丹田)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웃음거리가 아닌가? 사람이 의념(意念)을 한 곳에 집중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에너지덩이가 생겨 단을 맺을 수 있다. 믿어지지 않는가. 당신이 의념을 늘 팔에 두고, 늘 이렇게 지키고 있어,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단을 맺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런 정황을 보고 단전이 아닌 곳이 없다

고 한다. 듣기에는 더욱 가소로운데, 그의 인식으로는 단이 뗏혔다면 곧 단전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단(丹)이지 전(田)이 아니다. 당신이 ‘단(丹)’이 아닌 곳이 없거나 혹은 상단(上丹)·중단(中丹)·하단(下丹),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진정하게 무수한 법(法)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그 전(田)은 오로지 한 패기로서 곧바로 아랫배 부위의 그 전(田)이다. 그러므로 상단전·중단전·하단전이라는 설은 맞지 않다. 사람의 의념(意念)이 어디를 지켜 시간이 길어지면 단(丹)을 뗏을 수 있다.

원영은 아랫배 부위의 이 단전에서 생겨나서 서서히 자랄수록 커진다. 탁구공만 한 크기로 자랐을 때, 온 신체의 윤곽이 모두 똑똑히 보이며 코·눈이 다 생성된다. 탁구공만큼 커지는 동시에 그의 신변에는 또 동그랗고 작은 기포 하나가 생겨 나온다. 생성된 후 원영이 자람에 따라 그것도 따라서 자란다. 원영이 네 치 높이만큼 자랐을 때 연꽃잎 하나가 나타난다. 대여섯 치 높이로 자랐을 때 연꽃잎은 기본적으로 다 성장해 한 층의 연꽃이 나타난다. 금빛 찬란한 원영이 금빛 연화반(蓮花盤)에 앉아 있는데, 아주 예쁘다. 그것이 바로 금강불괴지체(金剛不壞之體)로서, 불가에서는 불체(佛體)라고 하고; 도가에서는 원영(元嬰)이라 한다.

우리 이 한 법문은 두 가지 신체를 모두 수련하며 모두 가지므로 本體(번티)도 전화(轉化)해야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불체(佛體)는 속인 중에서 현현(顯現)할 수 없으며 기

껏해야 형태를 현현할 수 있는데, 속인의 눈으로는 그의 빛의 형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신체는 전화(轉化)를 거친 후 속인 중에서 속인과 마찬가지로, 속인은 보아내지 못하지만 그는 또 공간을 넘나들 수 있다. 원영이 네다섯 치 높이로 자랐을 때 기포(氣泡)도 이만한 높이로 자라는데 그것은 마치 풍선 막과 같이 투명하다. 원영은 가부좌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만큼 컸을 때 이 기포는 단전(丹田)을 떠나는데 그것은 이미 생성되었고 박이 익어 꼭지가 떨어지듯이 되어,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위로 올라가는 과정은 아주 느린 과정이지만 매일 그것이 이동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다. 점차적으로 위로 이동하며, 위로 올라간다. 우리가 자세히 체험하고 관찰하면 그것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사람의 전중혈(臍中穴)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그것은 이곳에서 한동안 머무른다. 인체의 정화(精華), 많은 것(심장도 여기에 있음)이 모두 이 기포 안에서 한 세트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화적인 것이 그 기포 안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한 기간이 지난 후 그것은 또 오르기 시작한다. 사람의 목을 지날 때 매우 숨이 막히는 느낌이며, 마치 혈관이 모두 막힌 것처럼 부어서 아주 견디기 어렵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이면 곧 지나간다. 그것이 정수리에 이르면 우리는 니환(泥丸)에 오른다고 한다. 니환에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온 대뇌와 같이 커서 당신은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감을 느낄 것이다. 니환은 사람의 생명에 매우 관건적인 곳이므로

그것도 안에서 정화적인 것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 후 그것은 천목 이 통로에서 밖으로 밀고 나오는데, 그 느낌은 매우 견디기 어렵다. 천목이 부어 매우 아프고 태양혈도 붓고 눈도 안으로 끼지는데, 계속 그것이 밀고 나와서는 단번에 앞이마 이곳에 드리운다. 이것을 바로 현관설위(玄關設位)라 하는데, 여기에 드리워져 있다.

천목이 열린 사람도 이때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도(佛道) 양가(兩家)의 수련은 현관(玄關) 안의 것이 재빨리 생성되게 하기 위해 그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앞면에 대문이 두 짝 있고 뒷면에 문이 두 짝 있는데 모두 닫혀 있으며, 마치 북경 천안문(天安門)의 동문(門洞)처럼 양쪽에 대문이 각각 두 짝 있다. 그것을 되도록 빨리 형성하고 충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문은 극히 특수한 정황이 아니고는 열지 않는다. 천목으로 볼 수 있던 것이 이 일보에 와서는 역시 보이지 않으며 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여기에 드리워져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신체의 백맥(百脈)이 여기에서 합류하기 때문이며, 그럼 이때에 백맥은 모두 현관을 거쳐 한 바퀴 돌아나가야 하고, 모두 현관을 지나야 하는데, 목적은 현관 안에 일부 기초를 더 다지고 이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하는 데 있다. 인체는 바로 소우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작은 세계를 형성할 것이며, 온 인체의 정화적인 것을 모두 이 안에서 형성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한 세트의 설비를 형성할 뿐, 아직 완전히 운용할 수는 없다.

기문공법(奇門功法) 수련은 현관(玄關)이 열려 있다. 현관이 쏘아져 나올 때는 직통(直筒)이지만, 서서히 둥글게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양쪽 문은 열려 있다. 기문공법은 수불(修佛)하지 않고 수도(修道)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보호한다. 불도(佛道) 양가는 사부가 많아 모두 당신을 보호할 수 있어 당신은 불 필요가 없고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문공법은 안 된다. 그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하므로 그는 반드시 볼 수 있음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때에 천목으로 물건을 보는 것은 마치 망원경의 직통(直筒)을 통해 보는 것과 같다. 그런 다음 이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한 후, 한 달쯤 되면 그것은 되돌아가기 시작한다. 머리 속으로 돌아간 후, 그것을 현관환위(玄關换位)라고 한다.

되돌아갈 때에도 부풀어 올라 견디기 어렵다. 그런 다음 사람의 옥침혈(玉枕穴)에서 밀고 나온다. 밀고 나오는 느낌 역시 아주 견디기 어려우며 마치 머리가 갈라지는 듯하다가 단번에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자마자 즉시 홀가분한 감각이 든다. 나온 후 그것은 아주 깊은 공간 중에 드리워져 있으며, 아주 깊은 공간의 그 신체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잠을 자도 그것은 배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는데, 현관(玄關)이 일차로 설위(設位)할 때 눈앞에 감각이 있으며, 비록 그것이 다른 한 공간에 있지만, 늘 눈앞이 흐릿하여, 마치 어떤 물건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조금 불편하다. 옥침혈(玉枕穴)은 매우 관건적인 큰 관(關)이기 때문에, 뒷면에서도 한 세트

의 것을 형성하고, 그것은 또 되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현관일규(玄關一竅)는 사실 일규(一竅)가 아니며 그것은 여러 차례 자리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니환(泥丸)으로 돌아온 후 하강하기 시작하는데, 신체 안에서 명문혈(命門穴)까지 하강한다. 명문혈에서 그것은 또 쏘아져 나온다.

사람의 명문(命門)은 극히 관건적인 주요한 대규(大竅)로서, 도가에서는 규(竅)라 하고 우리는 관(關)이라 한다. 주요한 큰 관으로서 그것은 정말로 철문이며 무수한 층의 철문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체는 층층으로서 우리 현재 육체세포는 한 층이고, 그 속의 분자도 한 층이며, 원자·양성자·전자, 무한히 작고, 무한히 작고, 무한히 작은, 극히 작은 미립자까지 매 한 면에 모두 한 층의 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많고 많은 공능과 많고 많은 술류(術類)의 것이 모두 각 층의 문 안에 잠겨 있다. 기타 연단(煉丹)하는 공법은 단(丹)이 폭발할 때 우선 명문을 진동하여 열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이 진동하여 열리지 않으면 공능은 방출되어 나올 수 없다. 현관(玄關)이 명문혈(命門穴)에서 이 한 세트의 것을 형성한 후 그것은 다시 들어간다. 들어간 후 아랫배 부위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현관귀위(玄關歸位)라고 한다.

귀위(歸位)한 후, 그것이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때 원영은 이미 아주 크게 자랐으며 기포는 원영 위에 씌워져 원영을 감싼다. 원영이 자라면 그것도 따라 자란다. 도가의 원영은 일반적으로 6~7세 어린이만큼 자랐을 때, 그

에게 신체를 떠나도록 하는데, 원영출세(元嬰出世)라고 한다. 사람의元神(원선)이 그를 주재하면 그는 나와서 활동할 수 있다. 사람의 신체는 거기에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元神(원선)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불가의 원영은 수련하여 본인과 같은 크기로 되었을 때에는 위험이 없다. 통상 이때 그가 신체를 떠남을 허용하는데, 이 신체를 벗어나 나올 수 있다. 그때 원영은 자라 본인만큼 커졌고, 씩우개(罩)도 커졌으며, 그 씩우개는 이미 체외로 확대되었는데, 바로 그 현관이다. 왜냐하면 원영이 이미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체외로 확대된다.

여러분은 아마 절의 불상을 보았을 것인데, 불상을 보면 언제나 원(圈) 안에 있으며, 특히 그려진 그 불상은 언제나 원이 있고, 그 안에 부처가 앉아 있다. 많고 많은 불상이 모두 이리한데, 특히 그 오래된 절에 그려진 불상은 모두 이렇다. 왜 원 안에 앉아 있는가를 누구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이 현관(玄關)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이미 현관이라 하지 않고 세계라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세계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이 한 세트의 설비만 있을 뿐, 마치 우리 공장에 한 세트의 설비가 있지만 아직 생산 능력이 없어 반드시 에너지원과 원료가 있는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생산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몇 년 전에 수련하는 많은 사람이 말했다: 나는 보살보다 공이 높고, 나는 부처보다 공이 높다. 다른 사람들이 듣고는 아주 허황하다

고 느꼈다. 사실 그가 말한 것은 조금도 허황하지 않으며, 확실히 공은 모두 세간(世間)에서 아주 높게 연마(煉)해야 한다.

그러면 왜 부처보다도 더 높이 수련했다고 하는 이런 정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그의 공은 확실히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그가 아주 높은 층차로 수련한 후, 그가 개공개오(開功開悟)에 도달할 때의 공은 확실히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개공개오하는 전야의 그 한순간에 그 자신의 공의 10분의 8을 그에게서 꺾어 내리는데, 그의心性(썬썬) 표준마저도 모두 끊어 내려야 한다. 이 에너지로써 그의 이 세계, 그 자신의 세계를 충실하게 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련인의 이 공, 특히心性(썬썬) 표준을 더한 이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무수한 고생을 겪고 간고한 환경 속에서 연마(魔煉)·수련해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진귀하다. 이렇게 진귀한 것의 10분의 8을 꺼내어 그의 세계를 충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장래 그가 수련 성취했을 때면 무엇을 가지려고 손만 내밀면 곧 오고, 무엇을 가지려면 바로 그것이 있으며, 무엇을 하려면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의 세계 중에는 무엇이든 다 있다. 이것이 그의 위덕(威德)으로서, 자신이 고생을 겪어 수련해 낸 것이다.

그의 이런 에너지는 어떤 것이든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가 무엇을 가지려 하거나, 무엇을 먹으려 하거나, 무슨 놀이를 하려면, 무엇이든 다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이

수련해 낸 것으로서 바로 불위(佛位)이며, 이런 것이 없이는 그가 수련 성취할 수 없다. 이때, 그것을 자신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다만 남은 10분의 2의 공(功)으로 원만(圓滿)·득도(得道)한다. 비록 다만 10분의 2가 남았지만 그의 신체는 잠겨 있지 않은데, 신체를 갖지 않거나, 신체를 가진다 하더라도 신체는 이미 고에너지물질로 전화되었으며, 그때 그는 신통(神通)이 크게 나타나고 위력이 비할 바 없다. 그러나 속인 중에서 수련할 때에는 흔히 자물쇠가 잠겨 있어, 그렇게 큰 능력이 없으며, 공이 아무리 높다 해도 제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다르다.

제 5 강

法輪(파룬) 도형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의 표지(標記)는 法輪(파룬)이다. 공능이 있는 사람은 이 法輪(파룬)이 회전(旋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 그 작은 法輪(파룬) 휘장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회전하고 있다. 우리는 우주의 眞(전)·善(싼)·忍(런) 특성에 따라 우리의 수련을 지도한다. 우주의 연화(演化) 원리에 따라 연마(煉)하기에, 우리 이 공을 연마하는 것은 무척 큰 것이다. 모종의 의미에서 말하면, 이 法輪(파룬) 도형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불가(佛家)는十方세계(十方世界)를 우주 개념으로 본다. 사면팔방 여덟 개 방위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상하(上下)로 존재하는 한 가닥 공기둥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상하를 더하면 곧바로十方세계로서, 이 우주를 구성하며, 불가의 우주에 대한 개괄을 대표한다.

물론 이 우주 중에는 무수한 성계(星系)가 있는데, 우리 은

하계를 포함한다. 전체 우주가 운동하고 있고, 전체 우주 중의 모든 성계도 모두 운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도형(圖形) 안에 있는 태극과 작은 만자(卍字) 부호도 회전(旋轉)하고 있고, 전체法輪(파룬)도 회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이 큰 만자 부호도 회전하고 있다. 모종의 의미에서 말하면, 이는 우리 은하계를 상징하고, 동시에 또 우리는 불가이므로 중심은 불가의 부호인데, 이것은 표면상으로 본 것이다. 모든 부동(不同)한 물질은 모두 다른 공간에서 존재하는 형식이 있는데, 다른 공간 속에서는 극히 풍부하고 극히 복잡한 연화과정과 존재형식이다. 이法輪(파룬) 도형은 우주의 축소판으로서, 그는 기타 각개 공간에도 그가 존재하는 형식과 연화과정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세계라고 말한다.

法輪(파룬)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자동적으로 우주 중의 에너지를 흡취(吸取)할 수 있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안(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자신을 제도하고, 밖(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남을 제도하는데, 이는 우리 이 공법의 특징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우리는 불가(佛家)인데 왜 또 태극(太極)이 있는가? 이 태극은 도가(道家)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의 공을 연마(煉)함은 무척 커서 전체 우주를 연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우주 중에는 양 대가(兩大家), 불(佛)·도(道) 양 대가가 있는데, 어느 한 가(家)를 배제해도 완전(完整)한 우주를 구성할 수 없으며, 모두 완전한 우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도가의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렇다 해도 도가만이 아니고 또 무슨 기독교·유교, 기타 교 등등이 있지 않은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유교 수련이 극히 높은 층차에 이르면 그것은 도가에 귀속되고, 서방의 많은 종교 수련이 고층차에 이른 후 그것은 불가에 귀속되는데, 그것은 불가의 한 체계에 속한다. 곧 이런 양대 체계다.

그러면 왜 태극도(太極圖)에 또 두 개는 위가 붉(紅)고 아래는 남(藍)색이며, 또 두 개는 위가 붉(紅)고 아래는 검(黑)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태극은 흑백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된 것이라고 여기는데, 음양 양기(陰陽兩氣)가 아닌가. 그것은 아주 얇은 층차 중의 인식으로서, 부동(不同)한 공간에는 부동한 공간의 현시(顯示)가 있다. 최고층차 중의 현시에서, 그의 색깔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도(道)는 바로 위가 붉고 아래는 검은 이런 색깔이다. 예를 들어 말해 보자. 우리 어떤 사람은 천목이 열려, 눈으로 보면 붉은 것이지만 다만 한 층 차이 나는 다른 공간 중에서 그를 보면 오히려 녹색인 것을 발견한다. 그 황금색을 다른 공간 속에서 보면 오히려 자(紫)색인 것을 발견하는데, 그는 이런 대비(反差)가 있어, 부동(不同)한 공간의 색깔 역시 부동한 변화가 일어난다. 위가 붉고 아래는 남색인 태극은 선천대도(先天大道)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문수련(奇門修煉) 법문을 포함한다. 사면(四面)의 작은 만자(卍字) 부호는 불가의 것으로서, 이는 중간의 것과 다 같으며 모두 불가의 것이다. 이法輪(파륜)의 색깔이 비교적 산

뜻하고 아름답기에, 우리는 그를 法輪大法(파룬파파)의 표지(標記)로 한다.

우리 여러분이 천목을 통해 본 그 法輪(파룬)은 꼭 이런 색깔만이 아니라 이 바탕색은 변할 수 있으나, 도안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에게 넣어준 아랫배 부위의 法輪(파룬)이 회전(旋轉)할 때에 당신의 천목이 본 것은 붉은색일 수 있고, 자색일 수 있으며, 녹색일 수 있고, 무색(無色)일 수도 있다. 적등황녹청남자(赤橙黃綠靑藍紫), 그의 바탕색은 끊임없이 색깔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본 것은 다른 색깔일 수 있지만, 안의 만자 부호, 태극의 색깔과 도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도안의 바탕색이 비교적 보기 좋다고 여겨, 우리는 그를 고정시켰다. 공능이 있는 사람은 이 층의 공간을 꿰뚫고 많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 만자 부호는 마치 히틀러의 그것과 같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부호 자체는 무슨 계급 개념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 각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곧 히틀러의 그것과 같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는 양쪽으로 다 회전하는 것이다. 우리 인류사회가 이 도안을 보편적으로 인식한 것은 2천5백 년 전, 석가모니 시대에 그를 인식했다. 히틀러가 있던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현재까지는 불과 몇십 년인데, 그는 이것을 도용(盜用)했다. 그러나 그것의 색깔은 우리 것과 같지 않은데, 그것은 검은색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끝은 위로 세워져 있고, 세워서 사용했다. 이 法輪(파룬)을 이만큼 말하

겠는데, 우리는 다만 그의 표면형식만 말했다.

그러면 이 만자(卍字) 부호를 우리 불가에서는 무엇으로 보는가? 어떤 사람은 길상여의(吉祥如意)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인 중의 해석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만자 부호는 부처의 층차 표지로서 오로지 부처의 층차에 도달해야만 있을 수 있다. 보살(菩薩)·나한(羅漢)은 없다. 그러나 대보살(大菩薩)·사대보살(四大菩薩)은 모두 있다. 우리는 이런 대보살들이 모두 일반 부처의 층차를 훨씬 능가했으며 심지어 여래보다도 더 높은 것을 본다. 여래 층차를 능가한 부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래는 만자 부호가 단지 하나 있을 뿐이며, 여래 이상의 층차에 도달하면 만자 부호가 많아진다. 여래를 배로 능가하면 만자 부호가 두 개 있고, 더 능가하면 세 개·네 개·다섯 개가 있으며, 많으면 온몸에 다 있다. 머리 위, 어깨 위, 무릎 위에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놓을 자리가 없을 때에는 손바닥, 손가락 볼록한 곳(手指肚), 발바닥, 발가락 볼록한 곳(腳趾肚) 등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층차를 끊임없이 제고함에 따라 만자 부호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자 부호는 부처의 층차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부처의 층차가 높을수록 만자 부호가 더욱 많아진다.

기문공법(奇門功法)

불도(佛道) 양가(兩家)의 공법 외에 또 하나 기문공법(奇門功法)이 있는데, 그 자신은 기문수련(奇門修煉)이라고 한

다. 우리 일반 속인은 수련 공법에 대해 이런 인식이 있다: 중국 고대에서부터 줄곧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불도 양가의 공법을 정통적인 수련 방법이라고 인정하며 또한 그것을 정법문(正法門) 수련이라 한다. 이 기문공법은 지금까지 세상에 공포되지 않아 그것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매우 적으며 단지 예술작품 중에서 들었을 뿐이다.

기문공법은 있는가 없는가? 있다. 나는 수련과정 중에서, 특히 후반 몇 년 사이에 기문(奇門) 중의 고인(高人) 세 분을 만난 적이 있으며, 나에게 그들 한 문(門) 중의 정화(精華)를 전해 주었는데, 아주 독특한 것이고 매우 좋았다. 바로 그의 것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연마(煉)해 낸 것도 아주 괴이(古怪)하여 일반인에게는 이해될 수 없었다. 게다가 또 한 마디 말을 하는데, 비불비도(非佛非道)라, 수불(修佛)하지 않고, 수도(修道)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수불하지 않고 수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것을 방문좌도(旁門左道)라 부르는데, 그것 자신은 기문공법이라 부른다. 방문좌도라 부르는 것은 얕잡아보는 뜻이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뜻은 없으며 그것을 사법(邪法)이라 하지 않는데, 이 한 점은 명확하다. 글자 표면으로 이해해도 사법이란 뜻이 없다. 역대로 불·도 공법을 정법문(正法門) 수련이라 불렀는데, 그것의 이런 공법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방문(旁門), 곁문으로서, 정법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 좌도(左道)란? 좌(左)는 바로 우둔하다는 뜻으로서, 우둔한 도이다. 좌란, 중국 고대어 중

에서 흔히 그것을 우둔한 것이라고 했는데, 방문좌도에는 이러한 층의 뜻이 있다.

왜 그것은 사법(邪法)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도 엄격한心性(心性) 요구가 있으며 그것 역시 우주의 특성에 따라 수련하고 있고, 그것도 이 우주특성, 우주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그것 역시 나쁜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사법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이 우주의 특성이 불도 양가의 수련방법에 부합(符合)하는 것이 아니라, 불도 양가의 수련방법이 우주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비로소 정법(正法)인 것이다. 기문공법 수련이 이 우주의 특성에 부합한다면, 그럼 그것은 곧 사법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정법이다. 왜냐하면 좋고 나쁨, 선과 악을 가늠하는 표준은 우주 특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주의 특성에 따라 수련하므로 그것 역시 바른 길인데, 단지 그것이 요구하는 특징이 불도 양가와 다를 뿐이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도제(徒弟)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며 전하는 면적이 아주 작다. 도가에서는 공을 전함에 많은 도제를 가르치지만 그중에 오직 한 도제에게만 진수를 전하며, 불가에서는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주장하므로 누구나 수련할 수 있으면 수련한다.

기문공법은 이어받고 전함에 두 사람조차도 찾을 수 없으며, 아울러 상당히 긴 역사시기에 한 사람을 선정하여 전하므로, 예부터 그것은 속인이 볼 수 없었다. 물론 기공 고조(高潮) 중에 이 공법 중의 일부분 사람도 나와서 공을 전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전하고 전하는 중에서 안 되는 것을 발

견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그의 사부가 그에게 아예 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공을 전하려 하면 당신은 사람을 고를 수 없는데, 오는 사람은 心性(썬썬) 고저가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 있다. 부동한 관념을 품고 배우러 오는데, 어떠한 사람이든 다 있는바, 당신은 도제(徒弟)를 골라 전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기문공법은 보급하면 안 되며 위험이 나타나기 쉽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불가에서는 부처를 수련하고, 도가에서는 진인(真人)을 수련하는데, 그 기문공법에서 수련 성취하면 무엇이 되는가? 그는 산선(散仙)으로서 그에게는 고정된 범위의 우주세계가 없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래불, 석가모니는 사바세계(娑婆世界)가 있고, 아미타불은 극락세계(極樂世界)가 있으며, 약사불은 유리세계(琉璃世界)가 있고, 각 여래와 큰 부처는 자신의 세계가 있다. 대각자마다 모두 그 자신이 조직한 천국이 있으며 그의 많은 제자가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기문공법, 그것은 고정된 범위의 우주가 없으며, 그는 단지 마치 떠돌아다니는 신선(游神散仙)과 같을 따름이다.

사법연마(練邪法)

무엇이 사법(邪法)을 연마(練)하는 것인가? 이런 몇 가지 형식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전문적으로 사법을 연마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역대로 전하는 사람 또한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것을 전하는가? 그가 속인 중의 명(名)이요, 이(利)요, 부자가 된다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것을 주장한다. 물론 그는 心性(썬쌩)이 높지 않기에 그는 공을 얻을 수 없다. 그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업력이다. 사람의 업력이 커지면 역시 일종의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층차가 없다. 그는 연공인(煉功人)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 속인에 비하면 오히려 속인을 제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에너지의 체현이므로 밀집도가 아주 높을 때에는 역시 인체의 공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 이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부터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말한다: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사람을 욕하면 나는 공이 자란다. 그는 공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곧 이런 흑색물질의 밀도를 강화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나쁜 일을 하면 흑색물질-업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몸에 갖고 있는 고만한 작은 공능이 이런 업력의 강화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공능이 생기게 할 수도 있으나, 무슨 큰 일을 해내지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해도 공이 자랄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도(道)가 한 자[尺]면 마(魔)는 한 장(丈)이라고 한다. 그것은 속인 중의 삿된 설(邪說)로서, 그 마(魔)는 영원히 도(道)보다 높을 수 없다. 이런 정황이 있는데, 우리 인류가 요해(了解)하고 있는 우주는 다만 무수한 우주 중의 한 소우주로서, 우리는 약칭하여 우주라고 한다. 우리 이

우주는 매번 아주 오래고 먼 연대가 경과한 후, 모두 한 차례 우주의 대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이 한 차례 재난은 우주 중의 모든 것을, 별을 포함해 전부를 궤멸할 수 있으며, 우주 중의 일체 생명을 모두 궤멸할 수 있다. 우주 운동 역시 법칙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이번 차례 우주도 단지 인류만 나쁘게 변한 것이 아니다. 많은 생명도 이미 한 가지 정황을 보았는데, 현재로 말하면 이 우주 공간 중에서는 일찍이 대폭발이 발생했다. 현재의 천문학자들은 보아내지 못하는데, 우리가 현재 가장 큰 망원경으로 볼 때 보이는 광경은 15만 광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천체 변화를 보려고 하면 15만 광년 이후라야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상당히 오래고 먼 것이다.

현재 전체 우주는 이미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매번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전체 우주 중의 생명은 전부 궤멸에 처하며 완전한 궤멸상태에 처한다. 매번 이런 정황이 발생할 때 우주 중에서 이전에 존재했던 이런 특성과 그 속의 물질을 모두 깨끗이 폭파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두 폭파되어 죽었지만, 때회 모두 깨끗이 폭파하지 못했다. 새로운 우주가 극히 높고 극히 높은 대각자들에 의해 새롭게 세워진 후, 그 안에는 아직도 일부 폭파되어 죽지 않은 것들이 있다. 대각자들이 이 우주를 세울 때는 모두 그 자신의 그런 특성, 자신의 표준으로 이 우주를 만들기에, 먼저 한 시기의 우주의 특성과는 좀 다르다.

폭파되어 죽지 않은 것들은 원래의 그런 특성, 그런 이치를 품고 이 우주 중에서 행사한다. 새로 세워진 이 우주는 새로운

우주특성, 이 이치에 따라 행사한다. 그래서 폭파되어 죽지 않은 것들은 우주의 이치를 교란하는 마(魔)가 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먼젓번 주기의 우주특성에 따라 행사할 뿐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천마(天魔)다. 그러나 그것은 속인에 대해 어떤 위협이 없고, 그것은 전혀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그것은 단지 그것의 그 이치를 품고 일을 할 뿐이다. 과거에 이것은 속인이 알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래 층차를 넘어선 아주 높은 경지의 부처는 많고도 많다고 나는 말하는데, 그 마(魔)가 다 무엇인가. 비교해 보면 작고도 작다. 노(老)·병(病)·사(死) 역시 일종의 마(魔)이지만, 이 역시 우주특성을 수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불교 중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하면서 수라도(修羅道) 문제를 말했다. 사실 바로 부동(不同)한 공간의 생물이지만, 사람의 본성을 구비하지 않았다. 대각자가 보기에는 그것은 극히 낮고 극히 낮으며 특별히 무능한 것이지만, 속인의 눈에는 아주 무서운데, 그것에는 일정한 에너지가 있으며, 그것은 속인을 짐승류로 여기므로 사람 잡아먹기를 좋아한다. 이 몇 년 동안, 그것도 뛰쳐나와 공을 전하고 있다. 그것이 다 무엇인가. 그것의 생김새가 사람 같을 수 있겠는가?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그것의 것을 배우면 그것의 거기에 가서 그것들과 동류(同類)가 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연공(練功)할 때, 사상이 바르지 않아 그것의 생각에 부합(符合)할 때면, 그것이 와서 당신을 가르친다. 일정압백사(一正壓百邪)라, 당신이 추구하지 않을 때는 누구도

감히 당신을 건드리지 못한다. 당신이 만약 사념(邪念)이 생겨 좋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 그것이 와서 당신을 돕는데, 당신은 곧 마도(魔道)를 닦는 것이며,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사법(邪法)을 연마(練)한다고 한다. 무엇이 자신도 모르게 사법을 연마하는 것인가? 즉 사람이 모르는 정황하에서 사법을 연마함이다. 이런 일은 아주 보편적이며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다. 바로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연공(練功)함에 사상이 바르지 않은데, 당신은 그가 거기에서 참장(站樁)을 하는 것을 보라. 지쳐서 손을 떨고 다리도 후들후들 떠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한가하지 않은데, 그는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려 하는데, 나는 좀 사야겠다. 연공(練)이 끝나면 나는 바로 가서 사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값이 올라버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직장에서 지금 집을 분배하고 있는데, 이 집들 중에 내 것이 있을까? 집을 분배하는 사람은 어떠어떠하게 나와 알력이 있다. 생각할수록 더욱 화가 난다. 그는 틀림없이 나에게 집을 주지 않을 텐데, 나는 그와 어떻게 한바탕 해볼까……. 무슨 염두든 다 있다. 바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집에서부터 줄곧 국가 대사에 이르기까지 중얼거리는데, 화나는 점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욱 화가 치민다.

연공(煉功)은 德(더)를 중시해야 한다. 우리는 연공할 때 당신이 좋은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나쁜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가장 좋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

면 저층차에서 연공할 때 기초를 닦아야 하는데, 이 기초는 지극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며, 사람의 의념(意念) 활동은 일정한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의 공(功) 안에 어떤 것들을 넣는다면 당신이 연마(練)해 낸 그것이 좋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시커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연공(練功)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왜 당신은 늘 연공해도 병이 제거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연공장(練功場)에서 그런 나쁜 일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늘 공능을 구하고, 이것저것을 구하며, 각종 심태, 각종 강렬한 욕망을 품고 연마하고 있다. 사실 이미 자신도 모르게 사법을 연마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에게 사법을 연마한다고 말해 주면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기공대사(氣功大師)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 기공대사가 당신에게 德(德)를 중시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중시했는가?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이 연공(練功)할 때, 당신은 일부 좋지 못한 의념들만 더해 넣는데, 당신이 좋은 것을 연마(練)해 낼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문제로서,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사법을 연마하는 것에 속하며, 아주 보편적이다.

남녀쌍수(男女雙修)

수련계에 이런 수련방법이 있는데, 남녀쌍수(男女雙修)라고 한다. 여러분은 아마 티베트 밀종(密宗) 수련 방법 중에서 보

았을 것인데, 조각된 불상 또는 그림(畫像)에서, 한 남체(男體)가 한 여체(女體)를 끌어안고 수련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때때로 남체의 표현 형식은 부처로서 실 한 오라기 걸치지 않은 여인을 끌어안고 있고; 또 부처가 변화한 몸인 것도 있는데 우두마면금강상(牛頭馬面金剛像)으로 변해 한 여체를 끌어안고 있으며, 역시 실 한 오라기 걸치지 않았다. 왜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우선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설명하겠다. 우리 지구에서 우리 중국만 유가(儒家)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온 인류는, 몇 세기 전 고대에는 인류의 도덕관념이 모두 비슷했다. 그러므로 이런 수련 방법은 사실 우리 이 지구에서 내원(來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별에서 전해 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확실히 수련할 수 있다. 이런 수련 방법이 당시 우리 중국에 전해 들어올 때 바로 그것이 남녀쌍수(男女雙修)와 일부 비밀리에 연마(煉)하는 부분이 있어 중국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당대(唐代) 회창년간(會昌年間)에 한인 지역(漢地)의 황제에 의해 취소당했다. 그것이 한인 지역에서 유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그때에 당밀(唐密)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티베트의 그 특수한 환경, 특수한 지역에서 유전해 왔다. 왜 이렇게 수련할 수 있는가? 남녀쌍수의 목적은 음(陰)을 채집하여 양(陽)을 보충하고, 양을 채집하여 음을 보충함으로써 서로 보충하고 서로 수련하여 일종의 음양평형의 목적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가든 도가든, 특히 도가의 음양학설에

서 인체에는 자체로 음양이 존재한다고 한다. 인체에 음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체는 비로소 각종 공능·원영(元嬰)·영해(嬰孩)·법신(法身) 등 생명체를 수련해 낼 수 있다. 음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고 많은 생명체를 수련해 낼 수 있다. 남자 몸이든 여자 몸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단전(丹田)이라는 그 전(田)에서 모두 생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이치가 있다. 도가에서는 흔히 상반신을 양으로 보고, 하반신을 음으로 보며; 신체 뒷면을 양으로 보고, 신체 앞면을 음으로 보는가 하면; 또한 사람 신체의 좌측을 양으로 보고, 우측을 음으로 본다. 우리 중국에는 남좌여우(男左女右)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역시 여기에서 온 것으로서 아주 이치가 있다. 사람 몸은 자체에 음양이 존재하므로 음양의 상호작용하에서 자신이 곧 음양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역시 많고 많은 생명체를 생성해 낼 수 있다.

이는 곧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남녀쌍수의 수련 방법을 채용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아주 높은 층차 중으로 수련할 수 있다. 만약 남녀쌍수 방법을 채용해 수련하면서 잘 장악하지 못하면 입마(入魔)할 것이며, 곧 사법(邪法)이 된다. 아주 높은 층차에서 밀종이 남녀쌍수를 채용하려면, 반드시 이 화상(和尚)·라마가 아주 높은 층차 중까지 수련되었어야 한다. 그때 그의 사부가 그를 데리고 이런 수련을 진행하는데, 그는心性(심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는 파악할 수 있으며 사(邪)한 것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나心性(심성)이 아주 낮은 사람

은 절대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하면 곧바로 사법에 들어가는데, 보증코 이리하다. 心性(썬썬)이 제한되어 있고, 속인 경지 중의 욕망적인 마음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색(色)에 대한 마음이 제거되지 않았고, 心性(썬썬)의 척도가 거기에 있으므로, 보증코 쓰기만 하면 곧 사(邪)한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저층차에서 전한다면 그것은 곧 사법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이 몇 년래 적지 않은 기공사도 남녀쌍수를 전하고 있다. 어디가 이상한가? 도가(道家)에도 남녀쌍수의 수련방법이 나타났으며 또한 현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대(唐代)부터 시작되었다. 도가에 어찌하여 남녀쌍수가 나타났는가? 도가의 태극(太極) 학설은, 신체는 소우주로서 자체로 음양이 있다고 한다. 진정한 정전대법(正傳大法)은 모두 멀고도 오랜 연대를 경과하여 유전해 내려온 것으로서, 마음대로 고치고 마음대로 어떤 것을 더해 넣는다면 모두 그 법문의 것을 난잡하게 만들 것이며, 그에게 수련하여 원만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그 공법에 남녀쌍수의 것이 없으면 절대 수련하지 말아야 하는데, 쓰면 편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특히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 이 한 법문에는 남녀쌍수가 없으며 이것을 말하지도 않는다. 이 문제를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본다.

성명쌍수(性命雙修)

성명쌍수(性命雙修) 이 문제는 이미 여러분에게 명백히 논

술한 적이 있다. 성명쌍수란 바로 心性(썸썸)을 수련하는 동시에 또 명(命)을 닦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本體(번티)를 개변하는 것이다. 개변하는 과정 중에 사람의 세포가 점차적으로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될 때 노쇠를 늦출 수 있다. 신체는 젊은 사람 방향으로 되돌아감이 나타나며, 점차적으로 되돌아가고, 점차적으로 전화(轉化)하여 최후에 완전히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되었을 때면, 이 사람의 신체는 이미 다른 물질신체로 완전히 전화된 것이다. 그러한 신체는 곧바로 내가 말한, 오행을 벗어났고 오행 중에 있지 않으며, 그의 신체는 곧 불괴(不壞) 신체다.

절에서 하는 수련은 오로지 성(性)만 닦으므로 수법(手法)을 말하지 않고 명(命)을 닦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그것은 열반(涅槃)을 주장한다. 석가모니가 전한 방법은 바로 열반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석가모니 자신은 고심대법(高深大法)이 있어서 本體(번티)를 완전히 고에너지물질로 전화해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는 이런 수련법을 남겨두기 위해 그 자신이 열반했다. 그는 왜 이렇게 가르쳤는가? 그는 바로 사람들에게 최대한도로 집착심을 버리게 하기 위함인데, 무엇이든 다 버려 최후에는 신체마저 버림으로써, 모든 마음이 다 없어지게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최대한도로 이 일보까지 해내게 하기 위해 바로 열반이라는 이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역대 화상(和尚)도 모두 열반이라는 이 길을 걸었다. 열반은 바로 화상이 죽어 육신을 버리고 그 자신의 元神(웬션)이 공을 갖고 올라가는 것이다.

도가는 중점을 명(命)을 닦는 데 둔다. 그는 도제(徒弟)를 선택하고, 중생을 널리 제도함을 말하지 않으며, 그는 아주 좋고 아주 좋은 사람을 상대하므로, 그는 술류(術類)의 것들을 말하고, 그는 어떻게 명을 닦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그러나 불가의 이런 특정한 수련방법에서는, 특히 불교 이 수련방법에서는 이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모두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많은 고심(高深)한 불가대법 중에서는 역시 말하는데, 우리 이 법문에서도 말한다.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 이 한 문(門)은 本體(번티)도 가지고, 원영(元嬰)도 가지는데, 이 둘은 구별이 있다. 원영 역시 일종의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신체지만, 그는 우리 이 공간에 함부로 현현(顯現)할 수 없으며, 이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속인과 같은 형상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本體(번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本體(번티)가 전화된 후, 비록 그의 세포가 고에너지물질로 대체되었지만, 그의 분자 배열순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의 신체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구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신체는 다른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은 외관상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젊다는 느낌을 주며, 보기에 이 사람은 실제 연령과 차이가 아주 크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 나이가 얼마로 보이십니까? 사실 그녀는 70세에 가까우나, 겉으로는 겨우 40여 세로 보였다. 주름살이 없고, 얼굴이 매끈하고도 희며, 희고도 불그레한데, 이 어디 70세에 가까운 사람 같은가.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煉)하는 사람은 이런 정황이 나타날 것이다. 한 마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젊은 처녀들은 늘 미용하기를 좋아하며, 피부가 좀 희게 변하고 좀 좋아지고자 한다.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진정하게 성명쌍수 공법을 연마(煉)하면 자연히 이 일보에 도달하게 되며, 보증코 당신은 미용할 필요가 없다. 이 방면의 예를 우리는 더 들지 않겠다. 과거에는 각 업종에 나이 많은 사람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나를 젊은이로 여겼는데, 현재는 나아서서 각 업종에 젊은이들이 비교적 많다. 사실 나도 젊지 않으며, 좀 지나면 50세가 되는데, 현재 벌써 43세다.

법신(法身)

왜 불상에는 장(場)이 있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해석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한다: 불상에 장이 있는 것은 화상(和尚)이 불상에 대고 경을 읽어서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상이 마주하고 수련하여 생긴 장이라는 것이다. 화상이 수련하든 누가 수련하든, 이런 에너지는 확산되는 것이며 정해진 방향이 없는 것으로서, 마땅히 온 불당(佛堂)의 바닥·천장·벽에 모두 균등한 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불상의 장만이 그렇게 강한가? 특히 심산 속이나 혹은 어느 산굴 속, 혹은 암석에 조각된 불상에 흔히 모두 장이 존재한다. 왜 이 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도 해석이 통하지 않는다. 사실 불상에 그 장이 있는 것은 불상에 한 각자(覺者)의 법신(法身)이 있기 때문이다. 그 각자의 법신이 거기에 있으므로 그것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석가모니든 관음보살이든, 만약 역사상 확실히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수련할 때에 그 역시 연공인(煉功人)이 아니었겠는가? 사람은 出世間法(추쓰젠파) 이외의 상당히 높은 일정한 층차로 수련한 후에는 곧 법신(法身)이 생길 수 있다. 법신은 사람의 단전(丹田) 부위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법(法)과 공(功)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공간에서 체현해 나온 것이다. 법신은 그 본인의 대단히 큰 위력을 구비하고 있지만 법신의 의식, 법신의 사상은 오히려 주체(主體)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법신 자신 또한 완정(完整)하고, 독립적이며, 확실하게 실재하는 개체의 생명이므로 또한 자신이 독립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법신이 하는 일과 사람의 主意識(주이스)가 하려고 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똑같다. 그 일을 본인이 가서 해도 그렇게 하며 법신이 가서 해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신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 하면, 예를 들어 진정하게 수련하는 제자에게 신체를 조정(調整)해 주는 것은 다 나의 법신이 한다. 법신은 속인의 그 신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체현한다. 그 생명체는 또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그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때로 그는 아주 크게 변해 법신의 온 머리를 전

부 보아내지 못할 만큼 크며, 때로는 아주 작게 변할 수도 있어 세포보다도 더 작다.

개광(開光)

공장에서 만들어 낸 불상은 다만 예술품일 뿐이다. 개광(開光)이란 바로 부처의 법신을 청해 불상에 오르게 하는 것으로서, 그런 다음 불상을 속인 중의 유형적인 신체로 삼아 모신다. 연공인(煉功人)이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이 한 마음을 가지면, 수련할 때 불상의 법신은 그를 위해 법을 수호해 주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 주는데, 이것이 개광의 진정한 목적이다. 오로지 정식으로 개광하는 의식에서 정념(正念)을 내보내야 하는데, 아주 높은 층차에 있는 대각자거나, 아주 높은 층차에서 수련하여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만이 비로소 이 일을 할 수 있다.

절에서는 불상은 개광해야 한다고 하며, 개광을 거치지 않은 불상은 영험하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현재 절의 화상(和尚)들을 보면 진정한 그런 대법사(大法師)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문화대혁명’ 이후, 그런 어린 화상들의 일부는 진수를 전해 받지 못하고도 현재는 주지가 되어 많은 것이 실전(失傳)되었다. 그에게 묻는다. 개광해서 뭘 하는가? 그는 말한다. 개광을 하면 불상이 영험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험한가는 그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의 그것은 단지 의식을 거행하

는 것일 뿐이며, 불상 속에 작은 경문 하나를 넣어 놓은 다음 그것을 종이로 봉하고서 그것에다 대고 경을 읽고는 그는 곧 개광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광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건 그가 어떻게 경을 읽는가를 봐야 한다. 석가모니는 정념(正念)을 말했는데, 일심불란(一心不亂)으로 경을 읽어 진정하게 그가 수련하는 그 한 법문의 세계를 진동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각자(覺者)를 불러 올 수 있다. 그 각자의 법신이 하나 올라가야만 비로소 개광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화상은 거기에서 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한다: 좀 지나 개광이 끝나면 나에게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또는 경을 읽으면서 생각한다: 모모(某某)가 나에게 것처럼 못 되게 군다. 그의 거기서도 서로 혈뜬고 싸우는데, 현재 말법시기에 이런 현상을 인정하지 않아도 안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불교를 비평해서가 아니라, 말법시기의 어떤 사원(寺院)은 사실 청정(淸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머릿속에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좋지 않은 염두를 내보내는데, 그 각자가 올 수 있겠는가? 전혀 개광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좋은 사원(寺院)과 도관(道觀)도 있다.

내가 모(某) 시(市)에서 본 한 화상(和尚)은 그 손이 시키웠다. 경문을 불상 속에 밀어 넣고 대충 바르고서 입으로 두어 번 중얼거리고는 개광했다고 한다. 다시 불상을 하나 갖다 놓고 또 두어 번 중얼거리는데, 개광을 하나 하면 40위안이다.

현재 화상은 이것도 상품으로 삼아 불상 개광으로 돈을 번다. 내가 보니 개광되지도 않았고 도무지 개광될 수 없지만 현재 화상은 이런 일까지도 한다. 나는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보았는가? 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치 거사(居士) 같았다. 불상에 개광을 한다면서 그는 거울을 하나 들어 태양을 마주하고 그 빛을 불상 몸에 비추고는 그는 곧 개광했다고 했다. 모두 이처럼 가소로운 정도까지 도달했다! 오늘날 불교는 이 일보까지 발전했으며 그것 역시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남경(南京)에서 동(銅)으로 만든 대불상 하나를 홍콩의 대서산(大嶼山)에 세웠는데, 아주 큰 불상이었다. 불상의 개광을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화상이 왔는데, 그중에 한 화상이 거울 하나를 들어 태양을 마주하고 빛을 불상의 얼굴에 비추고는 개광이라고 했다. 그렇게 성대한 모임, 그렇게 엄숙한 장소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정말로 슬픈 일이다! 그런 까닭에 석가모니는 말했다: 말법시기에 이르면 화상은 자신마저 제도하기 어려운데, 남을 제도하기는 더욱 어렵다. 더구나 많은 화상은 자신의 각도에서 불경을 해석하는데, 무슨 서왕모경(王母娘娘經)이 절에 들어갔는가 하면, 불교 경전 중의 것이 아닌 것도 모두 절에 들어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 지금은 아주 난잡하다. 물론 진정하게 수련하는 화상은 아직도 있으며 아직도 아주 괜찮다. 개광은 실제로 각자의 법신을 청해 불상에 오르게 하는 것인데, 이처럼 머무르면 바로 개광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불상이 개광되지 않았다면, 모시면 안 된다. 모시면 아주 엄청난 후과(後果)를 가져올 것이다. 어떤 엄청난 후과인가? 현재 우리 인체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한바, 우리 사람의 의념(意念), 사람의 대뇌 사유는 일종의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우리는 아주 높은 층차 중에서 그것이 확실히 일종의 물질임을 보았지만, 이 물질은 오히려 우리가 현재 연구하여 발견한 것처럼 뇌파 형식이 아니라, 완정(完整)한 대뇌 형식이다. 평소 속인이 문제를 생각할 때 내보내는 대뇌형태의 것은, 그것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내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흩어져 버리나, 연공인(煉功人)의 에너지는 유지되는 시간이 더 길다. 이 불상이 공장에서 생산되어서부터 그것이 곧 사상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없다. 어떤 것은 개광을 거치지 않았으며 그가 절에 가지고 와서도 개광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 만약 어느 가짜 기공사, 사문왜도(邪門歪道)의 사람을 찾아서 개광한다면 그것은 더욱 위험한 것으로서, 여우·족제비가 곧 올라간다.

그러므로 만약 개광하지 않은 불상에 당신이 가서 절을 하면 너무나도 위험하다.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내가 말했지만, 인류는 오늘날까지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다 패괴(敗壞)되고 있으며, 온 사회, 온 우주 중의 모든 일 역시 잇달아 패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속인 중의 모든 일이 모두 자신이 조성한 것이다. 정법을 구하고 바른 길을 걷고자 해도 무척 어려우며, 각 방면에서 다 교란한다. 부처에게 빌고자 하는데, 누가 부처인

가? 빌려고 해도 매우 어렵다.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말하겠다: 첫 번째 사람이 만약 개광하지 않은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곧 잘못된다. 현재 부처에게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정과(正果)를 얻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부처에게 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런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처에게 절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재난을 없애고, 난(難)을 해결하며, 돈을 버는 이런 것을 구한다. 이것이 불교 경전의 것인가? 전혀 이 층의 것이 없다.

부처에게 절하는 사람이 만약 돈을 구하는 것이라면, 불상에 대고 절을 하거나, 관음보살상이나 여래불상에 대고 말한다: 제가 돈을 좀 벌게 도와주십시오. 허 참, 완전(完整)한 의념(意念)이 형성되어 나온다. 그가 불상에 대고 내보냈으므로 단번에 이 불상에 올라간다. 다른 공간에서 이 몸체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 몸에 오르면 이 불상은 곧 대뇌가 있게 되며, 사상이 있게 되지만, 오히려 신체는 없다. 다른 사람도 가서 절을 하는데, 절을 하고 절을 하여 그것에게 일정한 에너지를 줄 것이다. 특히 연공(煉功)하는 사람은 더욱 위험한데, 절을 하기만 하면 점차적으로 그것에게 에너지를 주어 그것은 곧 유형(有形)적인 신체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 유형적인 신체는 다른 공간에서 형성된다. 형성된 후, 그것은 다른 공간 속에 있으며 그것은 우주 중의 조그마한 이치를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은 사람을 위해 일을 좀 할 수 있다. 이리하여 그것도 조그마한 공이 자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돕는 데에는 조

건이 있고 대가가 있다. 다른 공간에서 그것은 행동이 자유로
 우며, 속인을 자유자재로 통제한다. 이 유형적인 신체는 불상의
 형상과 똑같은데, 빌어서 나온 것은 가짜 관음보살, 가짜 여래
 부처로서, 사람이 빌어서 온 것이며 생김새가 불상과 같고 부
 처의 형상이다. 그러나 가짜 부처, 가짜 보살의 사상은 극히 나
 쁜 것으로서, 돈을 구한다. 그것은 다른 공간에서 생겼으며, 그
 것은 사상이 있게 되었다. 그것은 조그마한 이치를 알고 있어
 그것이 감히 크게 나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조그마
 한 나쁜 일은 감히 한다. 때로는 또 사람을 돕는데, 만약 사람
 을 돕지 않는다면 완전히 사(邪)한 것이라 곧 그것을 죽여야
 한다. 어떻게 돕는가? 그 사람이 말한다: 부처님께 빌고 비나니
 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 누가 앓고 있습니다. 좋다.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것이 당신에게 시주함 안에 돈을 넣게
 하는데, 그것의 사상은 돈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 시주함에 돈
 을 많이 넣으면 당신의 병이 빨리 낫게 한다. 그것은 일정한 에
 너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그것은 한 속인을 조종할
 수 있다. 특히 공(功)이 있는 사람이 가서 절을 하면 더욱 위
 험하다. 연공인(煉功人)이 무엇을 구한단 말인가? 돈을 구한
 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라. 연공(煉功)하는 사람이 무슨 재물
 을 구하겠는가? 육친(親人)에게 재난을 없애고 병을 없애달라
 고 비는 것도 모두 육친정(親情)에 대한 집착이다. 다른 사람
 의 운명을 좌우하려 하는데, 사람은 제각기 운명이 있다! 당신
 이 그것에게 절을 하면서 중얼거린다: 돈을 좀 벌게 저를 도와

주십시오. 좋다. 그것이 당신을 돕는데, 그것은 당신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빌기를 간절히 바란다. 많이 빌수록 그것이 당신의 것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등가교환이다. 다른 사람이 그것에게 준 돈이 시주함에 가득하기에 그것이 당신에게 얻게 한다. 어떻게 얻는가? 문을 나서면 돈지갑을 줍거나, 직장에서 상여금을 줌 주거나, 어쨌든 온갖 방법을 다해 당신으로 하여금 돈을 얻게 한다. 그것도 무조건 당신을 도울 수는 없지 않은가?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그것은 공이 모자라므로 당신의 공을 조금 가져가거나 또는 당신이 연마(煉)해 낸 단(丹) 등을 가져가는데, 그것은 이것을 요구한다.

이런 가짜 부처가 때로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 천목이 열린 많은 사람이 자신은 부처를 보았다고 여긴다. 어떤 사람은 오늘 절에 한 패의 부처들이 왔으며 이 부처의 이름은 무엇인데, 한 패를 거느리고 왔다고 한다. 어제 온 그 한 패는 어떤 모양이고 오늘 온 한 패는 어떤 모양이며, 얼마 후에 또 가고 또 한 패가 왔다고 한다. 무엇인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짜 부처가 아니며 그것은 가짜로서, 이 부류가 상당히 많다.

만약 절에 이런 정황이 나타나면 더욱 위험하다. 화상(和尚)이 그것을 모시면 그것이 곧 화상을 단속한다: 당신이 나를 모시지 않는가? 당신은 명명백백하게 나를 모시고 있구나! 좋다. 당신은 수련하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당신을 책임지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수련하게 해 주겠다. 그것이 당신을 안배하는

데, 그러면 당신이 수련 성취했다 해도 수련되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안배해 수련한 것은 위의 어느 법문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것이 안배한 것이므로 당신은 장래에 그것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당신 이것은 헛된 수련이 아닌가? 지금은 인류가 수련하여 정과(正果)를 얻으려 해도 아주 어렵다고 나는 말한다. 이런 현상은 상당히 보편적이다. 우리 많은 사람이 명산대천(名山大川)에서 본 불광(佛光)은 대다수가 모두 이 부류로서, 그것은 에너지가 있어 현현(顯現)할 수 있다. 진정한 대각자는 함부로 현현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지상불(地上佛)·지상도(地上道)라는 것이 비교적 적었지만, 현재는 특별히 많다. 그것이 나쁜 짓을 할 때면 위에서도 그것을 죽이려 하는데, 죽이려 하면 그것은 불상으로 도망쳐 올라간다. 속인의 이 이치를 일반적으로 대각자는 쉽게 건드리지 않고, 더욱 높은 각자일수록 속인의 이치를 더욱 파괴하지 않으며 조금도 건드리지 않는다. 아무튼 갑자기 한 차례 벼락으로 불상을 쳐부술 수는 없으며 그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이 불상으로 도망치면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을 죽이려 하면 그것이 알고 도망친다. 그러므로 당신이 본 관음보살은 관음보살인가? 당신이 본 부처는 부처인가? 말하기가 아주 어렵다.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문제를 연상한다: 우리 집의 불상을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이 나를 생각할 것이다. 수련생들의 수련을 도와주기 위해 내가 알려주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면 된다:

당신은 나의 책(책에 나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또는 나의 사진을 가지고 당신의 손에 불상을 받쳐 들고서 대연화수인(大蓮花手印)을 한 다음 마치 나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스승님, 개광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다. 30초면 곧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수련하는 사람으로만 국한하며 친척과 친구에게 개광해 주어서는 소용이 없다.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만 책임진다. 어떤 사람은, 스승의 사진을 친척과 친구 집에 갖다 놓고 액막이(避邪)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속인에게 액막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스승에 대한 최대의 불경(不敬)이다.

지상불(地上佛)·지상도(地上道) 문제를 말한다. 또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 중국 고대에는 많은 사람이 심산 밀림 속에서 수련했다. 왜 현재는 없어졌는가?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속인이 알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조금도 적어지지 않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모두 공능이 있다. 이 몇 년래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며 이런 사람들은 다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아직도 몇천 명이나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교적 많다. 특히 그런 명산대천(名山大川)에는 다 있으며 일부 고산(高山) 중에도 있다. 그가 공능으로 동굴을 다 막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그의 존재를 보지 못한다. 그의 수련은 비교적 느리고 그의 방법은 비교적 우둔하며 그는 수련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지인심(直指人心)으로서, 우리 우주의 최고 특성에 따라 수련하고, 우주의 그런 형식에 따라 수련하므로, 당연히 공이 아주 빨

리 자란다. 왜냐하면 수련의 법문은 피라미드 모양으로서, 오직 한가운데만이 대도(大道)이기 때문이다. 그런 주변 소도(小道)에서 수련하면 心性(심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높지 않게 수련하여 개공할 수도 있지만 진정하게 수련하는 그 대도(大道)와는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그 역시 이어받고 전하며 도제(徒弟)를 이끌고 있는데, 그의 이 한 문(門)은 곧 이만큼 높이 수련하며 그의 心性(심성) 역시 이만큼 높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도제도 모두 이만한 높이로 수련된다. 주변의 세간소도(世間小道)일수록 설이 더욱 많은데, 수련 방법(修持方法) 또한 복잡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수련한다. 사람의 수련은 주로 心性(심성)을 닦는 것인데, 그는 여전히 이 점을 모르며 그는 고생만 겪으면 수련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그는 기나긴 시간을 경과하여, 몇백 년, 천여 년을 수련해서 그는 이런 조그마한 공이 자란다. 실제로 그가 고생을 겪어서 수련해 낸 것이 아니다. 어떻게 수련해 낸 것인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집착심이 아주 많았으며, 늙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앞날에 희망이 없어지자 이 마음이 자연히 버려졌고 닳아 없어진 것인데, 이런 소도(小道)는 역시 이 방법이다. 그가 가부좌와 정력(定力), 고통을 겪음에 의거해 위로 수련할 때 그는 역시 공이 자랄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그의 그 속인의 집착심이 길고도 간고한 세월 중에서 서서히 닳아 없어지고, 서서히 그 마음을 제거해서 자라 올라온 공(功)임을 모른다.

우리는 겨냥성이 있기에, 진정하게 그 마음을 집어내어 그 마음을 제거하는데, 그러면 수련이 매우 빠르다. 나는 일부 지방에 간 적이 있는데, 수련을 꽤 오래 한, 이런 사람들과 자주 마주쳤다. 그 역시 말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의 이 일을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는 비교적 좋은 데 속한다.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역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 귀주(貴州)에 가서 공을 전할 때에 한창 학습반을 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그의 사야(師爺)가 나를 만나려 하며 그의 사야는 모모(某某)인데 아주 오래오래 수련했다고 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음기(陰氣)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좋지 않았으며 얼굴은 누랬다. 나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거절해 버렸다. 결국 그 영감은 좋지 않게 생각해 나에게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으며 날마다 나에게 소란을 피워댔다. 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원치 않고, 내가 그와 다투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가 좋지 않은 것을 보내면 나는 곧 청리(清理)해 버렸고 청리가 끝나면 나는 바로 나의 법을 전했다.

과거 명나라에 수도(修道)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도할 적에 뱀 부체가 있었다. 후에 이 수도하던 사람이 수련 성취하지 못하고 죽어버리자, 이 뱀은 수도인(修道人)의 신체를 점유하고서 사람의 형상을 수련해 났다. 그 사람의 사야가 바로 그 뱀이 수련해 낸 사람의 형상이다. 그는 본성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큰 뱀으로 변해 나에게 소란을 피워댔다. 내가 보니 너무나도 말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손에 잡고 매우 강대한 일종의 공, 화공(化功)이라는 것으로 그것의 하반신을 녹여 물이 되게 하자, 그것의 상반신은 도망쳐 버렸다.

하루는, 그의 손제자가 우리 귀주(貴州) 보도소 소장을 찾아와서, 그의 사야가 그녀를 만나려 한다고 했다. 소장이 가서 동굴에 들어가 보니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다만 한 그림자만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눈은 녹색 빛을 뿜어 눈을 뜨면 동굴이 밝아졌다가 눈을 감으면 동굴 안이 곧 캄캄해졌다. 그는 토박이말로 말했다: 리홍쯔(李洪志)가 또 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누구도 가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다. 리홍쯔(李洪志)는 사람을 제도하러 온 것이다. 손제자가 그에게 물었다: 사야님, 좀 일어나 보세요. 다리가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는 일어나지 못한다. 내 다리가 상했다. 그에게 어떻게 상했는지 묻자 그는 곧 자기가 소란을 피워댄 과정을 말하기 시작했다. 북경(北京) 93년 동방건강박람회에서 그는 또 나에게 소란을 피웠다. 그가 늘 나쁜 일을 하고 그는 내가 대법(大法)을 전하는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철저히 없애버렸다. 없애버린 후, 그의 사제(師姐)·사매(師妹)·사형(師兄)·사제(師弟)들이 모두 해보려고 했다. 당시 내가 몇 마디 말을 하자,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 무서워하며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했고 또한 어찌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완전히 속인이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수련했다. 이는 개광 문제를 말하면서 든 몇 가지 예이다.

축유과(祝由科)

무엇이 축유과(祝由科)인가? 수련계에서 많은 사람이 공을 전하는 과정 중에 그것 역시 수련 범주의 것으로 여겨 전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수련 범주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일종의 비결·주문·기술을 이어받고 전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채용한 형식은 무슨 부적을 그리고, 향을 피우며, 종이를 태우고, 주문을 외우는 등등으로서 그것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 예를 들어 말해 보자. 누구의 얼굴에 부스럼이 났다면 그는 붓에 주사(朱砂)를 묻혀 땅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십자(十字)를 그려 놓고는 이 사람을 동그라미 중심에 서게 하고 그는 곧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붓에다 주사를 묻혀 그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그리면서 주문을 외운다. 이리 굶고 저리 굶다가 부스럼에 점을 찍으며 주문도 다 외우고는 났다고 한다. 당신이 만져보면 작아졌고 아프지도 않은데, 그것이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작은 병은 그가 고칠 수 있지만, 큰 병은 그가 고치지 못한다. 팔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입으로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며 그는 당신에게 팔을 내밀라고 하고, 이 한쪽 손의 합곡혈(合谷穴)에 대고 입으로 혹 붙여 그것이

다른 한쪽 손의 합곡혈로 나가게 하는데, 한 가닥 바람과 같은 감각이다. 다시 만져보면, 그것이 그렇게 아프지 않다. 또 종이를 태우고, 부적을 그리며, 부적을 붙이는 등등을 채용하는데 그는 이런 것을 한다.

도가의 세간소도(世間小道)에서는 명(命)을 닦는 것을 말하지 않고 완전히 점치기·풍수보기·굿하기·병 치료를 한다. 이런 세간소도에서는 그것을 많이 채용한다. 그것이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채용한 방법은 그리 좋지 않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이용해 병을 치료했는지 중시하지 않으며, 무릇 우리 대법(大法)을 수련하는 사람은 그것을 채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낮고 아주 좋지 못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고대에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과목(科目)으로 나누었다. 예를 들면 점골·침구·안마·추나·점혈·기공치료·초약치료 등등 여러 종으로 나누었다. 매 한 가지 병 치료 방법을 한 과(科)로 불렀는데 이 축유과(祝由科)는 제13과에 속했으므로 그것의 총칭을 축유 13과라 한다. 축유과는 우리 수련 범주 내의 것에 속하지 않으며, 그것은 수련하여 얻어온 공이 아니라 술류(術類)의 일종이다.

제 6 강

주화입마(走火入魔)

수련계에 이런 설이 있는데, 주화입마(走火入魔)라 하며 군중(群衆) 속에서 영향 또한 매우 크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아주 굉장하게 소문내어 일부 사람들이 감히 연공(煉功)하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연공하면 주화입마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겁이 나서 감히 연마(煉)하지 못한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주화입마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부 부체(附體)를 불러왔다. 자신의 主意識(주이식)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서도 이것을 공이라 여긴다. 신체를 부체에게 통제당해 정신이 흐리멍덩하여 마구 고탐을 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보니 연공(煉功)한다는 것이 뜻밖에 이런 식이라, 겁이 나서 감히 연마(煉)하지 못한다. 우리 많은 사람이 이것을

공이라 여기는데, 이것이 어디 연공(煉功)하는 것인가? 이는 단지 가장 낮고 가장 낮은, 그런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아주 위험하다. 당신 자신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당신의 主意識(주이스)가 늘 당신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신체는 아마 副意識(푸이스)나 외래정보·부체류의 것들에게 통제당해 일부 위험한 거동(舉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련계에 대한 파괴력도 극히 크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아 조성된 것으로서, 집착하여 자신을 과시한 것이지 이것은 주화입마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 이른바 기공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도 주화입마를 말한다. 사실 연공해서는 주화입마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주로 예술작품 중에서 들은 것이며 무슨 무협소설 등등 그중에서 이 한 용어를 들은 것이다.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고서(古書), 수련하는 책을 뒤져 보라. 이런 일이 없다. 어디에 무슨 주화입마가 있는가? 전혀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없다.

일반인이 인식하는 주화입마에는 몇 가지 형식이 있는데, 내가 방금 말한 것 역시 한 가지 형식이다. 자신의 마음이 바르지 않아 부체를 불러오게 되거나 무슨 기공태(氣功態)를 추구해 자신을 과시하는 등의 각종 심태다. 어떤 사람은 직접 공능을 추구하거나 또는 가짜 기공을 연마(練)한다. 연마하기만 하면 자신은 늘 자신의 主意識(주이스)를 늦추는 데 습관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며 신체를 남에게 맡기는데, 정신이 흐

리명당하여 副意識(푸이스)나 외래정보에게 신체를 주재(主宰)당해 일부 특수한 거동을 한다. 그에게 건물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는 곧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그에게 물에 뛰어든다고 하면 그는 곧 물에 뛰어든다. 그 자신마저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신체를 모두 남에게 맡긴다. 이것은 주화입마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연공(練功)하여 기로(歧途)에 잘못 빠져 들어간 것에 속하는데, 시작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흔들흔들하는 것이 곧 연공(煉功)하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 정말로 연공한다면 엄청난 후과를 조성할 것이다. 이것은 연공이 아니고 속인의 집착과 추구로 조성된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정황은 연공(煉功)할 때 기(氣)가 어느 곳에서 막혀 통하지 않는데, 기가 정수리에서 내려오지 못하면 그는 곧 두려워한다. 사람의 신체는 바로 소우주로서, 특히 도가 공법에서 관(關)을 돌파할 때 이런 번거로운 일과 마주칠 수 있는데, 돌파하지 못하면 기가 곧 이곳에서 맴돈다. 정수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곳은 바로 정수리다. 기가 정수리에 올라가서 아래로 내리쏘리고, 관(關)을 넘지 못할 때, 그는 곧 머리가 무겁고, 머리가 부풀거나 아주 두툽한 기의 모자를 쓴 듯한 등등의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기, 그것은 어떤 제약작용이 없고, 그것은 또 사람에게 무슨 번거로움이 나타나게 할 수 없으며, 전혀 무슨 병이 생기게 할 수도 없다. 일

부 사람들이 기공의 진실한 정황을 요해(了解)하지 못하면서 허황하고 허황하게 마구 의견을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아주 혼란한 현상을 조성했다. 사람들은 곧 기가 정수리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면 바로 주화입마하거나 편차 등등이 생긴다고 여기는데, 결국 많은 사람이 제풀에 무서워한다.

기가 정수리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것은 다만 한 시기의 상태로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반년이 되어도 내려오지 못한다. 내려오지 못하면 진정한 기공사를 찾아 인도(引導)만 해도 내려오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릇 연공(煉功)할 때에 관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기가 내려오지 못할 때 우리들은 心性(썸썸)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어느 층차 중에서 지체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는지, 마땅히 心性(썸썸)을 제고(提高)하고 제고해야 한다! 당신이 진정하게 心性(썸썸)을 제고했을 때면 당신은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오로지 당신 자신(自身)의 공의 변화만 강조하고 당신의 心性(썸썸)의 전변(轉變)을 강조하지 않는 데,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心性(썸썸) 제고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정체(整體)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람이 정말로 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무슨 문제를 조성하지 않는다. 흔히 다 우리 자신들의 정신작용이고, 또 기가 정수리에 올라가면 무슨 편차(偏差)가 나타난다는 가짜 기공사들의 말을 듣고 그는 두려워한다.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면 진정으로 번거로움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당신이 두려워하기만 하면 곧 공포심

으로서 그것은 집착심이 아닌가? 당신의 집착심이 나오면 당신의 집착심을 제거해야 하지 않는가? 두려워할수록 더욱 병과 같이 되는데, 당신의 이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며, 당신에게 이번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여, 공포심을 버리고 제고해 올라오게 한다.

연공인(煉功人)은 장래 수련에서 역시 편안하지 않으며, 신체에 많은 공이 나타나는데, 모두 아주 강렬한 것들이 당신의 신체 내에서 오가며 움직여서 당신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저렇게 불편하게 한다. 당신이 불편한 원인은 주로 당신이 늘 자신의 신체가 무슨 병을 얻을까 봐 두려워하는 데 있다. 사실 신체 내에서 모두 것처럼 강렬한 것들이 나왔으며, 나온 것은 다 공이고 다 공능이며 또한 많은 생명체다. 움직이면 당신은 신체가 가렵고, 아프며, 견디기 어려운 등등을 느낄 수 있는데, 말초신경 감각도 매우 예민해 각종 상태가 다 나타날 것이다. 단지 당신의 신체가 고에너지물질로 전변(轉變)되기 전이라면 모두 이런 감각이 있는데, 본래 좋은 일이다. 한 수련인으로서 당신이 늘 자신을 속인으로 여기고, 늘 병이 있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연마(煉)하겠는가? 우리가 연공(煉功)중에 겁난(劫難)이 왔을 때, 당신이 아직도 자신을 속인으로 여긴다면, 내가 말하는데 당신의 心性(심성)은 그때 곧바로 속인 거기로 떨어진 것이다. 바로 이 한 문제에서 당신은 최소한 속인 그 층차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마땅히 아주 높은 층

차에서 문제를 보아야 하며 속인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아서는 안 된다. 당신이 병이 있다고 여길 때면 아마 병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당신이 그것을 병으로 여기기만 하면 당신의 心性(썸썸)은 속인과 같은 높이로 되기 때문이다. 연공(煉功)과 진정한 수련, 특히 이런 상태에서는 그것이 병을 불러올 수 없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정으로 병을 얻는 것은 정신이 7할이고 병이 3할이다. 흔히 사람의 정신이 먼저 무너져서, 먼저 안 되고, 부담이 아주 중하여 병세를 급격히 변화하게 하는데, 흔히 모두 이리하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침대에 묶어 놓고 그의 팔을 잡고는 그의 피를 뽑겠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손목을 한 번 굽고는(전혀 그의 피를 뽑지 않았음), 수도꼭지를 열어 그에게 푹푹푹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했다. 그는 자기의 피가 아래로 떨어지는 줄로 알고 잠시 후 이 사람은 죽어버렸다. 사실 그의 피를 전혀 뽑지 않았으며 흘린 것은 수돗물로서, 그의 정신이 그를 사망하게 한 것이다. 당신이 늘 병이 있다고 여길 때면 당신 자신이 병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당신의 心性(썸썸)이 이미 속인 그 기초로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속인은 당연히 병을 얻게 마련이다.

연공인인 당신이 늘 그것을 병이라고 여긴다면 실제로 당신은 구한 것이다. 당신이 구하여 병을 얻었다면 그 병은 눌러 들어갈 수 있다. 한 연공인으로서 心性(썸썸)은 마땅히 높아야 한다. 당신은 늘 병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병

이라고 두려워하는 것도 집착심이며,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번거로움을 가져다줄 것이다. 수련 중에서 소업(消業)해야 하는데, 소업은 곧 고통이다. 어디 편안하고 편안하게 공이 자라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집착심을 어떻게 버리겠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불교 중의 옛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과거에 한 사람이 무척 애써 수련하여 나한(羅漢)이 되었다. 그 사람이 정과를 얻고 나한으로 수련 성취하는데, 그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삼계(三界)를 벗어났다! 이 기쁨함이 바로 집착심이고 환희심이다. 나한은 마땅히 무위(無爲)이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는 떨어졌으며 수련이 헛되었다. 수련이 헛되었으면 또다시 수련해야 하지 않는가. 또 새롭게 위로 수련하며 무척 애를 써서 다시 수련해 올라왔다. 이번에 그는 두려워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기뻐하지 말자, 다시 기뻐했다가는 또 떨어질 테니. 그가 두려워하자 또 떨어졌다. 두려움 역시 집착심이다.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면 그가 곧 주화입마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가 그에게 정신병을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정신병은 병이 아니라고 하며, 나는 또한 이런 일을 상관할 시간이 없다. 무엇 때문인가? 정신병자 그는 병독(病毒)이 없고 신체 내에 병리변화가 없으며 궤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병이 아니다. 정신병은 바로 사람의 主意識(주이스)가 너무 약한 것이다. 어느 정도로 약한가? 마치 그 사람이 늘 자

신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 정신병자의 主元神(주웬선)은 바로 이러하다. 그는 이 신체를 상관하려 하지 않고 그 자신은 늘 얼떨떨하며 늘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런 때면 副意識(푸이스), 외래 정보가 곧 그를 교란한다. 각개 공간 층차가 그렇게 많은데 각종 정보가 모두 그를 교란한다. 더군다나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이 전생에 일부 좋지 못한 일을 했을 수 있고 또한 채권자가 그를 해치려고 할 것 인즉, 각종 일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데, 정신병은 바로 이렇게 된 일이다. 나에게 당신을 어떻게 치료하라는 것인가? 내가 말하는데, 진정한 정신병은 바로 이렇게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를 교육하여 그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하기가 무척 어렵다. 당신이 보라. 정신병원의 그 의사가 손에 전기봉을 들고 흔들기만 하면 그는 즉시 겁이 나서 한마디 허튼소리도 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그때 그의 主元神(주웬선)이 정신을 차린 것이며, 그는 자기를 감전시킬까 봐 겁이 난 것이다.

흔히 사람은 수련의 문에 들어서면 연마(煉)하기를 좋아하는데, 불성은 사람마다 있으며 수도(修道)하려는 마음은 사람마다 모두 있다. 그러므로 일단 공을 배우면 많은 사람이 한평생 연마와 함께하게 마련이다. 그가 수련해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법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계없이, 어쨌든 그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 그는 늘 연마(煉)하려 한다. 이 사람이 연공(練功)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사무

실 사람도 알고 동네에서도 알고 이웃 간에도 그가 연공하는 것을 다 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라. 진정한 수련을, 요 몇 년 전까지는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한 사람이 없다. 진정으로 수련해야만 비로소 그의 인생행로를 개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한 속인으로서 다만 연공하여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할 뿐인데, 누가 그의 인생행로를 개변해 주겠는가? 속인이라, 어느 날에 가서는 병을 얻고, 어느 날에 가서는 무슨 번거로운 일과 마주치며, 어느 날에 가서는 정신병을 얻거나 또는 갑자기 죽을지도 모를 것인즉, 속인의 일생은 바로 이러하다. 당신은 그가 공원에서 연공하는 것을 보라. 사실 그가 진정하게 수련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고층차로 수련하려고 생각하지만 또 정법(正法)을 얻지 못해, 그 역시 수련해 올라가지 못한다. 그는 다만 고층차로 수련하려는 소원이 있을 뿐, 그는 여전히 저층차 중에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연공자(練功者)이다. 그의 인생행로를 그에게 개변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곧 병을 얻게 마련이다. 德(더)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 병도 나을 수 없으며, 공을 연마(練)한다고 해서 무슨 병에나 다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진정하게 수련해야 하며 心性(썬썬)을 중시하고 진정하게 수련해야만 병을 제거할 수 있다. 연공(煉功)은 체조가 아니며 속인의 것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높은 이치와 표준으로 연공자(練功者)에게 요구해야 하며, 반드시 해내야

만 비로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두
 이렇게 하지 못했고, 그는 여전히 속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때
 가 되면 여전히 병을 얻을 것이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뇌혈
 전에 걸리거나, 갑자기 이런 병에 걸리고 저런 병에 걸리며,
 혹은 어느 날 정신병에 걸린다. 그가 연공(練功)하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아는지라, 일단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면 사람들
 은 곧 그가 연공하여 주화입마했다고 하면서 큰 모자를 씌운
 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문외
 한은 모르며, 우리 전문가들(內行人), 많은 연공인(煉功人)
 도 그 중의 진정한 이치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 이 사
 람이 집에서 정신병에 걸렸다면 그래도 말하기가 좀 괜찮은데,
 남들은 그래도 그가 연공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만
 약 그가 연공장(練功場)에서 정신병에 걸렸다면 큰일로서,
 이 큰 모자가 씌워져 벗으려 해도 벗을 수 없다. 연공하여 주
 화입마했다고 신문에 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딱 감
 고 기공을 반대한다: 거봐라. 조금 전까지도 거기서 아주 잘
 연마(練)했는데 지금은 이 꼴이 되었다. 한 속인으로서 그
 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어떤 일이 있다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는 또 다른 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번거로움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모두 연공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합리
 적인가? 마치 우리 병원의 의사처럼, 그가 의사가 되었다면
 그는 이 한평생 영원히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
 은데,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 그는 기공의 진실한 정황을 요해(了解)하지 못하고, 그 역시 그 중의 이치를 모르면서, 함부로 허튼 소리를 한다. 일단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모자든 모두 기공 여기에 씌운다. 기공이 사회에서 보급된 시간은 아주 짧은데, 많은 사람이 고집스러운 관념을 품고서 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비방하며, 그것을 배척한다. 그가 어떤 심리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처럼 기공을 싫어하며, 마치 그와 무슨 관계라도 있는 듯이 기공을 제기하기만 하면 곧 유심(唯心)이라 한다. 기공은 과학이며 더욱 높은 과학이다. 다만 그러한 사람의 관념이 너무 고집스럽고 지식이 너무 편협하여 조성한 것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데 수련계에 기공태(氣功態)라는 것이 있다. 이런 사람의 정신은 얼떨떨하지만 그 역시 주화입마가 아니며 그는 매우 이지적이다. 나는 우선 기공태란 어찌된 일인가를 말하겠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가 연공(煉功)함에 근기(根基) 문제를 중시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다 있는데, 중국에도 수천 년 동안 줄곧 불교·도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으며, 선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善有善報), 악에는 나쁜 결과가 있음(惡有惡報)을 믿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더욱이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비판을 받았으며 미신이라 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책에서 배우지 못한 것, 현대과학이 그 일보까지 발전하지 못했거나 혹은 인식하지 못한 사물

을 그는 일률로 미신이라 말한다. 이런 사람이 몇 년 전에는 아주 많았는데, 현재는 비교적 적어졌다. 왜냐하면 일부 현상은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이미 확실하고 확실하게 우리 이 공간 중에 반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당신이 감히 그것을 정시(正視)하지 못하지만, 현재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감히 말하며 사람들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므로, 역시 연공(煉功)에 관한 정황을 일부 알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정도로 고집스럽다: 당신이 기공을 말하기만 하면 그는 내심에서 당신을 비웃는데, 그는 당신이 미신을 믿는다고 매우 우습게 여긴다. 당신이 기공 중의 현상을 말하기만 하면 그는 곧 당신 이 사람이 매우 우매하다고 여긴다. 이런 사람은 비록 고집스럽지만 근기가 꼭 좋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근기가 좋아 그가 연공(煉功)하면 천목이 아주 높은 층차까지 열릴 것이며, 또한 공능이 나올 것이다. 그는 기공을 믿지 않지만,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없다. 그가 만약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보이는데, 양의(西醫)에게 보여서 낫지 않으면 중의(中醫)에게 가보고, 중의에게 보여도 낫지 않고 무슨 민간처방을 써도 낫지 않자, 그때서야 그는 기공이 떠올랐다. 그는 생각한다: 내가 가서 대운(大運)을 만날지, 기공이 도대체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보자. 그는 마지못해 온다. 그는 연공(煉功)하자마자 근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단번에 연마(煉)를 아주 웬만큼 할 수 있다. 어느 사부의 마음에 들 수 있고, 다른 공

간의 그 고급생명이 그를 한번 도와줄 수도 있다. 그는 이리 하여 단번에 천목이 열리거나, 반개오(半開悟) 상태에 처한다. 천목은 아주 높은 층차까지 열리고, 단번에 우주 중의 일부 진실한 정황을 보게 되며, 아울러 공능도 있게 된다. 당신이 말해 보라. 이런 사람이 이런 정황을 보면 그의 대뇌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당신이 생각해 보라. 그의 그 심태가 어땠겠는가? 종래로 미신이며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 다른 사람이 제기만 해도 비웃던 일이 확실하고 확실하게 그의 눈앞에 나타나며 또한 실제적이고 실제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의 대뇌는 곧 감당해 내지 못하고, 그의 정신적 압력은 너무나 커서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사유 논리는 혼란하지 않은데, 그는 다만 양쪽의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인류가 한 일이 잘못되었으며, 흔히 저쪽이 옳은 것을 발견한다. 저쪽에 따라 하면 사람들은 곧 그가 틀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이 사람이 연공(練功)하여 주화입마했다고 한다.

사실 그는 주화입마한 것이 아니며,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연공(煉功)해서는 전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데, 다만 그런 특별히 고집스러운 사람만이 이런 기공태(氣功態)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여기에 자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천목이 열렸는데, 상당히 많다. 그는 확실하고 확실하게 다른 공간의 것을 보았지만, 그는 놀라거나 이상하게 느끼지 않고

아주 좋다고 느끼는데, 대뇌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공태도 나타날 수 없다. 사람이 기공태가 나타난 후에는 아주 이지적이다. 하는 말도 아주 철리성(哲理性)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성도 아주 좋다. 단지 그가 한 말을 속인은 믿지 않을 뿐이다. 그는 잠깐 있다가 당신에게 알려주기를, 그가 사망한 모모(某某)를 보았으며, 그 사람이 그에게 뭘 하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속인인 그가 믿을 수 있겠는가? 나중에 그는 이런 것을 마땅히 자기 마음속에 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양쪽의 관계를 바로잡은 다음에는 좋아진다. 흔히 이런 사람은 모두 공능을 동반하는데, 이 역시 주화입마가 아니다.

또 한 가지 정황이 있는데 ‘진풍(眞瘋)’이라 하며, 이런 정황은 보기가 극히 드물다. 우리가 말하는 ‘진풍’은 진짜로 미친 것이 아니고, 이 뜻이 아니며 진을 수련(修真)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진풍하는가? 수련하는 사람 중, 10만 명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하는데, 보기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그것은 보편성을 띠지 않으며 또한 사회에 영향을 조성하지 않는다.

‘진풍’은 흔히 선결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의 근기가 아주 좋아야 하고 또한 연령이 아주 많아야 한다. 연령이 많으면 수련하려 해도 이미 늦었다. 근기가 아주 좋음은 흔히 사명을 갖고 온 것으로서 고층차에서 온 것이다. 속인 이 사회는 누가 오든지 누구나 두려워하며, 머리를 씻기만 하면 누

구도 알아보지 못한다. 속인 이 사회 환경 중에 오면, 사람들이 그를 교란하여 그가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이익을 중히 여기며, 최후에는 떨어져 내려가서 영원히 솟아오를 날이 없게 한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감히 오지 못하며 누구나 다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이 왔는데 온 후에는 그가 속인 중에서 정말로 잘못되어, 정말로 곧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일생에 나쁜 일을 적지 않게 했다. 사람이 살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쟁탈할 때면 나쁜 일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으며 매우 많은 것을 빚질 수 있다. 그의 사부가 보니 이 사람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 과위(果位)가 있는지라, 그를 이렇게 함부로 떨어지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아주 조급하지만, 그를 수련하게 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때에 어디 가서 사부를 찾겠는가? 그는 새롭게 되돌아가야 하며 되돌아 수련해야 한다. 그러나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연령이 또한 많아 수련하려 해도 늦었는데, 어디에 가서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을 찾겠는가?

근기(根基)가 반드시 아주 좋은 사람이라야만 이런 극히 특수한 정황하에서 비로소 그에게 미치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즉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으며 스스로 되돌아 올 수 없는 정황하에서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바로 그를 미치게 하는 것으로서, 그의 머리 어느 한 부위를 막아준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추위를 두려워하고, 더러운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에게 추위를 두려워하는 이 대뇌 부분을 막아주고,

그에게 더러운 것을 두려워하는 이 부분을 막아준다. 그에게 일부분을 막아준 후에는 이 사람의 정신에 곧 문제가 나타나서 정말로 정신이 나간 것 같다. 그러나 흔히 이런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며 사람을 욕하지 않고 사람을 때리지도 않으며 흔히 또 좋은 일을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는 오히려 아주 잔혹하다. 그는 추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겨울에 맨발로 눈 위를 뛰어다니고, 홑옷을 입었으며, 언 발은 크게 갈라져 피가 흘러나오고; 그는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대변도 감히 먹고, 그는 오줌도 감히 마신다. 과거에 내가 아는 한 사람은, 그 말뚱덩이가 얼어서 판판한데도 그는 아주 맛있게 갇아먹었는데, 그는 속인이 명백한 상태하에서는 겪어 내지 못할 고생을 겪을 수 있었다. 당신은 그가 이처럼 미쳤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생을 겪는가를 생각해 보라. 물론 그는 흔히 공능을 동반하는데, 일반적으로 할머니가 많다. 과거에 할머니는 전족을 했는데, 2미터가 넘는 담도 달려가서 훌쩍 뛰어넘었다. 가족들이 그녀가 미쳐서 늘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는 곧 집안에 가둬 둔다. 가족들이 나간 후에 그 자물쇠를 가리키기만 하면 곧 열려서, 나가버린다. 그러면 쇠사슬로 묶어버리자. 가족들이 나간 후에 흔들기만 하면 쇠사슬이 곧 풀려버린다. 단속하려 해도 그녀를 단속할 수 없다. 이리하여 그녀는 무척 많은 고생을 겪을 것이다. 그녀가 고생을 너무나 심하게 겪고 닥쳐오는 것도 너무나 맹렬하기 때문에, 그녀는 빗을 진 좋지 못한 것들을 아주 빨리 갇아버릴 것

이다. 아무리 길어도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1, 2년이면 곧 지나가는데 그 겪는 고생이야말로 상당히 크다. 지나고 나면 곧 깨어나는데, 그녀는 이것으로 이미 수련이 끝난 것으로 치기 때문에 즉시 개공하며 각종 신통(神通)이 모두 나올 수 있다. 이것은 극히 보기 드물며, 극히 보기 드문 것으로서, 역사상 이런 것이 있지만, 역시 일반적인 근기의 사람인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미친 승려, 미친 도사가 있음을 알고 있을 텐데, 역사상 확실히 존재했으며 기재되어 있다. 무슨 풍승소진(瘋僧掃秦)이요, 미친 도사(瘋道士)요 하는 이런 전고(典故)가 아주 많다.

주화입마란 우리가 말하는데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주화(走火)할 수 있다고 하며 정말로 이럴 수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은 그래도 대단하다고 말한다. 입을 벌리면 불을 토해 낼 수 있고 손을 내밀면 불을 뿜을 수 있다. 담뱃불을 붙일 때 손가락을 내밀자마자 불이 오는데, 그것은 공능이라고 나는 말한다!

연공초마(煉功招魔)

무엇이 연공초마(煉功招魔)인가? 바로 우리들이 연공(煉功)할 때 흔히 쉽게 일부 교란을 받는 것이다. 연공을 하는데 어찌하여 마를 불러올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수련하려고 함은

실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진정으로 수련하자면 나의 법신의 보호가 없이는 당신은 전혀 수련 성취할 수 없으며, 당신이 문만 나서면 생명 문제에 연관될 것이다. 사람의 元神(웬선)은 불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전생의 사회활동 중에서 누구에게 빚을 졌을 수 있고, 누구를 괴롭혔을 수 있으며, 또는 무슨 좋지 못한 일을 했을 수 있는데, 그 채권자는 당신을 찾으려 할 것이다. 불교 중에서는 말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바로 업력운보(業力輪報)다. 당신이 그에게 빚을 졌으면 그는 당신을 찾아와서 빚을 받아갈 것이며, 더 많이 받아 가면 다음번에 그가 다시 당신에게 갚아준다.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거꾸로 되는데, 바로 이렇게 돌아오고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마(魔)가 당신을 연공(煉功)하지 못하게 교란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모두 인연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이 아닌데, 아무런 연고가 없다면 또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장 보편적인 연공초마 형식은, 바로 당신이 연공하지 않을 때는 주위환경이 그래도 비교적 조용하다. 공을 배웠기 때문에 늘 연마(煉)하기를 즐기지만 거기에서 가부좌만 하면 갑자기 바깥이 조용하지 않음을 느낀다. 자동차 경적소리가 울리고 복도에는 발자국 소리, 말하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있으며, 밖에는 라디오도 틀어 놓아 곧 조용하지 않다. 당신이 연공하지 않으면 환경은 그래도 꽤 좋으나 당신이 연

공(煉功)하기만 하면 곧 이렇다. 우리 많은 사람이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다만 이상함을 느낄 뿐 아주 풀이 죽어서 공을 연마(煉)하지 못한다. 한 가지 ‘이상함’에 가로막혔는데, 이것은 바로 마(魔)가 당신을 교란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람을 시켜 당신을 교란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교란형식으로서, 당신이 연마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에 도달한다. 당신이 연공하면 당신이 도를 얻는데, 당신이 그렇게 많은 것을 빚지고도 당신은 갚지 않겠단 말인가? 그것은 가만있지 않으며, 그것은 당신을 연마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 층차 중의 반영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런 현상이 다시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몫 빚을 치른 후에는 그것이 다시 와서 교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은 수련함이 비교적 빠르고 층차의 돌파 역시 비교적 빠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마의 교란형식이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연공(煉功)하여 천목을 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목이 열린 후에 집에서 연공하다가 일부 무서운 광경, 무서운 얼굴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은 머리를 풀어헤쳤고 어떤 것은 목숨을 내걸고 당신과 싸우려 하며 심지어 각종 거동을 하는데 아주 무섭다. 어떤 때에 연공을 하기만 하면 창문 밖에 모두 이런 것들이 엮드려 있는 것이 보이는데, 아주 무섭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은 모두 마의 교란형식이다.

그러나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 이 문(門) 중에서는 이런 정황을 보기가 극히 드문데 100분의 1이나 될까, 대부분 다 이런 정황과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연공(煉功)에 무슨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이런 형식을 취해 당신을 교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 공법의 수련 중에서는 이런 일이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며 또한 아주 오랜 시간을 지속한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것 때문에 공을 연마(煉)하지 못하며 겹을 먹는다. 밤에 연공할 때는 모두 아주 조용한 환경을 선택하는데, 척 보니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라, 놀라서 감히 연마하지 못한다.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 중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없다. 그러나 극소수에게는 그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정황은 극히 특수하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내외겸수(內外兼修) 공법을 연마(煉)하는 것으로서, 그는 무술도 연마(練)하고 또한 내수(內修)도 하는데, 이런 공법은 도가 중에서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사람이 일단 이 공법을 배우면 흔히 이런 마(魔)와 마주칠 수 있다. 일반 공법에서는 마주치지 않고 오로지 내외겸수 공법이나 무술을 연마(練)하는 공법에만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무예를 겨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수도(修道)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많은 사람이 무술을 연마하고, 내외겸수를 하기 때문이다.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 그 역시 공이 자랄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그가 기타 마음

(心), 명(名), 이(利) 이런 마음을 제거해 버리면 그 역시 공이 자란다. 그러나 그는 쟁투하는 마음을 좀처럼 제거하지 못하며 제거함이 비교적 늦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일을 하기 쉬운데 일정한 층차 중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는 가부좌 중에서 흐리멍덩한 가운데 누구누구가 연공(煉功)하고 있음을 알고는, 元神(웬선)이 신체를 떠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누구의 공부(功夫)가 높은지 겨뤄보자고 하여 이 싸움이 일어난다. 다른 공간에서도 이런 정황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싸우고 때리며, 싸우지 않으면 정말로 그를 죽이려 하여 곧 서로 싸우는데, 오고가며 싸운다. 잠만 자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와 무술을 겨루며 싸워 온밤을 다 설 수 없게 한다. 사실 이런 때에 바로 그의 쟁투심을 버리는 것인데, 만약 그가 이 쟁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가 늘 이러하며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몇 년을 더 끈다 해도 이 층차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사람 역시 공을 연마(煉)할 수 없게 되고 이 물질신체도 견뎌내지 못하며 정력 소모도 너무나 커서 잘못하면 끝장이다. 그러므로 내외점수 공법 중에서 이런 정황과 마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보편적이다. 우리 내수공법 중에서는 이런 정황이 없으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방금 말한 이 몇 가지 형식은 모두 비교적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또 한 가지 마의 교란형식이 있는데, 역시 사람마다 모두 마주치게 되며, 우리 이 법문에서도 사람마다 모두 마주치게

되는데, 일종의 색마(色魔)와 마주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주 엄중하다. 속인사회 중에는 부부생활이 있어서 비로소 인류사회로 하여금 후대가 번창하게 할 수 있다. 인류는 바로 이렇게 발전한 것으로서, 인류사회에는 곧 정(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속인으로 말하면 천경지의(天經地義)이다. 사람에게에는 정이 있기 때문인데, 화를 냄도 정이요, 기뻐함도 정이요, 사랑함도 정이요, 증오함 역시 정이요, 일하기 좋아함도 정이요, 일하기 싫어함 역시 정이며, 누가 좋고 누가 나쁘게 보이며, 무엇을 하기 좋아하고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 일체가 다 정이라, 속인은 바로 정을 위해 산다. 그렇다면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 한 초상(超常)적인 사람으로서는 이런 이치로 가늠할 수 없으며 이런 것을 돌파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情) 중에서 파생되어 나온 많은 집착심을 우리는 그것을 담담히 보아야 하며 최후에는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욕(慾)과 색(色),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의 집착심에 속하기에 이런 것들을 마땅히 모두 제거해야 한다.

우리 이 한 법문,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이 한 부분은 당신에게 화상(和尚)이 되고, 비구니가 되라는 것이 아니며, 우리 젊은이들은 여전히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인가? 내가 말했다. 우리 이 한 법문은 직지인심(直指人心)으로서, 물질이억에서 당신에게 실제로 무엇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속인의 이런 물질이억 중에서 당신의 心性(심성)을 연마(魔煉)하는데, 진정하게 제고되

는 것은 바로 당신의 心性(썸썸)이다. 당신이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곧 무엇이든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며, 물질이익에서 당신에게 내려놓으라 하면 당신은 물론 내려놓을 수 있다. 당신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련의 목적은 그 마음을 닦는 것이다. 절에서 하는 수련은 그것이 당신을 강제하여 이런 것을 잃게 하는데, 역시 당신으로 하여금 이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당신을 강제하여, 당신에게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며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이런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는 바로 물질이익 앞에서 당신이 그것을 담담하게 볼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우리 이 한 문(門)이 수련해 내는 것이 가장 착실하다. 당신에게 모두 화상이 되고, 비구니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것으로서, 장래에 우리의 공법이 갈수록 널리 전해질 것인데, 사람마다 모두 화상 아닌 화상이 되고,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젠 안 된다. 연공(煉功)에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요구한다: 당신은 연공하지만, 당신의 배우자는 연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연공 때문에 부부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일을 담담하게 봐야 하는데, 당신은 속인처럼 그것을 그렇게 중하게 봐서는 안 된다. 더욱이 현재 사회에서는 무슨 성해방이니 하는 이런 음란한 것들이 사람을 교란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중하게 보는데, 우리는 연공인(煉功人)으로서 그것을 아주 담담하게 보아야 한다.

고층차에서 보면 속인은 사회 중에서 그야말로 흙을 주무르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고, 땅에서 흙을 주무르며 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당신이 이 일 때문에 가정불화를 일으켜서는 안 되므로 당신은 현재 이 단계 중에서 그것을 담담하게 보고, 정상적이고 조화로운 부부생활을 유지하면 된다고 한다. 장래에 일정한 층차에 이르면 그 층차의 상태가 있을 것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는 당신에게 요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물론 현재 사회상의 그런 상태와 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 중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연공인의 신체에는 에너지가 있다. 우리 현재 백분의 팔, 구십 사람들은 이 학습반에서 나간 후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도 나오게 되므로 당신의 신체는 아주 강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공과 당신 현재의 心性(썸씽)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당신은 현재 잠시 공이 높는데 당신을 단번에 올려놓은 것으로서, 현재는 당신의 心性(썸씽)을 제고시키고 있다. 당신은 천천히 따라올 것이며, 보증코 이 한동안 시간 내에 당신은 따라올 것이므로 우리는 앞서서 이런 일을 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일정한 에너지가 있다. 정법을 수련해 나온 에너지는 순정(純正)하고 자비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모두 상화하고 자비로운 장

(場)을 느낀다. 나의 연공(煉功)은 이렇게 수련해 온 것이며 나는 이런 것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서 모두 아주 조화로움을 느낄 것이며 사람의 사상 중에 사념(邪念)이 없고 흡연할 생각마저 나지 않는다. 장래에 당신도 우리 대법(大法)의 요구에 따라 하면 당신이 장래에 수련해 내는 공 역시 이러하다. 당신의 공력이 끊임없이 자람에 따라 당신 신체가 갖고 있는 그 공이 발산하는 에너지도 상당히 강대할 것이다. 설령 그렇게 강대하지 못하더라도, 일반인이 당신의 이 장 범위 내에 있거나 혹은 당신이 집에 있다 해도 당신은 역시 다른 사람을 제약할 수 있다. 당신 집의 가족들도 모두 당신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생각(念)을 움직일 필요도 없이, 이 장은 순정하고 상화하며, 자비로운 것이고, 정념(正念)의 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쁜 일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며 나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번에 나는 불광이 널리 비치니 예의가 원만하고도 밝다(佛光普照, 禮義圓明)고 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체가 발산하는 에너지는 일체 바르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장의 작용하에서 당신이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모르는 가운데 당신의 배우자도 제약하게 된다. 당신이 생각이 없으면, 당신은 역시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도 역시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현재 이런 환경에서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무엇이든

다 있어, 쉽게 사람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황하에서 당신은 이런 제약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장래에 고층차에서 수련하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알려 줄 필요도 없이, 당신 자신이 곧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것이며, 그때에 가서는 다른 상태가 있어 조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당신 역시 그것을 너무 중하게 보지 말아야 하며, 당신이 과분하게 걱정한다면 역시 집착에 속한다. 부부간에는 색의 문제가 없지만 욕망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담담하게 보고 심리적 평형을 이루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색마(色魔)를 만나게 되는가? 만약 당신의 정력(定力)이 모자란다면 당신의 꿈속에 나타날 수 있는데, 당신이 한창 잠을 자거나 또는 한창 가부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이 남자라면 미녀가 나타날 것이며, 당신이 여자라면 당신이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그런 남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실 한 오라기 걸치지 않았다. 당신이 염두를 움직이기만 하면 배출할 수 있으며 곧 사실로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우리가 연공(煉功)함에 정혈지기(精血之氣)는 명(命)을 닦는 데 쓰는 것인데, 당신이 늘 이렇게 배출할 수 없지 않은가. 동시에 당신이 색욕 이 한 관(關)을 넘지 못했으니 그 어찌 될 말인가? 그러므로 이 문제를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사람마다 모두 만날 것이며, 보증코 만날 것이다. 내가 설법할 때에 나는 아주 강한 에너지로 당신의 머릿속에 넣어주고 있다. 당신이 아마 문을 나서면

내가 말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정말로 문제와 마주쳤을 때 당신은 내가 한 말이 생각날 것이다. 당신이 오로지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기만 하면, 당신은 그 한순간에 생각날 수 있으며, 당신은 곧 자신을 단속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이 관(關)을 넘을 수 있다. 만약 첫 번째 관을 넘지 못한다면 두 번째 관은 지켜내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첫 번째에 넘지 못하고 깨어난 후에 풀이 죽어서 크게 낙심한다면, 당신의 이런 심리, 이런 상태 역시 당신의 사상에 깊은 인상(印象)을 줄 수 있어, 다시 문제와 마주치면 당신은 파악할 수 있으며 곧 넘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넘지 못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나중에는 지켜내기가 더욱 어려운데, 보증코 이리하다.

이런 형식에는 마의 교란이 있으며, 또한 사부가 지물화물(指物化物)하여 연화(演化)해서는 당신을 고험(考驗)하는 것이 있다. 두 가지 형식이 모두 존재하는데 사람마다 모두가 관(關)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인에서 수련을 시작하여 내디딘 첫걸음이 바로 이 관(關)으로서, 사람마다 모두 마주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겠다. 무한(武漢)에서 학습반을 열 때 이런 한 수련생이 있었는데 30세의 젊은이였다. 내가 이 한 강의를 끝낸 직후, 그는 집에 돌아가서 가부좌를 하고 즉시 定(땡)에 들었다. 定(땡)에 든 후에 홀연히 이쪽에는 아미타불이 나타나고 저쪽에는 노자가 나

타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가 심득체험 중에서 말한 것이다. 나타난 후, 그를 보고는 아무 말도 없었고, 그런 다음 곧 사라져버렸다. 다시 관음보살이 나타났는데, 손에는 꽃병 하나를 들었고, 이 꽃병에서 한 가닥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거기에서 가부좌하고 아주 똑똑히 보았는데, 그는 대단히 기뻐했다. 그 연기가 단번에 몇몇 미녀로 화(化)해 나타났는데, 미녀는 바로 그 비천(飛天)인지라, 그 얼마나 예쁜가. 그에게 춤을 춰줬는데 춤추는 자태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연공(煉功)하니 관음보살이 내게 상을 주려고 몇몇 미녀로 변화시켜 내게 보여주고 비천이 나에게 춤을 추어주는 것이로구나. 그가 한창 기뻐할 때, 갑자기 이 미녀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서 각종 동작을 하며 목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끌어안으며 매달렸다. 우리 수련생은心性(심성)을 제고함이 아주 빨라 그때 이 젊은이는 곧 알아차렸는데, 그는 먼저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일반인이 아니며, 나는 연공인(煉功人)이다.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말라. 나는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사람이다. 이 염두가 나오자마자 ‘썉’ 단번에 무엇이나 다 없어졌는데, 본래 환화(幻化)해 나온 것이었다. 그런 다음 아미타불과 노자가 또다시 현현(顯現)했다. 노자는 손으로 젊은이를 가리키며 아미타불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유자(孺子)는 가히 가르칠 수 있도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젊은이는 괜찮으며,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상에서나 고층 공간 중에서 사람이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 사람의 욕망·색 이런 것을 아주 주요하게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런 것을 담담하게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에 당신에게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현 단계에서 당신은 그것을 담담하게 보아야 하며, 더는 과거와 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는 마땅히 이래야 한다. 무릇 연공(煉功) 중에 이런 교란, 저런 교란이 나타나면, 당신이 아직도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당신 자신이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심생마(自心生魔)

무엇을 자심생마(自心生魔)라고 하는가? 사람의 신체는 각층 공간 중에 모두 물질장(物質場)이 있고, 특수한 장(場) 중에는, 우주 중의 모든 것들이 모두 그림자처럼 당신의 이 공간장(空間場)에 비취 오는데, 비록 그림자지만 역시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의 공간장 일체는 모두 당신 대뇌의 식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천목으로 볼 때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보면 진실한 것이나, 조금이라도 생각을 움직이기만 하면 보는 것은 모두 가짜로서, 이것이 바로 자심생마(自心生魔)이며, 수심이화(隨心而化)라고도 한다. 바로 어떤 연공인(煉功人)은 자신이 자신을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공능을 구하고, 소능소술(小能小術)에 집착한다. 심지어 다른 공간에서 들은 일부 것들에 집착하고, 이런 것을 추구함에 집착하는데, 이런 유의 사람이 자심생마하기가 가장 쉽고, 떨어지기가 가장 쉽다. 얼마나 높이 수련했든 이 문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끝까지 떨어지며 철저히 망칠 것이다. 이는 극히 엄중한 문제다. 다른 방면과 같지 않으며, 心性(썬썬) 고험(考驗)은 이번에 넘지 못했으면 곤두박질했다가 일어나 또 이어서 수련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심생마, 이 문제가 나타나면 안 되며 그의 이 한평생은 곧 끝장이다. 특히 연공(煉功)하여 일정한 층차 중에서 천목이 열린 사람은 이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 또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상에서 늘 외래정보의 교란을 받으며 외래정보가 그에게 무엇을 알려주면 그는 바로 그것을 믿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사람은 천목이 열린 후, 여러 방면의 정보에 교란당할 수 있다.

우리 예를 들어보자. 저층차(低層次)의 수련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로 아주 어렵다. 스승이 어떠한지 당신은 아마 똑똑히 보지 못할 수 있다. 갑자기 그 어느 날 당신은 한 높고도 큰 대신선(大神仙)이 온 것을 보게 된다. 이 대신선은 당신을 두어 마디 칭찬해 준 다음,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 주는데, 당신이 또한 가진다면 당신의 공은 곧 난잡해진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그를 사부로 모시고 그를 따

라 배우지만, 그 역시 정과(正果)를 얻지 못했으며, 그 공간에서는 곧 크게 변할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것이 당신 앞에 펼쳐져, 당신이 이 대신선을 보면 정말로 격동된다! 환희심이 일어나면 당신은 또 그를 따라 배우지 않겠는가? 수련하는 사람이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면 제도(度化)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곧 자신을 망치기 쉽다. 천인(天人)은 모두 신(神)이지만 그 역시 정과(正果)를 얻지 못했으며, 마찬가지로 육도(六道)에 들어간다. 당신이 마음대로 그를 사부로 삼아 따라간다면 그가 당신을 어디까지 이끌고 가겠는가? 그조차도 정과를 얻지 못했는데, 당신은 헛되게 수련한 것이 아닌가? 결국 당신 자신의 공은 이미 난잡해졌다.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기가 아주 어렵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문제는 아주 엄숙하며, 장래 우리 많은 사람에게 이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법을 내가 당신에게 말해 주었으니 당신이 파악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린 것으로서, 내가 말한 이것은 한 가지 정황이다. 어떤 다른 문파(門派) 중의 각자(覺者)를 보아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오직 한 문(門) 중에서 수련해야 한다. 무슨 불(佛), 무슨 도(道), 무슨 신(神), 무슨 마(魔)이든, 모두 나의 마음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할 것이다.

자심생마는 또 기타 정황이 있다: 세상을 떠난 친인(親人)이 교란함을 보게 되는바, 울며불며 당신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든 다 나타난다. 당신이 이 마

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이 아이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사랑한다. 당신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지만…… 모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서 당신이 한다면 잘못되는데, 연공인(煉功人)은 바로 이렇게 어렵다. 사람들은 불교가 혼란하다고 한다. 유교의 것들도 불교 중에 들어갔고 무슨 부모 효도와 자식 정 같은 것들조차 들어갔지만, 불교 중에는 이런 내포가 없다. 무슨 뜻인가? 한 사람의 진정한 생명은 元神(웬선)이기 때문에 당신의 元神(웬선)을 낳은 그 어머니만이 당신의 진정한 어머니다. 당신은 육도윤회 중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인류였든, 인류가 아니었든 다 헤아릴 수 없다. 생생세세(生生世世)에 당신은 자녀가 얼마인지도 헤아릴 수 없다. 어느 누가 당신의 어머니고, 어느 누가 당신의 자녀인지, 두 눈을 감기만 하면 누구도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며, 당신이 진 업(業)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 사람은 미혹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여 어떠한가하게 좋았는데 그가 죽었다 하고; 그의 어머니가 어떠한가하게 좋았는데 역시 죽었다고 그는 그지없이 비통해 하는데, 그야말로 후반생에 마치 그것을 따라가려는 듯하다. 당신은 생각해 보지 않는데, 이것은 당신을 시달리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형식으로 당신을 편안히 지내지 못하게 한다.

속인은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인데, 당신이 만약 이런 것

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전혀 수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교 중에는 이 내포가 없다.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면 사람의 정(情)을 내려놓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기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 마땅한 것이다. 각종 환경 중에서 모두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해야 하고, 남을 선하게 대해야 하는데, 하물며 당신의 친인(親人)임에랴. 누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도 모두 잘 대하고, 곳곳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이 마음은 곧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모두 자선지심(慈善之心)이고 자비(慈悲)이다. 정(情)은 속인 중의 것으로서 속인은 바로 정을 위해 산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 수련에 곤란을 조성한다. 어떤 사람은, 부처가 그에게 무엇을 말했다고 한다. 무릇 당신에게 오늘 어떤 난(難)이 있고 무슨 일이 생길 텐데, 그것을 어떻게 피하라고 당신에게 알려 준다. 혹은 누가 당신에게 오늘 일등 복권은 몇 번인데 당신이 가서 뽑으라고 알려 준다. 생명이 위험할 때에 당신에게 어떻게 배제하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무릇 속인사회 중에서 당신에게 좋은 점을 얻게 하는 것은 모두 마(魔)이다. 당신이 속인 중에서 좋은 것을 얻어 이 난을 넘지 못하면 당신은 곧 제고해 올라오지 못한다. 당신이 속인 중에서 편안하고 편안하게 잘 지낸다면 당신은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당신의 업력을 어떻게 전화(轉化)하겠는가? 당신의心性(썌썌)을 제고하고 당신의 업력을

전화할 환경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마(魔)는 또 당신을 칭찬할 것인데, 당신이 얼마나 높다고 하며 당신은 얼마나 높은 대부처, 얼마나 높은 대도(大道)라고 하며 당신을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가짜다. 진정하게 고층차로 수련하는 사람은 당신의 각종 마음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며, 이런 문제와 마주칠 때, 여러분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연공(煉功)할 때에 천목이 열린다. 천목이 열리면 천목이 열려서 수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천목이 열리지 않으면 천목이 열리지 않아서 수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모두 수련하기가 쉽지 않다. 천목이 열린 후에 각종 정보가 당신을 교란할 때 당신은 정말로 자신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다. 다른 공간 속에서는 어디든 모두 아름답고, 아주 예쁘며, 대단히 좋아서, 무엇이든 모두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마음이 움직이기만 하면 당신은 교란 받을 수 있어 당신의 그 공이 곧 난잡해지는데, 흔히 바로 이러하다. 그러므로 자심생마한 사람이 자신을 파악하지 못할 때 역시 이런 정황이 나타날 것이다. 예컨대 이 사람이 바르지 않은 염두가 생기기만 하면 아주 위험하다. 어느 날 그는 천목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아주 똑똑히 본다. 그는 생각한다: 이 연공장(煉功點)에서 나만 천목이 잘 열렸는데, 나는 일반인이 아닐 수 있잖은가? 내가 리(李) 선생님의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울 수 있고, 나는 이처럼 잘 배울 수 있어 누구보다도 나운데,

나는 일반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사상은 이미 옳지 않다. 그는 생각한다: 어쩌면 나 역시 부처일지도 모른다. 자, 나는 나 자신을 봐야겠다. 그가 자신을 보니 정말로 부처였다. 무엇 때문인가? 그 자신의 신체 주위 공간장(空間場) 범위 내의 모든 물질이 모두 그의 염두(念頭)에 따라 연화(演化)하기 때문인데, 수심이화(隨心而化)라고도 한다.

우주 중에서 대응해 비쳐 온 것은 모두 그의 염두에 따라 변화한다. 왜냐하면 그의 공간장(空間場) 범위 내의 것은 모두 그의 관할에 속하며 그림자 또한 물질존재로서 역시 마찬가지 때문이다. 그는 생각한다: 나는 부처가 아닌가. 내가 입은 것도 아마 부처의 옷일 것이다. 그러자 그가 입은 옷이 곧 부처의 옷임을 그는 보게 된다. 와, 나는 정말로 부처로구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나는 작은부처가 아닐 수도 있다. 척 보니 자신은 또 큰부처다. 나는 어쩌면 리홍쯔(李洪志)보다 높을지도 모른다! 보자, 야, 나는 정말로 리홍쯔(李洪志)보다도 높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데, 그 마(魔)가 그를 교란하며 말한다: 당신은 리홍쯔(李洪志)보다도 높으며 당신은 리홍쯔(李洪志)보다 얼마 얼마나 더 높다. 그 역시 믿는다. 당신은 당신이 금후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는가, 당신은 수련을 한 적이 있는가, 누가 당신을 수련하도록 가르쳤는가? 진짜 부처가 내려와 일을 함에도 모두 새로 수련해야 하며 원래의 공을 모두 주지 않는데, 다만 현재 수련함이 조금 빠를 뿐이다. 이리하여 이 사람이 일단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그는 스스로 헤어나기가 무척 어려우며, 이런 마음이 곧바로 일어난다. 일어난 후에 그는 곧 무엇이든 다 감히 말한다. 내가 바로 부처다. 당신들은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울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겠다. 그는 이런 짓을 한다.

우리 장춘(長春)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하고 하다가 곧 이런 일을 했다. 그는 부처이고 최후에 그는 누구보다도 더 높았는데, 사람이 바로 자신을 파악하지 못해 집착심이 일어나 조성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불교 중에서는 말한다: 당신이 어떤 것을 보았든 당신은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 모두 마환(魔幻)이므로 당신은 다만 자신이 입정(入定)하여 위로 수련하는 것만 상관하라. 그는 왜 당신에게 보지 말라고 하며 당신에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는 바로 이 문제가 나타날까 봐 염려해서다. 불교 중의 수련에는, 그가 어떤 강화하는 수련방법이 없고, 경서 중에서도 당신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라고 지도한 것이 없다. 석가모니는 당시에 이 법을 말하지 않았는데, 자심생마·수심이화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는 수련 중에서 보게 되는 모든 광경이 전부 다 마환(魔幻)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단 집착심이 있으면 이 마환이 생길 것인데,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마에 든 것이며, 잘못하면 아마 끝날 것이다. 그가 자신을 부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마

에 들었으며 최후에는 또 부체(附體) 또는 기타 어떤 일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그는 곧 철저히 끝장난다. 그의 마음도 나쁘게 변해 철저히 떨어져 내려가는데 이런 사람이 대단히 많다. 이 학습반에서도 현재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며 그 말하는 태도마저 다르다. 자신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는 이것은 바로 불교 중에서도 아주 꺼리는 것이다. 내가 방금 말한 이것 또한 한 가지 정황으로서, 이것을 자심생마라고 하며 또는 수심이화라고도 한다. 북경(北京)에 이런 수련생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지역에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연공인(煉功人)에 대한 교란이 아주 크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묻는다: 스승님, 스승님께선 왜 이것을 청리(清理)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우리가 수련, 이 길에서 당신에게 장애를 전부 다 청리해 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 바로 마의 교란이 있는 정황에서만 비로소 당신이 수련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당신이 진정하게 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없는가, 당신이 교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한 법문에 견정(堅定)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현해 낼 수 있다. 거센 파도가 모래를 일듯이 수련이란 곧 이런 일로서, 남은 것이야말로 진짜 금이다. 당신에게 이런 형식의 교란이 없다면, 나는 사람이 수련하기가 너무나도 쉽다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 당신의 수련은 너무나도 쉽다. 고층차상의 그 대각자들이 보고는 마음속으로 더욱 불공평해한다: 당신 이진 뭘 하는 것인가? 당신 이진 사람을 제도

하는 것인가? 이 길에 어떤 장애도 다 없어 수련만 하면 끝까지 수련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련인가? 연마(煉)할수록 더욱 편안하고 어떤 교란도 없다면, 그러면 되겠는가? 바로 이 문제이며 나도 이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초기에 나는 아주 많은 이런 마를 처리했다. 늘 이렇게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남들도 나에게 말한다: 당신은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수련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만한 난뿐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만한 일뿐인데, 아직도 많은 마음을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란(惑亂) 중에서 당신의 대법(大法)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곧 교란이 있고, 고험(考驗)이 있을 것이다. 방금 말한 이것은 마의 한 가지 형식이다. 진정으로 한 사람을 제도하기는 아주 어렵지만, 한 사람을 망치기는 극히 쉽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곧 끝장이다.

主意識(주이식)가 강해야 한다

사람이 생생세세로 일부 좋지 못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재난을 조성해 주고 수련자에게 업력의 장애를 조성해 주기에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있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업력이다. 또 한 가지 강대한 업력이 있는데, 수련자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서, 사상업(思想業)이라고 한다. 사람은

살아서는 곧 사고(思考)하게 마련이다. 사람이 속인 중에 미혹됨으로써 때때로 사상 중에 명(名)·이(利)·색(色)·기(氣) 등으로 내보내는 의념(意念)이 생기는데, 오래오래 되면 강대한 사상업력을 형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의 일체가 모두 생명이 있는 것으로서, 업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법을 수련하고자 할 때는 곧 소업(消業)해야 한다. 소업은 바로 업을 소멸·전화하는 것이다. 당연히 업력은 말을 듣지 않아 사람에게는 곧 난이 있고,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업력은 직접 사람의 대뇌를 교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상 중에서 사부를 욕하고, 대법(大法)을 욕하며 일부 사념(邪念)과 사람을 욕하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수련자는 어찌된 일인지를 모르며 그냥 자신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여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체(附體)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부체가 아니라 사상업이 사람의 대뇌에 반영하여 조성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主意識(주이스)가 강하지 않아 사상업에 따라 나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곧 끝장이며 떨어져 내려간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은 가히 아주 강한 주관사상[主意識(주이스)가 강함]으로 그것을 배제(排除)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렇다면 이 사람은 제도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데, 좋고 나쁨을 가려낼 수 있다. 즉 오성(悟性)이 좋으면, 나의 법신이 도와서 대부분의 이런 사상업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일단 나타나면 자신이 이 나쁜 사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견정(堅定)할 수 있는 사람은 업을 없앨 수 있다.

마음이 반드시 똑발라야 한다

무엇이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인가? 바로 그가 늘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연공인(煉功人)은 수련 중에서 난(難)과 마주칠 것인데, 이 난이 올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찰 중에서 표현될 수 있고, 험뜯고 싸우는 등등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직접 당신의 心性(썸썸) 상의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방면이 비교적 많다. 또 어떤 것과 마주칠 수 있는가? 우리 신체가 갑자기 불편함을 느낄 것인데, 이는 업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방면에서 체현될 것이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당신에게 또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게 만들어 주어, 이 공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수련하여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으로 하여금 분간치 못하게 한다. 장래에 다시금 당신에게 이런 정황이 나타나게 할 것이며 당신에게 이런 착각을 조성해 주어, 당신으로 하여금 그가 마치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가짜처럼 느끼게 하는데, 바로 당신이 견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당신은, 당신이 꼭 견정불이(堅定不移)하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라면 그때에 가서 당신은 정말로

견정불이할 수 있으며, 당신은 자연히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心性(썸썸)이 이미 제고되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당신은 것처럼 불안정한데, 만약 현재 당신에게 이런 마난(魔難)이 나타나게 한다면, 당신은 전혀 깨닫지 못하며 전혀 수련할 수 없다. 여러 방면에서 모두 마난이 나타날 수 있다.

수련과정 중에서 사람은 곧바로 이렇게 위로 수련해야 한다. 우리 어떤 사람은 일단 그의 신체 어디가 불편하면 그는 곧 자신에게 병이 있다고 여긴다. 그는 늘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지 못해, 이 일과 마주치면 그는 스스로 병이라고 여긴다. 왜 그렇게 많은 번거로움이 나타나는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이미 당신에게서 아주 많이 없애주었으며 당신의 그 번거로움은 아주 적어졌다. 만약 당신에게 없애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번거로움과 마주쳐서 단번에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며, 또는 그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이 조그마한 번거로움과 마주쳐도 당신은 견디기 어려워 하는데, 그렇게 편만한 일이 어디 있는가? 예를 들면, 내가 장춘(長春)에서 학습반을 열 때 근기가 아주 좋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쓸 만한 사람이어서, 나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로 하여금 빨리 갇아버리고, 개공(開功)하게 하고자, 그의 난을 좀 크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뇌혈전에 걸린 증상과도 같이 거기에서 단번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고 사지가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 병원

에 보내 응급치료를 했다. 그런 후 그는 병상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뇌혈전에 걸렸는데 어찌 이처럼 빨리 나올 수 있으며 팔·다리를 모두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는 도리어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워 그에게 편차가 생기게 했다고 한다. 그는 생각해 보지 않는데, 뇌혈전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겠는가? 오늘 그가 만약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지 않았다면 단번에 쓰러져 거기에서 죽었을 지도 모르고, 영원히 반신불수가 되거나, 정말로 뇌혈전에 걸릴 수도 있다.

즉 말하여 사람은 제도하기가 그처럼 어렵다. 그를 위해 그렇게 많이 했건만,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말한다. 어떤 노수련생은 말한다: 스승님, 저는 어찌해서 어디나 다 불편한지 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게 말한다! 그건 물론 소용이 없다. 그것은 병도 아닌데 소용이 있겠는가? 당신이 가서 검사해 보라. 병은 없는데, 당신은 괴롭기만 하다. 우리 어떤 수련생이 병원에 갔는데, 남의 주사 바늘을 몇 개나 구부러 놓고 마지막에는 그 약을 모두 뿔어버렸어도 찌르지 못했다. 그는 알아차렸다: 아이쿠, 나는 연공인(煉功人)이 아닌가. 나는 주사를 맞지 않겠다. 그는 그제야 생각나서 주사를 맞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난(魔難)과 마주쳤을 때에 이 문제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여겨 곧 생각한

다: 당신이 나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면 나는 기공사를 찾아가 보겠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병으로 여기며 그는 기공사를 찾아가 본다. 어떻게 진짜 기공사를 찾을 수 있겠는가? 만약 가짜라면 그 즉시 당신을 망친다.

우리는 말하는데, 그 기공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이 어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많은 기공사가 모두 자칭한 것이다. 나는 측정을 거쳤으며 내 손에는 나에 대해 과학연구 부문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다. 많은 기공사가 가짜며 자칭한 것으로서, 허세를 부리며 사기 치는 것이 수두룩하다. 이 가짜 기공사도 병을 볼 수 있다. 왜 병을 볼 수 있는가? 그는 부체(附體)가 있는데, 부체가 없으면 그는 사람을 속이지도 못한다! 그 부체, 그것도 공을 내보낼 수 있으며 또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에너지 존재로서 속인을 제약하기란 아주 쉽다. 그러나 내가 말했지만, 그 부체가 병을 치료하려면 당신의 몸에 무엇을 내보내겠는가? 극미시하에서는 모두 그 부체의 형상인데, 당신의 몸에 내보내면,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神)을 청하는 쉬워도 신을 보내기는 어렵다. 속인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속인이 되려 하며, 그는 잠시 편안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당신은 연공인(煉功人)이며, 당신은 끊임없이 신체를 정화(淨化)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을 당신의 몸에 달라붙게 한다면 언제 당신이 그것을 내보낼 수 있겠는가? 또한 그것 역시 일정한 에너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그法輪(파룬)이 어찌하여 그것이 들어오게 놔두는가? 스승님의 법신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 이 우주 중에는 이런 이치가 있다: 당신 자신이 구하는 것은 누구도 상관하지 않으며, 당신 자신이 가지려 하면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다. 나의 법신이 당신을 저지할 것이고, 당신을 점화(點化)해 줄 것이지만, 당신이 늘 이런 것을 보고는 당신을 더는 상관하지 않는데, 남을 강박하여 수련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당신을 강박하여 수련하게 하거나 당신을 핍박하여 수련하게 할 수 없다. 당신 자신에 의거해 진정하게 제고해야지 당신이 제고하려 하지 않으면 누구도 방법이 없다. 이치도 당신에게 말해 주었고 법도 당신에게 말해 주었는데 당신 자신이 여전히 제고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럼 당신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당신 자신이 가지려 한 것이기에法輪(파룬)도 상관하지 않고, 나의 법신도 상관하지 않는데, 보충코 이러하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기공사의 장(場)에 가서 보고를 듣고는 집에 돌아와 아주 괴로워하는데, 그것은 당연하다. 그 법신이 왜 당신을 위해 막아 주지 않는가? 당신은 뭘 하러 간 것인가. 당신이 가서 듣는데, 당신은 구하러 간 것이 아닌가? 당신이 귀에다 부어넣지 않으면 그것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法輪(파룬)마저 변형되게 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그法輪(파룬)은 당신의 생명보다도 귀중하며, 그는 일종의 고급생명이기에 함부로 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현재 가짜 기공사가 아주 많으며 어떤

사람은 명망이 아주 높다. 나는 중국 기공과학연구회의 지도자와 이야기했다. 나는, 고대에 달기(妲己)가 조정에 화란(禍亂)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여우가 아주 흉악했지만, 그것도 현재 그 가짜 기공사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전국에 화란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가! 당신이 볼 때, 외관상으로는 마치 아주 좋아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몸에 그런 것이 있는가? 그가 내 보내면 당신이 가지게 되는데 그야말로 너무나도 창궐(猖獗)하다. 그러므로 속인은 외관으로 보아내기가 아주 어렵다.

어떤 사람은 아마 생각할 것이다: 오늘 기공 보고회에 참여 하여 리홍쯔(李洪志)의 이 한 강의를 듣고 보니 기공은 원래 이처럼 박대정심(博大精深)하구나! 다음번에 또 다른 기공 보고회가 있으면 나는 또 가서 들어야겠다. 내가 말하는데 당신은 절대 가지 말라. 좋지 않은 것을 들으면 귀에서 안으로 부어넣게 된다. 한 사람을 제도하기란 아주 어려운데, 당신의 사상을 개변하기가 아주 어려우며, 당신의 신체를 조정(調整)하기도 아주 어렵다. 가짜 기공사는 아주 많다. 설령 진정한 정전(正傳) 기공사라 할지라도 그 기공사가 정말로 깨끗한가? 어떤 동물은 아주 흉악한데, 그런 것들이 그의 몸에 오르는 못하지만, 그 또한 밀어내지 못한다. 그는 광범위하게 이런 것을 건드릴 능력이 없으며, 더군다나 그의 강습생, 그가 거기에서 내보내는 공에는 혼잡한 것이 무엇이든 다 있다. 그 자신은 그런대로 꽤 바르지만, 그의 강습생은 바르지 못하

고 각종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든 다 있다.

당신이 진정하게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려 한다면 당신은 가서 듣지 말라. 물론 당신이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려 하지 않고 무엇이든 다 연마(練)하려 한다면 당신은 가도록 하라. 나도 당신을 상관하지 않으며, 당신도 法輪大法(파룬파파)의 제자가 아니므로 문제가 생기면 당신 역시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 말라. 당신이 心性(썬썬) 표준에 따라 하고 대법(大法)에 따라 수련하는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法輪大法(파룬파파)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다른 기공을 연마(練)하는 사람을 접촉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그는 기공을 연마하는 것이고, 당신은 대법(大法)을 수련하는 것이기에 이 학습반에서 돌아가면 벌어진 층차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모른다. 이 法輪(파룬)은 수많은 세대의 사람이 수련하여 비로소 이것을 형성한 것으로서 강대한 위력이 있다. 물론 당신이 접촉하려 한다면 그의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갖지도 않으며, 다만 일반적인 친구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크지 않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의 몸에 정말로 어떤 것이 있으면 매우 나쁘므로 가장 좋기는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부부로 말하면 다른 공을 연마(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생각에 문제가 역시 크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정법을 연마(煉)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연공(煉功)하면 다른 사람은 이익을 얻게 된다. 그가 왜문사도

(歪門邪道)를 연마(練)하면 몸에 왜문사도의 것이 있을 수 있어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에게 청리(淸理)해 주어야 한다. 다른 공간에서 당신에게 무엇이든 모두 청리해 주며, 당신의 가정환경 역시 청리해 주어야 한다. 환경을 청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당신을 교란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연공(煉功)하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정황은 나의 법신이 청리해 줄 수 없다. 나의 한 수련생은 어느 날 나의 법신이 온 것을 보고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스승님의 법신께서 오셨으니, 스승님을 방으로 모셔야겠다. 나의 법신이 말했다: 자네의 이 방은 너무 난잡하고 물건이 너무 많네. 그는 바로 가버렸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간의 영체(靈體)가 너무 많다면 나의 법신이 청리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방은 온통 모두 난잡한 기공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알아차리고, 수습하여 태울 것은 태우고 팔 것은 팔 후에, 나의 법신이 다시 왔다. 이것은 수련생이 나에게 말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점을 쳐달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煉)합니다만 저는 『주역(周易)』 혹은 운수를 보는 이런 것에 아주 흥미가 있는데, 제가 계속해도 되니까? 이렇게 말해보자. 당신이 만약 일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당신이 하는 말은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일이 아닌데도 남에게 그런 일이라고 말해 준다면 당신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속인이란 매우 약하고, 그에게 존재하는 정보는 모두 불안정하여 일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입을 열어 남에게 말해 준다면 아마 그 난이 곧 있을 것이다. 가령 그의 업력이 아주 크다면 그는 갇아야 하는데, 당신이 늘 그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해 업력을 갇지 못한다면, 그럼 되겠는가? 당신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것에 집착하는데, 마치 그가 능력이나 있는 듯하다. 이것은 집착이 아닌가? 그뿐만 아니라 만약 당신이 정말로 안다 해도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 心性(썬썬)을 지켜야 하며, 또 함부로 천기(天機)를 한 속인에게 누설할 수 없는데, 바로 이 이치다. 『주역』으로 어떻게 추산하든지 어차피 일부 것들은 이미 진실하지 않으며, 추산하고 추산하여 진짜든 가짜든, 속인사회는 점을 치는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공이 있는 사람이기에, 진정한 연공인(煉功人)은 마땅히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일부 사람, 그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점을 쳐달라며 말한다: 당신이 나에게 점을 쳐서 내가 어떠한지 좀 봐 주세요. 이 공을 연마(煉)한 것이 어떻습니까? 혹 나에게 무슨 난은 없을지요. 그는 사람을 찾아서 이것을 점쳐 본다. 만약 그 난을 당신에게 점쳐준다면 당신은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연공인(煉功人), 그의 일생은 개변을 거쳤는데 손금·관상·사주팔자와 신체에 갖고 있는 정보의 것들은 이미 같지 않으며 개변을 거친

것이다. 당신이 그를 찾아서 점을 칠 때 당신은 이미 그를 믿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무슨 점을 치겠는가? 그가 말한 것은 표면적인 것으로서, 말한 것은 당신의 과거의 것이지만 실질상으로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이 그를 찾아 점을 쳤으니 당신은 듣고, 믿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당신은 정신적으로 부담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부담이 조성되었다면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것을 생각하는데, 집착심이 아닌가? 그러면 이런 집착심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이것은 인위적으로 난을 더한 것이 아닌가? 생겨난 이 집착심은 더 많은 고생을 겪어야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매 한 관(關), 매 한 난(難)에는 모두 수련하여 올라가는가 아니면 떨어져 내려가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본래 어려운데 또 인위적으로 이 난을 더한다면, 어떻게 넘을 것인가? 당신은 이 때문에 난과 번거로움에 마주칠 것이다. 개변 후의 당신의 이 길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본 후에 당신의 어느 일보에 난이 있음을 당신에게 다 말해 준다면 당신은 또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그러므로 전혀 보지 못하게 한다. 다른 법문의 누구도 보지 못하게 하고, 동문(同門) 중의 제자도 모두 보지 못하게 하기에 누구도 맞게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일생은 개변된 것이며 수련의 일생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내게 묻는다: 그 밖에 종교 중의 책이나 기공서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하는데, 종교 중의 책, 더욱

이 불교의 책은 모두 사람에게 心性(썌썌)을 어떻게 수련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역시 불가로서 마땅히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경서 중의 어떤 것은 번역 과정 중에 이미 잘못되었고, 게다가 아주 많은 경서의 해석 역시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해석한 것으로서, 제멋대로 정의를 내리는, 이것이 바로 난법(亂法)이다. 일부 경서를 함부로 해석한 사람은 부처의 경지와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 진정한 함의를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 역시 같지 않다.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려 해도 그리 쉽지 않으며, 당신 자신으로서는 깨우쳐낼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말한다: 우리는 어쨌든 경서에 흥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늘 경서를 둘러싸고 학습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한 법문 중에서 수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서도 그 한 문(門)의 공과 법을 한데로 합친 것이기 때문인데, 배우기만 하면 곧 그 한 문의 것을 배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만약 당신이 파고들어가서 그것에 따라 수련한다면 그 한 법문으로 가게 되는데, 곧 우리 이 한 법문이 아니다. 수련은 예부터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주장하는데, 당신이 만약 이 한 문에서 진정하게 수련하려면 오직 이 한 문의 경(經)만 보아야 한다.

기공서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신이 수련하려면 보지 말아야 하는데, 더욱이 현재 나오는 이런 책들은 보지 말라. 무슨 『황제내경(黃帝內經)』·『성명규지(性命圭旨)』 또는 『도장

(道藏)』,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역시 마찬가지로서, 비록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은 없지만 그 속에도 각종 층차의 정보가 존재한다. 그것 자체가 바로 수련방법으로서, 보기만 해도 당신에게 더해 놓여지며 당신을 교란한다. 당신이 이 구절을 맞는 말이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단번에 오게 된다. 당신의 공(功)에 더해지는데 비록 좋지 못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갑자기 당신에게 다른 것을 조금 더해 넣는다면, 당신이 말해 보라. 어떻게 연마(煉)하겠는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당신이 말해 보라. 우리 텔레비전 안의 이 전자 부속에 만약 당신이 다른 부품을 하나 더 끼워 넣는다면, 이 텔레비전이 어떻게 되겠는가? 즉시 망가질 것인즉, 바로 이 이치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일부 기공서들은 많은 것이 모두 가짜며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 한 수련생이 기공서를 펼치자마자 그 속에서 한 마리 큰 뱀이 뛰어나왔다. 물론 상세한 것을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바로 우리 연공인(煉功人) 자신이 자신을 정확하게 대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번거로움을 조성한 것인데, 말하자면 마음이 바르지 않아 불러온 번거로움이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해 줌으로써 좋은 점이 있으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감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장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당신은 내가 방금 말한 이 단락의 말이 중하지 않다고 여기지 말라.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하라. 흔히 문제는 곧 이 점에서 생기며, 흔히 문제는 곧 여기에서 생긴다.

수련이란 극히 간고(艱苦)하고 매우 엄숙한 것으로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으며 하루아침에 망치게 되므로, 마음이 반드시 똑발라야 한다.

무술기공(武術氣功)

내수공법(內修功法) 이외에 또 무술기공이 있다. 내가 무술기공을 말하면서 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강조하겠는데, 현재 수련계에는 기공에 대해 많은 설이 있다.

현재 또 무슨 미술기공·음악기공·서예기공·무용기공이 나왔으며 무엇이든 다 나왔는데, 모두 기공인가? 나는 이상하다고 본다. 이것은 기공에 화란(禍亂)을 일으키는 것이며 다만 기공에 화란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공을 짓밟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글자를 쓰며 그런 흐리멍덩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른바 기공태(氣功態)가 바로 기공인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할 수 없다. 내가 말하는데 그것은 기공을 짓밟는 것이 아닌가? 기공은 인체를 수련하는 박대정심(博大精深)한 학문이다. 오, 흐리멍덩한 것이 바로 기공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흐리멍덩하게 화장실로 가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기공을 짓밟는 것이 아닌가? 내가 말하는데 곧바로 기공을 망치는 짓이다. 재작년 동방건강 박람회에 그 무슨 서예기공이라는 것이 있었다. 무엇을 서예

기공이라고 하는가? 내가 서예기공 거기에 가보니 이 사람은 붓을 들고 거기서 글을 쓰고 있었다. 글을 쓴 다음에 손으로 하나하나의 글자에 기를 내보내는데, 내보내는 것은 모두 검은 기였다. 머리에는 온통 돈이고, 명예였는데 당신이 말해 보라. 공이 있을 수 있는가? 기(氣)라 하더라도 좋은 기일 수 없다. 거기에 걸어놓고는 또 아주 비싸게 팔았는데, 모두 서양인이 그의 것을 사 갔다. 누가 집으로 사 가면 바로 그가 좋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그 검은 기가 좋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도 온통 검고, 그는 돈 속에 묻혀 돈만 생각하는데, 공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의 명함에는 많은 직함을 썼는데 무슨 국제서예기공 등등이다. 내가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나의 이 학습반에서 나간 사람들, 우리 오늘 백분의 팔, 구십 사람들이 나가면 당신은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또 공이 나오는데 진정한 공이다. 당신의 신체가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상당히 초상(超常)적이며, 당신 자신이 연마(煉)한다면 한평생이라도 당신은 다 연마해 내지 못한다. 젊은 사람이 지금부터 연마하기 시작해서 한평생을 다한다 해도, 내가 넣어준 이런 것을 다 연마해 내지 못하는바, 역시 진정한 명사(明師)가 당신을 가르쳐야만 한다. 우리 수많은 세대의 사람이 비로소 이法輪(파룬)과 이런 기제(機制)를 형성했는데, 이런 것을 단번에 당신에게 넣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쉽게 얻었다고

쉽게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진귀하여 가치로는 가늠할 수 없다. 우리가 이 학습반에서 나간 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진정한 공이며 고에너지물질이다.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 역시 두어 글자를 쓰면 글씨가 좋고 나뭇잎에 관세없이 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이 학습반에서 나간 다음 사람마다 모두 ‘사(師)’자를 붙이면 모두 서예기공사인가? 나는 이렇게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진정 공이 있는 사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당신이 일부러 내보낼 필요가 없이 당신이 만졌던 것은 모두 에너지를 남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반짝반짝 빛난다.

나는 또 잡지 한 권을 보았는데, 서예기공 학습반을 연다는, 이런 소식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한번 펼쳐 보았다. 그 속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다: 먼저 숨을 가다듬어 호흡을 조절한 다음 가부좌하여 의념으로 단전의 기를 생각하며, 15분에서 반시간 가부좌하여 의념으로 단전의 기를 이끌어 올려 팔뚝에 가게하고, 붓을 들어 먹을 묻히고는 다시 기를 운행하여 붓끝으로 보낸다. 의념(意念)이 도달하면 글자를 쓰기 시작한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오, 기를 어디로 이끌어오면 곧 무슨 기공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잠시 가부좌를 하고 젓가락을 들고는 기를 운행하여 젓가락 끝에 보낸 다음 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곧 식사기공이겠다. 그렇지 않은가? 먹는 것 또한 다 에너지라는데, 바로 이렇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말하는데 곧바로

기공을 짓밟는 것이다. 그는 기공을 이처럼 알게 보는데,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술기공은 이미 한 문(門)의 독립적인 기공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몇천 년의 이어받고 전하는 과정이 있으며, 그것은 완정(完整)한 한 세트의 수련 이론과 전체적인 한 세트의 수련 방법이 있으므로, 그것을 완정한 한 세트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무술기공 역시 우리 내수공법 중에서 가장 저층차 중의 것이다. 경기공(硬氣功)은 바로 물질에너지덩이로서, 단순히 격타(擊打)를 위해 사용한다.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드는데, 북경(北京)에 있는 한 수련생은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 학습반에서 나간 후 손으로 물건을 눌러 볼 수 없었다. 상점에 가서 유모차를 사는데 이 차가 견고한지 손으로 시험해 보느라고 이렇게 한 번 누르니 ‘팍’ 찌그러져서 그는 아주 이상하다고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도 그는 손으로 누를 수 없었는데, 손으로 그 의자를 한 번 누르기만 하면 ‘팍’ 부서졌다. 그는 나에게 어찌된 일인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말해 주지 않았는데, 나는 그에게 집착심이 생길까 봐 염려해서였다. 나는 말하는데, 이는 모두 자연 상태라,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르고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 모두 좋은 일이다. 그 공능을 잘 운용하면 돌도 손으로 쥐기만 하면 모두 부서진다. 이것이 바로 경기공(硬氣功)이 아닌가? 그러나 그 역시 경기공을 연마(練)한 적이 없다. 내수공법 중에서 이런 공능은 일반적으로

모두 나오지만 사람의 心性(썌썌)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공능이 나와도 당신으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더욱이 저층차에서 수련할 때 사람의 心性(썌썌)이 아직 제고되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층차에서 나온 이런 공능은 전혀 내놓지 못하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신의 층차가 높아졌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도 없으므로 또 내놓지 않는다.

무술기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마(練)하는 것인가? 무술기공 연마, 그것은 운기(運氣)를 중시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기 역시 운행하기 어려운데, 당신이 운기하려 한다 해서 곧 기가 운행되는가. 그것을 아직 운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는 반드시 그의 손을 연마해야 하며 그 신체의 양 옆구리 또는 발, 다리, 위 아래팔, 머리를 모두 연마해야 한다. 어떻게 연마하는가? 어떤 사람은 손으로 나무를 격타하고 손바닥으로 나무를 친다. 어떤 사람은 손을 석판에 대고 내리치는데 탁탁 이렇게 친다. 당신이 말해 보라. 이 뼈에 부딪치면 얼마나 아프겠는가. 이걸 조금만 힘을 써도 피가 난다. 이 기는 여전히 모으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가? 그는 팔을 휘두르기 시작하여 피를 모두 거꾸로 흐르게 하는데, 팔·손이 부풀어 오른다. 실제로는 부어오른 것이다. 그런 다음 그가 돌에 대고 치면 뼈가 감싸져서 직접 돌에 부딪치지 않으므로 그래도 그렇게 아프지 않다. 그가 연공(練功)함에 따라 사부가 그를 가르칠 것이며 오래오래 되면 그는 운기

(運氣)할 줄 알게 된다. 그러나 다만 운기만 해서는 아직 안 되며 정말로 격타할 때 그는 당신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물론 사람이 운기할 수 있을 때에는 이미 격타를 당해낼 수 있어 아주 굵은 몽둥이를 들고 때린다 해도 아프지 않을 것인데, 그가 운기한 후에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는 초기의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서 그가 끊임없이 연마(練)함에 따라 이 기는 고에너지물질로 전화될 것이다. 그것이 고에너지물질로 전화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밀집도가 아주 높은 에너지덩이를 형성한다. 이런 에너지덩이는 영성(靈性)을 갖고 있기에 그것은 공능덩이이기도 한데, 바로 공능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런 공능은 전문적으로 격타하고, 격타를 막는 데 쓰는 것으로서 그것은 병 치료에는 소용이 없다. 그 고에너지물질인 그것은 다른 공간에 있으며 그것이 우리 이 공간에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시간은 우리보다 빠르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을 격타하려고 할 때, 다시 운기하거나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그 공은 이미 거기에 가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쳐서 당신이 막을 때면 그 공 역시 이미 거기에 가 있다. 당신이 아무리 손을 빨리 써도 그것은 당신보다 더 빠르는데, 양쪽의 시간개념은 같지 않다. 무술기공을 연마(練)하면 무슨 철사장(鐵砂掌)·주사장(朱砂掌)·금강퇴(金剛腿)·나한각(羅漢腳)을 연마(練)해 낼 수 있는데, 이것은 속인 중의 능력이다. 속인은 단련을 거친 후 곧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무술기공과 내수(內修)공법의 최대 구별은 이렇다. 무술기공은 운동 중에서 연마(練)할 것을 요구하므로 기는 피하(皮下)로 다닌다. 운동 중에서 연마하기 때문에 입정(入靜)할 수 없으며, 기는 단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는 피하(皮下)로 가며, 기가 근육으로 다니므로 명을 닦을 수 없고, 또 높고 깊은 공부(功夫)를 수련해 낼 수 없다. 우리 내수공법은 정(靜) 중에서 연마(煉)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 공법은 기가 단전에 들어가고 기가 아랫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정(靜) 중에서 수련할 것을 강구(講究)하고, 本體(번티)의 전화를 강구해 명을 닦을 수 있으며, 더욱 높은 층차까지 수련할 수 있다.

여러분은 아마 소설 중에 쓰인 무슨 금종조(金鐘罩)·철포삼(鐵布衫)·백보천양(百步穿楊), 이런 공부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경공(輕功)이라, 어떤 사람은 훨훨 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른 공간에 둔갑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공부가 있는가? 있다. 이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속인 중에는 없다. 진정하게 이런 높은 공부를 연마(練)해 낸 사람, 그는 역시 내놓고 과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단일하게 무술을 익혀 연마(練)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속인 층차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내수공법에 따라 수련해야 한다. 그는 心性(썬썬)을 중히 여겨야 하고 그의 心性(썬썬)을 제고해야 하며, 그는 물질이익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담하게 여겨야 한다. 그가 비록 이런 공부(功夫)를

수련해 낼 수 있지만, 그는 이때부터 오히려 속인 중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 혼자 한번 해보는 것쯤은 괜찮다. 그 소설 중에서 쓴 것을 당신이 보라. 이 사람이 무슨 검술도(劍圖)를 위해서, 보물을 빼앗기 위해서, 여인을 위해서 죽이고 싸우는데, 사람마다 능력이 아주 커서 신기하게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정말로 이런 공부가 있는 사람, 그는 내수(內修)로 수련해 낸 것이 아닌가? 그는 心性(심성)을 중히 여겨 비로소 수련해 내고, 명리(名利)와 각종 욕망을 일찍이 담담하게 보았는데 그가 살인할 수 있겠는가? 그가 그 돈과 재물을 것처럼 중하게 볼 수 있겠는가? 아예 불가능하며, 그것은 단지 예술 중의 과장일 뿐이다. 사람은 본래 정신 자극을 추구하기에, 어떻게 해서든 갈등을 풀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그 작가 역시 이 특징을 틀어잡고서 어쨌든 당신이 갈등을 풀 수 있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는 당신에게 실컷 써준다. 더욱 허황하게 쓸수록 당신은 더욱 즐겨 보는데, 그것은 단지 예술 중의 과장일 뿐이다. 진정하게 이런 공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내놓고 표현할 수는 더욱 없다.

과시심리(顯示心理)

우리 많은 수련생이 속인 중에서 수련하기 때문에 많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많은 마음이 이미 자연스럽게 형성

되었지만, 그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런 과시심리는 곳곳마다 모두 체현될 수 있으며, 좋은 일을 하면서도 과시심리가 체현될 수 있다. 평소 자신이 명(名)을 위하고 이(利)를 위하면서 좋은 점을 조금 얻어도 널리 자랑하고 자랑하며, 과시하고 과시한다: 나는 능력이 있고 강자다. 우리는 이런 정황도 있는데, 연마(煉)를 좀 잘하고, 천목이 좀 똑똑히 보이고, 동작을 좀 보기 좋게 해도 과시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리(李) 스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 여러 사람이 에워싸고 듣는데, 그는 거기에서 말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보태어 주위들은 소식을 전한다. 무슨 목적인가? 여전히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주위들은 소식을 전해 그가 그에게 전하고 그녀가 그녀에게 전하는데, 흥미진진하게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그의 소식이 빠르다는 듯하다. 우리 이렇게 많은 수련생이 모두 그보다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은 그보다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듯한데, 그는 이미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잠재의식 중에 곧 이런 과시심리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주위들은 소식을 전해서는 뭘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스승님께서 어느어느 때에 산으로 돌아간다고 전한다. 내가 산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산으로 돌아가는가? 또 어떤 사람은 스승님께서 어느어느 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으며 누구에게 특별대우를 해주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전해서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좋은 점은

하나도 없으며, 다만 우리는 이것이 그의 집착심이며 과시심 리임을 보았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찾아와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목적인가? 역시 속인의 그런 것이며, 서명을 받아 기념으로 남긴다. 당신이 수련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서명을 해주어도 소용없다. 나의 책은 글자마다 모두 나의 형상과法輪(파룬)이며 매 한 마디 말은 모두 내가 말한 것인데, 당신은 또 무슨 서명을 요구하는가?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서명을 받으면 스승님의 정보가 나를 보호할 것이다. 아직도 정보, 그런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정보를 말하지도 않는다. 이 책은 이미 가치로는 가늠할 수 없다. 당신은 또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은 모두 그러한 마음이 반영되어 나온 것들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신변에 데리고 있는 이런 수련생들의 언행을 보고서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모르면서 곧바로 따라 배운다. 사실 우리는 누가 어떠한든 법은 오로지 하나이며, 오로지 이 대법(大法)에 따라 하는 것만이 비로소 진정한 표준이다. 내가 신변에 데리고 있는 사람은 무슨 특별대우가 없으며, 모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단지 연구회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면 당신은 무의식중에 대법(大法)을 파괴하는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당신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어 심지어 모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련생들의 집착심을 불러 일으켜 앞다투어 스승

앞에 와서 그 무엇을 좀 더 많이 들으려하게 하는 등등의 이런 일들은 모두 이 문제가 아닌가?

이 과시심리는 또 무엇을 쉽게 불러일으키는가? 내가 공을 전한 지 이미 2년이 되었다.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는 노수련생 중 한 부류는 아마 아주 빨리 개공(開功)하게 될 것이며, 또 한 부류는 점오(漸悟)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점오로 들어간다. 왜 그때는 이런 공능이 나오지 않는가? 내가 단번에 그렇게 높이 밀어주어도 당신 속인의 마음이 모두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의 心性(썬썬)이 이미 아주 높이 제고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집착심이 제거되지 않았기에 당신에게서 이런 공능이 나오게 할 수 없다. 당신이 이 한 단계를 지나 안정된 다음, 단번에 당신을 점오 상태로 밀어준다. 이 점오 상태 중에서 당신의 천목은 아주 높게 열릴 것이며, 당신은 아주 많은 공능이 나올 것이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진정으로 수련하면 금방 들어서기만 해도 곧 아주 많은 공능이 나타날 것인바, 당신은 이미 그렇게 높은 층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능이 상당히 많다. 최근 우리 많은 사람에게 아마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또 일부 사람, 그는 높게 수련하지 못하는데, 그 자신이 휴대한 것과 그 자신의 인내력을 한데로 결합한 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은 아주 낮은 층차에서 개공개오(開功開悟)하고 철저히 개오(開悟)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은, 일단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당신은 절대로 그를 무슨 대단한 각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이는 수련에서 아주 엄숙한 문제로서 오직 이 대법(大法)에 따라 해야만 비로소 옳은 것이다. 남의 공능이라든가 신통이라든가를 보지 말아야 하는데, 일부 것을 보면, 당신은 곧 그를 따라갈 것이고, 곧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은 그를 해칠 수도 있는데, 그는 환희심이 생겨날 수 있어 최후에는 자신의 어떤 것도 다 잃어버리고 단혀버려, 결국 떨어져 내려가게 된다. 개공해도 떨어져 내려갈 것이며, 파악하지 못하면 개오해도 떨어져 내려갈 것이다. 그 부처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역시 아래로 떨어지는데, 하물며 당신은 속인 중에서 수련하는 사람임에랴!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공능, 얼마나 큰 공능이 나왔든지, 신통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든지, 당신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최근 우리 어떤 사람은 여기에 앉았다가 없어지며 잠시 후에 그는 또 나타나는데 곧 이러하며 더 큰 신통도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은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수련생, 제자로서 장래에 이런 일들이 당신 자신에게 나타나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든지, 당신은 그를 숭배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마음이 변하기만 하면 곧바로 끝장이며 당신은 떨어지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단지 신통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다. 적어도 당신은 이 문제에서 떨어져 내려간 것이므로, 여러분

은 이 문제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이미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았는데, 이런 일이 아주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며, 일단 나타났을 때 당신이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된다.

수련하는 사람이 공이 나오고 개공하거나 혹은 진정 개오 해도, 그 자신을 어떠어떠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가 본 것은 그의 이 층차 중에서 본 것이다. 왜냐하면 수련이 이 일보에 이르렀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그의 오성(悟性)이 이 일보에 도달했고, 그의心性(心性) 표준이 이 일보에 도달했으며, 그의 지해도 이 일보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높은 층차 중의 것을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본 것만이 비로소 절대적이라고 여기며, 바로 이런 것뿐이라는 인식을 조성할 수 있다. 그것은 아직 차이가 큰 것으로서 그의 층차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일부분 사람은 이 층차 중에서 개공하게 되는데, 더 높이 수련하려 해도 그는 수련해 올라갈 수 없다. 그러므로 다만 이 층차에서 개공개오(開功開悟)할 수밖에 없다. 금후 우리 수련된 사람들은 세간소도(世間小道)에서 개오하는 사람이 있고,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개오하는 사람이 있으며, 정과(正果)를 얻어 개오하는 사람이 있다. 정과를 얻은 개오야말로 최고이며,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모두 볼 수 있고 또한 현현(顯現)할 수 있다. 세간소도의 최저층차에서 개공개오하

더라도 일부 공간, 일부 각자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들과 통
 할 수 있다. 그때에 당신은 득의양양해하지 말아야 한다. 세
 간소도와 저층차상의 개공은 정과를 얻지 못하는데,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는 단지 이 층차 중에 머
 무를 수 있을 뿐이며, 이후에 더욱 높은 층차로 수련하는, 그
 것은 나중 일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높이로 수련하고도 개공
 하지 않고 뭘 하겠는가? 당신은 바로 이렇게 위로 수련하는
 데, 수련해도 수련해 올라갈 수 없으므로 곧 개공하게 되며,
 이미 수련이 끝난,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정
 황이 나타나든 꼭 心性(썬썬)을 파악해야 하며, 오로지 대법
 (大法)에 따라 해야만 비로소 진정 정확한 것이다. 당신의
 공능이든 당신의 개공이든 당신은 대법(大法) 수련 중에서
 얻은 것이다. 만약 당신이 대법(大法)을 부차적인 위치에 놓
 고 당신의 신통을 중요한 위치에 놓거나 또는 개오한 사람이
 당신 자신의 이런 인식 저런 인식이 옳다고 여기며, 심지어
 당신 자신이 대단하여 대법(大法)을 능가한다고 여긴다면,
 당신은 이미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위험하며, 갈수록
 더 잘못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정말로 번거
 로워지고 수련이 헛되는데, 잘못하면 떨어져 내려가서 수련이
 헛되고 만다.

내가 또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나의 이 책의 내용은 몇 개
 학습반에서 말한 법을 한데로 합친 것이다. 모두 내가 말한
 것으로서 구절마다 모두 내가 말했고, 모두 녹음테이프에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뽑아냈으며, 한 글자 한 글자씩 옮겨 적은 것인데, 모두 나의 제자, 수련생이 나를 도와 녹음 중에서 받아 쓴 것이고, 그런 다음 내가 다시 한 차례 한 차례씩 수정했다. 모두 나의 법으로서, 내가 말한 것은 바로 이 법이다.

제 7 강

살생 문제(殺生問題)

살생,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하다. 연공인(煉功人)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요구도 비교적 엄격하며, 연공인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佛家)·도가(道家)·기문공법(奇門功法)을 막론하고 또 어느 한 문(門), 어느 한 파(派)든지 오직 정법수련이라면, 모두 그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보며 모두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바, 이 점은 확실하다. 살생 후에 나타나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말해주겠다. 살생은 원시불교 중에서 주로 살인을 가리킨 것으로서, 이것이 가장 엄중한 것이다. 나중에 와서는 큰 생명이나 큰 가축 혹은 조금 큰 생명을 모두 아주 중하게 보았다. 왜 수련계에서 살생 문제를 줄곧 그렇게 엄중하게 보는가? 과거 불교 중에서 말하기를, 죽지 않아야 할 것을 죽이면 고훈야귀(孤魂野鬼)가 된다고 했다. 과거에 초도(超度)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의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초도해 주지 않으면 이런 생명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매우 고생스러운 지경에 처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불교 중에서 한 말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면 그는 곧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크기의 德(터)을 주어 보상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동물이든지 다른 생물이든지, 한 생명을 단번에 종결시킨다면 상당히 큰 업력을 지을 것이다. 살생(殺生)이란 과거에는 주로 살인을 가리켰는데, 업을 지음이 비교적 크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명체를 죽이는 것 역시 가볍지 않아, 직접 아주 큰 업력을 생기게 한다. 특히 연공인(煉功人)은 수련과정 중,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당신에게 조그마한 난(難)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의 업력이고 당신 자신의 난으로서, 부동한 층차에서 당신에게 배열해 당신을 제고하게 한다. 오직 당신이 心性(썬썬)을 제고하기만 하면 곧 넘을 수 있다. 그러나 단번에 이렇게 큰 업력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넘겠는가? 당신의 心性(썬썬)에 의거해서는 당신은 넘을 방법이 전혀 없으며, 당신을 아예 수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발견하기로는, 한 사람이 태어날(降生) 때, 이 우주 공간 중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많고 많은 그가 동시에 태어나는데, 생김새가 그와 같고, 한 이름으로 불리며, 하는 일 또한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그러므로 그들을 그의 정체(整體)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연관되는데, 만약 한 생명체(다른 큰 동물의 생명체도 마찬가지임)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면, 다른 각개 공간의 그는 원래의 특정한 생명노정을 모두 끝까지 견지 못한 것으로서, 아직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죽어버린 이 사람은 곧 귀착(歸宿)할 곳이 없는 경지 중에 떨어져 우주공간 중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과거에 고훈야귀(孤魂野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아주 고생스럽다고 했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하고 확실하게 그가 아주 무서운 지경에 처한 것을 보는데, 그는 줄곧 기다릴 것이며, 각개 공간의 그가 생명의 노정을 모두 마치기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함께 그가 귀착할 곳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그가 겪는 고통도 더욱 크다. 그가 겪는 고통이 클수록 그의 고통을 조성한 업력은 끊임없이 살생자의 몸에 더해진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당신에게 얼마나 큰 업력이 증가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공능을 통해 본 것이다.

우리는 또 이런 정황을 보게 된다: 한 사람이 태어날(降生) 때, 특정한 공간 중에는 그의 일생의 존재형식이 모두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명이 어느 한 부분에 와서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모두 그 속에 있다. 누가 그의 일생을 안배하는가? 아주 분명한데, 바로 더욱 고급적인 생명이 이런 일을 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속인사회 중에서 그가

출생한 후, 이 집에 그가 있고, 학교에 그가 있으며, 또는 성장하여 직장에 그가 있어, 그의 일을 통해 사회와 다방면으로 연계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전반 사회의 구성은 모두 이렇게 배치가 잘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생명체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원래 특정한 안배를 따르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혼란시켰다면 그 고급생명마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고층차로 수련하려 하는데, 그 고층차 중의 생명마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말해 보라. 그가 여전히 수련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부는 이런 일을 안배한 고급생명보다 층차가 높지 않으므로 그의 사부까지도 따라서 재앙을 당할 것인데, 그러면 모두 떨어져 내려와야 한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이것이 보통 문제인가? 그러므로 일단 이런 일을 했다면 수련하기가 아주 어렵다.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는 수련생 중에는 아마 전쟁년대(戰爭年代)에 싸움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전쟁은 전반적인, 큰 천상(天象) 변화가 가져온 일종 상태로서, 당신은 다만 그런 상태 중의 한 분자에 불과하다. 천상변화는 만약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면, 속인사회에 어떤 상태도 가져다줄 수 없으며, 그것을 천상변화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큰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서, 그 일을 완전히 당신 몸에 떠넘길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거나, 개인의 이익을 만족시키

기 위해서거나, 또는 자신의 그 무엇이 영향 받을까 봐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서 가져오는 업력이다. 무릇 전체 큰 공간의 변화와 사회적인 큰 형세의 변화에 관련되는 이것은 모두 당신의 문제에 속하지 않는다.

살생은 아주 큰 업력을 조성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곧 생각한다: 살생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집에서 밥을 짓는데, 내가 만약 죽이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무엇을 먹겠는가? 이 구체적인 문제를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연공인(煉功人)에게 설법하는 것이지 속인에게 어떻게 생활하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대법(大法)으로 가늠하여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속인은 그가 무엇을 하려면 바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속인 중의 일로서, 사람마다 모두 진정으로 수련한다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연공인으로서는 마땅히 높은 표준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연공인에게 제기하는 조건이다.

사람·동물뿐만 아니라 또한 식물에도 모두 생명이 있는데, 다른 공간에서는 어떤 물질이든 모두 생명으로 체현될 수 있다. 당신의 천목이 법안통(法眼通) 층차로 열렸을 때에 당신은 돌·벽,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당신과 말을 하며 인사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양식·채소는 모두 생명이 있고, 또 집에는 파리·모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름철에 물리면 참

으로 괴로워 견디기 어려운데, 거기서 물고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며, 파리가 음식물에 내려앉아 아주 더러운 것을 보면서도 또한 때려잡을 수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데, 우리는 함부로 무고하게 생명(生靈)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역시 너무 소심한 군자가 되어 늘 이런 작은 일에 착안하여 길을 걸어도 개미를 밟아 죽일까 봐 건너뛰면서 다닐 수는 없다. 당신은 사는 것마저 힘든데, 그것 또한 집착이 아닌가? 당신이 건너뛰어 다닌다면 개미를 밟아 죽이지는 않겠지만 많은 미생물을 당신은 또 밟아 죽인다. 미시하에는 또 더욱 작은 생명체가 많이 있으며 또한 진균(真菌)과 세균이 있지 않은가. 당신은 아마 모두 적지 않게 밟아 죽였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수련할 방법이 없다. 큰 것에 착안해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수련해야 한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삶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생활환경 역시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 적합해야 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명(生靈)을 해쳐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또한 이런 작은 일에 너무 얽매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채소와 심은 양식은 모두 생명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또 그것이 생명이 있다고 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을 수 없는즉, 그러면 또 무슨 공을 연마(煉)하겠는가? 마땅히 대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당신이 길을 걷어가는 중에 개미·벌레가 당신의 발밑에 들어가 밟혀 죽었다면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었다. 왜

나하면 당신이 고의로 그것을 해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물계 중 또는 기타 미생물 중에서도 생태평형 문제를 말하는데, 많아지면 역시 범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수련하라고 말한다. 집에 파리·모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버리고 모기장을 쳐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때로는 쫓아도 나가지 않는데, 그럼 때려죽였다면 때려죽인 것이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그것이 사람을 물려하고 사람을 해치려 하므로 당연히 그것을 내쫓아야 하는데, 내쫓지 못한다 하여 그것이 거기에서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당신은 연공인(煉功人)이므로 저항력이 있어 두렵지 않은데, 당신의 가족은 연공(煉功)하지 않고 속인이므로 또 전염병 문제가 있으며, 또 아이의 얼굴을 무는 것을 보고도 상관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겠다. 석가모니에게는 일찍이 이런 고사(故事)가 있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목욕을 하려고 삼림 속에서 그의 제자를 불러 목욕통을 청소하라고 했다. 그의 제자가 거기에 가서 보니 목욕통 안에는 벌레가 가득 기어다니고 있어서 목욕통을 청소하려면 벌레를 죽여야 했다. 제자는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알렸다: 목욕통 안이 온통 벌레입니다. 석가모니는 그를 보지도 않고 한 마디 했다: 자네는 가서 목욕통을 깨끗이 청소하게. 이 제자가 목욕통 거기 가서 보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손을 대기만 하면 벌레는 죽기 때문에 그는 한 바퀴 돌고는 또다시 돌아와서 석가모니에게 물

었다: 사존(師尊)님, 목욕통 안이 온통 벌레여서 만약 손을 대기만 하면 벌레들을 죽이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그를 보며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청소하라는 것은 목욕통이네. 제자는 문득 크게 깨닫고 즉시 목욕통을 깨끗이 청소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데, 벌레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목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모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 밖에 나가서 자리를 찾아 살 수도 없으며, 또한 양식도 생명이 있고 채소 역시 생명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목을 졸라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관계를 바로잡고 정정당당하게 수련해야 하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과 생존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며 또한 수호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람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과거에 일부 가짜 기공사들이 말했다: 초하루·보름에는 살생을 해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이 말했다: 두 다리 가진 것은 죽여도 된다. 마치 이 두 다리 가진 것은 생명이 아닌 듯하다. 초하루·보름에 살생하는 그것을 살생으로 치지 않는다면, 흙을 파는 것으로 치는가. 그런가? 어떤 사람은 가짜 기공사로서 그의 언행에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변별해 낼 수 있다. 무릇 이런 말을 하는 기공사는 흔히 모두 부체(附體)가 있다. 여우부체가 붙은 그 기공사가 닭고기를 먹는 그 모습을 당신이 보라. 그야

말로 게걸스럽게 먹는데 뼈마저도 뻗기 싫어한다.

살생은 중대한 업력을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자비심 문제와 관련된다. 우리 수련하는 사람은 자비심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자비심이 나올 때, 아마 중생이 모두 고생스러워 보이고, 누구를 보아도 모두 고생스러워 보이는, 이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육식 문제

육식 역시 아주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것은 살생이 아니다. 당신들이 법을 배운 지가 이렇게 오래 되었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많은 기공사들이 당신이 학습반에 들어서기만 하면 곧 당신에게 알려 준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갑자기 고기를 먹을 수 없다니,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 오늘 집에서 아마 닭을 삶고, 생선을 구울 텐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도 먹을 수가 없다. 종교 중에서 하는 수련 역시 이리하며, 강제로 먹지 못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불가공과 어떤 도가공 역시 이렇게 말하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우리 여기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역시 이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이 공법은 법이 사람을 연마(法煉人)하는 공법이다. 법이 사람을 연마하는 공법은 바로 일부 상태가 모

두 공(功) 중에서, 법(法) 중에서 체현되어 나올 것이다. 연공(煉功)과정 중에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부동한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날 또는 오늘 내가 강의를 마친 후에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상태로 진입한다: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는데, 냄새를 맡으면 아주 비린내가 나고 먹으면 곧 토하려 한다. 인위적으로 당신을 통제해 당신에게 먹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당신 스스로 통제해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 층차에 이르면 공(功) 중에서 반영되어 나와 먹을 수 없는데, 심지어 당신이 정말로 삼키면 정말로 토하게 된다.

우리 노수련생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면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이며, 부동(不同)한 층차 중에서 부동한 상태를 반영해 낼 것이다. 또 어떤 수련생은 욕망이 비교적 크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며 평소에 고기를 아주 잘 먹는다. 남들이 고기에 대해 아주 비린내가 난다고 느낄 때에도 그는 비린내를 느끼지 못하며 여전히 먹을 수 있다. 그의 이 마음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가 고기를 먹으면 배가 아프고 먹지 않으면 아프지 않은,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인데, 뜻인즉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 한 문이 지금 이후부터는 고기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먹을 수 없음은 진정 내심에서 우러나와 먹지 못하는 것이다. 목적은 무엇인가? 절에서 수련하면서 당

신을 강제로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우리처럼 반영되어 나와서 먹지 못하는 이런 것은 모두 사람의 고기에 대한 이런 욕망과 집착심을 제거하려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은 밥그릇을 들고 만약 고기가 없으면 그야말로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바로 속인의 욕망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장춘(長春) 승리공원 후문을 지나고 있었다. 세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며 후문으로 나오면서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무슨 공을 연마(練)하기에 고기도 먹을 수 없는가. 10년을 적게 산다고 해도 나는 먹어야겠다! 것처럼 강렬한 욕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런 욕망을 제거함이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은가? 정녕코 마땅히 버려야 한다. 사람은 수련과정 중에서 바로 사람의 각종 욕망과 집착심을 없애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고기를 먹는 마음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집착심을 없애지 못한 것이 아닌가? 수련하여 원만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집착심이기만 하면 곧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만 또 오늘 이후로 영원히 먹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며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당신에게서 이런 집착심을 없애려는 것이다. 만약 고기를 먹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당신이 이 집착심을 없앤다면 이후에는 또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냄새를 맡아도 비린내가 나지 않고, 먹더라도 먹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인데, 이때에 당신은 먹어도 괜찮다.

당신이 먹을 수 있을 때, 당신의 집착심은 이미 없어졌으

며, 고기에 대한 욕망의 마음이 이미 없어졌다. 그러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나중에 고기를 다시 먹어도 맛이 없고, 집에서 해놓으면 따라서 먹고, 집에서 하지 않으면 생각나지도 않으며, 먹어도 향긋한 맛이 없는,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속인 중에서 수련함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서, 집에서는 늘 고기 요리를 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당신은 먹어서 맛있음을 다시 느낄 것인데, 이후에 반복하여 나타날 것이며 전반 수련과정 중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나타날 것이다. 갑자기 당신은 또 먹지 못할 것인데, 먹지 못하겠으면 먹지 말라. 정말로 먹을 수 없을 때 먹으면 곧 토하게 되며; 당신이 먹을 수 있을 때를 기다려 먹으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라야 한다.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집착심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관전이다.

우리 法輪大法(파룬따파) 이 한 문(門)은 걷는 것이 비교적 빠르므로 오로지 당신이 心性(썬씽)을 제고하기만 하면 매 층차를 돌파함이 모두 대단히 빠르다. 어떤 사람은 본래 고기에 대해 그다지 집착하지 않으며, 있든 없든 모두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한두 주일을 지속하면 곧 지나가 버리며 이 마음은 닳아서 없어진다. 어떤 사람은 1개월, 2개월, 3개월, 반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데, 극히 특수한 정황이 아니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다시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고기는 이미 사람의 음식 중 주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원(寺院) 중에서 전수(專修)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

서는 안 된다.

우리, 불교 중의 육식에 대한 인식을 말해 보자. 최초의 원시불교는 고기를 가리지 않았다. 당시 석가모니가 제자를 데리고 삼림 속에서 고생스럽게 수련할 때, 고기를 금하는 이 조목 계율이 전혀 없었다. 왜 없었는가? 왜냐하면 당시 석가모니가 2천5백여 년 전 법을 전할 때, 인류사회는 아주 낙후해서 많은 지역에 농업이 있었고, 또 많은 지역에는 아직 농업이 없어 경작 면적이 아주 적었으며 곳곳이 삼림이었다. 곡물이 매우 부족했고 또한 매우 희소했다. 원시사회에서 갓 벗어난 사람들은 주로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많은 지역에서는 육식을 위주로 했다. 석가모니는 사람의 집착심을 최대한도로 제거하게 하기 위해, 그 어떤 재(財)·물(物) 등의 것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으며 제자를 거느리고 밥을 빔고, 탁발을 했다. 남들이 무엇을 주면 바로 그것을 먹었는데,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을 가릴 수 없었으며, 주는 음식 중에는 고기가 있을 수 있었다.

원시불교 중에는 오히려 훈(飧)을 계(戒)한다는 말이 있다. 훈을 계한다는 것은 바로 원시불교 중에서 온 것이나 현재는 육식을 훈이라고 한다. 사실 당시의 훈은 고기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파·생강·마늘 유의 것을 가리켰다. 왜 그것을 훈으로 보는가? 현재 많은 승려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착실한 수련을 중시하지 않아 많은 것을 역시 모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가 전한 것은 ‘계(戒)·정

(定)·혜(慧)’라는 것이다. 계(戒)란 속인 중의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정(定)이란 수련하는 사람이 완전히 선정(禪定) 중이나 가부좌 중에서 수련하는 것을 가리키며 완전히 입정(入定)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정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교란과 수련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전부 심한 교란으로 여겼는데, 누가 만약 파·생강·마늘을 먹었다면 냄새가 너무나 심했다. 그때 승려들은 삼림 속, 동굴 속에서 7, 8명씩 둥그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둘러앉아 가부좌를 했다. 누가 만약 이런 것들을 먹었다면 강렬하고도 아주 자극적인 냄새가 날 것인데, 가부좌에 영향 주고, 사람의 입정(入定)에 영향 주어 사람의 연공(煉功)을 심하게 교란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 한 조목 계율(戒律)이 있었고, 그것을 훈이라고 여겨 이런 것을 먹지 못하게 했다. 인체에서 수련해 낸 많은 생명체는 모두 이 혼탁한 냄새를 아주 꺼린다. 파·생강·마늘은 사람을 자극하여 욕망이 생기게 할 수 있어, 많이 먹으면 역시 인이 박이기 때문에 그것을 훈으로 보았다.

과거에 많은 승려는 아주 높은 층차로 수련한 후, 개공(開功) 또는 반개공(半開功) 상태에 이르러, 수련과정 중의 그런 계율은 역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 물질 자체는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바, 진정 사람을 교란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다. 그러므로 역대 고승(高僧)도 사람들이 육식하는 이 문제는 그 무슨 관건 문제가 아니며, 관건 문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 없는가에 달렸고, 집착심이 없다면 무엇으로 배를 불러도 된다는 것을 보아냈다. 절에서는 바로 이처럼 수련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미 이렇게 하는 데 습관이 되었다. 게다가 이미 단지 계율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이미 사원 중의 규칙과 제도가 되어 아예 먹을 수 없었으며, 이미 이렇게 수련하는 데 습관이 되었다. 우리 제공(濟公)이란 화상(和尚)을 말해 보자. 예술작품 중에서 그를 부각시켰다. 화상은 마땅히 고기를 금해야 하는데 그가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크게 부각시켰다. 사실 제공은 영은사(靈隱寺)에서 쫓겨났기에, 당연히 음식은 그에게 아주 주요한 문제가 되어 생활상 모두 위기에 처했다. 배를 채우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잡히는 대로 먹었다. 오로지 배를 채우기만 하고 어떤 음식물이든지 집착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 거기까지 수련되어 그는 이 이치를 알았다. 사실 제공도 우연히 그렇게 한두 차례 고기를 먹었을 뿐이다. 화상이 고기를 먹었다고 하자 책을 쓰는 사람은 흥미가 일었고, 제목이 사람을 놀라게 할수록 더욱 보고 싶게 하는데, 문예작품이 생활 속에서 오지만 생활보다 높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소문냈다. 사실 진정으로 그 집착심을 제거해 버리면, 배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먹든지 모두 상관이 없다.

동남아 또는 우리나라 남방·양광(兩廣) 일대의 어떤 거사들은 말할 때, 자신은 수불(修佛)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며, 마치 수불이란 이 용어가 너무 유행이 지난 듯해서인지,

그 자신은 재식(吃齋)·채식(吃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채식하여 부처로 수련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불을 이처럼 간단한 것으로 본다. 채식한다 하여 수불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은 다만 사람의 집착·욕망, 곧 이런 마음의 하나이며, 단지 이 마음을 제거했을 뿐이다. 또한 질투심, 쟁투심, 환희심, 과시심, 각종 마음, 사람의 마음이 많은데, 모든 마음과 각종 욕망을 모두 제거해야만 비로소 수련하여 원만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이 고기를 먹는 마음을 제거했다고 해서 수불할 수 있는가? 그 말은 맞지 않는다.

사람은 먹는 문제에서, 다만 고기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에 대해 집착해도 다 안 되며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로 이것을 먹기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욕망으로서, 수련하는 사람이 일정한 정도에 이른 후에는 이런 마음이 없다. 물론 우리의 법이 말하는 것은 아주 높으며, 부동(不同)한 층차에 따라 결합해 말하므로 단번에 이 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은 그것을 꼭 먹고 싶다고 하지만, 진정하게 수련하여 그 마음을 마땅히 제거해야 할 때에는, 당신은 먹을 수 없고, 당신이 먹어도 원래의 맛이 아니며, 무슨 맛인지 모를 수도 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에, 직장의 식당은 늘 손해를 보다가 나중에는 문을 닫았다. 문을 닫자 여러 사람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다. 아침에 요리를 좀 해서 급하게 출근하려니 매우 힘들었다. 때로는 찐빵 두 개를 사고 두부 한 모를 사서 간장을 찼다. 이치대로

말하자면 그렇게 간소(淸淡)한 것이므로 괜찮지 않은가. 늘 먹어도 안 되며 이 마음 역시 제거해야 한다. 당신이 두부를 막 보기만 해도 신물이 돌게 하여, 다시 먹으려 해도 먹지 못하는데, 당신에게 집착심이 생길까 봐 염려되어서다. 물론 이것은 일정한 정도로 수련한 후에나 있을 수 있으며 막 시작할 때에는 이렇지 않을 것이다.

불가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당신은 어느 부처가 술단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 없다. 내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했지만 속인 중의 수련에서 집착심을 제거한 후 장래에는 다시 먹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술은 끊어버린 후 다시 마시면 안 된다. 연공인(煉功人)의 몸에는 모두 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각종 형태의 공이라, 어떤 공능은 당신 신체의 표면에서 현현(顯現)하며 모두 순정(純淨)하다. 당신이 술을 마시기만 하면 ‘혹’ 단번에 전부 다 신체를 떠나므로 이 순간 당신의 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누구도 그런 냄새를 꺼린다. 당신이 이 습관에 물든다면 아주 성가시며 술을 마시면 이성을 흐리게 할 것이다. 왜 어떤 대도(大道) 수련은 술을 마셔야 하는가? 그는 그의 主元神(주웬선)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主元神(주웬선)을 마취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술을 즐기기를 목숨과 같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술에 게걸이 들었으며, 어떤 사람은 마셔서 이미 알코올 중독이 되었는데, 마시지 않으면 밥그릇마저도 들지 못하기에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연공인(煉功人)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시면 틀림없이 인(癮)이 박이는데, 그것은 욕망으로서 사람의 은호신경(癮好神經)을 자극하기에 마실수록 인은 더욱 커진다. 한 연공인으로서 우리 생각해 보자. 이런 집착심을 제거함이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마음 역시 없애야 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안 된다. 나는 손님을 접대하거나, 나는 영업 전문 외근사원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나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업 상담을 할 때, 특히 외국인과 영업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할 때, 당신은 음료를 청하고, 그는 생수를 청하며, 그는 맥주를 청한다. 당신을 억지로 마시게 할 사람이 없다. 당신 자신이 자신의 것을 마시는데, 마실 수 있는 만큼 당신은 마시라. 특히 지식인 중에서 이런 일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흔히 이러하다.

담배를 피우는 것 역시 집착이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면 정신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근무하다 힘들거나 또는 글 한 편을 쓰다 힘들어 조금 쉬려고 생각하면 곧 담배를 피우는데, 그는 담배를 피우고 나면 정신이 난다고 느낀다. 사실 그렇지 않으며, 그것은 그가 그렇게 잠시 휴식한 까닭이다. 사람의 사상은 일종의 착각을 조성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일종의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나중에 정말로 일종의 관념이 형성되고 일종의 착각이 형성되어, 당신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마치 당신에게 정신이 나게 한 것처럼 느

끼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며 그것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운 시간이 길어지면 의사가 인체를 해부할 때 기관(氣管)이 모두 검고, 폐 속까지도 검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연공인(煉功人)은 신체 정화(淨化)를 중시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신체를 정화하고 끊임없이 고층차로 발전한다.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도 신체 속으로 집어넣으니, 당신은 우리와 정반대가 아닌가? 그 외에 그것은 역시 강렬한 욕망이다. 어떤 사람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한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그는 정확한 사상을 지도로 삼지 못해서 그렇게 끊어버리려 해도 그리 쉽지 않다. 수련인으로서 당신은 오늘 그것을 집착심으로 간주하여 제거해 보라. 당신이 끊을 수 있는가 없는가 보라. 나는 여러분에게 권한다. 정말로 수련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당신은 담배를 끊도록 하라. 보증코 당신은 끊을 수 있다. 이 학습반의 장(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끊으려고 생각하면 보증코 당신은 끊을 수 있으며, 당신이 또다시 담배를 들고 피운다 해도 제 맛이 아니다. 당신이 책을 봄에 이 한 강의를 보아도 이런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물론 당신이 수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내 생각에 당신은 그것을 마땅히 끊어버려야 한다. 나는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당

신은 어느 불(佛)·도(道)가 거기에 앉아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것을 마땅히 끊어버려야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수련하려 하면, 당신은 그것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당신의 신체를 해치며, 또한 일종의 욕망이기에 우리 수련인의 요구와는 정반대다.

질투심

나는 설법할 때 늘 질투심 문제를 말한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질투심의 표현이 극히 강렬하며, 강렬함이 이미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자신마저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은 질투심이 왜 그렇게 강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역시 근원이 있다. 중국 사람은 과거에 유교(儒敎)의 영향을 비교적 깊이 받아 성격이 모두 비교적 내향적이라, 화가나도 표현하지 않고, 기빠도 역시 표현하지 않으며, 함양(涵養)을 중시하고 참음(忍)을 중시한다. 이미 이렇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 민족은 아주 내향적인 성격을 형성했다. 그는 물론 그의 좋은 점이 있는데, 똑똑함(內秀)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폐단도 있으며 좋지 못한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말법시기에 이르러 이 좋지 못한 부분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질투심을 커지게 할 수 있다.

누가 좋은 일이 있어 나타내면 다른 사람은 그 즉시 질투하는데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느 직장에서나 혹은 직장 밖에서 상을 받았거나 또는 조그마한 좋은 일이 있어도 돌아와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는 마음속으로 평형을 잡지 못한다. 서방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동방질투 또는 아시아 질투라고도 한다. 온 아시아 지역은 모두 중국 유교의 영향을 비교적 깊게 받아 모두 조금씩 갖고 있는데, 유독 우리 중국에서 비교적 강렬하게 표현된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실시했던 절대평균주의와 일부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하늘이 무너져도 다 같이 죽어야 되고,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야 하며, 임금이 올라도 무슨 백분의 몫으로 사람마다 한 몫씩 있어야 한다. 이런 사상은 보기에는 마치 썩 맞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것이다. 사실 어찌 같을 수 있는가? 하는 일이 같지 않고 성심껏 책임지는 정도도 같지 않다. 또 우리 이 우주에는,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얻으면 곧 잃어야 한다는 이치가 있다. 속인 중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많이 일하면 많이 얻으며, 적게 일하면 적게 얻고, 대가를 많이 치르면 마땅히 많이 얻어야 한다고 한다. 과거에 절대평균주의를 실시하면서, 사람이란, 태어날 때는 모두 같은 것인데, 후천적으로 사람을 개조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너무나도 절대적이며, 어떤 것이든 너무나 절대적이면 옳지 않다고 말한다. 왜 사람이 태어남에 남자가 있고 또 여자가 있는가? 생김새 또한 다

르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있고 기형인데,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고층차에서 보면,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의 일생이 거기에 놓여 있는데, 같을 수 있겠는가? 모두 균등하게 하려 하지만 그의 그 인생에는 없는데 어떻게 균등하겠는가? 같지 않다.

서방국가 사람의 성격은 비교적 외향적이어서, 기뻐해도 보아낼 수 있고 화가 나도 역시 보아낼 수 있다. 그는 그의 좋은 점이 있지만 역시 그의 좋지 못한 점도 있는데, 인내(忍耐)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가지 성격이 관념상 다르기에 일을 함에 생기는 효과가 같지 않다. 중국 사람의 경우, 만약 상사가 칭찬하거나 당신에게 어떤 이익을 주면, 다른 사람은 마음속으로 평형을 잡지 못한다. 만약 상여금을 좀 많이 받으면, 혼자 슬그머니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현재는 모범사원 노릇 하기도 힘들다: 당신은 모범사원이니까 잘하지 않는가, 당신은 일찍 오고 늦게 가면서 이 일을 다 하라, 당신은 잘하고 우리는 안 된다. 차가운 조소와 신랄한 풍자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힘들다.

만약 외국에서라면 뚜렷이 다르다. 사장이 오늘 그가 일을 잘한 것을 보고 상여금을 좀 더 준다. 그는 매우 기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한장 한장 센다: 야! 오늘 사장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었다. 싱글벙글하면서 한장 한장씩 세며 여러 사람에게 알리지만 그는 무슨 후과(後果)가 없다. 만약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상여금을 좀 더 받았다고 하면, 상사도 당신

에게 빨리 넣으라고 하며 남에게 보이지 말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어린이가 학교에서 백 점을 맞으면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달음박질하면서 외친다: 나는 오늘 백 점 맞았어요, 나는 백 점 맞았어요! 줄곧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뛰어간다. 이웃들은 문을 열고 외칠 것이다: 야, 톰, 장하구나, 이 녀석. 저기서는 창문을 열고 말한다: 야, 잭, 잘했구나. 이 일이 만약 중국에서 일어났다면, 잘못된다: 나는 백 점 맞았어요, 나는 백 점 맞았어요! 이 어린이가 학교에서 집까지 뛰어가는 데, 그 문을 열기도 전에 그 집 안에서는 벌써 욕부터 나온다: 뭐 대단할 게 있느냐. 그저 백 점 맞은 거 아니냐? 뭐 호들갑 떨 게 있느냐! 누구는 백 점을 못 맞아본 것처럼! 이 두 가지 부동(不同)한 관념은 부동한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질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만약 잘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 그것은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몇 년 전에 절대평균주의를 실행하여 사람의 사상관념을 그야말로 혼란하게 만들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다. 이 사람, 그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두 자신보다 못하다고 느끼는데, 자신은 무엇을 하든 다 잘하며 확실히 대단하다고 느낀다. 그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나에게 공장장·사장을 시켜도 나는 다 할 수 있고, 나에게 더욱 높은 벼슬을 주어도 나는 역시 할 수 있으며, 총리가 된다 해도 내가 보기에는 될 것 같

다. 상사도 이 사람은 정말 괜찮고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동료들까지도 모두 이 사람은 정말로 괜찮고 솜씨가 보통이 아니며 재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부서 또는 그들 사무실의 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다. 어느 날, 잘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도리어 간부로 승진했고, 게다가 그의 상사가 되기까지 했는데, 그는 승진하지 못했다. 그의 그 마음속은 평형을 이루지 못해 위아래로 다니며 불평하는데,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치를 말해 주겠는데, 속인이 인식할 수 없는 이치다: 당신이 보기에선 당신이 무엇을 해도 다 잘하지만 당신의 명(命) 중에는 없으며, 그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의 명 중에는 있기에 그는 간부가 되었다. 속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속인의 생각이다. 더욱 고급적인 생명이 볼 때, 인류사회의 발전은 다만 특정한 발전법칙에 따라 발전함에 불과하므로, 사람의 일생 중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당신의 능력에 따라 당신에게 안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불교 중에서는 업력윤보(業力輪報)를 말하는데, 그가 당신의 업력에 따라 당신에게 안배해 주는 것으로서, 당신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당신에게 德(더)가 없으면 당신은 이 일생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 그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는 德(더)가 커서 높은 벼슬을 하고 큰 부자가 된다. 속인은 이 한 점을 보지 못하기에 그는

를 자신이 마땅히 자신에게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의 일생은 다투고 싸워서 이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입어, 아주 고달프고 아주 힘들다고 느끼며, 마음속은 늘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실망하고 의기소침해져서 노후에 가서는 자신의 온몸을 형편없게 만들어 놓아, 무슨 병이든 모두 생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 수련인은 마땅히 더욱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수련인은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름을 중시하는데, 당신의 것이라면 잃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다뤄서도 얻지 못한다. 물론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모두 그렇게 절대적이라면, 또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것도 일부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연공인(煉功人)으로서 이치상 스승의 법신이 책임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것을 가져가려 해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름을 중시한다. 때로는 당신이 보기에 그 물건이 당신의 것이며 남도 당신에게 이 물건은 당신의 것이라고 알려주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의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최후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당신이 이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바로 집착심으로서, 곧 이런 방법으로 당신에게 이 이익에 대한 마음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바로 이 문제다. 속인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 앞에서 모두 다투고 싸운다.

질투심은 속인 중에서 반영되어 나오는 것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심하며 수련계에도 예부터 반영됨이 비교적 뚜렷하다. 공파(功派) 간에 서로 불복하면서 당신의 공이 좋다, 그의 공이 좋다, 이러쿵저러쿵 홍보는 것도 다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한 층차의 것이다. 서로 다투는 대다수는 모두 부체(附體)가 가져온 난잡한 공으로서 心性(썸썸)은 말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이 연공(練功)을 20여 년간 했지만 공능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연마(練)하자마자 공능이 나오게 되니, 그의 마음은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20여 년간 연공했어도 나는 공능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가 공능이 나오다니, 그는 무슨 공능이 나온다는 말인가? 그는 속으로 화가 나서 참지 못한다: 그의 그것은 부체고 주화입마다! 기공사가 학습반을 열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앉아서도 불복한다. 아, 무슨 기공사인가. 그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난 듣고 싶지도 않다. 기공사는 정말로 그가 말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기공사는 그 자신의 한 문(門)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 그는 무엇이나 다 배워 그 수료증만 해도 한 터미나 된다. 어느 기공사가 학습반을 열든지 그는 다 참가하므로 그가 아는 것은 확실히 많으며, 그 기공사보다도 아는 것이 더 많다. 그러나 무슨 쓸모가 있는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서, 그가 더욱 많이 답을수록, 정보는 더욱 난잡해지고 더욱 복잡해져, 더욱 수련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모두 엉망이 되었다. 진정한 수련은 전일(專一)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편차(偏差)도 나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수도(修道)하는 사람 중에도 역시 이런 반영이 있어 서로 간에 불복하는데, 쟁투심을 버리지 않으면 역시 질투심이 생기기 쉽다.

우리 옛이야기를 하나 하자: 『봉신연의(封神演義)』 중의 신공표(申公豹)가 강자아(姜子牙)를 보니, 늙고 또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원시천존(元始天尊)은 강자아에게 봉신(封神)하게 했다. 신공표의 마음속은 곧 평형을 이루지 못했다: 어쩌서 그에게 봉신하게 하는가? 당신은 나 신공표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라. 내 머리는 베어도 다시 돌아와 붙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봉신하게 하지 않는가? 그는 몹시 질투하여 늘 강자아를 교란했다.

석가모니 그 시대의 원시불교에서는 공능을 말했으나, 현재 불교 중에서는 감히 공능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당신이 만약 공능을 말하면 그는 당신이 주화입마했다고 한다. 무슨 공능인가? 그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현재의 화상(和尚)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도무지 모른다. 석가모니는 10대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목견련(目犍連)을 신통제일(神通第一)이라고 했다. 석가모니는 또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을 연화색(蓮花色)이라고 불렀으며 역시 신통제일이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 들어온 것 또한 마찬가지로서, 역대

로 많은 고승(高僧)이 출현했으며, 달마(達摩)는 중국에 올 때 갈대 하나로 강을 건넜다. 그러나 신통은 역사발전 중에서 갈수록 배척당했다. 주요 원인은 절의 대화상(大和尚)·주지 화상(住持和尚)·방장(方丈) 등 이런 사람들이 꼭 대근기(大根基)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방장이 되었고 대화상이 되었지만, 그것은 속인 중의 직위에 불과하며 그 역시 수련 중의 사람으로서, 그는 다만 전업(專業)적일 뿐이다. 당신이 집에서 수련하는 것은 전업적이지 않다. 수련 성취하고 못하고는 다 그 마음을 수련함에 달린 것이며 모두 같은 것으로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안 된다. 그러나 불을 때고 밥을 짓는 그 소화상(小和尚), 그가 꼭 소근기(小根基)의 사람인 것은 아니다. 소화상은 고생을 겪을수록 더욱 쉽게 개공하며, 그 대화상은 향수(享受)할수록 개공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업력의 전화(轉化)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소화상은 늘 고달프고 힘들어 업을 갚는 것이 빠르며 개오함도 빨라, 어느 날 그가 단번에 개공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개공·개오하거나 또는 반개오하면, 신통이 나오는데, 온 절의 화상들이 모두 와서 그에게 물으며 모두 다 그에게 탄복한다. 그러나 이 주지는 곧 견뎌내지 못한다: 내 이 주지 노릇을 어떻게 하겠는가. 뭐 개오했다고? 그는 주화임마한 것이니 그를 내쫓아라. 사원에서 쫓겨났다.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한인지역(漢地)의 불교 중에서는 감히 공능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 당신이 보라. 제공(濟公)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아미산(峨眉山)에서 통나무를 운반해 오는데, 우물 안에서 한 대 한 대씩 위로 던져 올렸어도, 최후에는 역시 영은사(靈隱寺)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질투심 이 문제는 아주 엄중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 우리가 수련하여 원만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연관되기 때문이다. 질투심을 버리지 못하면 사람이 수련한 모든 마음이 모두 아주 취약하게 변해 버린다. 여기에 한 가지 규정이 있다: 사람이 수련 중에서 질투심을 제거하지 못하면 정과(正果)를 얻지 못하는데, 절대로 정과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은 아마 과거에 아미타불(阿彌陀佛)이 대업왕생(帶業往生)을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겠지만, 질투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방면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조그마한 것은 대업왕생하여 다시 수련하는, 그것은 될 수 있지만, 질투심을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오늘 내가 연공인(煉功人)에게 말한다. 당신은 이렇게 잘못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은 더욱 높은 층차의 수련으로서, 질투심은 반드시 제거해 버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단독으로 내놓고 말한다.

병 치료 문제

병 치료를 말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병 치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法輪大法(파룬파파)의 진수제자(眞修弟子)는 누

구도 남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없으며, 당신이 병을 치료하기만 하면 당신 몸에 갖고 있는 모든 法輪大法(파룬따파)의 것을 나의 법신이 전부 회수할 것이다. 왜 이 문제를 이처럼 엄중하게 보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대법(大法)을 파괴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일단 병을 보면 손이 근질근질해서 누구를 보든지 잡아끌어다 병을 봐주며 자기를 과시하는데, 이것은 집착심이 아닌가? 사람의 수련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수많은 가짜 기공사가 기공을 배운 후에 사람의 병을 봐주려 하는 속인의 심리를 잡고서, 바로 이것을 당신에게 가르쳐 준다. 기를 내보내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웃음거리가 아닌가? 당신도 기(氣)이고 그 역시 기인데, 당신이 기를 내보낸다고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그 기가 당신을 다스릴지도 모른다! 기와 기 사이에는 제약 작용이 없다. 사람이 고층차 중에서 수련할 때 공이 나오는데, 내보내는 것은 고에너지물질로서, 이것은 확실히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병을 제약할 수 있는가 하면, 억제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나, 뿌리째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병을 치료하려면 공능이 있어야 비로소 철저히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매 한 가지 병은 모두 매 한 가지 병에 대한 치료공능이 있으며, 병을 치료하는 공능만 해도 천여 종이나 있다고 나는 말한다. 얼마만한 종류의 병이 있으면 그만큼 종류의 공능이 대처해 치료한다. 이 공능이 없으면, 당신의 손이

어떤 재간을 피운다 해도 그것은 역시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몇 년 간 수련계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었다. 진정하게 나와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한 그런 기공사들, 초기에 나와서 이 길을 닦은 기공사들이 어디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라고 가르쳤는가? 모두 그가 당신에게 병을 제거해 주거나 또는 당신에게 어떠어떠하게 수련하라고 가르쳤으며, 어떠어떠하게 신체를 단련하도록 당신에게 한 세트의 공법을 가르쳤고, 그런 후에 당신 스스로 단련을 통해 병을 제거하도록 했다. 나중에 가짜 기공사가 나와 온통 난장판을 만들었다. 누가 병을 고치려고 생각하면 곧 부체(附體)를 불러올 것인데, 틀림없이 이럴 것이다. 당시의 환경에서 일부 기공사들이 병을 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당시의 그런 천상(天象)에 상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속인 중의 기능이 아니므로 영원히 유지해 나갈 수는 없으며, 그때의 천상 변화가 조성한 것으로서, 바로 그 한 시기의 산물(產物)이다. 후에 와서 무슨 전문적으로 사람에게 병 치료를 가르치면서 함부로 했다. 한 속인이 사흘·닷새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이런 병, 저런 병을 고칠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무릇 이런 것은 모두 부체를 갖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 몸 뒤에 무엇이 얹드려 있는지 아는가? 당신은 부체가 있는데, 당신 자신은 감각이 없고, 당신은 알지 못하며, 당신은 아주 좋다고 여기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여긴다.

진정한 기공사는 여러 해 간고한 수련을 거쳐서야만 비로소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당신은 생각해 보라. 당신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줄 때, 사람에게서 이 업력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강대한 공능이 당신에게 있는가 없는가? 당신은 진수를 전해 받은 적이 있는가? 당신이 사흘이나 이틀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당신 한 속인의 손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가짜 기공사인 그는 당신의 약점을 틀어잡았으며, 사람의 집착심을 틀어잡았다. 당신은 병치료를 추구하지 않는가? 좋다. 그는 병을 치료하는 학습반을 열어 전문적으로 당신에게 치료 수법을 가르친다. 무슨 기침(氣針)이요, 무슨 광조법(光照法)이요, 배출(排)이요, 보충(補)이요, 무슨 점혈(點穴)이요, 무슨 일파조(一把抓)요 하며 명목도 아주 많은데, 목적은 당신의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다.

우리, 이 일파조를 말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본 정황은 이렇다: 왜 사람은 병이 있는가? 그에게 병이 있음과 모든 불행을 조성하는 근본원인은 업력으로서, 그 흑색물질의 업력장(業力場)이다. 그것은 음성(陰性)인 것에 속하고, 좋지 않은 것에 속한다. 그런 좋지 않은 영체 역시 음성인 것으로서, 모두 검은 것에 속하므로 그것은 올라올 수 있는데, 이 환경이 그것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람의 병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며, 이것이 가장 주요한 병의 내원(來源)이다. 물론 또 두 가지 형식이 있다: 하나는 아주 작고 아주 작으며 밀

집도가 아주 높은 그 작은 영체(靈體)로서, 업력덩어리와 같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일종의 수송관을 통해 수송하는 것과도 같은데, 이것은 비교적 보기 드물며, 모두 조상에게서 아래로 누적된 것으로서, 이런 정황도 있다.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것을 말하자면, 사람이 어디에 종양이 자랐고, 어디에 염증이 생겼으며, 어디에 골질증식이 생겼다는 등등이다. 다른 공간에서는 바로 그곳에 한 영체가 얹혀 있는데, 아주 깊은 공간 중에 한 영체가 있다. 일반 기공사는 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특이공능으로는 보지 못하며, 다만 사람의 신체에 검은 기가 있는 것을 볼 뿐이다. 어느 곳에 검은 기가 있으면 바로 그곳에 병이 있다는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검은 기는 병을 조성하는 근본원인이 아니며, 더욱 깊은 한 공간 중에 그런 영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보내 이 장(場)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출하거나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배출해 보라! 잠시 후면 그것이 또 생기는데, 어떤 것은 힘이 커서, 배출되자마자 당겨져 되돌아오며,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어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다.

특이공능에 근거해 볼 때 어느 곳에 검은 기가 있으면 병기(病氣)라고 인정하며; 중의(中醫)가 보면 바로 그곳에 맥이 통하지 않고, 기혈이 통하지 않으며, 맥이 막혀 있고; 양의(西醫)가 보면 바로 그곳에 궤양·종양이 자라며, 골질증식 또는 염증이 생겼다는 등 일부 현상인데, 그것이 이 공간에 반영되면 바로 이런 형식이다. 당신이 그것을 떼어버린 후 당신은

곧 이쪽의 신체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한다. 무슨 요추추간판탈출증, 골질증식도 당신이 그것을 떼어버리고 그 장(場)을 쳐서 내보내면 당신은 즉시 나아지는 것을 발견한다. 당신이 다시 X선 사진을 찍어보면 아무런 골질증식도 없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것이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흘이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닷새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며 당신에게 일파조를 가르친다. 당신이 잡아 보라, 내가 좀 볼 테니! 사람은 가장 약하며 그 영체는 대단히 사납다. 그것이 당신의 대뇌를 통제해 당신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며, 아주 쉽사리 당신의 명(命)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이 그것을 잡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잡겠는가? 당신 이 속인의 손은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는데, 당신이 거기에서 헛손질을 하면 그것은 당신을 상관하지도 않고 또 잡으려 헛손질하는 것이 매우 가소롭다고 그것은 뒤에서 당신을 비웃으며; 당신이 만약 정말로 그것을 건드린다면 그것은 즉시 당신의 손을 상하게 하는데, 그건 정말로 상하는 것이다! 나는 과거에 일부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양 손이 못쓰게 되지도 않았으며, 그 어떤 검사를 해봐도 신체에는 병이 없고 두 손에도 병이 없었지만, 손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축 처져 있었는데, 이런 환자까지도 나는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다른 공간의 그 몸이 상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불구가 된 것이다. 당신은 그 몸까지도 상했는데, 그래 불구가 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묻는다: 스승님, 저는 불임수술

을 했고, 또 뭘 떼어버렸는데, 제가 연공(煉功)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모두 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른 공간의 당신의 그 몸은 수술을 하지 않았으며, 연공은 그 몸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방금 말했지만, 당신이 그것을 잡을 때 당신이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면 그것도 당신을 상관하지 않으며; 당신이 그것을 건드리면 그것은 곧 당신의 손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국가의 대형 기공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나는 북경(北京)에서 일부 제자들을 데리고 동방건강박람회에 참가했다. 두 차례 박람회에서 우리들은 모두 가장 뛰어났다. 제1차 박람회에서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는 명성공파(明星功派)라는 영예가 주어졌고, 제2차 박람회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야말로 어쩔 방법이 없었다. 다른 전시장에는 사람이 얼마 없었지만, 우리 전시장 주위에는 빼곡하게 차 있었다. 세 줄로 섰는데, 첫 줄엔 아침 일찍 오전 번호가 다 나갔고, 둘째 줄은 오후 번호를 받으려고 기다렸으며, 다른 한 줄은 내가 서명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지 않는데 왜 이것을 했겠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의 대형 기공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에 공헌하기 위해 우리는 참가했다.

나는 나의 공을 내가 데리고 있는 제자에게 매 사람마다 한 뭉씩 나누어 주었는데, 모두 백여 종의 공능을 합성한 에너지덩이였다. 그들의 손을 모두 봉해 주었는데, 이렇게 해도 어떤 제자의 손은 여전히 물려서 터지고, 물려서 물집이 생기

거나 물려서 피가 나는, 그런 일이 늘 나타났다. 그런 것들은 모두 그렇게 사나운데, 당신 생각에 당신 속인의 손으로 당신이 그것을 감히 건드릴 수 있겠는가? 게다가 당신은 그것을 잡지도 못하는데, 그런 공능이 없으면 또한 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에서 당신이 뭘 하려고 하여 당신의 머리가 생각만 해도 그것이 알기에, 당신이 그것을 잡으려 하면 그것은 미리 도망쳐 버린다. 환자가 문을 나설 때를 기다려 그것은 바로 또 올라가고, 병은 재발한다. 만약 손을 대어 그것을 다스리려면 이런 공능이 있어야 하는데, 손을 내밀기만 하면 ‘탁’ 거기에 고정된다. 고정된 후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공능이 있는데, 과거에는 섭혼대법(攝魂大法)이라 했으며, 그런 공능은 더욱 대단하여 사람의 온元神(웬션)을 끌어낼 수 있어, 그 사람은 즉시 움직이지 못한다. 이 공능은 겨냥성이 있으며, 우리는 바로 이것을 겨냥하여 잡는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래불(如來佛) 손 안의 그 사발이 이렇게 한번 비추기만 하면, 당신이 볼 때 손오공이 그렇게 크지만 단번에 조그마한 점으로 변해버린다. 이 공능은 이런 한 가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영체(靈體)가 얼마나 크든지, 영체가 얼마나 작든지, 단번에 쳐서 손에 잡아 쥐면 곧 아주 작게 변해버린다.

그 외에 손을 환자의 육체 속으로 밀어 넣었다가 다시 잡아 쥐어 내온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속인사회의 사람의 사유를 모두 혼란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전혀 안 되며,

할 수 있어도 이렇게 해서 는 안 된다. 그가 밀어 넣는 것은 다른 공간의 그 손이다. 그의 심장에 병이 있다고 하면, 이 손을 심장부위에 대고 잡아 질 때, 다른 공간의 그 손이 들어간다. 순간적으로, 아주 빨리 잡아 쥔 다음 당신의 바깥 손이 잡기만 하면, 두 손을 한데 합쳐 곧 손에 잡게 된다. 그것은 매우 사나워, 어떤 때는 손에 잡아 쥐어도 움직이며 안으로 파고드는가 하면, 때로는 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소리를 지른다. 당신이 보기에 손에 잡은 것이 그렇게 작지만 손을 놓으면 아주 크게 변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능이 없으면 전혀 건드리지 못하며,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물론 장래에는 기공으로 병을 치료하는 이런 형식, 그것이 존재하게 할 수도 있으며, 과거에도 줄곧 존재했다. 그러나 반드시 조건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람은 반드시 수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련과정 중에 그가 자비심에서, 그가 소수의 좋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주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위덕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이 업(業)을 철저히 없애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난(難)은 여전히 있고, 다만 특정한 병이 나았을 뿐이다. 일반 소기공사, 그는 수련하여 득도(得道)한 사람이 아니기에 다만 그 사람에게 뒤로 미뤄줄 수 있으며, 또한 전화(轉化)해 줄 수 있어 다른 재난으로 전화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뤄놓는 과정을 그 본인은 모를 수 있다. 만약 공법을 수련한 것이 副意識(푸이스)라면 그

의 副意識(푸이스)가 한다. 어떤 공법의 연공인(練功人)은 아주 유명한 것 같지만, 명성이 자자한 많은 대기공사, 그는 공이 없으며, 공은 모두 副元神(푸웬션) 몸에 있다. 다시 말해서 수련과정 중에 이렇게 함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층차 중에 지속(持續)되고 있어, 연마(練)하기만 하면 십몇 년인데, 몇십 년이 되어도 이 층차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늘 사람에게 병을 봐주고 또 병을 봐주곤 한다. 그가 이 층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함을 허용한다.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제자는 절대로 병을 봐서는 안 된다. 환자에게 이 책을 읽어 주어, 만약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업력의 크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도 다르다.

병원 치료와 기공 치료

우리, 병원 치료와 기공 치료에 관계되는 문제를 말해 보자. 일부 양의사들은 기공을 승인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견해는 이렇다. 기공이 병을 볼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병원을 해서는 뭘 하겠는가? 당신들이 우리 병원을 대신하라! 당신들 기공은 손만 대면 이 병을 낫도록 치료할 수 있으며 또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거나 입원할 필요도 없으니 우리 병원을 대신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 말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으며 너무나 억지를 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공을 요해(了解)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기공이 병을 보는 것은 속인 중의 치료 방법과 같을 수 없는데, 그것은 속인 중의 기능이 아니며, 그것은 초상(超常)적인 것이다. 그러면 초상적인 것이 광범위하게 속인사회를 교란한다면 그것을 허용할 수 있겠는가? 부처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한 부처가 손을 한 번 휘저으면 온 인류의 병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그는 왜 하지 않는가? 게다가 그렇게 많은 부처, 그가 왜 자비심을 베풀어 당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가? 왜냐하면 속인사회는 바로 이러하고, 생로병사는 바로 이런 상태로서, 모두 인연관계가 있으며, 모두 업력윤보(業力輪報)라, 당신이 빛을 쬔으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그를 치료해 주었다면 곧 그 이치를 파괴하고, 모두 나쁜 일을 하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될 말인가? 수련 중의 사람이 자비심에서, 당신이 그렇게 큰 힘이 없어 철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라면, 당신이 병을 보는 것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비심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함을 허용한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진정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해결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속인사회의 상태를 심하게 파괴하는 것이기에,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공이 속인의 병원을 대신하는 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은 초상적인 법이다.

만약 중국 이곳에서 기공 병원을 차린다면, 가령 이렇게 함

을 허용하여 대기공사들이 모두 나와 한다면, 당신이 보라, 어떤 모양이겠는가? 모두 속인사회 이 상태를 수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기공 병원을 차리고 기공진료소·재활센터·요양명승지를 차린다면, 일단 차린 후 그 기공사의 병 치료는 일락천장(一落千丈)이 되며 치료 효과가 즉시 없어진다. 무엇 때문인가? 그가 속인 중에 이것을 차렸기 때문에 반드시 속인의 법과 같은 높이여야 하고, 속인의 상태와 같은 층차 중에 있어야 하며, 그것의 치료 효과는 병원과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병 치료가 안 되며, 그도 병 치료에 무슨 몇 단계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흔히 모두 이리하다.

기공, 그것이 병원을 설립하든지 설립하지 않든지, 기공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 한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기공은 사회에서 이토록 오랜 시간 보급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연공(練功)을 통해 확실히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목적에 도달했다. 그가 기공사에 의해 병이 미뤄졌든 어떻게 되었든, 어쨌든 그 병이 현재는 없어졌다. 즉, 다시 말해서 기공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기공사를 찾아 병을 보는 대다수는 모두 난치병에 속하는데, 병원에 가 봐도 낫지 않자, 대운(大運)이나 만날지 기공사에 게 가본 것이 결국 치료되었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공사를 찾지 않는데, 더욱이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인식했다. 그러므로 기공으로 병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속인사회 중의 다른 일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뿐이다. 광범위하게 간섭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지만, 작은 범위로나 무슨 그리 큰 영향이 없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을 철저하게 낫게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확실하다. 기공 단련으로 스스로 병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병원에서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며, 현재 병원의 치료 효과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물론 그것은 여러 방면의 원인이 있다. 내가 볼 때 가장 주요한 것은 역시 인류 도덕수준의 저하(低下)로서, 이로 인해 조성된 각종 기괴한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다.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가짜 약도 많은데, 모두 인위적인 것으로서, 사회를 이 정도까지 파괴(敗壞)되게 했다. 다들 남을 탓하지 말라. 사람마다 파란을 더 크게 일으키는 작용을 하였다. 그러므로 수련함에 사람마다 모두 고난과 마주칠 것이다.

어떤 병은 병원에서 검사해 내지 못하지만 확실히 병은 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검사해 냈으나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며 모두 보지 못했던 병이므로, 병원에서는 통틀어 ‘현대병’이라고 한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물론 할 수 있다.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어찌 모두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겠는가. 병원은 그래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의 치료 수단은 속인 그 층차의 것에 불과하나 그 병은 오히려 초상(超常)적인 것으

로서, 어떤 병은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병원에서는 병이 있으면 조기에 치료하라고 하지 않는가. 커지면 그는 치료하지 못하며 약의 양이 많아지면 사람은 또 중독된다. 현재의 의료 수준은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과 마찬가지로, 모두 속인 이 한 층차 중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이런 치료 효과다. 한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말해야겠다. 일반적인 기공 치료와 병원 치료는 병의 근본 원인을 조성한 난(難)을 뒤로 미루며, 후반생 또는 이후로 미룰 뿐, 업력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 다시 중의(中醫)를 말해 보기로 하자. 중의가 병을 치료함은 기공 치료와 아주 가깝다. 중국 고대의 중의사는 기본적으로 다 특이공능이 있었다. 손사막(孫思邈)·화타(華佗)·이시진(李時珍)·편작(扁鵲) 등등과 같은 이런 대의학자들은 모두 특이공능이 있었는데, 의서(醫書)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흔히 이런 정화(精華)적인 것이 현재는 비판 받고 있으며, 중의가 계승한 것은 다만 그런 약 처방 또는 경험의 모색(摸索)에 불과하다. 중국 고대의 중의는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서, 발달한 정도는 현재의 의학을 능가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현재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가. CT를 하면 사람의 신체 내부를 볼 수 있고, 초음파를 하며, 사진을 찍고, X선 촬영을 한다. 현대 설비는 대단히 선진적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역시 중국의 고대의학만 못하다.

화타는 조조(曹操)의 머리 속에 종양이 있는 것을 보고 두

개골을 열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고 했다. 조조는 듣자마자 화타가 그의 머리를 자르려 한다고 생각해 화타를 가뒀으며, 화타는 결국 감옥에서 죽었다. 조조가 병이 재발했을 때, 화타가 생각나서 화타를 찾았으나 화타는 이미 죽었다. 후에 조조는 정말로 이 병으로 죽었다. 화타는 어떻게 아는가? 그는 보았던 것이며, 이는 우리 사람의 특이기능인데, 과거의 대의학자는 모두 이런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천목이 열린 후에는 한 면에서 동시에 사람 신체의 네 면을 볼 수 있는데, 앞면에서부터 뒷면·왼쪽 면·오른쪽 면을 볼 수 있고; 또 한층 한층 절편(切片)하여 볼 수 있으며; 또 이 공간을 꿰뚫어 병이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 현재의 의료수단이 도달할 수 있겠는가? 차이가 너무나도 커 천 년은 더 지나야 할 것이다! CT, 초음파, X선도 인체 내부를 볼 수 있지만, 기계는 너무나도 커서 그렇게 큰 것을 몸에 휴대할 수 없으며, 전기가 없어도 안 된다. 그러나 이 천목은 어디를 가든 거기로 가지고 갈 수 있고 아울러 에너지원도 필요 없으니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현재의 약이 어떠어떠하다고 한다. 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 고대의 그런 초약(草藥)은 정말로 약으로 쓰기만 하면 병을 제거할 수 있었다. 아주 많은 것이 실전(失傳)되었으며, 또 아주 많은 것이 실전되지 않아 민간에서 유전(流傳)하고 있다. 내가 치치하얼(齊齊哈爾)에서 학습반을 열 때, 한 사람이 거리에 노점을 차려 놓고 사람들

의 이를 뽑아주는 것을 보았다. 보니 이 사람은 남방에서 왔는데 동북사람과 같은 옷차림이 아니었다.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누가 와도 그는 모두 뽑아 주었는데, 뽑은 이가 그렇게 한 더미나 되었다. 그는 사람에게 이를 뽑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약물(藥水)을 파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약물은 매우 짙은 누런 기(氣)를 내뿜었다. 이를 뽑을 때, 약병 마개를 열고 밖에서 뺨을 사이에 두고 아픈 이에 대고는 사람에게 누런 약물의 기를 몇 모금 빨아들이게 했다. 약물이 얼마 소모되지도 않았는데, 마개를 닫아 거기에 놓았다. 주머니에서 성냥개비 하나를 꺼내어, 한편으로 그의 약을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성냥개비로 이를 살짝 해집으니, 이가 뽑혔는데, 아프지도 않고 피가 좀 묻었을 뿐 출혈도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성냥개비는 만약 힘을 세게 주면 부러지는데, 그는 오히려 성냥개비로 이를 살짝 들춰 뽑아냈다.

중국의 어떤 것은 민간에서 유전(流傳)하고 있는데, 양의 정밀기기는 그것만 못하다고 나는 말한다. 누구의 효과가 좋은지 보자. 그는 성냥개비로 들추기만 하면 빠져 나온다. 양의는 이를 뽑을 때에 먼저 마취약을 놓으며, 이쪽에 찌르고 저쪽에 찔러 주사를 맞는 것도 대단히 아픈데, 마취약이 효과를 낼 때를 기다린 다음 집게로 뽑는다. 반나절이나 뽑다가 잘못하여 뿌리가 속에서 부러졌다. 큰 망치와 끌로 내리치는데, 내리치는 것에 혼비백산할 지경인데다가, 또 정밀한 기기로 뚫는다. 어떤 사람은 뚫을 때 펄쩍 뛰는데, 몹시 아프며,

출혈도 적지 않아 한참을 뺏어내야 한다. 당신이 말해 보라. 누구의 것이 좋은가? 당신이 말해 보라. 누구의 것이 선진적인가? 우리는 표면의 도구만 볼 수 없으며, 그것의 실제 효과를 보아야 한다. 중국 고대의 중의는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서, 현재의 양의는 얼마만한 해가 더 지나도 따라잡지 못한다.

중국 고대의 과학은 우리의 현대 서방에서 배운 과학과는 같지 않으며, 그것이 걷는 것은 다른 한 갈래 길로서 다른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이런 인식방법으로 중국 고대의 과학기술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고대의 과학은 인체·생명·우주를 겨냥하여 직접 이것을 향해 연구했기 때문에 걷는 것은 다른 한 갈래 길이었다. 그때에 배우러 다니는 사람은 모두 가부좌를 중시했으며, 앉음에는 자세를 중시했고, 붓을 잡는 데는 기를 운행하여 호흡함을 중시했으며, 각 업종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淨心) 하고, 호흡 조절(調息)을 중시했는데 전반 사회는 모두 이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중국의 고대 과학을 따라간다면 오늘날의 자동차·기차가 있을 수 있는가? 오늘날의 현대화가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당신이 이런 환경 중에 서서 다른 상태를 인식할 수 없으며, 당신의 사상관념은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사람의 머리 앞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어 무엇을 보려면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공

능도 존재한다. 기차·자동차가 없어도 사람은 거기에 앉은 채
뜰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필요 없다. 그것은 부동(不同)한
사회발전 상태를 가져올 것이며, 이 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다. 외계인의 비행접시는 오고감이 신속(神速)하며, 커질 수
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것들이 걷는 것은 더욱 같지 않
은 발전노선으로서, 또 다른 과학방법이다.

제 8 강

벽곡(辟穀)

어떤 사람은 벽곡(辟穀) 문제를 말한다. 벽곡, 이런 현상은 존재하는 것이며, 수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사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이나 십몇 년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지만 오히려 생활하는 것이 아주 좋다. 어떤 사람은 벽곡을 어느 한 층차 중의 체현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벽곡을 신체를 정화(淨化)하는 행위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층차 중의 수련과정이라고 한다.

사실 모두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찌된 일인가? 벽곡은 실재상 바로 우리가 특정한 환경에서 채용하는 특수한 수련 방법이다.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그것을 채용하는가? 중국 고대, 특히 종교가 아직 건립되기 전에 수련하는 많은 사람이 모두 일종의 비밀수련(密修)·단독수련(獨修), 이런 방식을

채용하여 심산 속에 들어가거나 동굴에 들어가 수련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했다. 일단 이렇게 하면, 그럼 곧 음식물 공급 문제와 연관된다. 만약 그가 벽곡이라는 방법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전혀 수련할 수 없으며, 바로 그 안에서 굶어죽거나 목말라죽게 된다. 내가 중경(重慶)에서 무한(武漢)으로 설법하러 갈 때, 배를 타고 장강(長江)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서, 삼협(三峽) 양쪽 산중턱에 동굴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명산에는 다 이런 것이 있다. 과거에 수련하는 사람은 밧줄을 타고 들어간 후, 밧줄을 끊어버리고 동굴 속에서 수련했는데, 수련해 내지 못하면 그 안에서 죽어야 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바로 이처럼 극히 특수한 환경하에서 그가 채용한 특수한 수련 방법이었다.

많은 공법은 이런 이어받고 전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그것에는 벽곡이 있고; 많은 공법에는 벽곡이 없으며, 우리 오늘날 사회에서 전하는 공법 중 대다수에는 이것이 없다. 연공(煉功)은 전일(專一)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당신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여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것을 대단히 좋다고 느껴 당신도 벽곡을 하려고 하지만 당신이 벽곡을 해서는 뭘 하는가? 어떤 사람은 아주 좋고 신기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자신의 공부(功夫)가 높아서 과시하고 과시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각종 심태의 사람이 다 있다. 설령 이런 방법을 채용해 수련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해 신체를 보충해야 하므로 역시 득보다 실이 더 많

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특히 종교가 건립된 후에는 당신이 절에서 좌선(打禪)·폐관(閉關)을 하더라도 당신에게 차와 밥을 공급하는 사람이 다 있어, 이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는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므로 당신은 전혀 이런 방법을 채용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당신의 그 한 법문에 없으면 당신 역시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로 벽곡을 하려 한다면, 그럼 당신은 얼마든지 수련하도록 하라. 내가 알기로는, 흔히 사부가 고층차로 공을 전하고 진정하게 사람을 이끈다면, 그의 이 한 법문 안에는 벽곡이 있으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급할 수 없으며 모두 흔히 도제(徒弟)를 데리고 비밀수련(密修)·단독수련(單修)을 한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벽곡을 가르치는 기공사가 있다. 벽곡했는가, 못했는가? 최후에는 벽곡을 하지 못했는데 누가 벽곡했는가? 내가 보니 입원한 사람이 적지 않고, 생명 위험이 나타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벽곡이라는 현상은 있는 것이 아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속인사회 이 상태, 그것은 누가 함부로 파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파괴하지 못한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공(練功)하여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장춘(長春) 이곳에서만 누구나 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일을 털었다! 조금하게 밥을 지을 필요도 없다. 농민은 농사

짓느라 고생스럽고 고생스러운데, 모두 먹지 않는다면 이것이 야말로 정말 일을 덜었다. 일만 하고 밥을 먹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인류사회인가? 틀림없이 안 되며, 이런 일이 광범위하게 속인사회를 교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기공사들이 벽곡을 전할 때 아주 많은 위험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벽곡을 추구하는 데에 집착하지만, 그의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았고, 많고 많은 속인의 마음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보고 먹지 않으면 먹고 싶어 하는데, 그의 마음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는 곧 조금해서 음식을 먹으려 하고 욕망이 올라와 곧 먹으려 하는데,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나 먹으면 곧 토하기에 먹을 수 없으며, 이는 곧 정신적 긴장을 조성하여, 무서워서 야단이다. 많은 사람이 입원했으며 많은 사람에게 확실히 생명 위험이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찾아와 나에게 이런 난잡한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하지만 나도 이런 일을 상관하고 싶지 않다. 어떤 기공사는 함부로 하는데, 누가 그에게 이런 지저분한 일을 수습해 주고 싶겠는가.

게다가 당신이 벽곡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당신 자신이 구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고층차 중에서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고 또 무슨 특수한 반응도 아니며, 그것은 다만 특수한 정황에서 채용한 연공(煉功)의 한 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보

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벽곡을 추구하면서 또 그것을 무슨 벽곡·반벽곡(半辟穀)이라 하며 또한 등급까지 나누어 놓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물을 마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과일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두 가짜 벽곡으로서 시간이 길어지면 보증코 모두 안 된다.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은 산굴 속에서 머무르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그것을 진짜 벽곡이라고 한다.

기(氣)를 흠치다

기(氣)를 흠치는 것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호랑이 말만 해도 안색이 변하듯이 겁이 나서 감히 연공(練功)하지 못한다. 수련계의 일부 사람이 주화입마(走火入魔), 기를 흠치는 등등의 현상을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연공하지 못하게 하고, 감히 기공을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만약 이런 설이 없었더라면 더욱 많은 사람이 연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心性(썌썌)이 좋지 못한 기공사는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수련계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다. 우리는, 기는 곧 기라고 말한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혼원기(混元氣), 이런 기, 저런 기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인체에 기(氣)가 있 기만 하면 이 사람은 바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이 한 층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연공인(煉功人)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에게 기(氣)가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은 아직 신체를 고도로 정화(淨化)하지 못했음을 설명하며 바로 병기(病氣)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확실하다. 기를 흠치는 사람 역시 기의 층차 중에 있다. 우리 연공(煉功)하는 사람이 누가 아주 혼탁한 그 기를 가지겠는가? 연공하지 않는 사람의 신체는 기가 아주 혼탁한데, 연공한 후에는 맑고 밝아질 수 있다. 병이 있는 곳은 밀집도가 아주 높은 한 덩어리 흑색물질로 드러날 수 있다. 계속 연마(煉)해 나가서 진정하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했을 때에는 기가 점차적으로 약간 누렇게 변한다. 계속 더 연마하면 정말로 병이 제거되고 또한 기가 없어져, 곧 유백체(奶白體) 상태로 진입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가 있다면 병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연공인(煉功人)인데, 연공하는 사람이 기를 가져서는 뭘 하겠는가? 자신의 신체는 정화가 필요한데, 어찌 또 혼탁한 기를 가지겠는가! 정녕코 가질 수 없다. 기를 가지려는 사람은 역시 기의 층차 중에 있으며, 기의 층차 중에서 그는 어느 것이 좋은 기이고, 어느 것이 나쁜 기인지를 분별해 내지 못하며, 그는 이런 능력이 없다. 또한 당신 신체의 단전(丹田) 속 그 진기(眞氣)를 그는 건드릴 수 없으며, 그 원기(元氣)는 그런 높은 공부(功夫)가 있는 사람만이 건드릴 수 있다. 신체의 그 혼탁한 기를 그에게 흠쳐가게 하라. 뭐 그리 대단할 것이 있는가. 나는 연공(煉功)할 때 기를 부어넣고 싶으면 생각만 해도 잠깐이면 배가 부풀어 오른다.

도가에서는 천자장(天字樁)을 서는 것을 말하고, 불가에서는 봉기관정(捧氣灌頂)을 말하는데, 우주 중에는 기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당신이 하루 종일 안으로 부어넣어도 된다. 노궁혈(勞宮穴)이 열리고 백회혈(百會穴)이 열리면 당신은 안으로 부어넣을 수 있으며, 의념으로 단전을 지키고 손으로 기를 안으로 부어넣으면 잠깐이면 가득 찬다. 당신이 아무리 가득 부어넣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기를 아주 많이 연마(練)했을 때, 손가락 볼록한 곳이 부풀고, 신체가 부풀어 오름을 느낀다. 다른 사람이 곁에 가면 주위에 장(場)이 있는 것을 느낀다. 와, 당신은 연공(練功)을 참 잘 했군. 내가 말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어디 공이 있는가? 여전히 기를 연마한 것으로서, 기가 아무리 많다 해도 공을 대신할 수 없다. 기를 연마하는 목적은 바깥의 좋은 기로써 신체 속의 기를 바꾸어 신체를 정화하기 위함인데, 기를 좀 남겨두어서는 뭘 하겠는가? 당신이 이 층차 중에서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역시 공이 아니다. 당신이 흠친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기를 담은 큰 자루에 불과한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 역시 고에너지물질로 전화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이 두려운가. 그가 정말로 기를 흠치려 한다면 흠치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의 신체에 기가 있다면 병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흠칠 때에 당신의 병기까지도 함께 흠쳐가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역시 기의 이 층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공이 있는 사람은 기를 가지지 않는데, 이것은 틀림없다.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실험해 보자. 정말로 기를 흠치려 한다면, 당신은 거기에 서서 그에게 흠치게 하라. 당신은 이쪽에서 우주 중으로부터 안으로 부어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는 뒤에서 흠친다. 당신이 보라. 이 얼마나 좋은가. 당신을 대신해 신체정화를 빠르게 하여 당신이 ‘충관(沖灌), 충관(沖灌)’ 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그가 내보내는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흠쳤다. 비록 좋지 못한 것을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德(덕)을 손상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당신에게 德(덕)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대류(對流)를 형성하는데, 이쪽에서는 당신의 기를 가져가고, 저쪽에서는 당신에게 德(덕)을 준다. 기를 흠치는 그 사람은 모른다. 만약 그가 안다면, 그는 정말로 감히 하지 않을 것이다!

무릇 기를 흠치는 사람은 안색도 푸르죽죽한데, 모두 이러하다. 공원에 가서 연공(練功)하는 많은 사람은 바로 병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그는 무슨 병이나 다 있다. 다른 사람은 병을 치료할 때에 틀림없이 밖으로 배출할 것이나, 기를 흠치는 사람, 그는 배출조차도 하지 않고 온몸에 넣어서 어떤 병기(病氣)든 다 있는데, 신체 속까지 모두 칠흑(漆黑)이다. 그가 늘 德(덕)을 손상하기에 그의 길도 시커먼데, 업력장(業力場)이 크고 德(덕)이 많이 손상되어, 안팎이 모두 시커멓

다. 기를 흠치는 사람, 그가 만약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 남에게 德(덕)을 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안다면 그는 정말로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를 너무나도 허황하게 말한다: 당신이 미국에 있어도 내가 기를 내보내면 당신은 받을 수 있고, 당신이 담장 밖에 있어도 내가 내보내는 기를 당신은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민감하여 기를 내보내면 받는다. 그러나 거기, 그것은 이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공간으로 가는데, 다른 공간의 여기에는 담장이 없다. 그러면 왜 어떤 기공사가 평지에서 기를 내보내도 당신은 감각이 없는가? 다른 공간 여기에 간격(間隔)이 있기 때문인데, 기는 결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꿰뚫는 힘이 큰 것이 아니다.

진정하게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공(功)이다. 연공인(煉功人)이 공을 내보낼 수 있을 때에 그는 이미 기가 없으며 내보내는 것은 고에너지물질로서, 천목으로 보면 일종의 빛이다. 다른 사람의 몸에 내보내면 매우 뜨거운 감각이 있으며 직접 속인을 제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목적에는 도달할 수 없으며, 다만 억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뿐이다. 정말로 병을 잘 치료하려면 역시 공능이 존재해야 하며, 각종 병은 각종 공능이 대처한다. 극미시하에서 공의 때 한 미립자는 모두 당신 개인의 형상과 똑같다. 그것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모두 영성(靈性)이 있으

며, 고에너지물질인데, 다른 사람이 훔쳐간다면 그것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거기에 있지 않으며 놓아도 놓여 있지 않는데,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릇 진정으로 연공(煉功)하는 사람, 공이 나온 후의 사람은 모두 사부가 책임진다. 그 사부는 당신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남의 것을 가져간다면 그의 사부도 가만있지 않는다.

기(氣)를 채집하다

기(氣)를 훔치는 것과 기를 채집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고층차에서 공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인바, 수련을 위하여 이름을 바로잡아 주어 좋은 일을 좀 하려고 이런 불량한 현상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게 해, 일부 사람들이 늘 나쁜 일을 하던 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사람들, 기공의 진상을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늘 말만 듣고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주의 기는 얼마든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양지기(天陽之氣)를 말하고, 지음지기(地陰之氣)를 말한다. 당신도 우주 중의 한 분자로서 당신이 얼마든지 채집해도 좋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주 중의 기를 채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식물의 기를 채집하는 것을 가르치며 경험까지도

총괄해 냈다. 백양나무의 기는 흰 것이고 소나무의 기는 누런 것이며, 또한 어떠한가 채집하며 어느어느 시간에 채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내가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나무의 기를 채집하여 그것을 죽여 버렸다. 그것을 무슨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진정한 수련은 양성(良性)적인 정보를 중시하며 우주특성에 동화함을 중시하는 것인데, 당신은 선(善)의 문제를 중시해야 하지 않는가?眞(眞)·善(善)·忍(忍), 우주특성에 동화하는 데에는 이 선(善)을 중시해야 한다. 당신이 내내 나쁜 일만 한다면 공이 자랄 수 있겠는가? 병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수련인과 바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 역시 살생이며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당신은 말할수록 더욱 허황하다. 동물을 죽여도 살생이고 식물을 죽이는 것 또한 살생이라고 하다니. 사실인즉, 불교 중에서는 육도윤회를 말하는바, 당신은 육도윤회 중에서 식물로 변할 수 있는데, 불교 중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나무도 생명이 있으며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주 높은 사유 활동을 구비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겠다: 미국에 전문적으로 전자 연구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그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거짓말탐지기의

양극(兩極)을 한 그루 우설란(牛舌蘭)에 연결했다. 그런 다음 난의 뿌리 부분에 물을 주었는데, 그 후 그는 거짓말탐지기의 전자필이 급속히 곡선 하나를 그려내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곡선은 바로 사람의 대뇌가 일종의 흥분이나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 그려내는 곡선과 같았다. 그는 그때 깜짝 놀랐다. 식물이 어떻게 감정이 있단 말인가! 그는 하마터면 거리에 나가 외칠 뻔했다: 식물이 감정이 있다. 이 일에서 계발(啓發)을 받아 그는 잇따라 이 방면의 연구를 전개했으며 많고 많은 실험을 했다.

한번은 그가 식물 두 그루를 나란히 놓고서 그의 학생에게 그 중 한 그루 식물 앞에서 다른 한 그루 식물을 마구 짓밟고, 뭉개어 죽이게 했다. 그런 다음 남은 한 그루 식물을 방 안으로 옮겨 거짓말탐지기에 연결해 놓고, 그의 다섯 명 학생을 밖에서 차례로 들어오게 했다. 앞의 네 학생이 들어왔으나 반응이 없었다. 다섯 번째 학생, 식물을 짓밟은 학생이 들어오자 아직 앞까지 걸어오지도 않았으나 전자필이 즉시 급속하게 곡선 하나를 그려냈는데, 사람이 두려워할 때에야 그려낼 수 있는 이런 곡선이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이 일은 아주 큰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한다: 우리는 여태까지 사람은 고급생명이며 사람은 감각기관 공능이 있어 식별할 수 있고, 대뇌가 있어 분석할 수 있다고 인식해 왔다. 식물이 어찌 식별할 수 있는가. 이렇다면 감각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누가 만약 식물에게 감각기관이 있고, 사유가 있으며, 감정이 있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면, 사람들은 곧 미신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데에 그치지 않으며, 어떤 방면에서는 마치 우리 오늘날의 사람을 초월한 듯하다.

어느 날 그는 거짓말탐지기를 한 그루 식물에 연결한 다음, 그는 생각했다: 어떤 실험을 할까? 내가 불로 그것의 잎을 태워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를 보자. 그가 이렇게 생각하자 아직 불을 붙이기도 전에 그 전자필은 곧 급속히 곡선 하나를 그려냈는데, 바로 사람이 목숨을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나 비로소 그려낼 수 있는 곡선이었다. 이런 초감각 공능을 과거에는 타심통(他心通)이라고 했으며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 본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류는 모두 퇴화되고 있어, 당신 역시 새롭게 수련해서 반본귀진하여 당신의 선천적 본성으로 되돌아가야만, 당신은 비로소 구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구비하고 있으며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그것은 알고 있는데,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확실하고 확실한 과학 실험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또 원거리 원격조종 공능도 있었다. 그의 논문은 발표 이후,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각 나라의 식물화학자들이 모두 이 방면의 연구를 전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무슨 미신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지난번에 이런 한 마디 말을 했다. 우리 인류에게 오늘날 발생했고, 발명되었으며, 발견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오늘날의 교과서를 고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전통 관

념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또 이런 것들을 계통적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동북(東北)의 어느 공원에서 한 소나무 숲이 죽어버린 것을 보았다. 일부 사람들은 또 무엇을 연마(練)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온 땅을 텅굴고, 텅군 다음에는 발로 이렇게 채집하고 손으로 그렇게 채집하여, 그 소나무 숲은 오래지 않아 누렇게 되었고 모두 죽어버렸다. 그러면 당신은 좋은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일을 한 것인가? 우리 연공인(煉功人)의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살생이다. 당신이 연공인이라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우주특성에 동화하여 당신의 그런 좋지 않은 것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속인의 각도에서 본다면 해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공공물을 파괴하고, 녹화(綠化)를 파괴하며, 생태평형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어느 각도에서 말하든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 중에는 기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당신이 얼마든지 채집해도 좋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아주 커서, 일정한 층차로 연마(練)한 후에 그야말로 손을 한번 휘젓기만 하면, 아주 큰 범위 내의 식물의 기를 단번에 채집해 온다. 그것 역시 기에 불과한데 아무리 많이 채집한들 뭐가 어떻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공원에 가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나는 연공(練功)할 필요 없이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나는 곧 연마(練)가 끝난다. 기를 얻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는 기를 바로 공이라 여긴다. 다

른 사람이 그의 곁에 가면 그의 신체에서 서늘함을 느낀다. 그 식물의 기는 음성(陰性)이 아닌가? 연공인(煉功人)은 또 음양평형을 중시하는데, 그의 몸에는 온통 송진 냄새지만 그 래도 자신이 연마(練)를 잘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연공(煉功)하면 바로 그가 공(功)을 얻는다

누가 연공(煉功)하면 바로 그가 공을 얻는 문제는 극히 관 건적인 문제다. 다른 사람이法輪大法(파룬따파)는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고 하면, 나는,法輪大法(파룬따파)는 공이 사람을 연마함(功煉人)에 도달할 수 있어 연공 시간을 단축하며, 시간이 없어 연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온종일 끊임없이 공에 의해 연마되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동시에 우리는 또 진정한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으로서, 우리 이 물질신체는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된다.法輪大法(파룬따파)는 최대 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과거에 나는 내내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비로소 우리는 말한다. 그것은 아주 큰 역사연원(歷史淵源)의 문제에 연관되며 수련계에 영향 주는 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사상 여태껏 감히 계시(揭示)해 낸 사람이 없었고, 또 그들이 계시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제자는 말한다: 리홍쯔 대사(李洪志大師)님께서 말씀하신 한 마디 한 마디가 천기(天機)이며, 천기를 누설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하게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으로서, 바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책임져야 하며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로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말하겠다: 즉 누가 연공(煉功)하면 바로 그가 공을 얻는 문제다. 내가 보기에, 현재 모든 공법은, 역대의 불도(佛道) 양가(兩家)와 기문공법(奇門功法)을 포함하여 모두 사람의 副元神(푸웬션)[副意識(푸이스)]을 수련했으며, 모두 副元神(푸웬션)이 공을 얻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主元神(주웬션)은 바로 자신의 사유(思維)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신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당신 자신이다. 그러나 副元神(푸웬션)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은 전혀 모른다. 비록 그와 당신이 동시에 태어났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동일한 신체를 주재(主宰)하고 생김새도 같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는 또 당신이 아니다.

이 우주 중에는 누가 잃으면 바로 그가 얻고, 누가 수련하면 바로 그가 공을 얻는다는 이치가 있다. 역대의 공법은 모두 사람이 연공(煉功)할 때에 흐리멍덩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며, 그런 다음 깊이 입정(入定)하여 최후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를 때까지 정(定)에 들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어떤 사람은 가부좌를 세 시간 해도 마치 한순간과도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또 그의 정력(定力)에 탄복한다. 사실 그가 연마

(煉)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자신도 전혀 모른다. 특히 도가공법 중에서는 말한다: 식신(識神)은 죽고 元神(웬선)이 산다. 그가 말하는 식신을 우리는 主元神(주웬선)이라 하고, 그가 말하는 元神(웬선)을 우리는 副元神(푸웬선)이라 한다. 당신이 정말로 식신이 죽었다면 당신은 진정 죽어버린 것이고, 主元神(주웬선)이 정말로 없어진 것이다. 다른 공법을 연마(練)했던 사람이 말했다: 스승님, 저는 연공(練功)할 때에 집안사람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말한다: 저는 결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연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 소파에 눕기만 하면 저 자신은 곧 나가서 연공하는데, 저는 누워서 그가 연공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슬프다. 그러나 또 슬프지도 않다!

남들은 왜 副元神(푸웬선)을 제도하는가? 여동빈(呂洞賓)의 한마디 말이 있다: 동물을 제도할지언정 사람을 제도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정말로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왜냐하면 속인은 속인사회에 미혹되어 현실이익 앞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믿지 못하겠으면 보라. 어떤 사람은 강의를 다 듣고 강당을 나가면 바로 속인으로 변한다. 누가 만약 그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그에게 집적거리거나 하면 그는 가만있지 않는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예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지 않는다. 역사상 수도(修道)하는 많은 사람이 모두 이 점을 보았다. 사람을 제도하기

란 아주 어려운데, 바로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이 너무나도 미혹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오성(悟性)이 좋아 점화해 주자마자 바로 깨닫는다.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 주어도 그는 다 믿지 않으며, 그는 당신이 큰소리만 친다고 여긴다. 우리가 이렇게 그에게 心性(썬썬)을 수련하라고 하지만, 그는 속인 중에 가기만 하면 여전히 제멋대로다. 그는 속인 중의 그 확실하고 확실하며,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요만한 이익이 그래도 실익이므로 이것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들어보면 역시 이치가 있지만, 해낼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의 主元神(주웬선)은 가장 제도하기 어렵지만, 副元神(푸웬선), 그는 다른 공간의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구태여 당신의 主元神(주웬선)을 제도할 것이 뭐 있는가. 그 역시 당신인데 내가 그를 제도해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모두 당신으로서 누가 얻어도 얻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두 당신이 얻는 것이다.

나는 그의 구체적인 수련방법을 말하겠다. 사람이 만약 요시공능(遙視功能)이 있다면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 당신이 가부좌하여 당신이 정(定)에 드는 일순간에 ‘혹’ 당신의 신체 속에서 당신과 생김새가 똑같은 또 한 명의 당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한번 분별해 보라. 당신의 자아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앉아 있다. 당신은 그가 나간 후에 사부가 그를 데리고 사부가 연화(演化)해 낸 한 공간 속에서 수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과거의 사회형식일 수도 있

고, 현재의 사회형식일 수도 있는가 하면, 다른 공간의 사회형식일 수도 있다. 그에게 연공(煉功)을 가르쳐 그는 고생을 적지 않게 겪는데, 매일 한·두 시간씩이다. 그가 연공을 마치고 돌아오면 당신도 출정(出定)한다. 이것은 그나마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볼 수 없다면 더욱 슬픈 것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떨하게 두 시간 정(定)에 들었다가 출정한다. 어떤 사람은 자는데 한번 잠이 들면 두·세 시간이라, 그도 연공을 끝냈다고 하지만 완전히 남에게 맡겼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완성한 것으로서, 매일 가부좌를 이렇게 장시간 한다. 또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은 달마의 면벽 9년(達摩面壁九年)을 들었을 것인데, 과거에 많은 승려가 한번 앉으면 몇십 년이라, 역사상 기록에서 가장 긴 것은 90여 년이나 되는데, 더 긴 경우도 있다. 눈까풀 위에 먼지가 아주 두툼하게 쌓이고, 몸에 풀까지 자라났어도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다. 도가 역시 이것을 말하는데, 특히 일부 기문공법(奇門功法)에서는 잠자는 것을 말하며, 한번 잠들면 몇십 년 동안 출정(出定)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연마(煉)했는가? 그의 副元神(푸웬선)이 나가서 연마했다. 만약 그가 볼 수 있다면 사부가 副元神(푸웬선)을 데리고 연마하는 것을 볼 것이다. 副元神(푸웬선) 역시 아주 큰 업력을 빚질 수 있는데, 사부는 업력을 전부 없애버릴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에게 알려 준다: 자네는 여기에서 연공(煉功)을 잘 하도록 하게. 내가 나갔다

가 잠시 후에 올 테니 자네는 날 기다리도록 하게.

사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백히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 결국 마(魔)가 와서 그를 위협하고 미녀로 변하여 그를 유인하며, 어떤 일이든 다 있다. 보니 그가 정말로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副元神(푸웬션)은 수련하기가 비교적 쉬우며 그가 이 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마(魔)는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 하며, 복수를 하여 한을 풀기 위해 정말로 그를 죽이는데, 이렇게 하여 빚을 전부 갚는다. 살해된 후, 副元神(푸웬션)은 가물가물하게 마치 한 가닥 연기처럼 나왔다. 또 전생(轉生)하여 매우 가난한 집에 탁생(托生)했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겪으며 자라서 철이 들었을 때 사부가 왔으나 그는 당연히 알아보지 못한다. 사부가 공능으로 그의 저장된 사유를 열어 놓자 단번에 생각났다. 이 분은 사부님이 아니신가? 사부는 그에게 알려 준다: 이제 됐어, 연마(煉)할 수 있네. 이렇게 수많은 해를 거쳐서 사부는 그의 것을 그에게 전해 주었다.

다 전한 다음 사부는 또 그에게 알려 준다: 자네는 많은 집착심을 제거해야 하니 자네는 나가서 행각하게나. 행각은 무척 고생스러운 것으로서, 사회 중에서 다니며 동냥을 해야 하는데, 각종 사람과 마주치게 된다. 그를 비웃고,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를 우롱하는데, 어떤 일에든 모두 부딪힐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여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바로잡으며, 心性(썬썬)을 지키고, 끊임없이 心性(썬썬)

을 제고해 속인의 각종 이익의 유혹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여러 해를 거쳐 그는 행각하고 돌아왔다. 사부가 말했다: 자네는 이미 도를 얻었고 원만(圓滿)하였네. 다른 일이 없으니 자네는 돌아가 떠날 준비를 하도록 하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자네는 속인 중의 일을 끝마치도록 하게. 이리하여 여러 해 후에 副意識(푸이스)가 돌아왔다. 그가 돌아오자 이쪽 그의 主元神(주웬선) 역시 정(定)에서 나와 主意識(주이스)가 잠에서 깨어난다.

그렇지만 그는 확실히 수련하지 않았고, 남인 副元神(푸웬선)이 수련했으므로 副元神(푸웬선)이 공을 얻었다. 그러나 主元神(주웬선)인 그 역시 고달팠다. 그는 결국 거기에 앉아서 온 청춘을 모두 보냈으며, 속인의 세월이 전부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는 그가 출정(出定)하자마자 자신이 공을 연마(煉)해 냈으며 공능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병을 치료하려 하고, 무엇을 하려 하면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副元神(푸웬선)이 그를 만족시켜 준다. 왜냐하면 그가 필경은 主元神(주웬선)이며 主元神(주웬선)이 신체를 주재(主宰)하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을 그는 여기에 앉아서 일생을 모두 보냈다. 생을 마친 후 副元神(푸웬선)은 떠나가게 되는데,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불교의 말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육도(六道)에 들어가야 한다. 그의 몸에서 대각자를 수련해 냈으므로 그 역시 큰 德(더)를 쌓은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세(來世)에 높은 벼슬을 하고, 큰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다. 단지 이럴 뿐인데 그렇다면 헛되게 수련하지 않았는가?

이런 일을 우리가 내놓고 말하게 된 것도 아주 많은 곡절을 거쳐서야 비로소 동의를 얻은 것이다. 나는 천고의 수수께끼,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밀 중의 비밀을 계시(揭示)했으며, 역대로 수련하는 각종 수련방법의 밑뿌리까지 모두 계시해 냈다. 내가 역사적인 연원(淵源)과 아주 깊게 연관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런 이유이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어느 가(家), 어느 문(門)이든 이렇게 수련하지 않는가? 당신 자신이 수련하고 수련해 당신이 공이 없다면 당신은 슬프지 않은가! 그렇지만 또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사람은 바로 그렇게 미혹되고 좀처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점화(點化)해도 안 된다. 높게 말하면 듣기에 허황하고, 낮게 말하면 깨닫지를 못한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나에게 그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수련을 말하며, 고층차로 수련해야만 책임져 줄 수 있다.

우리 이 한 법문은 主意識(주이스)가 공을 얻는다. 그러면 당신이 主意識(주이스)가 공을 얻는다고 하면 主意識(주이스)가 공을 얻는가? 누가 허용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며, 그것은 반드시 선결조건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이 한 법문은 속인사회를 피하지 않고 수련한다. 모순을 피하거나 모순에서 도망치지도 않으며; 속인의 이 복잡한 환

경 중에서 당신은 또렷한 정신으로 이익 문제에서 명명백백하게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절취당할 때에 당신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투고 싸우지 않으며; 각종 心性(심성)의 교란 중에서 당신은 손해를 보며; 당신은 이런 간고한 환경 중에서 당신의 의지를 연마(魔煉)하고, 당신의 心性(심성)을 제고하여, 속인의 각종 좋지 않은 사상의 영향하에서도 당신은 초탈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명명백백하게 고생을 겪는 것은 당신이 아닌가. 대가를 치른 것은 당신의 主元神(주원선)이 아닌가. 속인 중에서 당신이 잃는 것은, 당신이 명명백백하게 잃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공은 마땅히 당신이 얻어야 하며, 누가 잃으면 바로 그가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왜 우리 이 한 법문이 속인의 이 복잡한 환경을 이탈하지 않고 수련하는가 하는 까닭이다. 왜 우리는 속인의 모순 중에서 수련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 공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래에 사원에서 수련하는 전수제자(專修弟子)는 반드시 속인 중에 가서 행각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현재 다른 공법도 속인 중에서 연마(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보급하는 것으로서, 진정하게 고층차로 수련하는 공법은 단독으로 전하는 외에 공개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없다. 진정하게 도제(徒弟)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미 도제를 모두 데리고 가서 비밀리에 전하고 있다. 이

여러 해에 대중들 앞에서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말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이 한 법문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수련방법이기에 바로 이렇게 공을 얻는다. 동시에 우리 이 한 문(門)이 넣어주는, 수천, 수만도 넘는 것을 전부 당신의 主元神(주웬선)에게 넣어주며, 진정하게 당신 자신이 공을 얻게 한다. 내가 말하는데 나는 앞서 사람들이 여태껏 하지 못한 한 가지 일을 하였으며, 가장 큰 문을 열어 놓았다. 나의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나는 정말로 허황하게 말하지 않는다. 나 이 사람은 한 가지 습관이 있어, 나에게 한 장(丈)이 있으면 나는 한 자[尺]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내가 허풍을 떠다고 해도 좋다. 사실 이것은 조금만 말했을 뿐이며, 더욱 높고 깊은 대법(大法)은 층차가 너무나도 차이 나므로, 나는 전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말해 줄 수 없다.

우리 이 한 법문은 바로 이렇게 수련하는 것으로서, 진정하게 당신 자신이 공을 얻게 한다. 이는 천지개벽 이래 처음으로, 당신은 역사에서 찾아봐도 된다. 좋은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 공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아주 어렵다. 속인의 복잡한 환경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心性(썬썬) 마찰 중에서, 당신이 남달리 뛰어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어렵다. 어려운 것은 바로 당신이 속인의 이익 중에서 명명백백하게 손해를 볼 때, 절실한 이익 앞에서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혈뜬고 싸우는 중에서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친척이나 친한 친구가 고통을 겪을 때 당신이 마음을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당신이 어떻게 가늠하는가 하는 것인데,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는 바로 이처럼 어렵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스승님, 속인 중에서 좋은 사람이 되면 그만이지, 누가 수련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듣고 정말로 상심했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心性(썬썬)이든 모두 있으며, 그가 얼마만큼 높이 깨달을 수 있으면 곧 그만큼 높이 깨달으며, 누가 깨달으면 바로 그가 얻는다.

노자가 말했다: 도는 도로되, 일상 도가 아니로다(道, 可道, 非常道). 그것이 만약 온 땅바닥에 널려 줍기만 해도 수련 성취된다면, 그 역시 진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 법문은 모순 중에서 당신 자신이 공을 얻게 하므로, 우리는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해야 하는바, 물질상 당신에게 또 무엇을 실제로 잃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물질 환경 중에서 오히려 당신의 心性(썬썬)을 제고해야 한다. 편리하다면 바로 이것이 편리하다. 우리 이 한 법문은 가장 편리하며, 속인 중에서 수련할 수 있고, 출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 역시 이 점이 어려우며, 속인의 가장 복잡한 이 환경 중에서 수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역시 이 점이 좋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 자신이 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 한 문의 가장 관건적인 것으로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다. 물론 主元神(주웬선)이

공을 얻으면 副元神(푸웬션)도 공을 얻는데, 무엇 때문인가? 당신 신체의 모든 정보, 모든 영체(靈體)와 당신의 세포는 모두 공이 자라고 있으므로 그도 물론 공이 자란다. 그러나 어느 때 가서든지 그는 모두 당신보다 높지 못하며, 당신이 주(主)이고 그는 호법(護法)이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 한 마디 하겠다. 우리 수련계에는 이런 사람이 적지 않은데, 줄곧 고층차로 수련하려고 생각한다. 도처에서 법을 구하려고 돈도 적지 않게 썼으며, 방방곡곡을 한 바퀴 돌아 유명한 사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유명하다는 명(名)이 진정 명백하다는 명(明)은 아닐 수도 있다. 결국은 헛되이 돌아다니며 돈을 쓰고 고달팠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좋은 공법을 우리는 오늘날 당신에게 내놓았고, 나는 이미 당신에게 받쳐 주었으며, 당신의 집문 앞까지 갖다 주었다. 이제는 당신이 수련할 수 있는가 없는가,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다. 만약 당신이 행할 수 있으면 당신은 곧 수련하고; 만약 당신이 행할 수 없고, 만약 당신이 수련할 수 없다면, 그럼 당신은 이후부터 다시는 수련할 생각을 하지 말라. 마(魔)가 당신을 속이는 외에 당신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이후에 당신은 수련하지 말라. 내가 만약 당신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누구도 당신을 제도하지 못한다. 사실 현재 당신이 진정한 정법 사부를 찾아 가르침을 받으려면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욱 어려운데, 관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말법시기라, 아주 높은 층차마저도 말겁(末劫) 중

에 있어, 속인을 더욱 관여할 수 없다. 이는 가장 편리한 법문 일 뿐만 아니라, 우주특성에 따라 직접 연마(煉)하므로, 수련함이 가장 빠르고, 가장 가까운 길로서, 직지인심(直指人心)이다.

주천(周天)

도가(道家) 중에서 대소주천을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주천인가를 말해 보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천은 임독(任督) 두 맥을 이어 놓는 것이다. 이 주천은 피모주천(皮毛周天)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며 다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소주천(小周天)이라 한다. 또한 가지 주천이 있다. 그것을 소주천이라 하지 않고 또 대주천(大周天)이라고도 하지 않는데, 선정(禪定) 중에서 수련하는 주천(周天) 형식의 하나다. 그것은 신체 안, 니환(泥丸)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 내려와서, 신체 안, 단전(丹田)에 이르러 한 바퀴 돌아 올라오는 내재적 순환으로서, 그것이 선정 중에서 수련하는 진정한 주천이다. 이런 주천은 형성된 이후에 또한 아주 강한 에너지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일맥이 백맥을 이끌어, 다른 맥을 모두 이끌어 열게 한다. 도가에서는 주천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주천을 말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석가모니는 그의 그 일련의 법을 전할 때에 공을 말하지 않았다. 공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공법도 그의 수련의 연화형식(演化形式)이 있었다. 불교의 맥은 어떻게 가는가? 백회혈에서 시작해 이곳에서 완전히 뚫은 다음 나선식으로 정수리에서 몸 아래로 향해 발전하며, 최후에는 이런 형식으로 백맥을 이끌어 연다.

밀종(密宗)의 중맥(中脈) 역시 이 목적이다. 어떤 사람은 중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밀종은 중맥을 수련해 낼 수 있는가? 사실 사람 신체의 모든 맥을 다 합치면 만여 갈래에 그치지 않으며, 마치 혈관처럼 종횡(縱橫)으로 교차하는데, 혈관보다도 더 많다. 내장의 틈새 부분에 혈관은 없지만 오히려 맥은 있다. 정수리에서 신체의 각개 부위에 이르기까지 역시 종횡으로 교차된 맥락으로서, 그것들을 연결하면 시작할 때에는 곧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결해서 소통한다. 그런 다음 점차 넓어져 차츰 한 갈래의 곧은 맥을 형성한다. 이 맥을 축으로 자전(自轉)하며, 그것의 수평으로 도는 의념 중의 몇 개 바퀴를 이끄는데, 목적은 역시 신체의 모든 맥을 전부 이끌어 열려는 것이다.

우리法輪大法(파룬파파)의 수련은 일맥이 백맥을 이끄는 이런 형식을 피하여, 시작부터 백맥을 이끌어 동시에 열며, 백맥을 동시에 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단번에 아주 높은 층차에서 연마(煉)하며, 매우 낮은 것을 피한다. 일맥이 백맥을 이끌 경우, 당신이 그것을 전부 이끌어 열려 한다면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연마해도 여전히 힘겨우며;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수련해야 하는데, 아주 어렵다. 아주 많은 공법

중에서는 일세(一世)에 수련 성취할 수 없다고 하며, 많은 고심대법(高深大法) 중에서 수련하는 사람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는 명(命)을 닦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가? 수명을 연장하여 수련할 수 있는데, 수련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소주천은 기본적으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만, 대주천은 연공(煉功)으로서, 바로 사람의 진정한 수련이다. 도가에서 가리키는 대주천은 우리처럼 이렇게 맹렬하지 않으며, 백맥을 전부 열어 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몇 갈래 맥의 운행으로서, 손의 삼음삼양(三陰三陽), 발 아래, 두 다리에서 줄곧 머리카락까지, 신체를 다 한 번 도는, 이것을 대주천 순환이라고 한다. 대주천이 시작되면 곧 진정한 연공이다. 그러므로 일부 기공사들은 대주천을 전하지 않으며, 그가 전하는 것은 바로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도 대주천을 말하지만,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며, 당신 자신도 소통시키지 못한다.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아 스스로 의념에 의거해 소통하려 하는데,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마치 체조를 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열 수 있겠는가?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린(功在師父) 것으로서, 내재적인 이 ‘기제(機制)’를 전부 당신에게 넣어주어야만 비로소 이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도가에서는 예부터 인체를 소우주로 본다. 그는 우주의 밖

이 얼마만큼 크면 안도 그만큼 크고, 밖이 무슨 모양이면 안도 그런 모양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을 말하자면 불가사의하고 그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람의 신체와 비교할 수 있는가? 우리 이런 한 가지 이치를 말해 보자. 우리 현재의 물리학에서 물질성분을 연구함에 분자·원자·전자·양성자·쿼크에서 줄곧 중성미자에까지 이르렀는데, 더 아래로는 얼마만한 크기인가? 그 일보에 도달하면 현미경으로는 이미 보지 못하는데, 더 아래의 극히 작은 미립자는 무엇인가? 모른다. 사실 우리 현재의 물리학에서 인식한 요만한 것은 이 우주 중의 가장 작은 미립자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사람이 육신이 없을 때, 물건을 보는 사람의 눈은 확대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미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층차가 더욱 높아질수록 미시하에서 더욱 크게 보인다.

석가모니는 그런 층차 중에서 그는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학설을 말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하계 중에 또 우리 인류처럼 이런 색신(色身)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모래알 하나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우리 현대 물리학의 인식과 서로 들어맞는다. 전자(電子)가 원자핵을 에워싸고 돌아가는 형식과, 지구가 태양을 에워싸고 돌아가는 것이 뭐가 다른가? 그러므로 석가모니는 미시하에서 모래알 하나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으며, 그것은 마치 한 우주와 같이 안에는 생명이 있고 물질이 있다

고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렇다면 그 모래 안의 세계 속에 또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 모래 속의 모래 속에는 또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모래 속의 모래 속의 삼천대천세계에 또 모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래로 캐 내려가면 무궁무진하다. 그런 까닭에 석가모니는 여래, 이 한 층차에 도달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한 마디 말을 했다: “크기로는 밖이 없고, 작기로는 안이 없다.” 크게는 우주의 변두리를 보지 못하고, 작게는 그것의 본원 물질의 가장 미소(微小)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다.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팍구멍 속에 도시가 있으며 그 속에서 기차가 달리고 자동차가 달린다.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의 각도에서 진정하게 이해·연구해 보면 이런 설이 그리 허황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지난번에 내가 천목 열기를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천목이 열려 이런 광경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는 그의 앞이마 이 한 통로를 따라 밖으로 내달리지만 영원히 끝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다. 매일 연공(煉功)할 때 모두 이 한 갈래 큰길에서 밖으로 내달리는데, 양쪽에는 산이 있고 물이 있으며, 땀 때에 또 도시를 지나고 또한 많고 많은 사람을 본다. 그는 이것을 환각이라고 여긴다. 어찌된 영문인가? 아주 똑똑히 보았으며 환각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데, 만약 사람의 신체가 정말로 미시하에서 그렇게 매우 크다면 그것은 곧 환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가의 연공

(煉功)에서는 예부터 인체를 우주로 보기 때문인데, 만약 정말로 우주라면 앞이마에서 송과체까지 10만 8천리도 넘을 것 인즉, 당신이 밖으로 돌진해 보라, 아득히 멀다.

만약 수련과정 중에 대주천(大周天)을 전부 통하게 한 후 라면, 수련자에게 일종의 공능을 가져다줄 수 있는데, 무슨 공능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주천을 자오주천(子午周天)이라고도 하고 건곤운행(乾坤運轉)이라고도 하며, 하차운행(河車運轉)이라고도 한다. 매우 얇은 층차 중에서 대주천의 운행은 에너지 흐름을 형성하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밀도를 높게 하여 더욱 높은 층차 중으로 전화(轉化)할 것이며, 밀도가 아주 높은 에너지띠(能量帶)로 변할 것이다. 이 에너지띠, 그것은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아주 얇은 층차 중에서 천목으로 보면, 그것이 신체 속의 기(氣)로 하여금 위치를 바꾸게 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심장(心)의 기가 장(腸子)으로 가고; 간(肝)의 기가 위(胃)로 가며……, 만약 미시하에서라면 그것이 운반하는 것이 아주 큰 것임을 볼 수 있다. 만약 이 에너지띠를 체외로 내보내면 그것이 곧 운반공(搬運功)이다. 공이 아주 강한 사람은 아주 큰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데 바로 대운반이다. 공이 아주 약한 사람은 아주 작은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데 바로 소운반이다. 이것이 바로 운반공의 형식과 그것의 생성(生成)이다.

대주천은 직접 연공(煉功)하는 것이므로 부동(不同)한 상태와 공(功)의 형식을 가져올 것이며, 그것은 또 우리에게 매

우 특수한 상태를 가져다줄 것이다. 무슨 상태인가? 여러분은 아마 고서 중에서, 예컨대 『신선전(神仙傳)』 또는 『단경(丹經)』·『도장(道藏)』·『성명규지(性命圭旨)』 중에 모두 이런 한 마디 말이 씌어 있음을 보았을 것인데, ‘백일비승(白日飛升)’이라고 하며, 바로 대낮에 이 사람이 날아올랐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대주천이 통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공중으로 뜰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간단하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이처럼 여러 해 연공(煉功)했는데, 대주천이 통한 사람 역시 소수가 아닐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몇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도 허황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주천 그것은 필경 갓 연공하기 시작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뜨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그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속인사회의 상태는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속인사회의 사회형식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개변할 수 없다. 사람이 모두 하늘을 날아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속인사회인가? 이것이 주요한 한 방면이며, 다른 한 방면으로는, 속인 중의 사람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반본귀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또 오성(悟性)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이 확실하고 확실하게 모두 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도 가서 수련하는데, 곧 오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수행(修行)하는 것을 또 함부로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되며,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는데, 다른 사람 역시 수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주천이 통한 이후에 당신의 손가락 끝, 발가락 끝 또는 어느 한 부위를 잠가 놓기만 하면 당신은 날지 못한다.

우리가 대주천이 곧 통하려 할 때 흔히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인데, 어떤 사람은 가부좌할 때 신체가 늘 앞으로 기울어진다. 뒷등이 비교적 잘 통하여 뒷등이 특히 가벼우므로 앞이 무거운 것을 느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뒤로 젖혀지는데, 바로 뒷등이 무겁기에 앞이 가벼움을 느낀다. 만약 당신이 전부다 아주 잘 통했다면, 그러면 당신은 위로 들썩거리고, 자신이 위로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지면을 떠나는 감각이 있을 것이다. 일단 정말로 뜰 수 있을 때에 당신에게 뜨지 못하게 하지만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공능이 나오는 사람은 양쪽에 있다. 어린이는 집착심이 없으며 노인, 특히 노년 부녀자는 집착심이 없으므로 공능이 나오기 쉬우며 유지하기 쉽다. 남자, 특히 젊은 사람은 일단 공능이 있게 되면 그가 과시하려는 심리를 면치 못하며, 동시에 그는 아마 그것을 속인 중의 경쟁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이 존재함을 허용하지 않으며 연마(煉)해 댔어도 그것을 잠가버린다. 한 곳만 잠가 버리면 이 사람은 뜨지 못한다. 또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이 상태가 전혀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며, 당신에게 시험해 보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각지에서 학습반을 열 때 모두 이런 정황이 있었다. 내가

산둥(山東)에서 학습반을 열 때에 제남(濟南)의 수련생, 북경(北京)의 수련생이 모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했다: 스승님, 저는 어찌된 일입니까. 길을 걸으면 늘 땅에서 뜨려 하고 집에 누워 잠을 자도 뜨며 이불을 덮으면 이불마저도 뜨려 고 하는데, 늘 풍선처럼 위로 뜹니다. 내가 귀양(貴陽)에서 학습반을 열 때, 귀주(貴州)의 한 노수련생은 할머니였는데 그녀의 방 안에는 침대 두 개가, 한 쪽 벽에 하나씩 놓여 있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가부좌를 했는데, 자신이 뜬 것을 느껴 눈을 떠보니 떠서 저쪽 침대에 가 있었으며, 그녀가, 나는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자 또 떠서 돌아왔다.

청도(靑島)의 한 수련생은 점심휴식 시간에 실내에 사람이 없을 때, 그는 침대 위에서 가부좌를 했다. 그는 가부좌를 하자마자 떠올랐고, 위로 들썩거림이 아주 심했는데 1미터 높이 나 되었다. 뜬 다음에는 또 떨어져 내려와 쿵쿵 반복해서 들썩거리며 이불마저 땅에 떨어졌다.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또 겁이 조금 났는데 들썩들썩하면서 온 점심시간 동안 오르내렸다. 마지막에 시작중이 울리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무엇을 하는 것인가. 빨리 멈추자. 멈췄다. 이것이 바로 왜 노인들이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젊은이라면 시작중이 울리자 말할 것이다. 다들 와서 봐라. 나는 날았다. 사람은 바로 여기서 자신의 과시심을 그리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 봐라. 내가 이 공을 얼마나 잘 연마(煉)했는가. 나는 날 수 있다. 그가 과시만 하면 없어

지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아주 많으며 각지 수련생에게 다 있다.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곧 백맥이 전부 열린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백분의 팔, 구십 사람들이 현재 모두 온몸이 가벼운 상태에 도달했으며 병이 없다. 동시에 우리는 말했다. 이 학습반에서 당신을 이런 상태로 밀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체를 완전히 정화(淨化)해 주고, 또 당신의 신체 속에 많은 것을 넣어주며, 학습반에서 당신에게 공이 나오게 하는데, 내가 당신을 끌어올려서 더 앞으로 보낸 것과 같다. 내가 학습반에서 줄곧 여러분에게 설법하여 여러분의 心性(썬쌩)도 줄곧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많은 사람은 이 강당에서 나간 다음, 당신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텐데, 보증코 당신의 세계관마저 전변(轉變)이 생길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알 것이며, 더는 그렇게 얼떨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인데, 보증코 이리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心性(썬쌩)은 이미 따라 올라온 것이다.

대주천을 말하자면, 비록 당신으로 하여금 뜨지 못하도록 하지만 당신은 온몸이 가벼움을 느끼고, 길을 걸어도 바람에 나는 듯할 것이다. 과거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힘들었지만 현재는 아무리 멀리 걸어도 매우 가뿐함을 느끼고, 자전거를 타면 마치 누가 당신을 밀어 주는 것 같으며, 계단을 오르면 얼마나 높이 올라도 힘들지 않는데, 보증코 이리하다. 이 책을

보고 혼자서 수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꼭 참말이어야 한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설법할 때에 내가 만약 참말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허황한 말을 하며, 과녁을 겨냥해 활을 쏘듯이 하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한다면, 나는 바로 사법(邪法)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으며, 우주 중에서 모두 보고 있는데,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으면 안 된다.

일반인은 단지 이러한 주천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만인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신체가 완전히 고에너지물질로 재빨리 대체·전화(轉化)되는 데에 도달하자면 또 한 가지 주천 형식의 주향(走向)이 있어야 한다. 당신 신체의 모든 맥을 이끄는 주향, 그것을 묘유주천(卯酉周天)이라고 하는데, 아마 아는 사람이 아주 적을 것이다. 책에서 때로는 이런 용어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며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모두 이론을 둘러싸고 빙빙 도는데, 비밀 중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우리 여기에서는 모두 당신에게 말해주겠다: 가히 백회혈(百會穴)에서 시작해(또 회음혈에서 나올 수도 있음), 나와서는 음양 양면의 경계로 가며, 귀 옆으로 내려와서, 그런 다음 어깨를 지나 내려온다. 손가락 사이를 하나하나씩 지난다. 그런 다음 신체의 측면으로 내려가서 발 밑을 지나, 사타구니 한 측면으로 올라온다. 그런 다음 다시 다

른 한 측면으로 내려가서는, 다시 발밑을 거쳐, 신체의 측면으로 올라온다. 손가락 사이를 하나하나씩 지나, 한 바퀴 돌아서 정수리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묘유주천이다. 남들이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것을 나는 몇 마디로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 역시 무슨 천기(天機)라고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은 이런 것들이 모두 아주 진귀하다고 여겨, 아예 말하지 않는데, 진정으로 도제(徒弟)에게 전할 때만 묘유주천을 말한다. 내가 비록 말은 했지만 누구도 의념으로 인도하고, 통제하여 연마(煉)하지 말라. 당신이 연마한다면 우리의法輪大法(파룬파파)가 아니다. 진정한 고층차의 수련은 무위(無爲)인 것으로서, 어떤 의념활동도 없으며, 당신에게 전부 다 만들어진 것을 준다. 이런 것은 모두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이런 내재적인 기(機)가 당신을 연련(演煉)해 주고 있으며, 때가 되면 그것은 자전(自轉)할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이 연공(煉功)할 때에 머리를 저을 것인데, 머리를 이쪽으로 저으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돌고, 머리를 저쪽으로 저으면 바로 저렇게 돌아 양쪽으로 모두 돈다.

대·소주천이 통한 후에 가부좌를 하면 머리를 꼬떡일 수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가 통과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연마(煉)하는法輪周天法(파룬주천법) 역시 마찬가지로서, 우리는 이렇게 연마(煉)하는데, 사실 당신이 연마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은 스스로 돌고 있다. 평소 늘 돌고 있으며, 당신이 연마할 때는 이 기(機)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법이 사람을 연마

함(法煉人)을 말하지 않는가? 평소 당신은 당신의 그 주천이 늘 순환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당신이 연마하지 않아도 밖에다 넣어준 이 한 층의 氣機(치지), 바로 한 층의 외재적인 대맥(大脈)이 당신의 신체를 이끌어 연마하고 있으며, 모두 자동이다. 그것은 또 반대로 돌 수 있는데, 정반(正反) 양면으로 모두 돌 수 있으며, 시시각각 모두 당신의 맥을 통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주천이 통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천이 통하게 하는 자체는 연공(煉功)의 목적이 아니다. 당신이 주천이 통했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더 수련해 나가면, 목적은 주천의 이런 형식을 거쳐서 일맥이 백맥을 이끌게 하며 신체의 맥, 모든 맥을 전부 이끌어 여는 데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을 했다. 계속 연마해 가면 어떤 사람은 대주천이 돌 때 맥이 연마되는 것이 아주 넓어 마치 손가락과 같을 것이며, 안이 아주 넓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에너지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이 형성된 후에 그것은 아주 넓어질 것이며 또한 아주 밝아질 것이다. 이걸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연마해야 하는가? 사람의 신체로 하여금 백맥이 모두 점차적으로 넓어지게 하여, 에너지가 갈수록 더욱 강하고 갈수록 더욱 밝게 변하게 해야 한다. 최후에는 만여 갈래 맥이 한데로 이어지게 하여, 맥이 없고 혈(穴)이 없는 경지에 도달해 전반 신체가 하나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통맥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이다. 그것의 목

적은 사람의 신체를 전부 다 고에너지물질로 전화(轉化)하는데 있다.

이 일보까지 연마(煉)했을 때 사람의 신체는 기본상 고에너지물질로 전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미 世間法(쓰젠파)수련의 최고층차로 연마되었으며, 인체의 육신은 이미 수련의 최정점(最頂點)에 이르렀다. 이 일보까지 왔을 때 그에게 또 한 가지 상태를 가져다줄 수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그의 공이 나온 것이 이미 아주 풍부하다. 속인 신체의 수련, 즉 世間法(쓰젠파)수련과정 중에서 사람의 모든 특이공능(잠재능력),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오지만, 속인 중에서 수련하므로 대부분은 잠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공기둥은 이미 상당히 높게 자랐으며, 모든 공의 형식이 모두 강대한 공에 가지(加持)되어 상당히 강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 이 현존의 공간 중에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뿐, 다른 공간을 제약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우리 속인의 육체로 수련해 나온 공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풍부해졌으며 각개 공간 중, 부동(不同)한 공간 중에서 신체가 존재하는 각종 형식에 모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신체가 갖고 있는 것, 매 한 층 공간의 신체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상당히 풍부해졌는데, 보기에 사람을 매우 놀라게 한다. 어떤 사람의 신체는 곳곳이 눈이며 온몸의 땀구멍도 모두 눈인데, 그의 전체 공간장(空間場) 범위 내에 모두 눈이 있을 수 있다. 불가공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는 온몸이 모두 보살·부처의 형

상이다. 각종 공의 형태는 이미 극히 풍부한 정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고 많은 생명체가 나타난다.

이 일보에 이르렀을 때 그는 또 일종 상태가 나타날 것인데, ‘삼화취정(三花聚頂)’이라고 한다. 그것은 매우 뚜렷한 상태이며, 또 아주 눈에 띄어 천목 층차가 높지 않은 사람도 보아낼 수 있다. 머리 위에 세 송이 꽃이 있는데, 한 송이는 연꽃(蓮花)이지만 우리 물질공간 중의 연꽃(荷花)이 아니며, 또한 두 송이 역시 다른 공간의 꽃으로서 대단히 미묘(美妙)하다. 세 송이 꽃은 차례로 정수리에서 도는데, 바른쪽으로 돌고 반대쪽으로 돌며, 세 송이 꽃은 또 자전(自轉)할 수 있다. 매 한 송이 꽃은 한 가닥 큰 기둥이 있으며 꽃의 직경과 마찬가지로 굵다. 세 가닥 큰 기둥이 하늘 꼭대기로 직통하는데 그것은 공기둥이 아니며, 그것은 바로 이런 형식으로서, 매우 현묘(玄妙)하여 당신 자신이 보아도 깜짝 놀랄 것이다. 이 일보까지 수련했을 때, 신체는 희고도 깨끗하며 피부 역시 부드러워진다. 이 일보에 이르렀을 때, 바로 世間法(쓰젠파) 수련의 최고형식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며, 여전히 계속 수련해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앞으로 나아가면 世間法(쓰젠파)와 出世間法(추쓰젠파) 사이의 과도 층차에 진입하는데, 정백체(淨白體)[정백체(晶白體)라고도 부름] 상태라고 한다. 왜냐하면 신체가 世間法(쓰젠파) 최고형식으로 수련되었어도, 사람의 육신이 최고

형식으로 전화(轉化)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하게 그 형식에 들어가면 온 신체는 완전히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다. 왜 정백체(淨白體)라고 하는가? 그가 이미 절대적인, 고도의 순정(純淨)함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천목으로 보면 온 신체가 투명한데, 마치 투명한 유리와의 같아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는 이미 불체(佛體)이다. 왜냐하면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신체와 우리 자체의 신체는 이미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일보까지 도달했을 때, 신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공능과 술류(術類)의 것들을 단번에 전부 내버리며, 그것을 아주 깊은 공간 중에 부려 넣는데, 쓸모없으며 지금 이후로 더는 쓸모가 없다. 다만 당신이 장래에 수련 성취하여 도를 얻는 그날에, 당신은 당신의 수련과정을 한번 뒤돌아보며 그것을 꺼내어 볼 뿐이다. 이때는 다만 두 가지가 존재한다: 공기둥이 아직 있고, 수련된 원영(元嬰)은 이미 아주 크게 자랐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매우 깊은 공간에 있는데, 일반인은 천목 층차가 높지 않기에 보지 못하며, 그에게는 다만 이 사람의 신체가 투명체로 보일 뿐이다.

정백체(淨白體) 상태는 과도 층차이기에, 더 수련해 나갈 때면 진정한 出世間法(추쓰젠파) 수련으로 들어가는데, 또한 불체(佛體) 수련이라고도 한다. 전반 신체는 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사람의 心性(썬썬)은 이미 안정되었다. 다시 새롭게 연마(煉)를 시작하여 새롭게 공능이 나오기 시작하는바,

그를 공능이라 하지 않고 ‘불법신통(佛法神通)’이라 하는데, 그는 모든 각개 공간을 제약하며 위력이 무궁하다. 장래에 당신 자신이 끊임없이 수련함에 따라 더욱 높은 층차의 것은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가와 수련의 존재형식을 스스로 곧 알게 된다.

환희심(歡喜心)

이런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는데, 이 역시 환희심에 속한다. 많은 사람이 장시간의 연공(練功)을 거쳤고, 또 어떤 사람은 공을 연마(練)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일생 중에서 진리(真理)와 인생의 참뜻을 추구하고 사색해 왔다. 그가 일단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운 이후에, 그가 인생 중에서 알고자 했고, 또한 해석하지 못했던, 많고 많은 문제를 그는 단번에 알게 되었다. 아마 그의 사상과 함께 승화할 것이며, 그의 심정은 대단히 격동될 것인즉, 이 한 점은 확실하다. 나는 알고 있다.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은 그의 경중(輕重)을 알 것이며, 그는 소중히 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흔히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사람이 기뻐함으로 하여 불필요한 환희심이 생겨나서, 그는 형식상에서, 속인사회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중에서, 속인사회 환경 중에서 비정상적인 표현을 야기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 이 한 세트 공법의 대부분은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

는데, 당신은 자신을 속인사회에서 이탈하게 할 수 없으며, 당신은 명명백백하게 수련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여전히 정상적인 관계여야 하며, 당연히 心性(썸씽)이 아주 높고 심태가 매우 바르며, 자신의 心性(썸씽)을 제고하고 자신의 충차를 제고하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다만 이런 표현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표현이 정신마저도 비정상인 것 같고, 마치 속세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하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더니 어찌 이 모양으로 변했는가? 마치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한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 바로 그가 너무나도 격동되어 이지적이지 못하며, 상식적인 이치에 맞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옳지 않은데, 당신은 또 다른 극단으로 들어갔으며, 역시 집착심이다.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버려야 하며, 여러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속인 중에서 생활하고, 수련해야 한다. 속인 중에서,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모두 당신과 견식을 같이하지 않으며, 또 당신을 멀리하는가 하면, 누구도 당신에게 心性(썸씽)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고, 누구도 당신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문제를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자신을 잘 파악해야 한다.

우리의 공법은 일반적인 공법처럼 흔들거리거나, 흐리멍덩

하거나, 정신이 나간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공법은 모두 당신이 명명백백하게 당신 자신을 수련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은 늘 말한다: 스승님, 저는 눈을 감기만 하면 흔들거립니다. 나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主意識(주이스)를 놓아버리는 습관을 양성했는데, 당신이 눈만 감으면 자신의 主意識(주이스)를 느슨하게 하고 없게 하는, 이런 습관을 당신은 이미 양성했다. 여기에 앉아서 당신은 왜 흔들거리지 않는가? 당신이 눈을 뜬 상태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면서 눈을 감으면 당신은 흔들리는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 기공이란 이렇게 연마(練)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당신은 일종의 개념을 형성하여 눈만 감으면 당신이 없고 어디에 갔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당신의 主意識(주이스)가 반드시 또렷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한 세트의 공법은 당신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명명백백하게 제고해야 한다. 우리 또한 정공(靜功)이 있는데, 우리 이 한 세트의 정공은 어떻게 연마(煉)하는가? 우리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데, 당신은 定(땡)이 아무리 깊더라도 자신이 여기에서 연공(煉功)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가? 거기에 앉아있을 때에 마치 자신이 달걀껍질 속에 앉아있는 것처럼 미묘(美妙)하고 무척 편안한 감각을 느끼며, 자신이 연공(煉功)하고 있음을 알지만 온몸을 움직일 수 없음을 느낄 것이

다. 이는 모두 우리 이 공법에서 반드시 출현한다. 또 한 가지 상태가 있어 앉아있다 보면 다리도 없어진 것을 발견하는데, 다리가 어디로 갔는지 분명하게 생각나지 않으며, 신체도 없어지고 팔도 없어지며 손도 없어져 머리만 남아있다. 더 연마(煉)해 나가면 머리도 없어지고 오로지 자신의 사유만 있음을 발견하며, 약간의 의념(意念)이 자신이 여기에서 연공하고 있음을 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정도에 도달하면 족하다. 무엇 때문인가? 사람이 이런 상태 속에서 연공하면 신체는 가장 충분한 연변(演變) 상태, 가장 좋은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이런 상태에서 입정(入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당신은 잠이 들거나 혼미해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아마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연마할 것이다.

우리 모든 연공인(煉功人)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 속인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속인 중에서 당신이 좋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우면 왜 모두 이 모양이냐고. 이것은 바로法輪大法(파룬파파)의 명예를 파괴하는 것과 같으며, 이 일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수련의 기타 방면과 과정 중에서도 환희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마(魔)에게 이용당하기가 아주 쉽다.

수구(修口)

수구(修口), 과거에 종교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이 수구의 중점은, 그들 일부 전업(專業)수련자-승려·도사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전업수련자이기 때문에 목적은 더욱 큰 한도로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사람이 생각을 움직이기만 하면 곧 업이라고 여겼다. 종교 중에서는 업을 선업(善業)과 악업(惡業) 두 종으로 나누었는데, 선업이든 악업이든 불가의 공(空), 도가의 무(無)로 말하면 모두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물의 인연관계, 바로 이 일이 도대체 좋은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 어떠한 인연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 수련자는 그렇게 높은 층차에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하기만 하면 나쁜 일일지도 몰라 염려한다. 그래서 그는 되도록 무위(無爲)를 말하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가 업을 더 짓는 것을 피한다. 업을 지었으면 소업(消業)해야 하며 고생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수련자를 예로 들면, 그가 어느 일보에 이르러 개공하는가를 이미 정해놓았는데, 당신이 불필요하게 중도에 어떤 것을 끼워 넣는다면, 이는 모두 전반 수련에 곤란을 조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곧 무위(無爲)를 말한다.

불가에서 말하는 수구(修口)란, 말하자면, 사람이 말을 함은 모두 사람의 사상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상의식은 바로 유위(有爲)이다. 사람의 사상의식 자체가 생각을 움직이려 하고, 무엇을 좀 말하려 하거나 무엇을 좀 하려면, 사람의 감각기관·사지를 지배하는데, 속인 중에서는 일종의 집착일 수 있다. 당신을 놓고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순이 있어 당신은 좋다, 그는 나쁘다, 당신은 수련을 잘 했다, 그는 수련을 잘 못했다 하는, 이런 자체가 바로 모순이다. 우리 일반적인 것을 말해 보자. 내가 무엇을 하려면 바로 그것을 하고, 현재 이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한다면, 무의식중에 누구를 해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은 모두 매우 복잡한 것으로서, 무의식중에 엮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그는 절대적으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과거에 종교 중에서는 줄곧 수구를 아주 중하게 보았는데, 이것은 종교 중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 수련자의 절대다수는 모두가 속인 중에서 수련(전업수련제자 제외)하는데, 그렇다면 속인사회에서 속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교제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사람마다 모두 한 몫의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을 잘해야 하며, 어떤 사람은 바로 말로 일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모순되지 않는가? 역시 모순되지 않는다. 모순되지 않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수구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 수련하는 법문이 부동(不同)하기 때문에 요구도 같지 않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모두 연공인(煉功人)의心性(썬썬)에 따라 말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며,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마땅히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는 법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가늠해야 한다.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은 법으로 가늠하여 연공인의心性(썬썬)표준에 부합되면 문제가 없다. 또한 우리는 법을 말하고, 법을 선전해야 하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수구해야 하는 것은, 속인 중의 그런 내려놓지 못하는 명리와 사회의 실제 사업 중에서 수련자와 관계없는 말을 하고, 동문제자(同門弟子) 중에서 서로 간에 쓸모없는 잡담을 하고, 집착심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주위들은 풍문으로 일부 골목소식을 전하고, 사회상의 기타 일부 일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곧잘 흥분하여 아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서, 내 생각에 이는 모두 속인의 집착심이다. 이런 방면에서 나는 우리가 마땅히 입을 좀 닦아(修)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수구(修口)다. 과거의 승려는 이런 것들을 아주 중하게 보았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을 움직이기만 하면 곧 입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신(身)·구(口)·의(意)’를 말했다. 그가 말하는 수신(修身)이란 그것은 바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수구(修口)란 그것은 바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수의(修意)란 그것은 바로 생각마저 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 사원(寺院) 중

에서 하는 전업수련은 이런 요구에 대해 아주 엄했다. 우리는 연공인(煉功人)의 心性(썬쌩) 표준에 따라 자신에게 요구하여, 무엇을 마땅히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잘 파악하기만 하면 된다.

제 9 강

기공(氣功)과 체육(體育)

일반적인 층차 중에서, 사람들은 기공과 체육단련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여기기 쉽다. 물론 저층차(低層次)에서 말하자면 건강한 신체를 얻는다는 이 한 방면에서 볼 때, 기공과 체육단련은 일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것의 단련방법, 채용한 수단은 체육단련과 차이가 아주 크다. 체육단련으로 사람이 건강한 신체에 도달하려면 사람의 운동량을 늘리고 사람의 신체훈련을 강화해야 하나, 기공수련은 정반대로서 사람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움직인다 해도 느슨하게(緩), 천천히(慢), 둥글게(圓) 하며 심지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 이는 곧 체육단련의 형식과 차이가 아주 크다. 그러면 만약 고층차에서 말하자면, 기공은 다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더욱 높은 층차의 것과 더욱 깊은 내포가 있다. 기공은 단지 속인 이 층차 중의 고만한 것

만이 아니라, 그것은 초상(超常)적이며 또한 부동(不同)한 층차에서 모두 그것의 부동한 나타남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이처럼 속인의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단련의 본질에서 보면 그것들의 차이 역시 아주 크다. 운동 선수는 운동량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현재의 운동 선수는 자신의 신체를 현대의 이런 경기수준에 적응하게 하고, 그러한 표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그는 신체를 줄곧 가장 좋은 상태에 처하게 한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운동량을 늘려 사람의 신체가 혈액순환이 충분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그의 대사능력(代謝能力)을 증강(增強)하여 신체가 줄곧 향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왜 대사능력을 증강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운동선수의 신체는 언제나 향상하는 가장 좋은 경기 상태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는 무수한 세포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세포는 모두 이런 과정이 있다: 새로 분열해 나온 세포의 생명력은 아주 강하며 위로 발전함을 나타낸다. 극한에 달했을 때 그것은 더 발전할 수 없으며 다만 하강(下降)할 수밖에 없는데, 줄곧 극점까지 내려갔을 때 또 새로운 세포로 그것을 대체한다. 예를 들어 하루를 열두 시간으로 비유해 말한다면, 아침 여섯 시부터 세포가 분열해 나와 줄곧 향상하고 향상함이 나타나는데, 여덟·아홉 시, 열 시경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매우 좋은 시기이다. 열두 시가 되면 그것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아래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이 시간 내에 세포는 아직 절반 생명력이 있는데, 이 절반

생명력은 운동선수의 경기상태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는 곧 훈련을 강화해 그의 혈액 순환을 더욱 강하게 한다. 그런 다음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여 이런 오래된 세포를 대체하는데, 그는 이 길을 걷는다. 다시 말해서 세포의 전 과정을 다 걷기 전에, 생명의 노정을 절반 건자마자 그것을 배설해 버린다. 그러므로 신체는 늘 건강하고, 향상됨을 유지한다. 그러나 인류의 세포는 무한정 이렇게 분열해 나갈 수 없으며 세포의 분열 횟수는 유한하다. 가령 사람의 일생 중에 세포가 백 차례 분열할 수 있다고 하자. 실제로는, 백만 차례도 넘는다. 가령 정상적인 사람의 세포가 백 차례 분열하여 백년을 살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현재의 세포가 다만 생명의 절반밖에 살지 못한다면, 그는 단지 5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운동선수에게 그리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현재의 운동선수는 30세도 되기 전에 도태(淘汰)되며, 더욱이 현재의 경기수준 또한 높아 운동선수가 도태되는 숫자 역시 많기 때문에, 그는 또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여 그리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론적으로 보면 실질은 이런데, 그의 신체를 건강한 유기체로 유지하게 할 수 있지만, 도리어 그의 생명을 단축한다. 외관상 보면, 십대 운동선수는 마치 이십대로 보이고, 이십대는 마치 삼십대의 사람과도 같다. 흔히 운동선수는 사람에게 조숙하거나 노쇠한 감을 주는데, 이로움도 있고 폐단도 있어, 변증법적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실 바로 이 길을

걸었다.

기공수련은 체육단련과는 바로 상반되는데, 동작에서 맹렬히 운동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동작이 있다 해도 느슨하게·천천히·둥글게 하고, 몹시 느리게 하며, 심지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다. 여러분은 선정(禪定)이란 이런 수련방법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멈춰 있어 심장이 뛰는 속도마저도 다 늦추며, 혈액순환 등 모든 것을 다 늦출 수 있다. 인도(印度)에는 많은 요가사(瑜伽師)가 있는데, 며칠 동안 물속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며칠 동안 땅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으며, 완전히 자신을 멈춰 있게 하는데, 심지어 심장 박동마저 통제할 수 있다. 가령 사람의 세포가 하루에 한 차례 분열한다고 하면, 수련자는 인체의 세포를 이틀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고, 1주일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며, 반달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는가 하면, 심지어 더욱 긴 시간에 한 차례 분열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이미 그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성(性)만 닦고 명(命)을 닦지 않는 그런 공법인데, 그것 역시 이 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역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일생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 명을 닦지 않고서 어찌 더 오래 살 수 있는가? 된다. 왜냐하면 수련하는 사람의 층차가 삼계(三界)를 돌파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아주 늙어 보인다.

진정하게 명을 닦는 공법은 채집하여 온 고에너지물질을

인체의 세포 중에 끊임없이 축적하고, 그것의 밀도를 끊임없이 높게 할 때, 점차적으로 속인의 세포를 억제할 수 있으며, 서서히 속인의 세포를 대체한다. 그때 가서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이 사람은 곧 청춘이 오래 머무르게 된다. 물론 수련 과정 중에서는 아주 느린 과정으로서 상당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육신을 고달프게 하고(勞其筋骨)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苦其心志) 이것은 아주 쉽지 않은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心性(심성) 마찰 중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개인의 절실한 이익 앞에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일들은 하려면 모두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목적에 도달하려 한다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心性(심성), 사람의 德(덕)을 모두 닦아 올라와야만 비로소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예부터 많은 사람이 모두 기공을 일반 체육단련과 혼동했는데, 사실 차이가 너무나도 크며 전혀 같은 일이 아니다. 단지 가장 낮은 층차에서 기를 연마(練)할 때,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여 건강한 신체에 도달함을 강구하는 데에서 가장 낮은 층차의 목적과 체육단련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고층차에 이르러서는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다. 기공의 신체 정화(淨化)에는 역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초상(超常)적인 이치로 연공인(煉功人)에게 요구해야 하며, 속인의 이치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체육단련은 단지 속인 중의 일일 뿐이다.

의념(意念)

의념(意念)을 말하자면 바로 우리 사람의 사유 활동이다. 수련계에서는 대뇌의 사유 활동에서 사람의 의념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의 사유(의념)의 부동(不同)한 형식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체현되어 나오는 것인가? 현대의학이 사람의 대뇌를 연구함에 아직도 아주 많은 문제는 풀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 표면의 것처럼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층(深層)에서는, 부동(不同)한 공간에는 다 부동한 형식이 있다. 그러나 일부 기공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일부 기공사들은 그 자신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며, 그는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대뇌가 움직이기만 하면, 의념이 생기기만 하면, 일부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며, 그는 곧 그의 사상이 한 것이고 그의 의념이 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의 의념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 먼저 사람 사유의 내원(來源)을 말해 보자. 중국 고대에 ‘마음이 생각한다(心想)’는 한 가지 설이 있다. 왜 마음이 생각한다고 했는가? 중국 고대의 과학은 아주 발달했는데, 그것은 직접 인체·생명·우주 이런 것들을 연구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확실하고 확실하게 마음(心)이 문제를 생각함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대뇌가 문제를 생각함을 느낀다. 왜 이런 정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가 말한, 마음이 생각한다(心想) 함은 역시 이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속

인의 元神(웬선)은 매우 작으며, 사람의 대뇌가 내보내는 진정한 정보는 사람 대뇌 자체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대뇌 자체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元神(웬선)이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元神(웬선)은 다만 니환궁(泥丸宮)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니환궁이란 바로 우리 현대의학에서 인식한 송과체(松果體)다. 만약 元神(웬선)이 니환궁에 있으면 우리는 확실하게 대뇌가 문제를 사고하고 정보를 내보내고 있음을 느끼고, 만약 마음(心)에 있으면 확실하고 확실하게 마음이 문제를 사고함을 느낀다.

인체는 소우주로서, 연공인(煉功人)의 많고 많은 생명체는 모두 자리를 바꾸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元神(웬선)이 자리를 바꿀 때, 그가 배로 가면 확실히 배가 문제를 생각함을 느낄 것이고, 만약 元神(웬선)이 장딴지·발꿈치로 가면 곧 장딴지·발꿈치가 문제를 사고함을 느낄 것이다. 보증코 이러한데, 듣기에는 아주 허황하다. 당신의 수련 층차가 그리 높지 못할 때에 당신은 곧 이런 현상이 존재함을 느낄 것이다. 사람의 신체에 만약 그의 元神(웬선)이 없고 그의 성격(脾氣)·천성(秉性)·특성(特性),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곧 고깃덩어리로서 그는 완전(完整)하고 독립적인 자아개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람의 대뇌는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가? 내가 말하겠는데, 사람의 대뇌는 우리 이 물질공간의 형식 중에서 그것은 단지 가공공장일 뿐이다. 진정한 정보

는 元神(웬선)이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보내는 것은 언어가 아니며, 그가 내보내는 것은 일종의 우주 정보로서 모종의 의미를 대표한다. 우리 대뇌는 이런 지령을 받아들인 후, 그것을 우리 현재의 언어, 이런 표현 형식으로 가공한다. 우리는 손짓, 눈길, 전체 동작으로 그것을 표현해 내는데, 대뇌는 바로 이런 작용을 일으킨다. 진정한 지령, 진정한 사유는 사람의 元神(웬선)이 내보내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대뇌의 직접적인 독립작용이라고 여기는데, 사실 때로는 元神(웬선)이 마음(心)에 가 있어, 어떤 사람은 확실히 마음이 생각(心想)함을 느낀다.

현재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대뇌가 내보내는 것은 마치 일종의 전파와도 같은 이런 형식의 것이라고 인식한다. 실질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그것이 일종의 물질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미신이 아니다. 내보내는 이런 것은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가?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나는 의념으로 운반하고, 의념으로 당신의 천목을 열어주며, 의념으로 당신의 병을 치료하는 등등을 해준다. 사실 일부 기공사들은 그 자신에게 어떤 공능이 있는지 전혀 모르며 또 분명하게 알지도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 하기만 하면 곧 잘되는 것을 알 뿐이다. 사실 바로 그의 의념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능이 대뇌 의념의 통제를 받아들여, 의념의 지휘하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의 의념 자체는 결코 아무런 일

도 해낼 수가 없다. 한 연공인(煉功人)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면 그의 공능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공능은 인체의 잠재능력으로서, 우리 인류사회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대뇌사유는 갈수록 복잡하게 변했으며, 갈수록 현실을 중시하는가 하면, 갈수록 이른바 현대화한 도구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람의 본능은 갈수록 퇴화되었다. 도가에서는 반본귀진을 말하는데, 수련과정 중에서 당신은 진(眞)을 구해야 하고, 최후에 반본귀진하여 당신의 원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야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이런 본능을 드러낼 수 있다. 우리는 현재 특이공능(特異功能)이라고 하지만 사실 모두 사람의 본능이다. 인류사회는 마치 진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후퇴하고 있으며, 갈수록 우리 우주의 특성과 멀어지고 있다. 지난번에 나는 장과로(張果老)가 당나귀를 돌아앉아 탔다는 말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감이 곧바로 후퇴며, 사람이 우주의 특성과 갈수록 멀어짐을 발견했다. 우주의 연화(演化) 과정에서, 특히 현재 상품경제의 큰 물결로 진입한 후, 많은 사람의 도덕이 상당히 폐괴(敗壞)되어 우주의 眞(眞)·善(善)·忍(忍) 특성과 갈수록 멀어졌다. 속인 중에서 조류(潮流)를 따라 걸어온 사람들은 인류의 도덕이 폐괴한 정도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좋은 일로 여기는데, 오직 心性(心性)을 수련해 올라온 사람이 돌이켜 보기만 하면, 인류 도덕의 폐괴가 이처럼 두려운 지경까지 왔음을 비로소 인

식할 수 있다.

어떤 기공사는 말한다: 내가 당신에게 공능을 개발해 주겠다. 무슨 공능을 개발한단 말인가? 그의 공능은 에너지가 없으면 쓸모없으며 나오지 않는데, 당신이 개발해 낼 수 있겠는가? 그의 공능이 그의 에너지에 의해 가지(加持)되지 않아 형체를 이루지 못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개발해 낼 수 있겠는가? 전혀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공능 개발은 다만 이미 형성된 당신의 공능과 당신의 대뇌를 연결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신 대뇌의 지휘를 받아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그가 공능을 개발했다고 한다. 사실 그는 당신에게 아무런 공능도 개발해 주지 못했으며, 단지 이런 조그마한 일을 했을 뿐이다.

연공인(煉功人)을 두고 말하면 사람의 의념이 사람의 공능을 지휘해 일을 하나; 한 속인으로 말하면 의념이 사람의 사지·감각기관을 지휘해 일을 하는데, 마치 한 공장의 생산 사무실, 공장장 사무실에서 지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각개 직능부문마다 제각기 할 일을 하는 것과도 같다. 마치 부대의 지휘부서와 같이, 사령부에서 명령을 내리고 전체 부대를 지휘해 임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외지에서 학습반을 열 때 현지의 기공연구회의 지도자와 늘 이 문제를 말하였다. 그들은 매우 놀라워했다: 우리는 줄곧 사람의 사유(思維)에 얼마나 큰 잠재에너지, 잠재의식이 있는지를 연구해 왔다. 사실 이런 것이 아니며 그는 시작부터 빗나갔다. 나는

인체과학을 연구함에, 사람의 사유는 일종의 변혁(變革)이 일어나야 하며, 속인의 그런 추리방법과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그러한 초상(超常)적인 것을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의념을 말하자면 또 몇 가지 의념 형식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잠재의식(潛意識), 하의식(下意識), 영감(靈感), 꿈을 꾸는 등등이다. 꿈꾸는 것을 말하면 어떤 기공사도 그것을 해석하기 싫어한다. 당신이 태어날(降生) 때 우주의 많은 공간 중에 모두 동시에 당신이 태어나는데, 당신과 완전(完整)한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 서로 연계가 발생하며 사유(思惟)상에서 모두 연대적 관계가 있다. 게다가 당신 자신은 또 主元神(주웬선)·副元神(푸웬선)이 있으며 또한 기타 각종 생명체의 그런 형상이 체내에 존재하는가 하면, 때 세포·오장육부는 모두 다른 공간 속에 있는 당신 형상정보가 존재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러므로 매우 복잡하다. 당신이 꿈을 꿀 때 잠시 이렇다가 잠시 저렇다가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의학에서는 우리의 대뇌피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 물질형식에서 표현되는 반응인데, 사실 그것은 다른 공간의 그런 정보의 작용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꿈을 꿀 때 당신은 흐리멍덩한 감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당신도 그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다. 어떤 꿈은 당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꿈을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신

의 主意識(주이스) 즉 主元神(주웬선)이 꿈속에서 육친이 앞에 다가온 것을 보았거나, 또는 확실하고 확실하게 한 가지 일을 감수했거나, 무엇을 보았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하였다. 그렇다면 바로 당신의 主元神(주웬선)이 정말로 다른 공간에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일을 보았고 또 했는데, 의식이 똑똑하고 진실하다. 이런 일은 확실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다만 다른 물질공간 중에서, 다른 시공(時空) 중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것을 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당신 이쪽의 물질신체는 확실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이런 꿈만이 당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사람의 영감(靈感)·하의식(下意識)·잠재의식(潛意識)류를 말하자면, 이런 용어는 과학자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문인(文人)들이 속인 중의 습관적인 상태에 근거해 만들어낸 용어로서, 그것은 과학성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사람들이 가리키는 잠재의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하기가 무척 어려우며 아주 두루뭉술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각종 정보가 너무나도 복잡해 마치 일종의 희미하고 희미한 약간의 기억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하의식을 우리는 그래도 해석하기가 쉽다. 하의식이라는 이런 상태에 내린 정의에 의하면, 통상 사람이 흐리멍덩했을 때에 한 가지 일을 함을 가리키는 데, 흔히 사람들은 그의 하의식이 한 것이며,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하의식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副意

識(푸이스)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主意識(주이스)가 느슨해진 후, 대뇌를 통제하지 않을 때 흐리멍덩하여 마치 잠든 것 같거나, 혹은 꿈속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쉽게 副意識(푸이스), 즉 副元神(푸웬션)에게 주재(主宰)되기 때문이다. 그때에 副意識(푸이스)는 일부 일을 해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이 흐리멍덩한 상태에서 해낸 것이다. 그러나 흔히 이런 일을 함에 모두 쉽사리 그릇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副意識(푸이스)는 다른 공간에서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으며, 우리 속인사회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해놓은 일을 명백해진 후에 보고는 말한다: 이 일을 어찌 이렇게 잘못했는가, 내가 명명백백할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당신이 지금은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열흘이나 보름이 지난 후 되돌아 다시 보면 말할 것이다: 야, 이 일을 이렇게 잘했구나!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가? 흔히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副意識(푸이스)는 당시에 이 일이 무슨 작용을 일으키는지 상관하지 않는데, 장래에는 좋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일은 무슨 후과가 없고 곧바로 작용을 일으키는데, 副意識(푸이스)가 하면 이 일을 아주 잘할 것이다.

또 한 가지 형식이 있는데, 바로 흔히 우리 근기가 아주 좋은 사람이 쉽게 고급생명의 통제를 받아서 해낸 일부 일들이다. 물론 그것은 다른 한 가지 일로서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고, 주로 우리 사람 자신에게서 오는 한 가지 의식을 말하겠다.

영감(靈感)을 말하자면, 그것 역시 문인이 지어낸 용어다. 일반인은 생각한다: 영감은 바로 사람의 일생 중에서 누적된 지식이 그 한순간에 불꽃처럼 터져 나온 것이다. 내가 말하겠는데, 유물주의(唯物主義) 관점으로 보면, 인류는 일생 중에 지식이 누적되며, 누적된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의 대뇌는 쓰면 쓸수록, 더욱 영활하다. 쓸 때에 와서는 마땅히 술술 끊임 없이 나와야 하는데, 무슨 영감 문제를 이야기할 것도 없다. 무릇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영감이 올 때는 그것이 이런 상태가 아니다. 흔히 사람이 머리를 쓸 때, 쓰고 써서 마지막에는 지식이 고갈된 것을 느껴 마치 더 쓸 수 없을 것만 같고, 문장 한 편을 써도 거기에 이르러 더 써내려갈 수 없고, 가곡 한 수(首)를 창작해도 구상이 없으며, 한 과학 항목을 연구함에 더 연구해 나가지 못한다. 흔히 이럴 때 지쳐서 핏대가 서고 담배꽂초를 땅바닥에 수두룩이 던졌으며, 답답해서 머리가 몹시 아프지만 역시 생각해 내지 못한다. 결국 모두 어떤 상태에서 영감이 오는가? 예를 들면 지쳤을 때 생각한다. “됐다, 좀 쉬자.” 主意識(주이스)가 대뇌를 더욱 심하게 통제할수록 다른 생명은 역시 끼어들지 못한다. 그가 이렇게 휴식하고 그의 사상이 느슨해져 그것을 생각하지 않자, 이런 무의식중에서 단번에 생각이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내보낸다. 영감은 대부분 이렇게 온다.

그러면 왜 이때에 영감이 오는가? 사람의 대뇌가 主意識(주이스)의 통제하에서 머리를 더욱 쓸 때일수록, 그가 심하

게 통제할수록, 副意識(푸이스)는 더욱 끼어들 수 없다. 그가 생각을 하여 머리가 아플 때, 생각이 나지 않아 몹시 괴로워할 때, 그 副意識(푸이스) 역시 그의 신체의 일부분이고 역시 모태에서 동시에 태어난(降生) 것으로서, 그 역시 신체의 일부분을 주재(主宰)하는데, 그도 따라서 괴로워하며, 그 역시 따라서 머리가 아프고 아파서 못 견딜 지경이다. 그러나 主意識(주이스)가 느슨해졌을 때에 副意識(푸이스)는 바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대뇌 중에 반영하는데, 그가 다른 공간에 있을 때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곧 해내고, 써내며, 창작해 낸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副意識(푸이스)를 운용하자. 마치 방금 어떤 사람이 쪽지에 쓴 것과 같다: 어떻게 하면 副意識(푸이스)와 연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연계하지 못한다. 당신은 연공(煉功)을 방금 시작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연계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목적은 틀림없이 집착이다. 어떤 사람은 아마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副意識(푸이스)를 운용해 우리를 위해 가치를 더 많이 창조하여 인류사회 발전을 추진하면 안 되는가? 안 된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당신의 副意識(푸이스)가 알고 있는 일 역시 아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간이 복잡하고 층차가 많아서 이 우주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한데, 그도 다만 그가 있는 공간의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가 있는 공간의 것을 벗어나면 그는 모른다. 게다가 또한 많고 많은, 종향(縱向)으

로 층차가 부동(不同)한 공간이 있는데, 인류의 발전은 고급 생명이 아주 높은 층차 중에서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발전법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우리 속인사회는 역사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발전하려 하며 무슨 목표에 도달하려 하지만, 그 고급생명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고대의 사람, 그들이 오늘의 비행기·기차·자전거를 생각해 내지 못했겠는가? 내가 말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역사가 그 한 과정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창조해 낼 수 없었다. 표면적으로 우리 이 속인의 습관적인 이론 인식, 현존의 인류 지식의 이 각도에서 본다면, 인류의 과학이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해 내지 못한 것이다. 사실 인류 과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역시 역사의 안배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에 도달하려 해도 도달할 수 없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副意識(푸이스)가 쉽게 작용을 일으키는데, 어떤 작가는 말한다: 나는 책을 쓰면 하루에 몇만 자를 쓸 수 있으며 조금도 힘들지 않고, 쓰려고 하면 아주 빨리 써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꽤 좋다고 한다. 왜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은 그의 主意識(주이스)·副意識(푸이스)가 반반씩 작용한 결과인데, 그의 副意識(푸이스)도 절반의 작용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이런 것은 아니며, 절대다수의 副意識(푸이스)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 당신이 그에게 일을 시키면 도리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는 바라는 바와 정반대가 된다.

청정심(淸淨心)

많은 사람이 연공(練功)에서 입정하지 못해 곳곳에서 기공사를 찾아 묻는다: 선생님, 저는 어째서 연공할 때 입정하지 못하는지, 입정(入靜)하려고만 하면 무엇이든 다 떠올라서 허튼 생각이 납니다. 그건 정말로 대단히 혼란스러워 무엇이든 다 떠오르기에 당신은 전혀 고요해지지 못한다. 왜 고요해지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비결이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는 이름난 스승을 찾는다: 나에게 무슨 높은 수(高招)를 좀 가르쳐 주면 고요해질 수 있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밖에서 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당신 자신을 제고하려면 당신은 안에서 찾아야 하며, 당신의 이 마음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그래야만 진정하게 제고할 수 있으며, 가부좌 중에서 당신은 비로소 고요해질 수 있고, 고요해질 수 있음이 바로 공(功)으로서, 정력(定力)이 얼마나 깊은가는 층차의 체현이다.

속인이 마음대로 고요해질 수 있는가? 근기가 아주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혀 고요해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고요해지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무슨 수법(手法)상의 문제가 아니며, 무슨 절묘한 수(絕招)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상과 당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

은 속인사회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에서 개인의 이익, 칠정육욕, 각종 욕망에 집착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데, 이런 것들을 당신이 모두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담담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당신이 고요해지려고 하지만,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연공(練功)하면서 말한다: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고요해져야겠다,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또 뒤집혀 나오는데, 이는 당신의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고요해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나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기공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수법(手法)을 취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수일(守一)·관상(觀想)·의수단전(意守丹田)·내시단전(內視丹田) 혹은 염불을 외는 등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방법인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일종 공부(功夫)의 체현이다. 그렇다면 공부는 우리가 수련하는心性(썬쌩)과 우리가 제고하는 층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그가 전일(專一)하게 이 방법을 채용한다 해도 곧 고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이 시험해 보라. 당신이 각종 욕망·집착심이 너무도 강성하여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당신은 당신이 고요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 어떤 사람은 염불을 하면 잘 된다고 하지만, 염불한다고 당신이 입정(入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말한다: 아미타불의 법

문은 연마(煉)하기가 쉬우며 염불만 하면 된다. 당신이 한번 염(念)해 보겠는가? 내가 말하는데 그것은 공부로서, 당신은 쉽다고 하나, 쉽지 않으며, 어느 한 법문도 쉽지 않다고 나는 말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석가모니는 ‘정(定)’을 말했는데, ‘정(定)’ 이전에 그는 무엇을 얘기했는가? 그는 ‘계(戒)’를 말했으며, 모든 욕망·인(癡好)을 전부 끊어버려 무엇이든 다 없어야만 정(定)에 들 수 있다고 했다. 이 이치가 아닌가? 게다가 ‘정(定)’ 역시 공부(功夫)라, 당신도 단번에 완전히 끊어버리는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며, 서서히 좋지 못한 모든 것을 끊어버림에 따라 정력(定力) 역시 얇은 데서부터 점차 깊어질 것이다. 사람이 염불함에 일심불란(一心不亂)으로 염(念)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대뇌의 기타 부분이 모두 염(念)해 마비됨으로써 아무것도 모르며, 일념(一念)이 만념(萬念)을 대체하여, ‘아미타불’의 매 한 글자가 눈앞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공부가 아닌가?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도달하지 못하며, 도달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입정(入靜)할 수 없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시험해 보라. 입으로는 거기에서 한번 또 한번 이어서 염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엇이든 다 생각한다: 우리 직장의 상사는 왜 날 이처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며, 나에게 이번 달 상여금을 이렇게 적게 주는가.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야단이지만 입으로는 아직도 염불하고 있다. 당신이 말해 보

라. 연공(煉功)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부의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문제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천목이 열려 단전(丹田)을 내시(內視)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랫배 부위에 집결한 단(丹), 그 에너지물질은 순수할수록 더욱 밝으며, 순수하지 않을수록 어둡고 검어지기 때문이다. 단전을 내시해 그 단(丹)을 보면 입정(入靜)할 수 있는가? 입정할 수 없다. 방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전은 사람의 사상·의념이 청정(淸淨)하지 못한 데 있다. 당신이 단전을 내시하면 그 단(丹)이 반짝반짝 빛나 대단히 좋게 보이다가, 잠깐 사이에 이 단(丹)이 변하는데, 곧 집으로 변해버린다. ‘이 방은 내 아들의 결혼에 쓰고, 이 방은 내 딸이 있고, 우리 늙은 부부는 이 방에 있자. 중간은 거실인데 참 좋구나! 이 집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나는 방법을 대어 그것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사람은 이런 것들에 집착한다.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이 고요해질 수 있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여기 속인사회에 와서, 마치 여관에 투숙하듯이 며칠 좀 묵었다가 총총히 간다. 일부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미련을 두고 자신의 집을 잊어버렸다.

진정한 수련은 곧 마음을 닦아야 하고, 안으로 닦아야 하며,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밖에서 찾는 것이 없다. 어떤 법문은,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한 마디 말을 잘못 이해했다. 부처가 마음속에 있다고 하자, 마치 그 자신이 바로 부처인 것 같고, 마치 마음속

에 부처가 있는 듯하다. 그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뜻인즉 당신은 마음을 닦아야만 당신은 비로소 수련 성취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이치다. 당신 몸에 어디 부처가 있는가? 당신은 닦아야만 비로소 수련 성취할 수 있다.

당신이 고요해지지 못하는 원인은 당신이 사상을 비우지 않았고, 당신의 층차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은 얕은 데서부터 깊은 데로 들어가며, 층차의 제고와 서로 상보상성(相輔相成)하는 것이다. 당신이 집착심을 내려놓으면 당신의 층차도 올라오며 당신의 정력(定力)도 깊어지게 마련이다. 당신이 무슨 수법·방법을 통해 고요해지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모두 밖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연공(煉功)함에 꼭 빗나가고 샷된 길로 나가게 되는데, 바로 사람이 밖에서 구함을 가리킨다. 특히 불교 중에서는 당신이 만약 밖에서 구한다면 그는 당신이 마도(魔道)를 걷는다고 한다. 진정한 수련은 그 마음을 수련해야 한다. 당신이 오직 心性(썬썤)을 제고했을 때라야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청정(淸淨)·무위(無爲)에 도달할 수 있고; 당신이 오직 心性(썬썤)을 제고했을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 우주의 특성에 동화할 수 있으며, 사람의 각종 욕망, 집착심, 좋지 않은 것을 제거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좋지 않은 것을 쏟아버릴 수 있어 당신은 비로소 떠오를 수 있다. 우주특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당신의 德(더)란 이런 물질이 비로소 공(功)으로 전화(轉化)될 수

있는데, 그것은 상보상성(相輔相成)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이치다!

이는, 자신이 연공인(煉功人)에게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조성되는, 고요해지지 못하는 주관적 원인이다. 현재 객관적으로도 이런 정황이 존재해 당신이 고층차로 수련할 수 없도록 심하게 교란하며, 연공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개혁개방에 따라 경제가 활발해지고 정책도 넓게 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수없이 도입해 들어왔고, 사람의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있는데, 속인 중에서는 누구나 다 좋은 일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두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 보고, 변증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것도 개혁개방을 따라 들어왔는데, 형형색색이다. 문예작품 속에 만약 색정적인 것을 써넣지 않으면 이 책을 팔 수 없는 듯한데, 판매량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이며; 영화와 텔레비전에 만약 침대 위의 장면이 좀 없으면 영화, 텔레비전도 볼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입장률과 시청률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이며; 미술작품도 진정한 예술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중국의 오랜 민족예술 중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우리 중화민족의 이 전통은 누가 발명하고,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전문화(史前文化)를 이야기할 때 말했듯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의 근원이 있다. 인류의 도덕표준마저 비뚤어졌고 변화가 일어났으며,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마저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속인 중의 일이다. 이 우주의 특성

眞(眞)·善(善)·忍(忍)의 표준은 좋고 나쁜 사람을 가늠하는 유일한 표준으로서, 그는 변하지 않는다.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 당신이 뛰쳐나오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곧 이 표준으로 가늠해야 하며, 당신은 속인의 표준으로 가늠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도 이런 교란이 존재한다. 또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동성에·성해방·마약 같은 난잡한 것들이 모두 나왔다.

인류사회가 오늘날 이 일보까지 발전해 온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 더 발전해 내려가면 어떤 모양이겠는가? 그것을 영원히 이렇게 존재해 내려가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인류에게 겁난(劫難)이 발생했을 때는 모두 이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많은 강의 중에서 나는 역시 인류의 대겁난(大劫難)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종교에서도 말하고, 많은 사람이 모두 이 인기화제를 말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 우리 속인사회 중에서 사람의 도덕수준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긴장한 정도가 이런 정도까지 도달했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그것은 극히 위험한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현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환경 역시 우리 연공인이 고층차로 가는 수련을 심하게 교란하고 있다. 나체화를 거기에 놓아두거나 큰길 가운데 걸어 놓아 머리만 들면 보인다.

노자는 이런 한 마디 말을 한 적이 있다: 상사(上士)가 도

(道)를 들으면 근면히 행한다. 상사(上士)가 도를 들으면, 간신히 정법을 얻었는데, 오늘 수련하지 않고 어느 때를 더 기다리겠는가? 복잡한 환경은, 내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좋은 일로서, 복잡할수록 고인(高人)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착실하게 닦는 것이다.

진정으로 결심하고 수련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는, 나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모순이 생기지 않고, 당신에게心性(심성)을 제고할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또 올라가지도 못한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좋다면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일반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사(中士)가 도를 들음’에 속하므로, 연마(煉)해도 되고 연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사람은 힘들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스승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치가 있다고 여기지만, 속인사회 중으로 돌아가서는 그래도 이런 현실 이익이 실제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한다. 확실하고 확실하게, 당신뿐만이 아니라 서방의 많은 큰부자·대부호도 생을 마치고 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는데, 물질재부(物質財富)란 태어날 때 가지고 오지 못하며,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으로서, 아주 공허하다. 그런데 공(功)은 왜 이처럼 진귀한가? 왜냐하면 직접 당신의 元神(웬선) 몸에 갖고 있어, 태어날 때 갖고 올 수 있으며,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元神(웬선) 불멸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무슨 미신이 아니다. 우리 이 물

질신체의 세포가 벗겨진 후 다른 물질공간 속에 존재하는 더욱 작은 분자성분은 오히려 소멸되지 않으며, 그는 다만 껍질을 벗음에 불과할 뿐이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모두 사람의 心性(썬썬)에 속하는 문제다.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으며 달마도 말한 적이 있다: 중국 동토(東土), 이곳은 대덕지사(大德之士)가 나오는 곳이다. 역대로 우리 중국의 많은 승려와 많은 중국인은 자부심이 매우 높았다. 그 뜻은 높은 공을 수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득의양양해하였다: 역시 우리 중국 사람이야. 중국, 여기에 대근기(大根器)의 사람이 나오고 대덕지사(大德之士)가 나온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 속뜻을 알지 못한다. 왜 중국, 이곳에 대덕지사가 나올 수 있으며, 왜 높은 공이 나올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은 고층차 중의 사람이 이야기한 말의 진정한 함의를 모르며 또한 고층차, 높은 경지 중에 있는 사람의 경지, 그의 사상 상태를 모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물론 우리가 말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하지 않더라도, 오직 가장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가장 복잡한 환경에서야만이 높은 공을 수련해 낼 수 있다는, 이 뜻이다.

근기(根基)

근기는 사람이 다른 공간 속의 신체가 갖고 있는 이런 德

(더)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된다. 德(더)가 적고
 흑색물질이 많으면 업력장(業力場)이 곧 큰데, 그러면 이는
 근기가 좋지 못함에 속하고; 德(더)가 많고 백색물질이 많으
 면 업력장이 곧 작는데, 그러면 이는 근기가 좋음에 속한다.
 사람의 백색물질과 흑색물질, 이 두 가지 물질은 상호 전화
 (轉化)할 수 있다. 어떻게 전화하는가? 좋은 일을 하면 백색
 물질이 생긴다. 백색물질은 바로 고생을 겪고 고통을 겪으며
 좋은 일을 하여 얻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흑색물질은 바로 나
 쁜 일을 하고 좋지 못한 일을 하여 생기는데, 그것은 업력이
 다. 그것은 이런 전화과정이 있으며, 동시에 그것은 또 휴대
 (攜帶)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 元神(웬션)을 따
 라다니고, 일생일세(一生一世)의 것이 아니며, 멀고 오랜 연
 대에 누적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업을 쌓고,
 德(더)를 쌓음을 말하는데, 또한 조상 역시 아래로 쌓을 수
 있다. 나는 가끔 중국의 옛사람 또는 노인의 말이 생각한다:
 조상이 德(더)를 쌓았다거나, 또는 德(더)를 쌓았다, 德(더)
 를 잃었다고 하는 그 말은 어찌 그리도 맞는지, 정말로 딱 맞
 는 것이다.

근기가 좋고 나쁨은 한 사람의 오성(悟性)이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 있다. 근기가 좋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오성마저
 아주 차(差)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근기가
 좋은 사람은 백색물질이 많은데, 이런 백색물질은 우리 우주
 와 융합(溶洽)된 것이며, 眞(쩐)·善(싼)·忍(런) 특성에 융

흡되기에 간격이 없다. 우주의 특성이 직접 당신의 신체에서 반영되어 나오며, 직접 당신 신체와 통한다. 그러나 이런 흑색 물질은 바로 상반(相反)되고, 좋지 못한 일을 하여 얻은 것으로서, 우리 우주특성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이런 흑색물질과 우리 우주특성은 격리된다. 만약 이런 흑색물질이 많아질 때면 그것이 인체 주위에서 장(場)을 형성해 사람을 에워싼다. 이 장이 클수록 그것의 밀도가 더욱 높고, 더욱 두꺼워 곧 이 사람의 오성을 더욱 좋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우주의 眞(眞)·善(善)·忍(忍), 이런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역시 그가 좋지 않은 일을 하여 흑색물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흔히 이런 사람일수록 수련을 더 믿지 않고 오성이 더욱 좋지 못해 업력의 장애를 더욱 많이 받으며, 고생이 클수록 더욱 믿지 않아 수련을 한다 해도 어렵다.

백색물질이 많은 사람은 수련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그의 수련 과정 중에서 그가 오직 우주의 특성에 동화하고 그의 心性(心聲)이 제고되어 올라올 수 있으면, 그의 이런 德(德)가 직접 공으로 전화(轉化)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색물질이 많은 사람은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도 같이 절차가 하나 더 많아진다. 다른 사람은 모두 이미 만들어진 재료지만, 그는 반제품이므로 새로 한 번 더 가공해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우선 고생을 겪어 그의 업력을 아래로 없애고, 백색물질로 전화해 德(德)란 이런 물질을 형성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공이 높게 자랄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이런 사람은 자체가 본래 오성이 좋지 않아, 당신이 그에게 고생을 더 많이 겪으라고 하면, 그는 더욱 믿지 않으며 더욱 견디지 못한다. 그러므로 흑색물질이 많은 사람은 수련하기 힘들다. 과거에 도가(道家) 또는 단독으로 전하는 법문에서는 사부가 도제(徒弟)를 찾지, 도제가 사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역시 그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 결정한다.

근기는 사람의 오성을 결정한다. 그러나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근기가 아주 좋지 않으나 가정환경이 아주 좋아서, 많은 사람이 다 연공(煉功)하며, 또 일부 사람들은 종교의 거사라, 수련의 일을 잘 믿는다. 이런 환경 중에서도 그에게 믿도록 변화시키고 오성이 좋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근기가 아주 좋다. 그러나 흔히 우리 현실 사회에 현존하는 고만한 지식 교육을 받음으로써, 특히 몇 년 전의 절대화한 사상교육 방법은 사람의 사상을 매우 협애하게 변화시키고 그의 지식 범위를 벗어난 일체를 그가 전부 다 믿지 않게 함으로써 그의 오성도 심하게 교란 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하나 들면 내가 학습반을 열 때, 둘째 날에 천목 열기를 말했다. 어느 한 사람이 근기가 좋아 그의 천목을 단번에 아주 높은 층차로 열어주어,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많고 많은 광경을 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야, 나는 법을 전하는 전체 장(場)에法輪(파룬)이 눈꽃처럼 사

람들의 몸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고; 나는 리(李) 스승님의 眞體(眞體)가 어떤 모양인가를 보았으며; 나는 리(李) 스승님의 광환(光圈)을 보았고,法輪(파륜)이 어떤 모양이며, 얼마나 많은 법신이 있는지를 보았다. 부동(不同)한 층차에 모두 리(李) 스승님께서 설법하고 계신 것을 보았으며,法輪(파륜)이 어떻게 수련생의 신체를 조리(調理)해 주는가를 보았다. 또 스승님께서 강의하실 때 한층 한층, 부동(不同)한 층차에 모두 스승님의 功身(공신)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았으며, 또한 천녀(天女)가 꽃을 뿌리는 등등을 보았다. 그가 이처럼 미묘(美妙)한 것을 모두 본 것은, 이 사람의 근기가 상당히 괜찮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는 말하고 말하다가 마지막에 한 마디 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 어떤 것은 이미 현존의 과학에 의해 실증되었고, 많은 것 역시 현존 과학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부 것들은 우리 또한 모두 논술했다. 기공에서 인식하는 것은 확실히 현대과학의 인식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것은 틀림없다. 이로 보아, 근기도 오성을 완전히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悟)

무엇이 ‘깨달음(悟)’인가? ‘깨달음’이란 종교 중에서 온 용어다. 불교 중에서는 수련하는 사람의 불법(佛法)에 대한 이해, 인식상의 깨달음과 최종의 깨달음을 의미하며, 혜오(慧

悟)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속인 중으로 응용되어 왔는데, 이 사람이 아주 총명하여 상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즉시 파악할 수 있으며, 상사 앞에서 아주 잘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오성이 좋다고 하며, 흔히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속인의 층차를 벗어나 조금 높은 층차 중에 있다면, 당신은 속인이 인식하는 이 층의 이치란 흔히 다 틀린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전혀 이런 깨달음이 아니다. 교활한 사람의 오성은 도리어 좋지 못하다. 과분하게 총명한 사람, 그는 표면적인 일을 잘할 수 있기에 상사·상급자의 인정을 받는다. 그 실제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는 곧 다른 사람의 것을 빚진 것이며; 그가 약고, 그가 잘 보일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로운 것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곧 해로운 것을 많이 얻게 되며; 그가 약기 때문에 그는 손해를 볼 수 없는데, 그가 또 쉽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아야 한다. 그가 현실의 조그마한 이익을 중시할수록, 그의 흥금도 더욱 좁아지고, 그가 속인의 물질적인 이익이야말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길수록 그는 더욱 그 자신이 현실을 중시한다고 생각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또 부러워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데, 그를 부러워하지 말라. 당신은 그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는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며, 꿈을 꾸

어도 그의 이익이 손실될까 봐 두려워한다. 개인 이익에서 그는 쇠뿔 끝으로 파고든다. 당신이 말해 보라. 그가 사는 것이 힘든가 힘들지 않은가. 그는 일생 동안 바로 이것을 위해 살고 있다. 우리는 모순 앞에서 한 걸음만 물러서면 더없이 넓은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보증코 다른 광경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런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데, 그가 산다는 것은 가장 힘든 것으로서, 당신은 그를 따라 배우지 말라. 수련계에서는 말한다: 이 사람은 미혹됨이 가장 심하여 물질이익을 위해 완전히 속인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그에게 德(더)를 지키라고 하는데, 어찌 말처럼 쉽겠는가! 당신이 그에게 연공(煉功)하라고 하면 그는 믿지 않는다: 연공이라고? 당신들은 연공함에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 남들이 당신을 형편없게 만들어 놓았지만, 당신은 마음속에서 또 남과 같이 대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남에게 감사드려야 한다니. 당신들은 모두 아큐(阿Q)다! 하나하나가 다 정신병이다! 이런 사람, 그는 수련에 대해서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 그는 당신이 야말로 불가사의하다고 하며 당신을 어리석다고 한다. 당신이 말해 보라. 그를 제도하기란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은 이런 깨달음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개인 이익에서 조금 어리석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다. 물론 정말로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만 절실한 이익, 이런 문제에서 담담하게 볼 뿐이며, 다른 면에서 우리는 모두 아주 똑똑하다. 우리는 과학 항목을

연구하면서 상사가 무슨 임무를 맡겨주든지, 무슨 일을 완성하든지 우리는 모두 매우 똑똑하고 명명백백하게 아주 잘한다. 그러나 바로 우리 자신의 조그마한 개인이익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 충돌 중에서 우리는 땀땀하게 본다. 누가 당신을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가? 누구도 당신을 어리석다고 할 수 없는데, 보증코 이러하다.

우리 정말로 어리석은 이 바보를 말해 보자. 이 이치는 고층차에서는 전부 다 반대로 된다. 바보는 속인 중에서 크게 나쁜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며, 명예를 구하지 않아, 그는 德(덕)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에게 德(덕)을 줄 것이다. 그를 때리고 그를 욕하면 모두 그에게 德(덕)을 주는데 이런 물질은 극히 진귀하다. 우리 이 우주 중에는 곧 이런 이치가 있다: 잃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며, 얻으면 잃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 바보를 보고 모두 그를 욕할 것이다: 너, 이 바보야. 입을 열어 욕함에 따라 한 덩이 德(덕)을 던져 준다. 당신이 이익을 점하면 얻은 한 편에 속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곧 잃어야 한다. 다가가서 그를 발로 한 번 찬다: 너 이 바보야. 자, 한 덩이 德(덕)을 또 묵직하게 던져주었다. 그는 누가 그를 괴롭히고, 누가 그를 발로 한번 차도, 그는 허허 웃는다: 당신은 해봐라. 어쨌든 德(덕)을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조금도 밖으로 밀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고층차의 이 이치에 따른다면 누가 약은가? 바로 그

가 약은 것이 아닌가? 그가 가장 약다. 그는 德(더)를 조금도 잃지 않는다. 당신은 德(더)를 그에게 던져주는데, 그는 조금도 되돌려 보내지 않고 전부 다 가지며 싱글벙글하며 모두 다 가진다. 금생에는 어리석지만 내생에는 어리석지 않으며, 元神(웬션)은 어리석지 않다. 종교 중에서는, 사람의 德(더)가 많으면 내세에 높은 벼슬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모두 사람의 德(더)로 교환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德(더)가 직접 공으로 연화(演化)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신이 얼마나 높게 수련했든 바로 당신의 이 德(더)가 연화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직접 공으로 연화될 수 있다. 사람의 층차 고저, 공력의 대소를 결정하는 공은 바로 이런 물질이 연화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당신이 말해 보라. 그것이 진귀한가 진귀하지 않은가? 그것은 확실히 태어날 때 갖고 올 수 있으며,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다. 불교 중에서는 당신이 얼마만한 높이로 수련했으면 그것이 당신의 과위라고 한다. 당신이 얼마만큼 대가를 치르면 그만큼 얻는, 바로 이 이치다. 종교 중에서는 德(더)가 있으면 내세에 높은 벼슬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德(더)가 적으면 밥도 빌어먹지 못하는데, 교환할 德(더)가 없기 때문으로서,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지 않는가! 德(더)가 조금도 없다면 형신전멸(形神全滅)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죽는다.

과거에 한 기공사가 있었는데, 막 출산(出山)했을 때는 층차가 상당히 높았으나 이 기공사는 후에 명리 중에 떨어졌다.

그의 사부는 곧 그의 副元神(푸웬션)을 데리고 갔다. 왜냐하면 그는 모두 副元神(푸웬션)이 수련한 것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副元神(푸웬션)이 있을 때에는 副元神(푸웬션)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어느 날 직장에서 집을 분배하는데, 상사가 말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모두 와서 조건을 내놓도록 하라. 개인적으로 어떻게 집이 필요한지 말하라. 제각기 자기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상사가 보니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곤란해 마땅히 그에게 집을 줘야겠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안 된다. 집을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주어야 한다. 나는 어떡어떡하게 집이 없다. 그는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가져라. 만약 속인이 본다면 이 사람은 바보다. 어떤 사람이 그가 연공인(煉功人)임을 알고 그에게 물었다: 당신들 연공(煉功)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데, 당신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가 말했다: 남들이 무엇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가지겠다. 사실 그는 조금도 어리석지 않으며 상당히 똑똑하다. 바로 개인의 절실한 이익상에서 그는 곧 이렇게 대하고 자연스럽게 되어감에 따르는 것을 중시한다. 다른 사람이 되묻는다: 지금의 사람이 무엇인들 가지지 않겠는가? 그가 말했다: 땅 위의 돌은 이리 차이로 저리 차이로 가지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그 돌을 줘겠다. 속인은 불가사의하다고 여기는데, 속인은 연공인(煉功人)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방법이 없으며, 사상경지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

고, 벌어진 층차가 너무나도 크다. 물론 그는 그 돌을 줍지는 않을 것인데, 그는 속인이 깨닫지 못하는 이치를 말했다: 나는 속인 중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 돌을 말해 보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경(佛經) 중에 쓰여 있다: 극락세계의 나무는 금이며, 땅이 금이며, 새가 금이며, 꽃이 금이며, 집도 역시 금이며, 불체(佛體)마저도 모두 금빛으로 반짝인다. 거기에 가면 돌 하나 찾지 못하는바, 듣기로는 돈으로 쓰는 것이 돌이라 하지만, 그가 돌을 거기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다만 이런 이치를 말한 것인데, 속인은 이해하지 못한다. 연공인은 확실하고 확실하게 말한다: 속인은 속인이 추구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추구하지 않고; 속인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속인이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다.

사실 우리가 방금 말한 깨달음, 이것은 아직도 수련과정 중의 이런 깨달음에 속하며, 이는 속인 중의 깨달음과 정반대다. 우리가 가리키는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우리가 연공(煉功)과정 중 사부가 말한 법(法), 도가의 사부가 말한 도(道)에서, 수련과정 중 자신이 마주친 마난(魔難)에서 자신을 수련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수련과정 중에서 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그는 전혀 믿지 않으며 아직도 속인 중의 것이 실익이라고 한다. 그가 고유의 관념을 품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믿을 수 없게

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하려다가, 내가 여기에서 기공이란 전혀 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의 사상은 곧 반감이 생겨 이때부터 말하는 것을 더는 믿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의 오성은 좀처럼 올라오지 못해, 어떤 사람은 나의 이 책에다 제멋대로 줄을 긋고 표기를 한다. 우리 천목이 열린 사람은 모두 보는데, 이 책을 보면 오색영롱하고 금빛 찬란하며, 매 한 글자가 모두 나의 법신의 형상이다.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곧바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다. 당신이 한번 긋기만 하면 시꺼멓게 되는데, 당신이 감히 그 위에 함부로 긋겠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을 이끌어 위로 수련하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일은 당신도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생각해 보라. 이 책은 당신을 지도해 수련할 수 있게 하는데, 그가 진귀한가, 진귀하지 않은가? 당신이 부처에게 절을 한다 해서 당신을 진정으로 수련하게 할 수 있는가? 당신이 아주 경건하여, 그 불상에 감히 손도 대지 못하며, 날마다 그것에게 향을 피우면서도, 당신은 도리어 진정하게 당신의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대법(大法)을 감히 망가뜨리고 있다.

사람의 오성 문제를 말하자면, 이것은 수련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각종 층차 또는 사부가 말한 어떤 것과 어떤 법,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이해 정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깨달음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인 깨달음은 바로 그의 살아생전에, 수련의 첫 시작에서부터 끝

임없이 위로 승화하며, 끊임없이 사람의 집착심과 각종 욕망을 제거하고, 공 역시 끊임없이 위로 자라서, 맨 마지막에 그의 수련의 최후 일보까지 줄곧 가는 것을 말한다. 德(더), 이런 물질이 전부 연화(演化)되어 공으로 되고 사부가 안배해 준 수련의 길을 끝까지 간 이 한순간, 자물쇠가 ‘딱’ 단번에 전부 터져 열린다. 천목은 그가 있는 층차 중의 최고점에 도달하여, 그가 있는 층차 중의 각개 공간의 진상, 각개 시공(時空)의 각종 생명체의 존재 형식, 각개 시공 중의 물질의 존재 형식을 보며, 우리 우주 중의 진리를 보게 된다. 신통이 크게 나타나 각종 생명체와 모두 통할 수 있다. 이 일보에 이르렀으면, 그것이 그래 대각자가 아닌가? 수련하여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고대 인도어로 번역하면 바로 부처다.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음, 이런 근본적인 깨달음은 역시 돈오(頓悟) 형식에 속한다. 돈오는 그의 살아생전에 잠긴 채 수련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공이 있는지를 모르고, 자신이 연마(煉)해 낸 공이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며, 어떤 반응도 전혀 없는데, 심지어 자신의 신체 세포마저도 모두 잠겨 있고, 공이 연마되어 나와도 모두 잠겨 있으며, 줄곧 수련의 최후 일보까지 수련해야만 비로소 열린다. 이것은 대근기자인(大根器之人)이어야 비로소 해낼 수 있는데, 수련함에 상당히 고생스럽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줄곧 자신의 心性(썬썬)을 제고하고, 줄곧 고생을 겪으며, 줄곧 위로 수련하면서 줄곧 心性(썬썬) 제고를 요구하지만, 도리어 자

신의 공은 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수련하기 가장 어려운바, 이는 반드시 대근기지인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많은 해를 수련해도 아무것도 모른다.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점오(漸悟)라고 한다.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이 모두法輪(파륜)이 회전하는 것을 느끼며, 동시에 나는 또 여러분에게 천목을 열어준다. 어떤 사람은 각종 원인으로 보이지 않던 데에서 장래에 보이게 될 것이고, 똑똑히 보이지 않던 데에서 똑똑히 보이게 되는가 하면, 쓸 줄 모르던 데에서 쓸 줄 아는 데에 이르게 되어, 층차가 끊임 없이 제고된다. 당신이心性(심성)을 제고하고 각종 집착심을 포기함에 따라 각종 공능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전반 수련 과정의 연변(演變)과 신체의 전화(轉化) 과정은 모두 당신 자신이 볼 수 있거나 감수할 수 있는 정황하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최후의 일보까지 가면 우주의 진리를 완전하게 인식하고, 층차는 당신이 마땅히 수련해야 할 정점(頂點)에 도달한다. 本體(번티)의 변화, 공능의 가지(加持)도 모두 일정한 정도에 도달하여 점차 이 목적에 도달한다. 이는 점오에 속한다. 점오, 이런 수련방법 역시 쉬운 것이 아니며, 공능이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집착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쉽사리 과시하며 좋지 않은 일을 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당신의 공은 떨어져야 하고, 당신의 수련은 헛되어 최후에는 망치고 만다. 어떤 사람은 볼 수 있는데, 부동(不同)한 층차의 각종 생명체가 현현(顯現)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아마 당신을

끌고 가서 이것저것을 하게 하고, 그는 아마 당신을 끌고 가서 그의 것을 수련하게 하며, 당신을 도제(徒弟)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가 당신에게 정과를 얻게 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역시 정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외, 고층 공간의 사람은 모두 신(神)으로서 아주 크게 변하며神通(神通)이 크게 나타나는데,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하면 당신은 그를 따라갈 것이 아닌가? 당신이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단번에 수련이 헛되고 만다. 그가 설령 진불(眞佛)·진도(眞道)라 해도 당신은 역시 처음부터 다시 수련해야 한다. 수많은 층천(層天)의 사람, 그 모두 신선이 아닌가? 오직 극히 높은 층차로 수련되어 목적에 도달했을 때에만 비로소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의 눈앞에 그 신선은 확실하고 확실하게 높고도 크게 나타나고 능력도 아주 대단하다. 그러나 그가 꼭 정과를 얻은 것은 아니다. 각종 정보의 교란하에서, 각종 광경의 유혹하에서 당신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천목이 열려도 수련하기 어려워며,心性(心性)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일부 사람은, 중도에서 당신에게 다시 공능을 열어줌에 속하는데, 점오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 천목은 사람마다 열어주지만, 많은 사람에게 공능이 나오지 못하게 하며, 당신의心性(心性)이 점차적으로 어느 층차까지 제고된 후, 심태가 안정되고 자신을 파악할 수 있을 때, 그런 후에 당신에게 단번에 터져 열리게 해준다. 어느 층차 중에 이

르러 당신에게 점오 상태가 나타나게 하는데, 그때에는 비교적 파악하기가 쉽고 각종 공능도 나타나며, 스스로 위로 수련해 최후에는 완전히 열린다. 수련하는 도중에 당신에게 나타나게 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은 이 한 부류에 속하므로 급히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아마 선종에서도 돈(頓)·점(漸) 구분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선종의 육조(六祖) 혜능은 돈오(頓悟)를 주장하고, 북파(北派)의 신수(神秀)는 점오(漸悟)를 주장했다. 역사상 그들 두 사람은 불학(佛學)에서 아주 장시간 논쟁을 벌였으며, 논쟁하고 또 논쟁했다. 나는 의의가 없다고 말한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가리킨 것은 단지 수련과정 중에서 어떤 이치에 대한 인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이치를 어떤 사람은 단번에 인식했으며,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깨닫고 천천히 인식했다. 어떻게 깨달았든지 안 될 것이 있는가? 단번에 인식하면 더욱 좋고 천천히 깨닫는 그것도 되는데, 모두 깨달은 것이 아닌가? 모두 깨달은 것이므로, 어느 것도 괜찮다.

대근기지인(大根器之人)

무엇이 대근기지인(大根器之人)인가? 대근기지인과 근기(根基)가 좋고 나쁨은 여전히 구별이 있다. 이런 대근기지인은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모두 상당히 긴 역사시기를 거쳐서

야만 비로소 한 사람이 출생할 수 있다. 물론 대근기지인은 우선 반드시 아주 큰 德(덕)을 구비해야 하며, 이런 백색물질장(白色物質場)이 상당히 커야 하는데, 이 점은 확실하다. 동시에 그는 또한 고생 중의 고생을 겪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대인지심(大忍之心)이 있어야 하며, 또한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德(덕)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오성(悟性)이 좋아야 하는 등등이다.

무엇이 고생 중의 고생인가? 불교 중에서는 사람으로 됨이 바로 고생인데, 당신이 사람으로 되기만 하면 곧 고생을 겪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것은 모든 공간의 생명체는 모두 우리 속인의 이런 신체가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고, 생로병사 문제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공간의 사람은 떠오를 수 있고 무게가 없으며 아주 미묘(美妙)하다. 속인은 바로 이 신체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나타난다: 추워도 안 되고, 더워도 안 되고, 목말라도 안 되고, 배고파도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되며, 또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있는데, 어찌됐든 당신은 편안하지 못하다.

나는 한 신문에 실린 당산(唐山) 지진 때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많은 사람이 지진 중에 죽었으나, 일부 사람들은 응급치료를 받아 살아났다. 이 부분 사람에 대해 한 차례 특수한 사회조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사망한 상태에서 모두 어떤 감각이 있었는가?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들은 모두 특수한 정황을 말했으며 또한 일치했다. 바로 사람이 죽는 그

일순간에는 두려운 느낌 없이 도리어 정반대로 갑자기 해탈감이 있고 잠재적인 흥분감이 있음을 느꼈으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단번에 신체의 속박이 없어져 가볍고도 아주 미묘(美妙)하게 뜬 것을 느꼈고 또한 자신의 신체도 보았으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공간의 생명체를 보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떠한 곳에 갔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일순간에 해탈감과 잠재적인 흥분감을 느꼈으며, 고통스러운 감각이 없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의 육신이 있다는 것이 바로 고생인데, 그러나 모두 다 이렇게 모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생임을 모른다는 것이다.

사람은 고생 중의 고생을 겪어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다. 인류의 이 시공과 더욱 큰 다른 시공의 공간 개념은 역시 같지 않은데, 우리 이쪽의 한 시진(時辰)은 두 시간이며, 바로 그의 그 공간의 1년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러운 환경하에서 연공(煉功)하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며, 이 사람이 도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어 수련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극히 대단하다고 한다. 이렇게 고생스러운데도 그는 아직 그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그는 여전히 수련해 되돌아가려 한다. 왜 무조건 수련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속인의 공간에서 하룻밤 가부좌를 했다면, 남들이 보고는 이 사람은 정말로 대단하다며 그는 여기에 이미 6년이나 앉아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시진(時辰)이

그쪽의 1년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류는 극히 특수한 공간이다.

어떻게 고생 중의 고생을 겪는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출근했다. 직장은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 일자리보다 사람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개혁을 하려고하고, 도급제를 하려 하므로 남아도는 인원은 물러나야 했다. 그도 그중 하나로서 단번에 밥그릇을 잃었다. 이는 어떠한 심정이겠는가? 봉급을 주는 곳이 없으니 어떻게 생활하겠는가? 다른 것을 좀 하자니 또 할 줄을 모르므로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막 도착하니 집안의 노인이 병이 나서 심하게 앓고 있었다. 조급하고 안달이 났다.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지. 겨우 돈을 빌려 병원에 입원시켰다. 집에 돌아가 노인에게 드릴 물건을 준비하려고 막 집에 도착하니 학교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이 남을 때려 다치게 했으니 당신은 빨리 가보세요. 이 일을 금방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 앉자마자 전화가 왔다: 당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물론 여러분이 이런 일과 마주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인은 이런 고생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생각한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하겠는가. 밧줄이나 찾아 걸자. 살지 않겠다! 죽으면 만사가 끝이다! 나는 사람이 고생 중의 고생을 겪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물론 꼭 이런 형식인 것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 心性(썩썩)의 마찰, 개인이익의 쟁탈은 이에 못지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체면

을 위해 살고 있으며, 견디지 못하면 목을 매어 죽어버리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복잡한 환경 중에서 수련해야 하며, 고생 중의 고생을 견어낼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또 대인지심(大忍之心)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대인지심인가? 한 연공인(煉功人)으로서 우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대꾸하지 않으며, 참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어찌 연공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 참음은 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나는 성격이 좋지 않다. 성격이 좋지 않으면 고쳐야 하지 않는가. 연공인은 반드시 참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단속하는 데도 화를 내며 그야말로 떠들썩한데, 당신이 자녀를 단속한다 해도 그럴 필요가 없으며, 당신 자신은 진정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좀 이지(理智)적으로 자녀를 교육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다. 작은 일마저 넘기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도 공을 자라게 하려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은 말한다: 길을 걸을 때 누가 나를 밟로 한번 차더라도 아는 사람이 없기에 이진 내가 참아낼 수 있다. 나는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한다. 장래에 어찌면 당신이 가장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뺨을 두어 번 때려 당신으로 하여금 망신을 당하게 할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이 참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 당신이 참아낼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 역시 안 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한(羅漢) 그 층차에 도달하면 어떤 일과 마주쳐도 다 마음에 두지 않고, 속인 중의 모든 일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으며, 언제나 싱글벙글하면서, 아무리 큰 손해를 보아도 싱글벙글하며 개의치 않는다. 정말로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나한의 초급과위에 도달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런 정도까지 참는다면 속인도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괴롭히기 쉽다고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속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문화 층차(層次)가 높은 사람들도 함양(涵養)을 말하며 남과 견식을 같이하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 연공인(煉功人)임에랴? 그것이 어찌 나약한 것이겠는가? 그것은 대인지심(大忍之心)의 체현이고, 그것은 견강한 의지의 체현으로서, 오로지 연공인만이 이런 대인지심이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말한다. 이런 한 마디 말이 있다: 필부(匹夫)는 모욕을 당하면 검을 뽑아들고 싸운다. 속인이라서 그건 당연하다. 당신이 날 욕하면 나도 당신을 욕하고, 당신이 날 때리면 나도 당신을 때리겠다. 그러면 곧 속인인데 그를 연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이 만약 견강한 의지가 없고, 당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 한 점을 해내지 못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대에 한신(韓信)이 있었다. 이 한신은 능력이 있고 유방(劉邦)의 대장군(大將軍)이었으며, 국

가의 동량(棟樑)이었다고 한다. 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 한신을 말하자면 어려서부터 보통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전고(典故)가 있는데, 한신이 사타구니 밑을 기어나가는 치욕을 당했다고 한다. 한신은 소년시절에 무예를 연마(練)했는데, 무예를 연마하는 사람은 늘 보검을 차고 다녔다. 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한 지방의 무뢰한이 손을 허리에 걸치고서 그가 가는 길을 막았다. 네가 보검을 차고서 뭘 하겠다는 거냐? 네가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네가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너는 내 머리를 베어봐라. 말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었다. 한신은 생각했다. 내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서는 뭘 하겠는가? 그때에도 사람의 머리를 베면 역시 관청에 신고하고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데,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그는 한신이 감히 죽이지 못하는 것을 보자 곧바로 말했다. 네가 날 감히 죽이지 못한다면 너는 내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가라. 한신은 정말로 그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나갔다. 이는 한신이 대단한 대인지심이 있고, 그가 일반 속인과는 달라서 그는 비로소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사람은 체면을 살려야 한다는, 그것은 속인의 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체면을 위해서 산다면,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겠는가? 고생스럽지 않겠는가? 가치가 있겠는가? 한신은 필경 속인이고 우리는 수련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나아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속인의 층차를 벗어남에 도달하는 것이며, 더욱 높은

충차를 향해 매진(邁進)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일과 마주칠 수는 없겠지만, 수련인이 속인 중에서 굴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에도 꼭 이보다 못하지는 않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心性(썬썬) 중의 마찰은 이것만 못하지 않으며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고 나는 말하는데,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동시에, 수련인은 또 버릴 수 있어야 하며, 속인 중의 각종 집착과 각종 욕망을 버려야 한다. 단번에는 해낼 수 없겠지만, 우리는 서서히 할 수 있다. 오늘 당신이 단번에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 곧 부처다. 수련이란 서서히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신은 느슨하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말한다: 스승님께서 수련은 서서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서서히 하자. 그건 안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해야 하며 불법(佛法) 수련에서 당신은 용맹정진(勇猛精進)해야 한다.

또한 德(더)를 지킬 수 있어야 하고 心性(썬썬)을 지켜야 하며,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제멋대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여 무엇을 할 수 없으며, 당신은 당신의 心性(썬썬)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 속인 중에서 여러분은 늘 이런 한마디 말을 듣는다: 좋은 일을 하여 德(더)를 쌓는다. 연공인(煉功人)은 德(더)를 쌓음을 말하지 않으며, 우리는 德(더)를 지킴을 말한다. 왜 德(더)를 지킴을 말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정황을 보았기 때문이다: 德(더)를 쌓는다는 것

은 속인 중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그가 만약 德(더)를 쌓고 선(善)을 행하면 내세에 잘된다. 그러나 우리 여기는 이런 문제가 없다. 당신이 수련 성취했다면 도를 얻은 것으로서, 그 생의 일이 없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德(더)를 지킴을 말하는 것은 또 한 층의 뜻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물질은 일생일세(一生一世)에 누적되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오래고 먼 연대를 거쳐서 남겨 내려온 것이다. 당신이 자전거를 타고 온 도시를 다녀도 꼭 좋은 일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날마다 이렇게 한다 해도 꼭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한 층의 뜻이 있는데, 당신이 德(더)를 쌓는다고 하자. 당신이 보기에 그 일이 좋은 일이라도 당신이 하면 곧 나쁜 일일지도 모르며, 당신이 보기에 그 일이 나쁜 일이라도 당신이 만약 상관하면 또한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당신은 그 속에 있는 그것의 인연관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률이 속인 중의 일을 상관하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 연공인이라면 바로 초상(超常)적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초상적인 사람으로서, 초상적인 이치로 당신에게 요구해야 하지, 속인 중의 이치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한 가지 일의 인연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이 일을 잘못하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위(無爲)를 말하는데,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단지 나쁜 사람을 단속하려 한다. 그러면 당신

은 가서 경찰이 되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우리 역시 당신에게 살인 방화하는 것을 보고도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여 그가 사람을 발로 차고, 그가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 것은, 어찌면 그 사람이 이전에 그에게 빚을 졌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둘은 결산을 한 것이다. 당신이 상관한다면 그들 사이는 결산하지 못해 다음번을 기다려 또다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인연관계를 보지 못해 나쁜 일을 하기 쉽고, 이렇게 하여 德(더)를 잃는다는 것이다.

속인이 속인의 일을 상관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그는 속인의 이치로 가늠한다. 당신은 초상(超常)적인 이치로 가늠해야 하는데, 살인 방화하는 것을 보고도 당신이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心性(썌썌)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체현해 낼 수 있겠는가? 당신이 살인 방화하는 것마저 상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상관할 것인가?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수련하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없다. 반드시 당신에게 안배하는 것은 아니며, 꼭 당신이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德(더)를 지킴을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당신이 그 일을 조금만 해도 어찌면 나쁜 일을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德(더)를 잃게 마련이다. 당신이 德(더)를 잃기만 하면 당신의 충차를 어떻게 위로 제고하겠는가? 어떻게 당신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겠는가?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외에, 또한 오성이 좋아야 하며, 근기가 좋으면 아마 오성도 좋을 텐데, 환경의 영향도 작용을 일으킨다.

우리는 또 말했다. 우리 사람마다 모두 안으로 수련한다면, 사람마다 모두 자신의 心性(썸썸)에서 찾고, 무엇을 잘하지 못했으면 스스로 원인을 찾아 다음번에 잘할 것이며, 일을 함에 우선 다른 사람을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사회도 좋게 변하고 도덕도 되돌아 승화되며, 정신문명도 좋게 변하고 치안상황도 좋게 변해, 또 경찰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당신이 말해 보라. 다른 사람이 상관할 필요 없이 사람마다 모두 자신을 단속하고 자신의 마음 안으로 찾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현재 법률이 점차 완비되어 가고 점차 완벽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여전히 나쁜 짓을 하는가?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는가? 바로 당신이 그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나쁜 일을 할 것이다. 만약 사람마다 모두 내심을 향해 수련한다면, 그럼 확연히 달라진다. 또 당신이 불공평한 일에 대해 나설 필요도 없다.

법은 이 한 층까지만 말할 수 있을 뿐이며, 더욱 높은 것은 당신 자신에 의거해 수련해야만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제출함에 제출할수록 더욱 구체적인데, 만약 생활 중의 문제를 모두 나에게 해답하라고 한다면, 당신 자신은 또 무엇을 수련하겠는가! 당신은 자신이 수련해야 하고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데, 모두 내가 말한다면 당신이 수련할 것이 없

다. 다행히 대법(大法)을 이미 전했으므로 당신은 대법(大法)에 따라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법을 전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남겨주어, 여러분이 앞으로 수련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지도할 법이 있게 하려 한다. 법을 전하는 전반 과정 중에서 나는 역시 여러분을 책임지고, 동시에 역시 사회를 책임짐에 의거해 하였으며, 실제로 우리는 역시 이 원칙에 따라 했다.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나도 말하지 않겠지만, 자연히 공론(公論)이 있을 것이다. 나의 소원은, 대법(大法)을 전하여 우리의 더욱 많은 사람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진정으로 수련하려는 사람이 법에 따라 위로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시에 법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또 사람이 되는 이치를 말했는데, 당신들이 학습반에서 돌아간 후에 설령 대법(大法)에 따라 수련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저한도로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는 유익한 것이다. 사실 당신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지를 이미 알았기에, 돌아간 후에 당신 역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법을 전하는 과정 중에 역시 순조롭지 못한 데가 있었으며, 여러 방면의 교란 역시 아주 컸다. 주최기관과 각계 지도자들

의 강력한 지지와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학습반은 비교적 원만하게 열렸다.

학습반을 여는 중에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고층차로 수련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설법 중에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말한 것은 매우 명료하며 현대과학과 현대 인체과학을 결합하여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말한 층차도 대단히 높다. 주로 여러분이 장래에 진정하게 법을 얻고 수련해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나의 출발점이었다. 우리가 법을 전하고 공을 전하는 과정 중에 많은 사람이 법은 역시 매우 좋다고 여기지만, 하려면 아주 어렵다고 한다. 사실 나는 어렵고 어렵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는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속인으로서 수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수련이 그야말로 너무나 어렵고 불가사의하며, 수련 성취할 수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는 속인이라, 그는 수련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그는 아주 어렵다고 볼 것이다. 노자는 말했다. “상사(上士)가 도(道)를 들음에 근면히 행하고, 중사(中士)가 도를 들음에 있는 듯 없는 듯하며, 하사(下士)가 도를 들음에 대소(大笑)하거니, 웃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도다.”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는데 아주 쉬운 것으로서, 무슨 너무 높아서 오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사실 여기에 자리한 많은 노수련생과 오지 않은 노수련생은 이미 상당히 높은 층차로 수련되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것을 말

하지 않은 것은 당신에게 집착심, 득의양양해하는 등등의 요소가 생겨, 당신의 공력이 위로 자람에 영향 줄까 우려해서다. 진정하게 수련을 결심한 사람으로서, 그가 참고 견딜 수 있고, 각종 이익 앞에서 이 집착심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그것을 아주 담담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 이른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법을 수련하는 그 자체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충차를 제고하는 자체도 무슨 어려울 것이 없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여 그는 비로소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실 이익 중에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이 이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겠는가? 그는 어렵다고 여기는데, 실제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을 때, 이 화를 참아내지 못하며, 심지어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간주하여 대할 수 없다면, 내가 말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과거에 수련할 때에 많은 고인(高人)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難忍能忍, 難行能行).” 사실 바로 이러한데 여러분이 돌아가서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무방하다. 진정한 겁난(劫難) 중에서 또는 관(關)을 넘는 중에서 당신은 시험해 보라. 참기 어려운 것을 당신은 참아 보고, 보기에 안 되고 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당신이 한번 시험해 보라.

도대체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고난 속에 광명이 있음(柳暗花明又一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말하면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나는 주요한 요구를 좀 제기하겠다: 여러분은 금후 수련 중에서 자신을 연공인(煉功人)으로 간주하여 진정하게 수련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나는 신, 노(新老) 수련생이 모두 대법(大法) 중에서 수련할 수 있고, 모두 공성원만(功成圓滿)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시간을 다그쳐 착실히 수련하기를 희망한다.

『전법륜』은 문장의 표면에서 화려하지 않으며, 심지어 현대어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만약 현대어법으로 이 한 권의 대법(大法)을 정리한다면 엄중한 문제가 나타날 것인바, 문장의 언어 구조는 규범적이고 멋지지만 도리어 더욱 깊고 더욱 높은 내포(內涵)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대의 규범적인 어휘는 대법(大法)의 더욱 높고 부동(不同)한 층차(層次)의 지도와 법의 매 한 층의 표현, 수련생의 本體(번티)와 공의 연화(演化)와 제고, 이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에 이르기까지 전혀 표현(表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리홍쓰(李洪志)

1996년 1월 5일

『전법륜』에 나오는 法輪大法(파룬따파) 전문용어 발음 표기

1. 法輪(파룬) : fǎ lún
2. 法輪功(파룬궁) : fǎlúngōng
3. 法輪大法(파룬따파) : fǎlúndàfǎ
4. 法輪修煉大法(파룬슈옌따파) : fǎ lún xiūliàn dàfǎ
5. 法輪世界(파룬쓰제) : fǎ lún shìjiè
6. 眞(쩐)·善(싼)·忍(런) : zhēn·shàn·rěn
7. 心性(씬씽) : xīnxìng
8. 德(더) : dé
9. 元神(웬션) : yuán shén
10. 主元神(주웬션) : zhǔ yuán shén
11. 副元神(푸웬션) : fù yuán shén
12. 主意識(주이스) : zhǔ yìshí
13. 副意識(푸이스) : fù yìshí
14. 氣機(치지) : qì jī
15. 本體(번티) : běntǐ
16. 世間法(쓰젠파) : shìjiān fǎ
17. 出世間法(추쓰젠파) : chū shìjiān fǎ
18. 定(땡) : dìng
19. 眞體(쩐티) : zhēntǐ
20. 功身(궁션) : gōng shēn

■ 본 저서에 나오는 法輪大法(파룬따파) 전문용어는 한자로 표기하고 중국어 발음을 괄호 안에 표기하였는바, 독법상 중국어 발음으로 읽어야 한다.